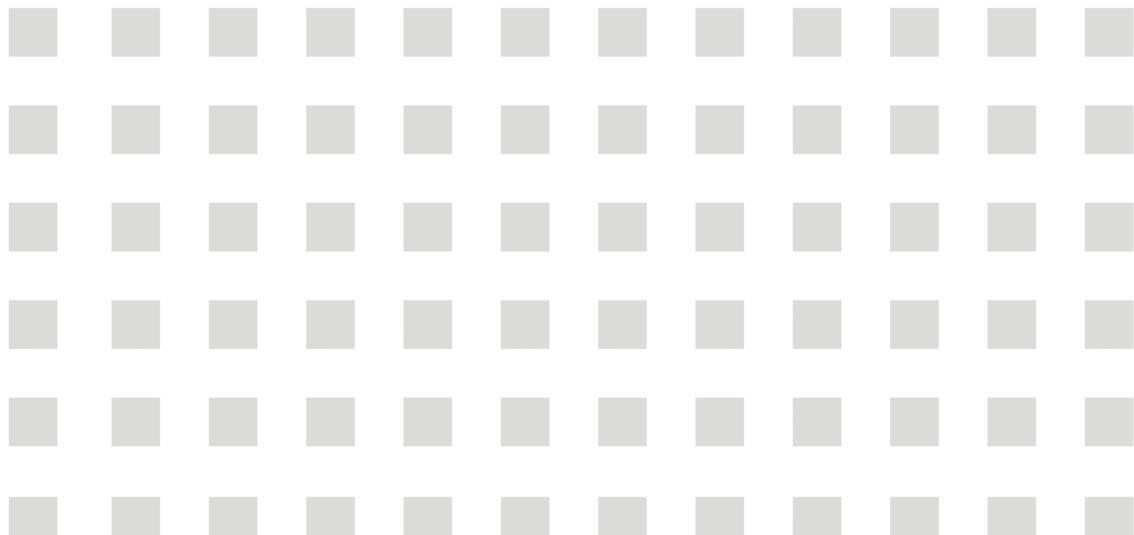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문화 조사연구

—
진관훈 · 강만익



발간사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문화 조사연구』는 진관훈·강만익 박사가 제주학연구센터의 ‘2022년 제주학 연구비 자유주제 공모’ 과제에 선정되어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성과물입니다.

제주도 화전은 고려 시대 중간구목장지대 설치와 농경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합니다. 고려 충렬왕 2년, 제주에는 한라산을 둘러싸고 국영목장이 설치되어 넓은 목장지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제주도민 증가로 식량 확보에 대한 부담이 늘어, 조선 세종 때 목장을 농경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화전을 개간하기에 이르렀는데, 화전을 개간하기 위해 중산간 지대 이주민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화전동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899년 봉세관 강봉현이 화전세 징세 자료로 작성한 『제주삼읍공토조사성책』에 의하면, 제주시 영평, 월평, 용강, 명덕(명도암), 교래, 교래경, 안좌, 오등, 어음, 어도에서 화전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내 옛 화전마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화전민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도 농경에 필요한 소와 말을 길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의 옛 화전마을별로 ‘방애(화입)’, 숯 굽기, 목축문화 등 화전민의 다양한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제주 화전민과 화전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 제주민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연구를 토대로 하여 향후 제주도 화전민과 화전문화에 대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다크 투어리즘 등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를 위해 애쓰신 연구책임자 진관훈 박사님과 공동연구원인 강만익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연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지원사업을 책임진 우리 센터 고은솔 연구원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2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목 차 CONTENTS

I. 문제 제기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3
II. 제주도 화전의 역사적 변천	5
1. 제주도 화전의 역사적 변천	5
2. 제주도의 화전 농업	19
3. 제주도의 화전민	27
III. 제주도 화전과 화전마을	40
1. 제주도 화전과 화전마을	40
2. 화전세와 마을 유래	50
3. 잃어버린 화전마을	106
IV. 제주도 화전 생활사	137
1. 제주도 목축문화	137
2. 제주도 화전민의 숯 굽기	146
3. 제주도 화전민의 생활과 문화	149
V. 활용방안 및 정책제언	152
1. 제주도 화전에 대한 역사적 의미 찾기	152
2. 제주도 화전 문화콘텐츠 발굴	153
3. 화전 문화체험과 잃어버린 화전마을 탐방 프로그램 개발	165

표차례

〈표 2-1〉 제주군 화전 면적 6개년 대조표	15
〈표 2-2〉 제주도의 지대별 경지분포	19
〈표 2-3〉 제주도 산간지대의 작부방식	20
〈표 2-4〉 제주도 중간지대의 작부방식	21
〈표 2-5〉 산간지대의 윤작 체계	23
〈표 2-6〉 제주도의 지대별 경지 휴한 상황	24
〈표 2-7〉 한국화전 농업의 작부방식	25
〈표 3-1〉 화전 관련 제주 도내 마을 지명	40
〈표 4-1〉 제주도의 목축력	137

그림 차례

〈그림 2-1〉 『제주군읍지』 「제주지도」(1899) 9개 화전동	30
〈그림 2-2〉 7 소장 내 상천리, 8 소장 위 녹하악 일대 화전마을(1918)	33
〈그림 2-3〉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서쪽 화전 터	34
〈그림 5-1〉 산장질목(1774)에 등장한 녹산장과 갑마장	161
〈그림 5-2〉 동홍동 화전토지 매매문서(1911)	162
〈그림 5-3〉 화세 영수증(1910.12.13.)	164
〈그림 5-4〉 화세 영수증(1910.12.15.)	164
〈그림 5-5〉 「濟州郡各公土調查成冊」(1900)에 기록된 화전과 도전	164
〈그림 5-6〉 도내 일어버린 화전마을 분포도	168

연구요약

I . 문제 제기

- 화전(火田)은 산간지대나 고원 지역을 불태운 뒤 밭으로 만들어 농사짓는 원시 농경 방식의 하나이다. 미개간지나 휴경지를 새로 개간하여 경작할 때 불을 놓아 풀이나 잡목을 태워 버리는 가장 오래된 개척형 농사방식이다. 화전 농사는 농업의 시작이요, 농경문화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제주인은 화전민의 후예이며 화전민의 피가 제주도민 핏줄 한 가닥에 흐르고 있다.
- 과거 화전 밭을 경작했던 화전민들의 주거, 생산도구, 문화 등을 통해 그들이 협업하여 살아가는 공동체 모습, 화전지역에서 생긴 독특한 노동협동 체제, 제주 지역 특유의 농사와 목축 교체 생산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생활문화 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신라 시대 이후 나타났다고 추측되는 한국의 화전 농업이 제주도 자연조건, 지리적 환경, 농업기술 변천에 따라 어떻게 적응하며 변모해 왔는가, 그리고 그 원형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에 관한 조사와 이론적 고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이 연구는 제주도 화전이 제주지역, 제주도 주민의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떠한 생산 요소였나 하는 점을 살펴보자 한다. 구체적으로 화전세, 농업 생산형태, 재생산체제, 생존을 위한 경제순환체계 등을 포함한 화전마을의 사회 경제 구조를 살펴보려 한다.
- 그리고 제주지역 화전이 제주 역사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삶의 요소였는가 하는 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화전 농업이 제주도의 자연조건, 지리적 환경, 농업기술 변천에 따라 어떻게 적응하며 변모해 왔는가, 그리고 그 원형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이어 한반도의 다양한 화전 농업 이론과 존재를 고찰한 뒤, 제주도 화전 농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경작방법, 그 속에 살아왔던 화전민의 생활 풍속, 문화, 민속 등을 되새겨 보겠다.

II. 제주도 화전의 역사적 변천

- 1987년 소농(素農) 오문복(吳文福) 선생은 “우리 제주인은 화전민의 후예인 셈이요, 또 화전민의 피가 우리의 핏줄 한 가닥에 흐르고 있다고 봐도 망언이 아닐 것이다. 화전이야말로 아무런 꺼릴 것도, 구애받을 일 없는 순박하고 무구한 착하디착한 자연인 그대로의 삶이었다.”라고 하여 제주 농경문화의 뿌리가 화전이며 모든 제주인은 다 화전민 후예라고 자부한다 주장했다.
- 김상호 교수는(1979) 생태학적 농경문화 연구에서, 화전 농업의 원류로 근재형(根裁型) 화경(火耕) 농업이 존재했다며 제주도의 ‘우녕 밭’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제주도 우녕 밭이 화경 농업의 정원경작에 대비된다. 이는 여자 농경 활동과 남자 어로작업 분업에 있어 동남아시아 경우와 비슷하다.
-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제주도 화전의 가장 의미 있는 기원은 경목 교체 방식과 아울러 고려 시대 목장설치라고 생각된다. 고려 시대 중간구목장지대 설치와 중간구목장지대의 농경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제주도 화전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구목장지대 설치와 중간구목장지대 농경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제주도 화전 기원의 실체를 찾을 수 있다.
- 탐라에서 삼별초 군을 평정한 몽고는 충렬왕 2년 제주에 목장을 설치했다. 한라산 허리를 돌며 국영목장이 설치됨으로써 목장지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제주도 전역을 방복지로 경영하다 보니 도민 식량 확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고 이에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조선 세종 때 한라산목장과 구목장을 풀어 경작하게 하자는 건의가 생겨났다. 넓은 지역 필요로 하는 방목 중심 경영은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식량 확보 차원에서 농경지화 했기 때문이다.
- 이후 19세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중산간 지대 목장전과 화전을 개간해 나갔다. 원래 중산간 지대는 국마를 양성하는 목장으로 경작이 엄하게 금지되었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목장전과 화전 경작이 허용되었다. 이로 인하여 19세기 중반 이후 화전을 개간하려 중산간 지대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갔고 이에 따라 화전동(火田洞)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 화전은 중산간 지대의 숲이나 나무를 불태워 경작하는 토지로 만약 매년 경작하면 정규 전세 부과 대상이지만 부정기 경작을 할 때는, 경작할 때만 납세하는 수기수세(隨起隨稅)의 대상이다. 이 세목이 바로 ‘목장세(牧場稅)’, ‘가경세(加耕稅)’,

‘화전세(火田稅)’이다. 1894년 공마 제도가 폐지되면서 목장토 개간이 더욱 활발하여지면서 제주도 전 중산간 지역에 띠를 두르듯이(이를 말발굽형이라고도 함) 화전이 확대되어 갔다.

- 일제강점기초에도 화전이 계속되었다. 당시 화전 면적은 1919년 2,004단보이었으며, 이후 점차 감소해 1924년에는 1,413단보로 나타났다. 조선총독부가 1926년 발간한 공식 자료를 통해 제주도 화전이 적어도 1924년까지는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III. 제주도 화전과 화전마을

- 1899년 봉세관 강봉현이 화전세 징세 자료로 작성한 『제주삼읍공토조사성책, 州山場新起火田株』에 의하면, 영평(寧坪), 월평(越坪), 용강(龍崗), 명덕(明德, 명도암), 교래(橋來), 교래경(橋來境), 안좌(安坐境, 가시리), 오등(吾等境), 어음(於音境), 어도(於道境, 봉성리)에서 화전세(火粟田) 징수하였다.
- 1899년 봉세관 강봉현이 공토(公土) 집세(執稅)를 위해 작성한 『대정군각공토조사성책(大靜郡各公土調查成冊)』 보면, 상천(上川境), 광평(廣坪境), 광청(光淸境), 서광청(西廣淸), 영남경(瀛南境)에서 목장세, 안성(安城), 덕수(德修), 도순(道順), 강정(江汀)에서 사장(射場稅), 칠소폐장향교(七所廢場鄉校), 단산원향교(單山員鄉校), 범질원향교(犯叱員鄉校)에서 지세를 징수했다.
- ‘제주 4·3’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난민정착 복구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원래 마을주민들이 복귀하지 않아 현재 폐허가 되어 버린 마을들이 제주 도내 곳곳에 생겨났다. 바로 ‘잃어버린 마을’이다. 제주에서 ‘잃어버린 마을’이란 ‘제주 4·3’ 때 심한 피해 마을 가운데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아 마을이 이전처럼 복원되지 못해 황폐화하거나 단순 농경지로 바뀌면서 그 이상 마을공동체가 존재하지 않고 사라진 경우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잃어버린 마을’에는 지자체와 마을에서 건립한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있다. 간혹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없는 자연 마을에는 자체적으로 ‘흔적비’ 같은 표석을 세워 사라지는 역사적 기억을 각인시키고 있다.
- 2021년 ‘제주 4.3 연구소’의 추가진상 조사 결과, 2019년 현재까지 제주 도내에서 총 134개 잃어버린 자연마을이 확인되었다. 지역별로 제주읍이 34개로 가장

많고, 다음 애월면(29개), 조천면(15개), 남원면(12개), 안덕면(12개), 한림면(11개), 구좌면(8개), 중문면(7개) 순이다. 이밖에 대정면, 표선면 각각 2개, 성산면, 서귀면 각각 1개 잃어버린 자연마을이 확인되었다.

IV. 제주도 화전 생활사

- 공동목장에서 목야지 불 놓기를 ‘방애’라 한다. 제주에 오름과 산야가 많아 좋은 경작지를 구하기 어렵고 우마 사육을 방목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위해 서는 어쩔 수 없이 목장에 화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방애는 경작을 목적으로 불 놓아 밭 일구거나 방목 목적으로 불 놓아 초지 개량하는 일을 말한다. 전자를 화전, 후자를 방애 혹은 ‘들불 놓기’라 한다. 화전은 개별적이며 소규모로 불을 놓아 밭을 일구는 경우를 말한다. 들불 놓기는 공동이며 대규모로 불을 놓아 초지를 마련한다.
- 테우리는 목축에 종사하는 목자, 목동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몽골어에서 유래한 용어라고 한다. 이들은 전문 목축기술을 가지고 광활한 목장 초지대를 누비며 우마를 방목하면서 제주도 전통 목축 목화를 만들어냈다. 테우리들은 관리하는 가축 종류에 따라 소 돌보면 소 테우리, 말 돌보면 말 테우리라 부른다. 그들은 자기 소유 우마 키우는 경우, 일정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 우마 키우는 경우, 마을 공동목장에 고용되어 우마 키우는 경우로 구분된다.
- 제주도에서 오래전부터 숯 구워왔다. 일반 용도인 연료용에서부터 취사 난방용, 건조, 탈취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 한라산에서부터 해안마을까지 판매용, 자급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숯이 구워졌다. 일반적으로 보리, 조 수확 또는 출 베기가 끝나 숯을 만든다.
- 화전민들은 단백질 섭취와 텔가죽을 얻기 위해 틈틈이 사냥했다. 사냥꾼은 “사농 바치”, “산쟁이”, “산포수”라고 부르기도 했다. 사농바치들은 산속 지리, 날씨 변화, 산짐승의 서식지와 속성 등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 화전 민들은 혼자 사냥개 한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총이나 올가미, 뒷, 창 등 도구 이용해 사냥했다.

V. 활용방안 및 정책제언

- 제주지역 화전과 화전민을 바탕으로 하는 제주 화전 문화의 발굴과 적용은 크게 문화콘텐츠 발굴과 다크 투어리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화콘텐츠 발굴은 역사와 문화, 문화자원과 IT 기술,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등을 융합한 문화산업,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 제주 화전과 화전마을을 고유한 제주의 역사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주 화전과 화전마을을 제주의 고유한 역사자원으로 삼아 문화콘텐츠 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전마을 복원이나 화전(농경)체험관 설치, 화전 문화 축제 등이 시급하다. 이를 통하여 화전 문화와 화전 농경을 체험할 수 있다.
- 화전민들이 살던 농막 같은 주거 생활, 메밀 등 식생활, 테우리, 방애, 숯 굽기, 사농바치, 약초 캐기 같은 부업활동 등을 체험함으로써 제주 화전과 화전 문화에 대한 역사 인식을 넓힐 수 있다.
- 화전민 문화콘텐츠 제작은 화전 개척 방식과 농업문화 콘텐츠 자료, 화전민 목축 문화콘텐츠 자료, 화전민 숯 굽기 문화콘텐츠 자료, 화전민 약초 문화콘텐츠 자료, 화전민 촌락과 가옥문화 콘텐츠 자료, 화전민 음식문화 콘텐츠 자료, 화전민 복식문화 콘텐츠 자료 등을 발굴하여 콘텐츠화할 수 있다.
- 그리고 화전민 목축문화 콘텐츠 제작도 가능하다. 국마장과 화전 콘텐츠 자료, 산마장과 화전 콘텐츠 자료, 상잣성과 화전 콘텐츠 자료, 밭갈쉐, 번쉐, 삼쉐 콘텐츠 자료 등을 기반으로 제주지역 화전 문화를 입체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화전민 생활사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남아있는 화전민 전설이나 민담, 경험 등을 토대로 당시 화전민 생활을 이야기로 펼쳐내야 한다.
- ‘제주도 화전 문화의 발굴과 활용’의 또 다른 영역은 다크 투어리즘이다. 제주 지역의 화전, 화전민, 화전마을이라는 역사문화자원을 ‘읽어버린 제주 화전마을’로 복원하고 ‘제주 화전길’을 조성함으로써 제주 화전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근현대 제주역사의 정체성과 역사를 올바로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I. 문제 제기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화전(火田)은 산간지대나 고원 지역을 불태운 뒤 밭으로 만들어 농사짓는 원시 농경 방식의 하나이다. 미개간지나 휴경지를 새로 개간하여 경작할 때 불을 놓아 풀이나 잡목을 태워 버리는 가장 오래된 개척형 농사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화전 농사는 농업의 시작이요, 농경문화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제주인은 화전민의 후예이며 화전민의 피가 제주도민 핏줄 한 가닥에 흐르고 있다.
- 화전 농업의 기술실천 과정에는 고대 이동 농경 중심의 자연적응과 자연이용 지식이 숙 전지(熟田地) 농업기술과 다른 체계로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영농지식은 오랜 세월 걸쳐 사회·경제적 조건이 열악했던 농민들 사이에서 경험적으로 축적되며 전승되었다. 화전 농업에는 수렵이나 채집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이행한 초기 집단 인력노동 위주 농업문화와 기술, 지식이 많이 남아있다.
- 이뿐 아니라 과거 화전 밭을 경작했던 화전민들의 주거, 생산도구, 문화 등을 통해 그들이 협업하여 살아가는 공동체 모습, 화전지역에서 생긴 독특한 노동협동 체제, 제주지역 특유의 농사와 목축의 교체 생산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생활문화 등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주지역 화전, 화전마을, 화전민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은 매우 낮은 편이다.
- 특히 신라 시대 이후 나타났다고 추측되는 한국의 화전 농업이 제주도 자연조건, 지리적 환경, 농업기술 변천 따라 어떻게 적응하며 변모해 왔는가, 그리고 그 원형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에 관한 조사와 이론적 고찰이 안타깝게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우선 제주도 화전이 제주지역, 제주도 주민의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떠한 생산 요소였나 하는 점을 살펴보기 한다. 구체적으로 화전세, 농업생산형태, 재생산체제, 생존을 위한 경제순환체계 등을 포함한 화전마을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토대로 민란과 같은 조선 시대와 구한말, 일제 강점기로 연결되는 제주도사(濟州島史)를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그리고 제주지역 화전이 제주 역사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삶의 요소였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화전 농업이 제주도의 자연조건, 지리적 환경, 농업기술 변천에 따라 어떻게 적응하며 변모해 왔는가, 그리고 그 원형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다양한 화전 농업 이론과 존재를 고찰한 뒤, 제주도 화전 농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경작방법, 그 속에 살아왔던 화전민의 생활 풍속, 문화, 민속 등을 되새겨 보겠다. 이를 통해 화전, 화전민에 대한 학계와 지역사회의 역사 인식을 가다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현재 화전이 있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전민 생활이나 문화 등 여러 면을 다시 부각하려고 화전마을 복원사업 폄고 있다. 화전민 생활상과 지역 문화 보존하는 한편 조상의 지혜와 슬기, 여유와 애환, 조상이 남긴 여러 문화유산을 역사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같은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전마을 복원사업은 산림문제 해결과 함께 그 지역 특성을 살리는 사업이다.
- 제주도에서도 이 같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겨 화전민이 지녔던 생활 문화적 요소를 화전마을 복원에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문화체험 및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화전과 화전민을 고찰한 뒤 이를 활용하여 화전마을을 복원한다면, 이 복원된 화전마을을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문화, 관광, 역사교육 등을 위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조사 연구의 단계별 과정을 충실히 거쳐 제주 화전 문화콘텐츠 개발은 물론 화전민의 생활체험, 잃어버린 화전마을 텁방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여 제주 화전에 대한 ‘잃어버린 역사적 의미와 상징’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 이 연구는 제주도 화전, 화전 농업, 화전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화전, 화전 농업, 화전민에 관한 일반적 사실을 고찰한 뒤 그 역사적 변천 과정과 경작방법, 그 속에 살아왔던 화전민의 생활 풍속, 문화, 민속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조사연구이다. 따라서 경제사, 문화, 역사, 지리, 농업, 목축업, 산림 등 관련 인접 학문의 협업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선 제주 근대경제사(화전사)와 제주역사(목축문화)를 연구한 공동연구진이 조사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지 어르신, 과거 화전 경험이 있는 현지 농민들의 구술 등을 더해 이 연구의 생명력을 북돋웠다.
- 이를 위한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시간으로 제주지역 화전이 생겨났다고 예측되는 신라 시대, 즉 제주도 초기 개척단계에서부터 제주지역에서 화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추정되는 '제주 4.3' 종반까지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역사시대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 내용으로 보면 제주도 화전과 한반도 전체 화전에 대한 비교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한국 전통 농경문화로서 화전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적응, 변모되었는가를 알아보고, 아울러 조선 왕조와 일제의 제도적 탄압에 대한 저항과 적응 반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 즉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려 한다.
- 이와 함께 화전민의 생활상과 지역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한편 조상들이 남긴 여러 문화유산을 역사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다크 투어리즘 사업을 기획하려 한다. 이를 온, 오프라인으로 화전민 복원에 활용하면, 효과적인 문화체험과 역사교육이 될 수 있다.
- 내용 구성은 2장에서 제주도 화전의 역사적 변천(화전 유래, 화전 농업, 화전민), 3장에서 제주도 화전마을(화전과 화전마을, 화전세와 제주 민란, 잃어버린 화전마을), 4장에서 제주도 화전 생활사(목축문화, 화전민의 생업, 화전민의 생활과 문화), 5장에서 활용 방안 및 정책제언(화전마을과 화전민의 삶에 대한 역사적 기억 찾기, 화전 문화콘텐츠 발굴, 화전 문화체험 및 잃어버린 화전마을 탐방 프로그램 개발) 순으로 작성했다.

2-2. 연구방법

-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화전에 관한 연구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제 강점기 한반도 지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작성된 조사보고서, 둘째, 1960년대 이후 강원도 지역의 화전 정리사업에 관한 보고서, 셋째, 주로 한국화전, 화전 농업의 지리적 분포와 화전민에 대한 역사적 고찰 논문들이다. 이외 일제 강점기 이후 제주도 관련 연구에 부분적으로 제주 화전이 소개되고 있으며 제주도 민란연구 논문에 화전세 연구가 일부 들어있다.
- 이러한 화전연구 중 김상호(1979) 연구에 제주도 화전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 있고 오문복(1987) 연구에 제주 화전민에 대한 조사와 인터뷰가 남아있을 뿐, 제주지역 화전에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조사연구에서는 화전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적응, 변모되었는가를 알아보고, 또 조선 왕조와 일제의 제도적 탄압에 대한 저항과 순응의 반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 현장조사, 심층 면접(구술조사) 등을 실시했다.
- 먼저 제주지역 화전이 제주도, 제주도 사람들의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생산 요소였는가 하는 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화전 농업이 제주도의 자연조건, 지리적 환경, 농업기술 변천에 따라 어떻게 적응하며 변모해 왔는가, 그리고 그 원형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물론 관련 고서, 지도 등을 상세하게 문헌 조사했다.
- 이어 현장조사는 구한말 기록에 나타난 옛 화전마을과 ‘제주 4.3’으로 인해 ‘잃어버린 화전마을’을 현지 조사하여 화전 흔적을 기록하고 지도에 표시하였다.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는 숯가마 터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화전마을 탐방로 개설, 숯가마 복원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다음으로 심층 면접(구술조사)을 통해, 화전 농사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나 기억 가지고 있는 과거 화전마을 거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당시 화전 농사에 대한 기억을 채록하고 범주화하여 정리한 다음, 이를 제주도 화전의 원형 발굴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했다.

II. 제주도 화전의 역사적 변천

1. 제주도 화전의 유래

- 제주도 화전에 관한 처음의 조사연구는 1987년 소농(素農) 오문복(吳文福) 선생의 글이다¹⁾. 한학자이며 제주학 기초자료 발굴의 선구자인 소농 선생의 연구에 의하면,

“태초에 신농씨(神農氏)²⁾가 쟁기(耒)와 보습을 만들었고, 후직(后稷)³⁾이가 농사를 시작 하였다고 한다. 이는 곧 쟁기와 보습을 사용한 농사는 벌써 소의 힘을 빌었다는 말이다. 그 이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농사였을까? 아마도 화전농업(火田農業)이었을 것이다. 제주도의 화전 농업은 왜정치하(倭政治下)가 되자 공토가 일본인에 의해 관리되면서 몰락하였으나 무자년 난리(제주 4.3) 때까지 일반농가에서 부업으로 남아있었다.

화전(火田) 명칭은 지방마다 다르다. 목안(현 제주시 관내) 지방에서는 ‘캐운밭’이라 하고 정의(현 서귀포시 동부)에서는 ‘남친밭’, ‘불큰밭’, 대정(현 서귀포시 서부) 지방에서는 ‘친밭’, ‘멀왓’이라 불렸다.

화전이란 ‘꽃’(叢)⁴⁾의 평지에다 불을 지른 다음 거기에 곡식을 씨 뿌려 짓는 농사이다. 한라산 밀림에다 불을 지르면 불길이 한없이 번져 산야가 전부 타버릴 것 같지만 밀림 속에는 매년 떨어져 쌓인 나뭇잎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언제나 습기가 있으므로 멀리 불이 번져 나가지 아니하고 또 나무들도 모두 낙엽수이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 놓고 불을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옛날에는 밀림이 아닌 산야에는 해충을 죽이고 부드러운 풀이 자라 우마가 뜯어먹기 편하게 하려 전부 방화하여 태웠었다.”

- 이처럼 소농 선생은 “화전 농사는 농업의 시발이요, 농경문화의 원초임을 짐작할 수 있

1) 오문복(1987), “화전민들의 생활과 경작형태”, 『星主』 3호, 高氏宗門會總本部.

2)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삼황(三皇)의 하나,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며, 팔괘(八卦)를 겪쳐 육십사괘(六十四卦)로 점을 보는 방법을 만들고, 오현금(五絃琴)을 만드는 등 농업, 의약, 음악, 점술, 경제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3) 후직(后稷)은 전설상 주나라 희씨 조상으로 신농과 함께 중국 농업 신으로 숭배되고 있다.

4) 한라산의 밀림

다. 가축을 사용한 경전(耕田) 이전에는 따비로 밭을 일구었다”라고 주장한다. 쟁기(耒)의 뜻도 원래는 소로 밭을 가는(牛耕) 쟁기가 아니라 손으로 밭을 가는 구부려진 나무(手耕曲木)의 뜻이다. 그러니 신농씨의 가래와 쟁기를 만들기⁵⁾ 이전에는 경작방법이 화전이다. 그리고 농기구도 ‘뫼호미’⁶⁾, 따비, 돌도끼, ‘낭갈래죽’⁷⁾들이었다.

- 이어 소농 선생은 돌도끼가 수렵에만 사용되었다고 추측하기 쉽지만 줄기가 굵은 강낭콩 넝쿨을 돌도끼로 베어냈다. 지금도 들에서 연장이 없을 때 침이나 다른 넝쿨을 돌로 잘라 쓰는 풍습이 남아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계속하여 그는 “우리 제주인은 화전민의 후예인 셈이요, 또 화전민의 피가 우리의 핏줄 한 가닥에 흐르고 있다고 봐도 망언이 아닐 것이다. 화전이야말로 아무런 꺼릴 것도, 구애받을 일도 없는 순박하고 무구한 착하디착한 자연인 그대로의 삶이었다.” 라고 하여 제주 농경문화의 뿌리가 화전이며 모든 제주인은 다 화전민의 후예라고 자부한다.
- 그 근거로, “세상이 문명하고 인지가 발달 됨에 따라 무위이화(無爲而化)⁸⁾하던 화전민들도 점점 사라져갔고 그와 비례하여 ‘꽃(叢)’ 속의 순풍도 변하여졌다. 씨 뿌려 얻어지면 다행이오, 얻지 못하여도 누구를 원망하지를 않았고 원망할 이유도 없었다. 화전에 씨 뿌릴 때는 꼭 얻어지기를 바라서 뿌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을에 곡식 한 알의 수확이 없어도 걱정거리가 될 수 없었다. 무엇을 얻기를 바라서 하였다가 얻지 못하면 근심거리가 되고 얻어지지 않기를 바라다가 얻어지면 또 근심거리가 됨을 화전농에서 배울 수가 있다.” 라며 제주 화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한편 김상호 교수는(1979) 생태학적 농경문화 연구에서, 화전 농업의 원류로 근재형(根裁型) 화경(火耕) 농업이 존재했었다며 제주도의 ‘우녕 밭’⁹⁾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제주도 우녕 밭이 화경 농업의 정원경작(garden cultivation)에 대비된다. 이는 여자 농경 활동과 남자 어로작업 분업에 있어 동남아시아 경우와 비슷하다.
- 계속하여 김상호 교수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 보는 탐라는 량(良) · 고(高) · 부(夫) 세 씨족집단이 분거(分居) 하는 일 · 이 · 삼도(都, 徒)가 모여 이루어진 촌락이라 근재형 화경 농업의 개척단위와 극히 유사해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토란(土卵)과 마

5) 가래와 쟁기를 만들기=작뢰사(作耒耜)

6) 뫼호미=미호미=메호미=찢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낫 비슷한 연장, 나대=나타(なた, 鈸)

7) 거친 땅을 일구거나 쟁기와 따비 따위로 갈아엎은 흙을 떠올려 두둑과 고랑을 짓는 농사 도구

8)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교화한다. 인위적인 꾸밈이 없어야 백성들이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는 말이다. 이 말은 『노자(老子)』 57장에 나온다. 노자는 이 글에서 금지하는 일이 많으면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편리한 문명의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훈미해지며, 지혜와 기술이 형상될수록 도적이 많아진다고 말하면서, 인위의 폐해를 지적하며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무위의 교화를 설명했다. ‘무위자화(無爲自化)’라고도 한다.

9) 제주도의 전통 텃밭, 우영 밭

(署)는 그간 주요 치포(治圃) 작물¹⁰⁾로 여겨져 왔는데, 이들이 근재형 화경 농업의 2대 작물인 타로, 암에 각각 대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이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 38권 제주목 건지연혁조(建治沿革條)를 인용하여 제주도 개척은 화전 농업을 축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한다¹¹⁾.

제주에는 처음에 사람이 없었는데, 한라산 산록의 모흥(毛興)이라는 땅의 혈중(穴中)에서 삼 신인(神人)이 나와 양을나(良乙那), 고을나(高乙那)라고 해서 거주가 시작되었다. 삼 신인은 황벽지(荒僻地)서 수렵을 생업으로 삼아 피의육식(皮衣肉食)을 해왔는데, 하루는 자주색 진흙으로 봉해진 나무 상자가 바다에서 떠다니다 동쪽 바닷가에 닿은 것을 보고 가서 열어보니, 상자 안에 또 돌 상자가 있었으며, 붉은 띠와 자주색 옷을 입은 사자(使者) 한 사람이 따라 나왔다.

돌 상자를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망아지와 송아지(駒犢)들과 오곡(五穀)의 종자가 나왔다. 사자가 “우리는 일본 국의 사신입니다. 우리 왕이 이 세 딸을 낳고는, ‘서해(西海)의 중약(中嶽)에 신자(神子) 세 사람이 내려와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구나’ 하고는 저에게 분부하여 세 딸을 모시고 여기에 오도록 한 것입니다. 마땅히 배필로 삼아 대업을 이루십시오.”라 말한 후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세 사람이 나이 순서에 따라 세 여자를 나누어 아내로 삼고서, 샘이 달고 땅이 비옥한 곳으로 가서, 화살을 쏘아 땅을 점치고는 양을나가 사는 곳을 제일도(第一都)라 하였고, 고을나가 사는 곳을 제이도(第二都)라 하였으며, 부을나가 사는 곳을 제삼도(第三都)라 하였다. 비로소 오곡을 파종하고 구독(駒犢)을 목축해 이에 족인(族人)과 생업이 나날이 번성해 갔다.

고을나 15대손인 고후삼 형제가 배를 만들어 타고서 강진(康津) 땅인 탐진(耽津)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는 신라 시대라 고후삼 형제는 곧 신라왕과 만나게 되었고 이를 기뻐 한 왕은 그들에게 각각 성주 · 왕자 · 도내(都內)의 호칭을, 또 거주 읍 호를 처음 내박(來泊)한 곳이 탐진임을 참작해 탐라(耽羅)라는 읍 호를 각각 사(賜)했다.

- 이어서 보면, 신라와의 관계가 시작될 무렵 제주도는 제주읍 등 일부 지역에서 농업 정주가 이루어졌고, 이 지역을 고 씨라는 존장(尊長)이 통솔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삼분되어 각각 동일 씨족에 의해 분거 하고 있었다. 주변 촌락에는 농경 양축지(養畜地)가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토지이용 역시 경목교체방식(耕牧交替方式)¹²⁾이 진행되

10) 채소류와 화초류·담배·약초류

11) 김상호(1979), “한국 농경문화의 생태학적 연구”, 『서울대 논문집』 제4집, p. 96.

12) 농경과 목축, 방목을 동시에 혹은 번갈아 가며 행하는 생산양식, 이는 제주지역 잣성(場城)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름에는 중잣성 위로 우마를 올려 방목한 뒤 중잣성 아래 하잣성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다시

었다고 추측된다.

- 이뿐 아니라 당시 그런 농경을 이끈 생업단위가 정주 가구라 씨족 단위가 기능하였다. 나아가 탐라같이 씨족 단위를 모은 촌락 단위를 기반으로 다시 기능하는 형식이었다고 보아 진다. 이는 지연적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근재형(根裁型) 화경 농업의 개척 거주단위와 유연 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¹³⁾. 그리고 이런 지연공동체에서 가족 중심 개척 단위가 분화되면서 거주지 주변에서 이루어져 개척형 화전 농업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제주도 초기개척은 신라 시대는 물론 그 이전에도 화전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고려사고기(高麗史古記)』를 인용하여, 제주도 주민들의 농업 정주가 이루어지고 촌락이 형성되고 난 뒤 촌락 주변에는 농경 목축지가 분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촌락 주변 농경 목축지가 어떻게 경영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경목교체방식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당시 토지이용 역시 경목교체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할 뿐이다.
- 당시 농경을 이끈 생산단위는 정주 가구이면서 씨족 단위가 기능하고 있었다. 나아가 정주지 주변의 윤경(輪耕) 화전 확대를 가져오는 형태에 앞서, 1차적으로 이동에 의한 거주 정착과 경지 개간을 이루는 화전경영 단계가 있었다. 후자를 씨족 단위 이상의 촌락 단위가 이끌었다. 이는 지연적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근재형 화경 농업이 개척 거주 단위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지연공동체에서 가족 중심 개척단위가 분화되며 거주지 주변에서 이루어진 형태가 제주도에 있었던 개척형 화전 농업이라고 짐작된다¹⁴⁾.
- 이후 제주도 화전 진행 과정 역시 한라산 목장지대에 대한 농경지화 정책으로 경목교체 방식이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목 교체 사례는 농경 진화단계에서 매우 흥미로운 경우이다(久間健一(1946)).
- 다음으로 2019년 박정재 · 진종현은¹⁵⁾ 물영아리오름¹⁶⁾ 화구호 습지 깊이 4m까지 퇴적

하잣성으로 우마를 내린다. 토지이용의 방식으로만 보면 삼포식과 유사하지만, 농업에 있어 우마의 결합방식으로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13) 김상호(1979), 전개 논문, p. 101.

14) 제주도 마을은 씨족이나 혈족 단위가 아니라 '본향당' 중심이라는 점도 이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

15) 박정재 · 진종현(2019), “제주 중산간 지역의 과거 경관 변화와 인간 그리고 오름의 환경사적 의미”, 『대한지리학회지』 제54권 제2호, pp. 153~163.

16) 물영아리는 해발 508m로 '수령산' '수령악'으로 불리며 '물의 수호신'이 산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으로 산 정상 둘레 약 1km, 분화구 깊이 40여m, 2100~2800년 전에 퇴적된 습지 퇴적층의 깊이가 최대 10m에 이르는 습지 오름이다. 또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 식물은 82과 198속 등 304 분류군과 총 202종의 야생 동물과 으름난초·백운란·팔색조·삼광조·말똥가리 등 멸종위기종 6종이 서식하고 있다. 물영아리오름 습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2006년 국내 5번째로 람샤르 습지로 지정된 곳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물을 확보해 2cm 간격으로 화분과 세립 탄편¹⁷⁾을 분석했다. 그 결과, 탄편 유입량이 1150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1250~1300년 정점을 보인 뒤 감소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려 말 중국 원나라가 제주에 주둔해 목마장을 조성하면서 중산간(해발 200~600m)에 불을 질러 나무를 없앤 대규모 화입(火入) 때문으로 파악된다.

- 이 분석결과 토대로 화전 농경으로 이미 조성된 초지가 목축에 적합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우마 사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김상호(1979)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상호는 화전 농경으로 조성된 초지를 몽골인이 목장으로 이용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원 점령 이전 이미 제주도에서는 목축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 점령 이전부터 존재했던 초지는 일부 화전에 의해서 일수도 있지만 주로 목축 결과라고 생각 된다고 하였다.
- 당시 제주 농경민들은 화전 농경을 통해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기 힘들었다고 보아 진다. 상당수가 농경기술을 버리고 대신 어로나 수렵채집으로 생활을 영위했을 가능성 이 크다. 농경을 포기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중산간 지대에 점점이 분포하고 있는 초지 오름을 보면서 목축의 가능성을 발견했을 수 있다. 이후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가축 수 요가 증가하면서 오름뿐 아니라 중산간 전체에 방목 필요성이 강력하게 생겨났다. 이로 인하여 인위적 대형 화입이 이어졌다고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다.
- 1105년(고려 숙종 10년) 고려의 군현 체제로 편입되었다. 1153년(고려 의종 7년) 본격적으로 현령관이 본토로부터 파견되면서 고려 정부는 제주도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당시 늘어난 고려 조정의 조공 압박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화입이 더욱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 이 조사에 의하면, 1250년 이후 세립(細粒) 탄편 유입량이 최정점에 이르렀다. 이는 몽 골 군대가 제주도를 점령한 후 말 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화입 작업 결과로 판단 된다고 한다. 목장이 대규모로 조성되던 시기와 기후적으로 건조했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당시 사람들의 화입에 따라 환경변화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보아 진다.
- 그러나 탐라목장 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립 탄편 유입량이 뚜렷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습윤한 기후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목초지를 새로이 조성하기 위해 많은 나무를 제거해야 했던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는 이미 조성된 초지를 유지해도 목축활동을 영위하기에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후반기 세립 탄편 양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은 이 시기 광범위한 목초지 형태가 거의 갖춰졌음을 의미한다. 이후 15세기 중반 즈음 10개 목장으로 구성된 한라산목장이 중

17) 불에 탄 조각

산간 지역에 설치된다. 원 점령기에 넓은 목초지가 이미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후 대규모로 화입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외에 당시 습유했던 기후도 산불을 억누르는 역할을 했다고 보아 진다.

- 앞에서 언급한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제주도 화전의 가장 의미 있는 기원은 경목교체방식과 아울러 고려 시대 목장설치라고 생각된다. 고려 시대 중간구목장지대(中間舊牧場地帶) 설치와 중간구목장지대의 농경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제주도 화전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구목장지대¹⁸⁾ 설치와 중간구목장지대의 농경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제주도 화전의 기원의 실체를 찾을 수 있다.
- 탐라에서 삼별초군을 평정한 몽고는 충렬왕 2년 탑자적(塔刺赤)을 탐라 다루하치(達魯花赤)에 임명하고 이곳에 목장을 설치하기 시작했다(『고려사』권 57, 志 11 地理 2 탐라조). 당시 목장 설치장소는 수산평(水山坪)이었다(『동국여지승람』권 38, 濟州牧 古跡條). 이렇게 시작한 목장설치는 몽고의 의도에 따라 확대되어, 고려 성종 24년 산 중턱(山腰) 이하에 국영 10 소장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 탐라에서 삼별초 군을 평정한 몽고는 충렬왕 2년 제주에 목장을 설치(『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 38, 濟州牧古跡條)했다. 한라산 산요부(山腰部)를 돌며 국영목장이 설치됨으로써 목장지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제주도 전역을 방목지로 경영하다 보니 도민 식량 확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고 이에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 급기야 조선 세종 때 한라산목장과 구목장을 풀어 경작하도록 하자는 건의가 생겨났다. 넓은 지역 필요로 하는 방목 중심 경영은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식량 확보 차원에서 농경지화 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29일 정해 5번째 기사에, 兵曹據濟州敬差官李鳴謙啓本啓: “本州人多地窄, 若新舊牧場, 竝皆禁耕, 則居民生理可慮。請漢犧山牧場及舊牧場, 聽民耕種, 互相陳荒, 移放馬匹, 則民生馬政, 兩得其宜” 從之
- 제주도 옛 목장에서 방목을 허락할 것을 병조에서 아뢰다. 병조에서 제주 경차관(敬差官) 이명겸(李鳴謙)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주는 사람은 많고 땅은 좁습니다. 만약 신구목장을 한꺼번에 다 경작을 금지한다면 주민의 생계가 걱정됩니다. 청하옵건대, 한라산목장과 옛 목장을 백성에게 경종(耕種) 하도록 허가하고, 서로 교대하여 묵혀서 마필을 방목하게 한다면 민생과 마정(馬政) 양쪽이 다 마땅하게 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이와 관련하여 15세기, 조선 세종 때 대표적 농서인 『농사직설(農事直設)』에는 개간 및

18) 토지이용 관계를 고려해서 산간(산요, 山腰) 구(舊)화전 지대라고 함. 해안지대는 해안 농경 지대, 중간지대를 중간 구목장 지대라고 함(김상호, 1979.).

신전(新田) 확대 관심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이 농서에 황무지 개간이 다수 언급되고 있어 당시 식량 확보와 농지 확대를 위한 개간에 대한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개간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 7~8월 사이 땅을 갈아 엄초(掩草)하고, 다음 해 얼음이 풀리면 또 갈고 파종해야 하는데 초경(初耕)은 깊게, 재경(再耕)은 얕게 해야 생(生)땅이 일어나지 않고 흙이 부드럽게 익는다고 했다. 또 새로 개간한 땅의 토질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황무지를 논으로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황무지에 재배하기 적합한 작물로는 녹두와 참깨, 메밀(교맥, 蕎麥) 등이 있다.
- 이 농서에는 화경(火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농지에 풀을 펼쳐놓고 그것을 태워 거름으로 삼고 재배하는 방법을 여려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황무지를 개간하는 경우 초목을 불로 태운 뒤, 갈이 작업하고 작물 재배를 권고하고 있다. 갈이 작업에서 한전(旱田)을 첫 갈이 한 뒤 풀을 펼쳐 불에 태우고 다시 갈면 그 밭이 절로 좋아진다고 하고 있다.
- 또한 초목무밀처(草木茂密處)¹⁹⁾를 개간하여 수전으로 만들 때 ‘화이경지(火而耕之)’한다고 했다. 만종조숙(晚種早熟)하는 저무이리조(暮粟)를 ‘토후구진지(土厚久陳地)²⁰⁾ 택해 파종할 때, 5월에 풀을 베어 마르면 불 태워 나온 재(灰) 위에 파종하라 하고 있다.
- 이어 기장·콩·조·메밀 뒷그루로 양 맥을 파종할 때 그전 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긴 자루 큰 낫으로 누렇게 되지 않은 풀을 베어 밭두둑에 쌓고 그전 작물을 수확한 뒤 풀을 펼쳐 화경살종(火耕撒種)²¹⁾ 하라고 하였다.
- 메밀을 산림 비후지(肥厚地)에 화경 하여 씨를 뿌리면 수확이 통상의 배가 된다. 풀이나 초목을 불에 태워 재를 만들어 이를 거름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초목분(草木糞), 초목회(草木灰)를 시비하기도 하고, 풀(나무)을 불에 태워 만든 재를 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산림이 비옥한 땅이라면 불 지르고 난 다음 씨를 뿌리면 수확이 통상의 배가 된다. 불을 질러 초목을 재로 만든 다음 이를 거름으로 삼아 메밀을 재배하면 소출 많다²²⁾. 개간지, 척박한 밭이 메밀 재배지로 적합하다.
- 다음으로 1653년 당시 제주 목사 이원진(李元鎮)이 펴낸 『탐라지(耽羅誌)』 풍속조(風俗條)²³⁾에는,

19) 나무와 풀이 무성하고 빽빽한 곳

20) 땅이 두텁고 오래 묻은 곳

21) 불을 놓아 태우고 간 다음 종자를 뿌림.

22) 이 경우는 조파와 농종 이었음.

23) 당시 제주 목사 이원진이 전라도 제주목·정의현·대정현의 연혁·인문지리·행정 등을 수록하여 1653년 편찬한 지방

.....耽羅地瘠民貧 墾田必驅牛馬 以踏之 連耕二三年 穀穗不實 不得已又墾新田 功倍穫小 所以民多困難

탐라는 땅이 박하고 백성은 가난하여 개간하는 데 반드시 우마를 구하여 전토(田土) 해야 한다. 그래도 연경(連耕) 2~3년이면 부득이 새로운 토지를 개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은 두 배 들지만, 수확은 적어 많은 백성이 곤란에 처해 있다.

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제주도에 속전(粟田) 경작에 있어 새로운 토지를 경작할 때 우마를 구하여 전토를 답지(踏之)하는 농법이 파종 후 소나 말로 경토(耕土)를 진압(鎮壓)하는 풍습²⁴⁾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 우마를 이용하는 농경풍습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삼국지한전(三國志韓傳)』에 우마에 관한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제주도에 일찍부터 말이 있었고 이를 이용해 왔다고 짐작할 수 있다.

- 아무튼, 제주도 자연환경과 결부되어 나타난 이런 농경풍습은, 한라산 폭발에 의한 화산 회토 입자가 아주 미세하여 이곳 바람에 날리기 쉽고 수분 보전에도 부적당하여 좀 씨발아에 필요한 수분을 확보하기 위해 나타난 경토 진압 혹은 마필(馬匹) 이용이 경목교체방식의 토지이용을 촉진 시켰다고 보고 있다²⁵⁾.
- 『성종실록』 14권, 1472년 성종 3년 1월 30일 정묘 5번째 기사에,

濟州點馬別監事目: "一 濟州四面濱海, 獨一漢拏山中峙, 如二連木, 安息香, 柚子, 檳子木, 國用最切, 而皆出於此山 近來田夫厭舊務新, 斫而耕之, 實爲可慮 請令牧官親審, 定限立標, 禁耕伐, 務令滋息

제주점마별감의 사목(事目)에 이르기를, "제주는 사면이 해변이고 홀로 하나의 한라산만이 가운데에 우뚝하여 두 개의 연한 나무(連木)와 같은데, 안식향(安息香)·유자(柚子)·비자목(樅子木)은 국용(國用)에 가장 절요한 것으로, 모두 이 산에서 나옵니다. 근래에 들어 농부(田夫)들이 옛일을(본래의 토지에서 농사짓기를) 싫어하고 새로운 일에(새로운 토지를 만들려고) 힘써 나무를 베어내고 경작(개간)을 하니, 실로 염려할 만합니다. 청컨대 목관으로 하여금 친히 살피어 한계를 정하여 표지를 세워 경작(개간)하고, 벌목하는 일을 금하여 육림(滋息)에 힘쓰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다.

- 『영조실록』 13권, 영조 3년 10월 9일 신묘 4번째 기사에는,

지, 읍지, 풍속조에 외지인이 본 제주도 독특한 환경 및 풍습이 기록되어 있음.

24) 강우량이 적은 우리나라 관서 지방에서 봄철 가뭄 때에 관개시설 없이 행해지는 건조 농법, 보리나 조 등이 성장을 시작하는 봄철 토양의 수분 증발을 최소화해서 작물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소나 말로, 혹은 사람이 끄는 섬피로 땅을 밟아준다.

25) 김상호(1979), 전계 논문, p. 97.

濟州武士洪鎮夏等上疏，陳本州廢牧場起耕之請，又陳本島人收用，一如西北之例 又陳前日試才文科李龜濟拔去之冤 又請申飭二軍門將官，各一窠收用本島之人 批曰：“疏陳令該曹稟處 李龜濟事，疏請猥濫矣”

제주 무사 홍진하 등이 제주의 목장을 폐지하고 경작지로 개간할 것 등을 청하다. 제주의 무사 홍진하(洪鎮夏) 등이 상소하여 본주(本州)의 목장을 폐지하고 경작지로 개간하게 해 줄 것을 청하고, 또 진달 하기를, “본도 사람도 한결같이 서북 사람의 예에 따라 수용할 것을 청합니다.”하고 있다.

- 이 내용은 한라산목장과 구목장을 풀어 농사짓도록 하자는 의미이다. 넓은 지역을 요구하는 방목 중심으로 인하여 여말선초 제주도 인구가 포화상태에 놓이게 되자 농경지화 정책, 경목교체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있다.
- 한편 이건필(李建弼)의 『제주목안핵장계등록(濟州牧按覈狀啓謄錄)』은 1862년(철종 13년 2월), 임현대(任憲大) 목사 부임하였는데, 이때 간교한 관원들이 화전세 과중하게 책정하여 민생고가 어렵게 되었다. 이 때문에 동년 9월, 광청리 강제검(姜梯檢)과 봉개리(奉蓋里) 김홍재(金興彩) 등이 난을 일으켰다. 이에 조정에서 부호군(副護軍)인 이건필을 안핵 겸 칠리사로 파견하였다. 이 책은 그 사건의 전말을 공초(供招)²⁶⁾한 기록이다.

이건필 『제주목안핵장계등록』

罪人旌義縣西歸里玄才得 年四十三 更推 白等 汝矣前招內 以初參見於火田民倡時亂之意 納古是矣 以任順千 朴興悅 洪奉孝所招觀之 則汝矣或同謨助虐 或以罷黜二字 倡言 於稠中 或以言 語納諂於悌儉之狀 己出於諸招 雖以汝矣所招言之 當初姜悌儉發通後 聞洞任之言 越山入城之 隨往朝天里也 金旌義家舍 興船隻及浦主人夫壽彭倉吏宋信國家舍燒火事 以汝矣主張 至於捉囚受棍之境 則如無干涉 岂有是理是稱

1862년(철종 13년) 죄인 정의현 서귀리 현재득, 나이 43세, 다시 묻고 아뢰었습니다. “너희 지난번 공초 가운데 애초에 화전민들이 때에 난리를 창의하였는데, 참가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고하여 아뢰었다. 임순천, 박홍열, 홍봉효의 공초로 본다면, 네가 조학(助虐) 하는데, 같이 공모하였고 파출(罷黜) 두 글자로 여러 난민이 모인 속에 창언(倡言)하였으며 홍봉효 말을 강제검에게 일러바쳤던 모습들이 이미 여러 공초에 나와 있다.

비록 너의 공초로 말을 한다 해도 당초 강제검의 통문²⁷⁾ 발송 뒤에 동임(洞任)²⁸⁾의 말

26) 조선 시대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일, 또는 그 진술

27) 여렷이 돌려 보는 통지문

28) 동네일을 맡아보는 사람

을 듣고 한라산을 넘고서 제주 성을 들어왔다가 목사 행렬인 부수팽과 창고의 아전인 송신국의 집들이 불태워진 일로 불들리어 들어가 곤장을 맡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만약 간섭함이 없었다고 하면 어찌 이와 같은 까닭이 있겠느냐?”

여기에서 보면 화전세로 인하여 당시 화전민들과 제주 농민들이 고초를 겪었고 이로 인해 민란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 예전부터 제주도 중간지대는 수목 생장에 기본이 되는 기온이나 땅의 습기로 보아 산간 지대 못지않은 지대인 만큼(산간지대 자연식생은 삼림지대), 중간지대 이하 역시 삼림지대라고 할 수 있다. 한라산 중간지대 초지화는 인위적으로 적어도 고려 충렬왕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 인위적 초지화가 화전 농업 전개로부터 초래되었다.²⁹⁾.
- 한라산 기슭 구목장 지대 위로 올라가면 산간지대 화전지역이 있다. 여기에 예전 화전 지대가 분포한다³⁰⁾. 구목장 설치 이전 중간지대, 산간지대를 통틀어 화전 개척이 진행되어 윤경 초지대가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중간목장지대가 설치되었고 산간지대에서는 그대로 화전 농업이 반복해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자연히 중간, 산간, 해안 지대를 포함하여 제주도 개척은 화전 농업을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³¹⁾.
- 이후 19세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중산간 지대의 목장전과 화전을 개간해 나갔다. 원래 중산간 지대는 국마를 양성하는 목장으로 경작이 엄하게 금지되었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목장전과 화전 경작이 허용되었다. 이로 인하여 19세기 중반 이후 화전을 개간하려 중산간 지대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갔고 이에 따라 화전동(火田洞)이 형성되기 시작했다『제주군읍지』『제주지도』, 1899)
- 제주 무어사(撫御使) 박천형(朴天衡) 『서계(書啓)』(1777~1794년) 49~53면에 의하면, 산둔(山屯) 삼장(場)은 둘레가 구십리이고 지세가 평坦하여 물은 여섯 군데에 있고 간간이 숲이 있으나 백성들이(入耕者) 들어가 경작하는 곳도 많으니 마필이 살찌지 않고 수가 줄어 육백여 필 밖에 안 된다. 목장 범경(犯境)은 국법으로 금하는바, 제멋대로 목장 안에 들어가 경작하는 폐단을 없앨 것을 조정에 건의하고 있다.
- 당시 제주도민들은 제주도 전 지역의 목장화로 인한 토지 부족과 그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산간 구목장 지대 토지를 불법적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목장 안에서 불법으로 경작하는 토지를 ‘목장전’, ‘장전(場田)’이라 부르고 공한지나 황무지를 다시 개간, 경작하는 토지를 ‘가경전(加耕田)’이라 했다.

29) 김상호(1979), 전계 논문, p. 99.

30) 久間健一(1946), 전계서, pp. 455~456.

31) 김상호(1979), 전계 논문, p. 100.

- 이에 비해 화전은 중산간 지대의 숲이나 나무를 불태워 경작하는 토지로 만약 매년 경작하면 정규 전세 부과 대상이지만 부정기 경작을 할 때는, 경작할 때만 납세하는 수기 수세(隨起隨稅)의 대상이다. 이 세목이 바로 ‘목장세(牧場稅)’, ‘가경세(加耕稅)’, ‘화전세(火田稅)’이다. 1894년 공마 제도가 폐지되면서 목장토 개간이 더욱 활발하여지면서 제주도 전 중산간 지역에 띠 두르듯(이를 말발굽형이라고도 함) 화전이 확대되어 갔다.
- 실제로 1841년 제주 목사 이원조(李源祚), 1792~1871년)는 『탐라록(耽羅錄)』 삼천서당폐장가획절목서(三泉書堂幣場加劃節目序)에서 당시 화전세를 받아 서당의 경비로 썼다고 하였다. 이는 그 당시 제주도에서 화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 일제강점기초에도 화전이 계속되었다. 화전 면적은 1919년 2,004단보이었으며, 이후 점차 감소해 1924년에는 1,413단보로 나타났다. 조선총독부가 1926년 발간한 공식 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화전이 적어도 1924년까지는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제주군 화전 면적 6개년 대조표

(단위 : 단보, 3000평)

제주군	대정13년말	대정12년말	대정11년말	대정10년말	대정9년말	대정8년말
	1924	1923	1922	1921	1920	1919
면적	1,413단보	1,708단보	2,004단보	2,004단보	2,004단보	2,004단보

출처: 朝鮮總督府(1926), 『火田の現狀』, 대화상회인쇄소, p. 12.

- 구한 말(대한제국)과는 달리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대부터 일제는 전국에서 화전을 일구는 행위에 대해 식민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통제했다. 일제는 조선의 삼림 보호를 명목으로 관계 당국의 화입 허가를 받지 못하면 화전 경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던 빈민층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했다.
- 일제는 삼림령(1911) 제18호에 근거해 관할 경찰서에서 화입 허가증을 교부 하도록 했으며, 화입자는 반드시 화입 허가증을 휴대하도록 명시했다. 화입 허가증에는 화입 기간, 화입자 주소와 이름, 화입 장소의 행정구역, 허가 년 월일, 허가증 취급 관서를 기록하도록 했다³²⁾.

□ 이치카와 상키(市川三喜)(1905)와 제주 화전

- 이치카와 상키(市川三喜)는 「濟州島紀行」(1905년)에서 한라산 정상 등반길에 들른 능

32) 朝鮮總督府(1926), 『火田의 현상』, 대화상회인쇄소, p. 54.

화동 화전민과 화전마을에 대한 방문기억을 기록했다.

1905년 9월 11일 맑음: 어제와는 다른 방면으로 산정을 행했다. 우리 천막이 있는 협곡의 왼쪽으로 갔는데 잠시 삼림지대를 지나자 다시 조릿대가 깔린 고원으로 나온다. 오후 능화동에 가서 감자 한 말을 샀다.

9월 12일 맑은 후 흐림: 능화동 쪽으로 채집 나갔다. 도중 숯 굽는 데가 몇 군데 있었다. 아궁이 같은 것도 없고, 그저 땅바닥에 2間 정도의 움푹 패인 곳이 있을 뿐이다.

9월 13일 맑음: 능화동 주민 중에서 안내자를 고용하려고 김씨로 하여금 교섭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게을러 단 한 사람도 응해 오질 않았다. 그들은 「이 추위에 산꼭대기 에 올라갔다가는 얼어 죽는다」고 말한다. 그들 게으르고 비활동적인 백성들은 일어나서 일하기보다는 더러운 오막살이에 침거하며 담배를 피워대고 노름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인생 최상의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다.

9월 18일 흐름: 감자를 사러 능화동으로 갔다.

9월 20일 흐린 후 맑음: 10시에 능화동에 도착하여 즉시 짐을 운반할 소를 준비도록 했다. 한 마리의 소와 한 사람의 지게꾼을 빌고 나는 언제 나와 같이 담요를 짊어지고 내려갔다³³⁾.

- 능화동은 능화오름(해발 971.7m) 북사면의 완경사지 해발 900m에 있던 화전마을로, 제주도 내 화전마을 가운데 가장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다. 마을 동쪽에는 한천이 있어서 화전민들은 이 하천에서 생활용수를 얻을 수 있었으나, 깊은 계곡이 발달한 하천 이어서 접근성이 어려워 능화동 화전민들은 생활공간에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로 사용했다.
- 이치카와 상키는 1904년경 한라산 정상등반과 동물 채집에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위해 한라산 정상 바로 밑에 있었던 능화동을 방문했다. 그의 방문일지에 나타난 능화동의 모습을 보면, 첫째, 당시 능화동 화전민들은 화전에서 감자(지슬, 地實)을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발고도가 9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였기 때문에 일사량이 부족해 보리재배가 불가능했고, 화전 면적이 작아 바로 먹을 수 없었던 메밀이나 피 대신 구우면 바로 식용이 가능한 감자를 심었다.
- 둘째, 능화동 화전 가옥은 아궁이가 별도로 없었고, 땅바닥을 움푹 파서 2間 정도(정지+방)로 만든 집이며 “더러운 오막살이”에 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곳은 전체 면적이 적었기 때문에 집의 규모를 크게 할 수 없었고, 또 아궁이 없는 정지(부엌)에서 취사하

33) 市川三喜(1905), 「濟州島紀行」, 『20世紀 前半의 濟州島』, 제주시 우당도서관(1997), pp. 130~134.

고, 밤이 되면 정지와 연결된 방에서 잠을 자는 가옥구조였다.

- 셋째, 이치카와 상기 일행이 한라산 정상등반을 마치고 하산하는 길에 답사팀의 장비와 짐을 운반할 소를 능화동에서 구했다는 사실에서 능화동 화전민들은 당시 농업에 필수적이었던 소를 길렀음을 알 수 있다. 1900년대 초는 현재와 달리 능화오름 북사면 완경사지에는 식생(나무숲)이 우거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를 방목시킬 공간이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 젠쇼에이스케(善生永助)(1929)와 제주 화전

- 善生永助(1929)는 첫째, 제주의 화전은 중산간 지대에 있으며, 이곳은 현재로부터 약 30년 전(1899년경 즉 대한제국(1897.10.12.-1910.8.29.)까지만 해도 노수지(老樹枝)들이 밀림을 이뤘지만, 화전민들이 이것을 불태워 없앤 다음, 거기에 메밀, 조, 산듸 등을 2~3년 경작했다. 새로운 농경지 찾아 이동하는 화전 경작 때문에 중산간 지대 삼림이 황폐해졌다는 결론 제시한다.
- 둘째, 목장지대는 화전 지대 또는 경작지대와 접속된 부분에 형성되었다. 목장지대에서는 돌담을 쌓아 우마의 도망을 막았고, 이곳에는 상장성과 하장성이라는 돌담이 존재했다. 조선 시대 목장 제도가 부실해지면서 상장성과 하장성의 중간에 중장성이 등장한다. (제주도민들이) 중장성 하부 지대를 경작할 때는 우마들을 중장성 상부 지대에 방목했고, 중장성의 상부에서 경작할 때는 우마들을 중장성 하부에서 방목했다고 전해진다³⁴⁾.
- 셋째, 산간지대 역시 십수 년 전까지(1910년경) 화전민이 생활했던 장소였다. 1911년 까지는(화전 경작이 묵인됐던 당시) 일부 화전민이 존재했다. 산간지대의 땅은 척박하여 화전민 숫자가 적었으며, 이곳에 터를 잡았던 소수의 화전민은 화전 농업 이외에도 부업으로 땔감(나무) 팔기, 숯 굽기나 목축을 했다. 화전을 일구는 사람들이 살았던 민가도 볼 수 있었다³⁵⁾.

□ 마쓰다 이치지(株田一二)(1930년대)와 제주 화전

- 마쓰다 이치지는 첫째, 제주도의 해발 600m 이하는 화전으로 인해 불태워진 결과, 나무들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제주도 중산간의 농경지와 취락화는 지속적인 화전 경작의 산물이라고 했다. 둘째, 산간지대에 살던 화전민들은 “머리에 개털로 만든 이상한 모

34) 이를 통해 중장성(중잣성)은 적어도 1929년 이전에 축조된 돌담이었고, 목장지대 중장성의 출현은 곧 경목(耕牧) 교체형 토지이용 방식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35) 市川三喜(1905), 상계서, pp. 130~134.

양의 두건을 쓰고, 개털 외투(外套)를 입었다. 모자는 쇠털을 풀로 고정하여 만들며, 차 양은 넓고, 두터우며, 무게는 아주 가볍지만, 탄환조차 관통하지 못할 정도로 강인하다고 한다. 겨울철 화전민들은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개털로 만든 모자를 쓰고 개털 외투를 입고 생활했다고 소개한다.

- 셋째, 제주의 화전마을은 산촌(散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화전민들은 직접 불을 놓아 개간한 장소에 오막살이를 만들어 살았기 때문에 가옥의 밀집도가 낮은 산촌에 해당한다. 화전마을에서는 자급자족의 고립적 경제생활이 이루어졌고, 화전이 법적으로 금지된 후에는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며 원시적 생활을 유지했다.
- 넷째, 화전마을 사례로는 중문면 관내 상문동(上文洞), 녹하지(鹿下旨) 그리고 애월면 관내 우너동(院洞, 光濟院이 있었음) 18호, 상화전(上花田³⁶⁾) 10호(공초왓), 어음리, 대정면 고촌동(孤村洞), 한림면 상수동(上水洞)이 있었다. 화전마을 주민들은 점차 해안지대로 이동함에 따라 잔류 농가들은 산거형태(散居形態)를 보인다³⁷⁾.
- 제주도 취락의 구심적 이동(해안→산간)과 화전을 보면, 해안지대 사람들은 농경지 확보를 위해 중산간 삼림지대로 이동해 불을 놓아 화전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개간 초에는 막(幕) 또는 농막(農幕)에 거주하며 화전촌을 형성했다. 삼림지대로 인구 이동은 화전 묵인되던 조선 말기까지이며, 한 일 합방 후 화전 개척 금지되면서 구심적 이동(한라산 방향)은 거의 생기지 않았다.
- 구심적 이동은 남제주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다. 안덕면 동광리(147호)와 마전동(麻田洞)은 약 1백여 년 전 자단리 사람들이 원수악 남쪽 기슭 일대의 삼림을 개척해 농막을 만들어 살면서 만든 마을이었다. 또 감산리로부터 파생된 상천리, 천서동 역시 같은 사례이다. 조천면 교래리 중심으로 하는 감발래, 고영동, 길영동도 화전마을이다.
- 취락의 원심적 이동(산간→해안)과 화전을 보면, 조선총독부가 해발 600~800m 이상에 있었던 잔존림(殘存林)을 모두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으로 편입시킨 결과, 취락의 상승 이동 현상 즉, 화전 개척과 화전촌 형성이 중단되었다. 또 과거 화전 남벌로 수원 고갈되고, 질 나쁜 봉천수(奉天水, 빗물)를 식수로 먹어야 했던 비위생적 환경에서 벗어나 교통 편리하고 용천수 풍부해 물 걱정 없었던 해안 용천지대 향한 원심적 이동 이루어졌다³⁸⁾.

36) 간혹 '화전'의 한자어를 '火田'이 아닌 '花田'으로 표기하여 화전마을의 이미지를 미화시키려 하는 경우가 있다.

37) 株田一二(1930년대), 『濟州島の地理的研究』, 제주시우당도서관(1995), p. 132.

38) 株田一二, 상께서, pp. 144~150; 1914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해안 일주도로(新作路)가 완공되면서 중산간 마을주민들과 화전민들로 해안지대를 향해 이동했다. 그 결과 화전촌은 해체되기 시작했다.

□ 마쓰야마 도시오(松山利夫)(1986)와 제주 화전

- 마쓰야마 도시오는 제주시 용강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용강리 주민들이 경험했던 화전에 대한 기억을 정리했다. 제주의 화전은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거의 소멸해 버렸으며, 화전민들은 피, 배추, 팥, 잎담배 등을 심었다. 실례로 해발 400m 지점에 있는 용강리(제주시 용강동)에서는 1920년대 후반까지 화전을 했다. 그러나 국마장(3 소장에 해당)용으로 축성된 상잣과 하잣 사이에 중잣이 놓이면서 화전이 소멸했다. 1920년대 상잣성 위쪽이 국유지로 편입되면서 상잣과 하잣 사이에 중잣(해발 300~400m)이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봄~가을에는 중잣과 상잣 사이에서 방목했으며, 겨울에는 우마들을 저지대로 이동시켜 하잣과 중잣 사이 방목했다³⁹⁾.

2. 제주도 화전농업

2-1. 제주도 농촌의 농업지대

- 일제 강점기 제주도 농촌과 농업을 조사한 久間健一(1946)에 의하면, 제주도는 식생과 토지이용 기타 지리적, 자연환경 조건에 의해 해안에서 한라산으로 올라가며 해안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삼림지대로 나눌 수 있다⁴⁰⁾.

〈표 2-2〉 제주도의 지대별 경지분포

(단위 : 정, 町)

지대 \ 면적	산간(山間)부		계곡(溪谷)부		평탄(平坦)부		합계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산간지대	8,087	50.7	2,569	16.1	5,289	33.2	15,944	16.9
중간지대	7,999	30.0	5,819	21.8	12,819	48.2	25,638	28.3
해안지대	5,487	10.6	9,758	18.9	36,127	70.5	51,399	54.8
합계	21,573	22.9	18,173	19.3	54,235	57.8	93,981	100.0

자료 : 久間健一(1946), 전계서, p. 457.

39) 松山利夫(1986), 「濟州島の畑作農耕文化」, 『山村の文化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pp. 309~322.

40) 久間健一(1946), 전계서, pp. 458~462.

- 이중 해안지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54.8%)을 차지하고 있고 중간지대 28.3%, 산간지대 16.9% 등과 같이 수직적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산간지대 중심으로 1930년대만 해도 독특한 화전 농업이 행해지고 있었다.
- 久間健一(1946)에 의하면,

〈산간지대〉

삼림지대의 하부에 있고 다음에 말하는 중간까지에 약 2~3리 폭으로 둘러싸인 지대로서 옛날의 화전 지대가 이에 해당한다. 경작지 면적 1만 6천 정보로 제주도 총 경지의 약 16.9%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의 이용 상황은 극히 원시적으로 방목⁴¹⁾, 또는 모초(茅草) 채취에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작에 이용되는 면적은 근소하다. 작물은 주로 피, 대두, 조, 보리 등인데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이 10년 3경, 심한 것은 10년 1경, 보통 것이 10년 2경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표 2-3〉 제주도 산간지대의 작부방식

작부 방식	이용률 (%)	1년차		2년차		3년차	
		하작	동작	하작	동작	하작	동작
1/1	66	피(稗)	休	메밀(蕎麥)	休	밭벼	休
2/3	100	감자(馬鈴薯)	休	休	休	메밀	休
2/3	100	밭벼(陸稻)	休	休	보리	콩(大豆)	休
3/3	400	조(粟)	休	休	보리	조	休

자료 : 久間健一(1946), 전계서, p. 458.

- 이 산간지대의 경작형태는 대개 1년 1작 또는 그 이하의 방식이다. 이 지대의 토지용은 조방적으로, 동계는 대개 휴경하고 작물은 조, 피, 메밀, 콩과 같은 조방 작물이 작부되어 서북한의 산악지대 작부 형식과 유사하다.

〈중간지대〉

산간지대와 해안지대의 중간지역으로 한라 산록에 있는 폭 1~2리 위요지대(圍繞地帶)이다. 경지면적 약 2만 7천 정보, 총 경지의 28.3% 차지하여 토지이용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전 경지 5할 이상이 방목 또는 모초(茅草) 채취에 이용되고 있다. 기타 경지는 5년에 2~3경 정도다. 경지에 돌 많고 땅 박하기 때문에 그 이용가치 적고 작물은 피,

41) 여기에서 방목은 경목교체형의 가축 방사(放飼) 부분을 말하며 일반 방목과 다르다(김상호, 1979).

교맥, 조, 대두, 밭벼류로 도민 일반이 가장 비료를 필요한 보리 재배는 거의 없었다.

- 이 지대는 구목장 지대에 해당하여 돌담을 쌓아 소나 말의 도망을 막곤 했던 지역이다. 상부는 옛날 화전 지대에 접하는 쪽의 돌담을 상잣성(上場城), 하부 돌담을 하잣성(下場城), 이 중간을 중잣성(中場城)⁴²⁾이라 하였다. 하부 경작할 때는 우마를 상부에, 상부 경작할 때는 하부에 각각 방목했다(경목교체방식). 이로써 경목교체방식에 의해 중간, 구목장 지대 농경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목교체방식이 나타난 배경에는 제주도의 특수한 농경풍습이 작용하였다고 짐작된다.

〈표 2-4〉 제주도 중간지대의 작부방식

작부방식	이용률 (%)	1년차		2년차		3년차	
		하작	동작	하작	동작	하작	동작
1/1	100	밭벼(陸稻)	休	조	休	콩	休
1/1	100	고구마(甘藷)	休	밭벼	休	콩	休
3/3	100	休	休	조	ﾍﾟｯﾁ	休	보리
4/3	133	메밀(蕎麥)	休	밭벼	휴	고구마	보리
4/3	133	조(粟)	休	고구마	보리	조	休

자료 : 久間健一(1946), 전계서, p. 459.

- 이상에서 보이듯이, 제주도 목장화로 인한 경지 확대책으로 개간과 개간지에 대한 휴한과 윤경농업(輪耕農業)이 1930년대까지 제주도 화전의 주요한 형태였다.
- 善生永助(1919)에 의하면 제주 도내 화전 면적은 1919년 2,005단보(601,500평)에서 1923년 1,708단보(512,400평), 1924년 1,413단보(423,900평)로 점차 축소되었다. 일제 강점기 한반도 내륙의 화전은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농민층 분해로 화전민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 일제는 산림 보호 명목으로 삼림령과 화전 억제 정책을 행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화전은 다른 이유로 1930년대를 기점으로 축소되어 갔다. 이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농민층 분해, 유랑민 증가 등의 이유로 화전민이 급격히 증가한 현상과는 사뭇 다르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한반도 내륙의 화전은 증가하였으나 이와 달리 제주지역의 화전은 급격히 소멸했다.
- 이는 한반도 내륙의 화전과 제주도 화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제주도 농

42) 중잣성 설치시기는 상잣성과 하잣성의 설치 이후인 일제 강점기 초반으로 보인다.

촌사회의 노동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추측된다. 일제 강점기 일본이라는 소비시장의 확대로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제주도 농촌의 노동력이 해안마을로 집중되게 되었다. 또 1920년대 이후 제주도민의 급격한 도일(渡日)로 인해 노동 시장 면에서 노동력 분포의 지각변동이 생겨났다.

- 당시 제주도민 1/4 정도가 일본으로 돈 벌러 갔다. 이로 인해 제주 농촌에 노동력이 많아 부족했는데 이를 화전지역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 이 이상 화전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제주도 농촌에 경제활동기회가 많아졌고, 게다가 일본 노동 시장 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생활방식이 변화한 데에서 기인한다.
- 한편 久間健一의 농업지대 분류 이후 최근에도 제주도는 표고별, 토지이용도, 사회적,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해발 200m를 기준으로 하여 3 혹은 4 지역으로 나눈다. 가장 일반적인 구분은 해안지대, 중간지대, 중산간 지대, 산간지대이다. 제주도의 농사는 지대별로 다양하게 달라지며 각 지대에 존재하는 마을 성격도 다양하다. 이 중산간 지대와 산간지대의 농업활동에서 제주도 화전 농업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⁴³⁾.
- 중산간 지대는 비교적 토심이 깊고 띠(새, 茅)가 잘 자라 ‘새 밭’이라고 불렸다. 해발 200m~400m 지역을 개간하여 농사짓는 ‘새 밭농사’와 잡초와 관목이 자라는 목장 밭(해발 400~800m) 사이 지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목장 밭농사’로 나눌 수 있다.
- 개간할 때 밭 갈기는 토지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힘이 세고 순한 소 2마리를 종렬로 연결하여 땅을 일구었다. 개간에 필요한 소가 없거나 주위에서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간을 원하는 주민끼리 ‘수눌음’에 의해 돌아가며 빌려 사용하였다. 밭 갈기는 소 2마리로 6회 갈면 약 70cm 정도 이랑이 만들어지고 이랑과 이랑 사이는 남겨두었다가 소 1마리로 다시 간다. 땅을 간 다음 흙덩이는 풀뿌리와 얹혀있기 때문에 도끼를 사용하여 숙치작업(熟治作業)을 한다.
- 1년 1작 식 작부를 취하였던 띠밭은 순환식 이동 농경이 특징이다. 일단 한 번 작부가 끝나면 좌골을 재배하거나 ‘새(띠)’ 들인다.
- 좌골은 종자를 파종하였으나 ‘새’는 밭을 놔두면, 저절로 자란다. 좌골은 사료작물이었으며 두류 작물로 지역 회복에 효과가 있다. ‘새’는 중요한 생활 작물이며 최소한 지역 소모를 하지 않는 휴한 효과가 있다. 휴한기간 좌골인 경우 3년, 띠는 10년 정도 수확하고 다시 개간한다. ‘목장 밭’이라 불리는 해발 400m~800m 지대는 토질이 척박하며 원거리라는 점에서 농사에 불리하다. ‘새왓’에서처럼 좌골을 재배하거나 ‘새’ 수확이 불리할 경우 장기간 방치되어 방목지로 사용된다.

43) 남석진(1989), “제주도 전통사회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9호, 탐라문화연구소, pp. 237~240.

- 숙지화 작업이 종료된 이후 육도, 조, 피의 재배는 파종 시 진압작업, 육도와 조의 극히 제한적인 제초, 수확을 위한 노동 외에는 노동 투입이 거의 필요 없다.
- 이곳의 총 경지면적은 48만 평으로 제주도 전 경지면적의 16.9%에 해당한다. 그중 50%는 산간부에 위치한다. 원시적 농경 성격이 많으며 방목을 주로 한다. 주요작물은 피, 대두, 조, 메밀 10년 3경, 보통 10년 2경 정도이다. 토지이용 정도는 조방적이고 동계는 대부분 휴한한다.
- 해발 200~600m 지대의 경사도 15도 이상 지역은 삼림지대로, 해발 200m~800m 지역을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즉, 해발 200m~400m 지대는 비교적 토질이 양호하여 ‘새’가 잘 자라는 토양이 널리 분포한다. 이 지대는 전통적으로 ‘새 밭’을 개간해서 3~4년 동안 식량 작물을 재배한다. 식량 작물 재배 후 3~4년 동안 좌골(차풀)을 재배하거나 10여 년 동안 ‘새’를 채취한 다음, 다시 개간하여 식량 작물을 재차 재배하는 방식에 의하여 농경이 이루어진다.
- 해발 400m~800m 지대는 잡초와 관목, 방목지이다. 이 지대는 개간하여 3~4년 동안 작물을 재배한 다음 다시 방목지로 돌아둔다. 이 지대에서는 나무를 불태워 만든 재를 비료로 사용한다. 제초 작업으로 인한 인력 투입은 없다. 또 축력 및 농기구 사용이 없다. 일종의 약탈식 농경 방식을 취한다. 제주에서는 원시적이고 조방적이어서 ‘친밭 농사’라고 불리어 왔다.

〈표 2-5〉 산간지대의 윤작 체계

유형별	제1년차		제2년차		제3년차	
	하작	동작	하작	동작	하작	동작
1	밭벼(陸稻)	休	休	麥	콩(大豆)	休
2	조(栗)	休	休	麥	조	休
3	피	休	메밀(蕎麥)	休	밭벼	休
4	감자	休	休	休	메밀	休

자료: 久間健一(1946), pp. 457~462. ; 제주도청(1939), pp. 86~88.

- 이처럼 산간지대 작부방식은 1년 1작 이하이다. 이 지대의 토지이용은 조방적으로 동계는 휴경하고 조, 피, 교맥, 대두와 같은 조방 작물을 재배했다.

〈표 2-6〉 제주도의 지대별 경지 휴한 상황

지 대	휴한 연수	휴한 면적
산간지대	10년에서 8, 9년	전 경지 9할 이상
중간지대	5년에서 3년 단위	5할 이내
해안지대	5년 또는 3년에 1년	1할 이내

자료: 久間健一(1946), 전계서, p. 460.

- 이처럼 산간지대는 3년 돌려짓기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10년 돌려짓기도 했다. 그러나 개간지나 산간(화전지역)에서는 낮은 토지 생산성으로 인해 윤작 연수가 점점 길어졌다.

2-2. 화전 경작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화전’은 평야나 연해를 제외한 산야가 있는 전 지역에 행해지는 농경 방식으로 일명 ‘화율전(火栗田)’이라 한다.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경작방법은⁴⁴⁾ 봄(4, 5월경)에 눈 녹기를 기다렸다가 삼림을 벌채해 약 2주일간 땅을 말린 뒤 불 지르는 평소(平燒)이다⁴⁵⁾. 수목이 큰 곳은 더욱 조방적으로 나무껍질을 벗겨 말린 뒤 집초, 관목을 벌채해 불태운다.
- 이렇게 해서 만든 화적지(火跡地)는 소 또는 인력을 이용해 일구고 농작물을 파종하는데 그 방법에는 평파(平播)와 휴파(畱播)가 있다. 휴파는 소 1마리 또는 2마리를 사용한다. 한번 개간한 곳은 3~4년간 계속해 농사지으며 가장 일찍 농산물을 수확한 곳은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곳에 화전을 행하는 데 7~12, 13년째 다시 하는 셈이다. 이처럼 한국의 화전 농업은 열대 화전 농업과 경작 순서는 큰 차이 없지만, 소로 밭을 간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⁴⁶⁾.
- 동남아시아 화전 농업은 1~3년간 경작하고 8~15년 정도 긴 휴경기간을 갖는다. 이에 비해, 경작 기간이 긴 이유는 한국의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며 건기가 6개월 이상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벌채하여 말린 후 불을 놓은 화적지를 쟁기나 축력을 이

44) 善生永助(1926), 「火田の現状」,『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15집, pp. 5~48. 善生永助는 중국의 화경(火耕), 일본의 야기바타(소전, 燃畑), 한국의 화전은 유래가 같다고 하였으며 일본의 소전(燃畑)이나 절체전(切替畑)과 경작방법이 유사하다고 하였다.

45) 만약 땔감이 부족할 경우 가을에 벌채해 놓고 다음 해 봄에 불을 지른다.

46) 옥한석(1985), 전계 논문, p. 167.

용해 갈아엎으면 휴경기간이 짧아진다. 간혹 3~4년 이상 계속해 농사지을 수 있다. 이는 노동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시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의 ‘カノ’ 형과 비슷하다.

- 이에 미루어 보면, 한번 불을 질러 개간한 후 3~4년간 경작하고 5~6년간 휴경하는 방식이 전국에 가장 많았다고 보아 진다. 이는 화입 후 식생이 회복될 때까지 7년 정도 걸린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이 지역에 불을 놓은 다음 비가 한번 내린 후 가래(鍬)로 지표를 간단히 파서 농작물을 파종하여 시비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잡초가 별로 자라지 않아 제초도 하지 않은 채 작물을 수확하는 방식을 ‘부덱(火德)’이라고 한다. ‘부덱’ 이후 2년째부터를 ‘화전’이라 한다.
- 경작을 몇 년 계속하면 점차 지력이 쇠퇴하여 휴경하게 된다. 이후 수년간 휴경으로 지력이 회복되면 다시 불을 놓아 윤경 한다. 수년 휴경 후 하는 개간을 기경(起耕)이라 하며 ‘부덱이’에서 다시 하는 경작을 신기화전(新起火田)이라고 한다. 또 신기화전을 하는 해 또는 그다음 해 경작에 덜 다행이었던 지면의 나무뿌리를 가래로 캐내기도 하지만 2~3년 후 그 나무뿌리가 썩게 되면, 우경이 시작된다고 한다.
- 소 두 마리를 이용하여 산허리를 수평으로 간다. 30도나 되는 급경사지도 능숙하게 간다. 경작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잡초가 생겨 제초할 필요가 생겨난다. 운반이 편리한 곳은 인분, 오줌, 또는 소나 돼지의 분뇨와 재의 혼합물을 뿌려 지력을 유지 시킨다. 산지 촌락 가까이에 화전과 전지(田地)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산전(山田)이 있다. 한편 시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력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 중, 하나가 작물의 돌려짓기다. 작부 방식은 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2-7〉 한국화전 농업의 작부방식

경지 / 기간	제1년	제2년	제3년	제4년	제5년	제6년
부식지(腐植地)	감자	조	콩, 팥	귀리	메밀	-
옥토지(肥沃地)	조	팥	조, 옥수수	귀리, 메밀	-	-
보통지(普通地)	조	팥	조, 옥수수	콩	메밀	-
박토지(薄土地)	귀리	메밀	귀리	-	-	-

자료 : 善生永助(1926), 『火田の現状』, p. 51.

- 이중 감자와 옥수수는 18세기 이후에 한반도에 전래 되어 온 작물로 그 이전에는 주로 조, 귀리, 메밀, 팥, 콩 등 잡곡을 재배했다. 이처럼 화본(禾本) 작물인 조, 메밀과 공증 질소 고정작물인 콩을 매년 돌려짓기하는 방식이 한국화전 농업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주로 1~2년 경작하여 밭벼, 잡곡, 근재 작물 등을 재배하는 동남아시아지역 화전 농민의 윤재 방식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가 있다.

- 한편 제주시 용강동⁴⁷⁾의 화전 조성을 조사한 松山利夫(1986)에 의하면⁴⁸⁾, ‘중잣성’이 설치되기 이전 용강동 화전은 ‘상잣성’⁴⁹⁾ 내에 조성되었다. 당시 화전 조성지는 아무 곳이나 가능하지 않아 관습적으로 조성할 만한 장소가 결정되어 있었다 한다. 그곳은 현재 용강동 마을로부터 약 6km 이남에 있는 ‘장우리’라 불리는 곳으로, 해발 700m 전후한 북향 산지 사면이다.
- 한라산 북사면은 이 정도 고도에 이르면, 식생이 조엽수림에서 온·난대의 낙엽수림으로 이행되어 마을 주변의 상전(上田) 경지나 ‘하잣성’ 내 상전 사이에 상당한 온도 차가 생기게 된다. 이 때문에 용강동에서는 여름작물인 대麦과 조가 화전 밭에 재배되었다. 화전소멸 직전 용강동 화전의 주요 재배작물은 피, 팥, 배추였다.
- 화전 조성 벌채 시기는 계절적으로 제한은 없었다. 노동력 여유가 있는 계절에 시기를 가리지 않고, 관목과 잡초를 호미로 베낸다. 관목들은 벌채 후 5~6개월간 그대로 놔두고 건조한다. 그 후에 화입(불 넣기)이 행해지기에 앞서 조성해야 할 경지 주위 흙을 제외하고 폭 1m 정도 방화선을 설치했다. 화입 장소는 조성지가 비교적 완사면이면 좋으나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
- 화입 시기는 처음 해 피를 재배하려는 경우 늦가을이나 혹은 이른 봄에 한다. 조성된 경지에는 우마 출입을 막기 위해 나무 울타리를 중 가운데 쳐놓은 다음 파종 단계로 옮겨간다. 초년도 작물인 피는 음력 6월 20일에서 24일까지 행하여지고 음력 10월 10일 전후로 하여 수확한다. 이 피 밭의 윤작 체계는 초년도 피를 재배한 후 팥, 이어 3년째 배추나 팥을 재배하여 4년째부터 경작을 그만둔다.
- 제주도 영평(寧坪) 마을⁵⁰⁾ 화전 농업은 일제 강점기 공토가 일본인이 관리하면서 사라졌다. 다만 ‘제주 4.3’ 때까지 일반농가(중산간 마을에서)에서 부업 정도로 남아있었다. 한라산 밀림에 불 지르면 한없이 번져 산야가 전부 타 버릴 거처럼 보이지만 밀림 속에 매년 떨어진 낙엽 두텁게 있어 언제나 습기 남아있으므로 멀리 불이 번지지 않는다. 그

47) 이 조사에 의하면, 제주시 용강동의 화전은 1920년에 사라졌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제주도 전역에 설치된 목책(木柵, 목장용 돌담) 중 상책(上柵, 상잣) 상부의 공유지였던 원야(原野) ‘상잣’이 국유지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잣 내에서의 방목과 화전경영이 곤란하게 되었고, 민유지와 방목지를 나누는 하잣성과 상잣성 사이의 새로운 중잣성(中柵)이 놓이면서부터 용강동의 화전도 소멸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처럼 상잣 내에서의 화전 조성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새롭게 조성된 중잣성 아래에 개인 소유지 방목지인 ‘계’가 나타난다.

48) 松山利夫(1986), 『山村の文化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pp. 319~323.

49) 해발 600m 이상의 산지 사면

50) 제주대학교 박물관(1991), 『영평(寧坪)마을』, pp. 203~204.

래서 마음 놓고 불을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날에는 밀림이 아닌 산야에는 해충을 죽여 부드러운 풀이 자라서 우마가 먹기 좋게 하려고 일부러 불 놓았다⁵¹⁾고 한다.

3. 제주도의 화전민

3-1. 화전민의 유형

- 화전민은 경작지와 경작자와의 권리·소유 관계, 소유지의 이용방법, 생활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⁵²⁾.
- ① 경영 별 분류에 의한 화전민 : 순(純) 화전민과 겸(兼) 화전민⁵³⁾
- 순 화전민은 화전만을 경작하여 의식주 등 생활 전부를 화전 지에만 의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순 화전민인 정착 농과 표류농(漂流農)은 경작 기간 중 일시적으로 화전 소재지에 거주하다가 지력이 소모되면 휴한 또는 폐경(廢耕)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화전민을 말한다.
- 겸 화전민은 화전과 숙전을 병 경작(併耕作)하는 자로 병작 화전민이라고도 한다. 그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만으로 생활할 수가 없어 국유림에서 화전식 경작하는 경우가 많다. 순 화전민 경우, 만일 국유림에서의 경작이 금지되거나 퇴거 명령이 내려지면 당장 그 생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서 볼 때 제주도 화전민은 겸 화전민이 많았지만 중 산간 지역 화전마을에는 순 화전민이 상당수 존재했다고 보아 진다. 1920년 말 제주지역 화전민 수는 5,000명에 이른다(善生永助, 1926).

② 경작지 소재지별 분류에 의한 화전민

- 이 분류는 화전민들이 경작하는 거주지의 소재지 여하에 따른 분류이다. 국유림 거주 화전민과 민유림 거주 화전민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국유림에서 경작하는 자는 순 화전민인 경우가 많다. 국유림의 화전은 순 화전민보다 겸 화전민 경

51) 194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입 관행이 이루어져 왔다. 화입이란 음력 3월 초순 마소 때에 빌붙어 사는 병충해(섬역 또는 부그리)를 없애고 묵은 잡초를 태워 버린 후 새 풀을 둑게 하여 마소들의 먹이로 삼으려고 불을 놓는 풍습을 말한다.

52) 宮塚利雄(1980), 전개 논문, pp. 280~283.

53) 강원도청(1974),『화전정리사업지침』, p. 5.

작면적이 넓다. 이는 자기 소유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없어 국유림에서 화전을 경작하기 때문이다.

- 국유림에 거주하는 화전민은 특히 북한 지방에 널리 분포하고 있었지만, 단속이 심해지자 점차 감소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식량부족과 산림감시체제 미비 등으로 국유림에서 화전 경작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제주도 화전의 경우 국영목장에서 경작하는 자가 많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국유림 화전민이 다수였다고 보아 진다.

③ 생활 수준별 분류에 의한 화전민⁵⁴⁾

가. 지주화전민

- 이 계층에 속하는 화전민은 50~60일 경작⁵⁵⁾이상 화전을 소유하고 있으며 수명의 고용인을 고용하여 조, 감자, 귀리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경작지를 소작시키고 있다. 이처럼 화전 소작을 줄 수 있는 비교적 부유한 화전민을 지주화전민이라 한다. 이 지주화전민은 대부분 그 마을의 개척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산 당시 풍부하고 비옥한 장소를 일찍 선점하고 경작하여 매년 수확을 증대해 간다.
- 경우 따라 평지에 가옥, 경작지, 자산 등 생활 근거가 있다. 재산 증식을 위해 화전식 경작 시기만 전 가족 또는 일부가 국유림에 들어가서 적당한 경작지를 고른 후 농막⁵⁶⁾을 세워 화전식 경작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재산 증식을 도모하는 자도 있다. 화전민사회에도 평지사회에서 볼 수 있는 부재지주나 기생 지주가 존재하고 있었다. 제주 농촌에서는 지주나 소작보다 자작농 비율이 높았다고 생각된다. 이는 토지 생산성이 낮고 개간 가능한 경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주화전민은 많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나. 자작 화전민

- 이 계층의 화전민은 평지 농민에 비유하면 자급자작민(自給自作民)에 해당한다. 그들은 대개 입산 후 4~5년이 지난 자로 경작면적은 자기 가족 외에 고용인 한 사람을 고용하는 정도이다. 수확량은 자가수지경제(自家收支經濟, 독립 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제주도가 원래 자작농 중심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작 화전민이 대부분이었다고 보아 진다. 일반적으로 개간을 위해 소 2마리가 필요하다. 최소한 이 만큼의 축력을 소유하거나 동원할 능력이 있으려면 자작농인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54) 林根周(1932), “朝鮮林政より見たる火田問題”, 『수원고등학교창립25주년기념논문집』, p. 418.

55) 1일 경작은 평균 약 1,200평 수준임.

56) 경작지 부근에 임시로 짓는 가주거(假住居)이며 농사막, 전직막(田直幕), 누게라고 함.

다. 소작화전민

- 이 계층 화전민의 일상생활 수준은 자급화전민 이상이다. 보통 다른 사람의 화전을 소작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개간한 화전만으로는 면적이 적어 자급자족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농촌 춘궁민은 봄이 되면 식량이 부족하여 고리대금업자 화전 지주에게 금전 또는 곡물 빌려 생계 이은 다음, 다음 수확기 때 현금이나 곡물 이자 합산하여 갚는 상황 매년 되풀이하였다.

라. 마을 구성 별 분류에 의한 화전민

- 이 분류에 따르면 집단거주 화전민과 독립거주 화전민으로 나눌 수 있다. 집단거주 화전民은 수십 가(家) 또는 수십 호(戶)의 화전민이 작은 마을을 구성한 후 상부상조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속하는 화전민은 겸작 화전민이 많았다. 독주(獨住) 화전민은⁵⁷⁾ 부득불 또는 고의로 마을 사람과 함께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외딴 집을 짓고 사는 자를 말한다. 그들은 대부분이 이동화전민 또는 국유림에 거주하는 순화전민이다.

3-2. 제주군읍지에 나타난 화전마을

- 제주도를 나타낸 고지도에는 「탐라순력도」(1703), 「탐라지도」(1706), 「탐라지도병서」(1709),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전반), 「제주삼현도」(18세기 중반), 「대동여지도」(제주도지도, 1861), 「제주삼읍전도」(1872), 『제주군읍지』 「제주지도」(1899) 등이 있다. 이들 지도에는 공통으로 중산간 지대에 국마장이 등장하고 있다. 국마장에서 생산된 우수한 말을 골라 조정에 진상해야 하는 것이 제주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기 때문에 제주도 국마장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고지도에 나타냈다.
- 1899년 5월, 전국 읍지 편찬으로 작성된 『제주군읍지』⁵⁸⁾ 중 「제주지도」에는 목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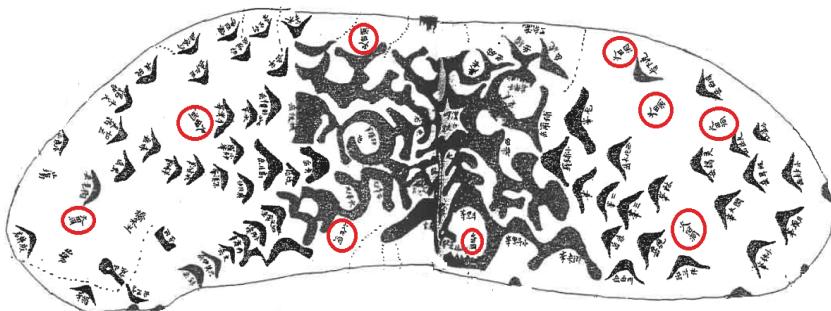
57) 독주화전민의 발생 요인으로 원적이 상이한 자는 동일마을에서 거주가 허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단독 입산하여 화전민이 되거나, 화전 적자를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구하여 개간하는 자는 다른 곳과 내왕하기가 어렵기에 그 부근에서 혼자서 살거나, 화전마을에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추출 당한 자, 범죄인으로 관리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 등이 있다.

58) 「제주지도」는 전래의 지도를 참조하면서 새로 변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대표적 읍지의 부도(附圖)이다. 지도에는 1895년 행정구역이 모두 군(郡)으로 변경된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읍지에 첨부된 지도지만 규격이나 수록된 내용이 매우 자세하다. 전체 유팍은 다소 왜곡되어 있으나 이는 책의 규격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보인다. 여기서도 이전 시기 독립된 형태의 제주도 지도처럼 남쪽을 지도 상단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전 지도에서 보이는 24 방위표시나 외국 지명들과 남해안, 그리고 그사이 섬들은 제외되었다.

‘상잣성’ 위쪽으로 아홉 군데 화전동 표시되어 있다. 아울러 지도 뒤 읍지 본문에 화전 세 수세 하던 기록 있다. 이 기록 통해 산장 있던 곳에 화전촌 형성되었으며 이들에게 별도 세금 거두었다⁵⁹⁾. 즉, 제주에 마을 단위 집단거주 화전민이 상당수 존재했다.

- 이 지도에는 중앙부의 한라산은 풍수 지도인 산도(山圖)처럼 맥세(脈勢)를 강렬하게 표현하면서도 독립된 형태의 오름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무엇보다 목장이었던 10 소장 경계가 ‘상잣성’과 ‘하잣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그려진 점이 이전 지도와 다르다. 하천도 상세하게 그렸고 군 경계와 구분 위해 점선으로 처리하였다. 해안에 도로만 그려져 있고 해안선 표시 없다. 해안에 그려진 일부 섬 통해 해안선 윤곽 짐작할 수밖에 없다.
- 10 소장과 자목장(字牧場) 체제로 이어진 제주도 마정(馬政)은 1895년(고종 32년) 지난친 공마와 연이은 흉년으로 인해 공마제 혁파하고 돈으로 바꾸어 상납하도록 하는 조치가 행해짐에 따라 국영목장 기능 상실하게 되었다. 지도에 표시된 화전동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상황 반영하고 있으며 산마장부터 화전 개척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1〉『제주군읍지』 「제주지도」(1899) 9개 화전동



- 조선 후기 제주도 고지도에 ‘火田洞’이 등장한 지도는 「제주지도」(1899)가 유일하다. 이것은 1899년(광무 3년) 5월 대한제국 정부가 전국 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발간한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 첫머리에 수록된 지도이다. 대한제국 정부가 전국 화전민을 대상으로 화전세를 징수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전세 징수 대상인 화전민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해보려는 의도에서 화전동 위치를 표시했다.
- 당시 화전동은 국마장의 위쪽 경계선인 상잣성을 넘어 위치했다. 「제주지도」(1899)는 대한제국기 제주도의 국마장과 산마장 분포 및 화전동 위치를 나타내 제주도의 목축문화와 화전 문화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지도」(1899)의 역사 문화적 가

59)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1996), 『제주의 옛 지도』 도판 해설.

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 지도에는 상잣성 이상에 분포한 화전동이 9개 나타난다. 국마장 상한선인 상잣성보다 높은 해발 300~600m 일대를 중심으로 화전이 이루어진 결과 제주목 지역에 4개, 대정현 지역에 3개, 정의현 지역에 2개 화전동이 존재했다.

(1) 산북지역(제주시) 화전동

① 일소장 위 산장 화전동

- 이 화전동은 일소장(一所場)⁶⁰⁾ 상잣 북쪽의 넓은 산장(山場) 내에 위치한다. 성불오름(成佛岳)과 구두리오름(狗頭岳) 일대 펼쳐진 산장은 3개 산장(녹산장, 상장, 침장) 가운데 상장(上場) 해당한다. 산장은 1659년(효종 10년)부터 등장한 특별목장으로, 숙종 연간 녹산장, 상장, 침장으로 정비되었음. 현재 제주 경주마 육성목장과 제동목장 위치하며 천미천 지류 통과한다. 산장에 있는 교래리에는 산마장 관리처 역할을 했던 객사(客舍)(『탐라순력도』의 「산장구마」(1703) 참조)가 있었다는 점에서 교래리는 산장 중심지였다. 경사 완만한 지형환경 품은 교래리 자체도 화전으로 설촌 된 마을이었다.

② 삼소장 위 삼의악 북쪽 화전동

- 이 화전동은 조선 시대 제주목 관할 국마장이던 삼소장⁶¹⁾에 있는 삼의악 북쪽 상잣 넘어 위치했다. 조선 후기 3소장 서쪽 경계선은 ‘한천’이다. 화전동 동쪽 하천(현재 조천)이 존재하며, 화전동 남쪽에는 용강리, 월평리 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두 마을주민 가운데 일부가 화전동 만든 주체일 수 있다. 현재 제주시 아라동 공동목장 위에 동서 방향으로 길게 돌담이 남아있으며, 이 돌담 따라 화전 흔적과 집터들이 확인할 수 있다.

③ 사 소장 위 능화동 서쪽 화전동

- 이 화전동은 해발 900m 일대에 있는 제주도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하늘 아래 첫 동네’였다. 이곳은 두리봉[북](斗里峯: 큰두레왓, 1630.7m), 소두리봉[서](小斗里峯: 족은 두레왓, 1343m), 능화봉(菱花峯, 971.7m)[동] 그리고 천산림[남](千山林)으로 둘러

60) 조선 후기 1 소장은 구좌읍 송당리~덕천리 중산간에 형성된 국마장 지대를 말한다. 『제주읍지』에 의하면, 1 소장의 폭원(幅圓)은 55리였다. 이곳에는 마감 2명(동장과 서장 각 1명)의 책임 아래, 군두와 목자를 합해 64명이 878필을 관리했다. 『탐라고사』에 삽입된 「목장도형」에는 1 소장 둘레가 동서 20리, 남북 18리였다. 1 소장에 소속된 목자들은 덕천리와 송당리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61) 『제주읍지』에 의하면, 3 소장 둘레는 50리에 해당하며, 마감 2명 책임 아래, 군두와 목자 합하여 42명이 429필을 방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라고사』의 「목장도형」에는 3 소장의 둘레가 동서 20리, 남북 15리로 기록되고 있다. 3 소장 내에 위치한 하천명 중 ‘삼솟내’는 3 소장 남북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현재 제주시 화북동과 삼양동의 경계선에 해당한다. 3 소장 대표 오름인 삼의양오름 부근에 아라동 공동목장 있다.

싸인 분지(盆地) 모양의 지형환경에 위치한다.

- 해발 1500~1600m에 자리 잡은 두리봉(큰두레왓)은 인근 마을 주민(능화동 화전 주민 등)들이 소와 말을 옮겨 목축했던 상산(上山) 방목지였다⁶²⁾. 그러나 이곳은 해발고도가 높아 비바람과 눈이 많은 장소여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부적합하여 이 지도에 표시된 화전동은 현재 화전민 집터 흔적 남아있는 능화오름 아래 화전동으로 보는 것이 맞다.

④ 오소장 위 안천악 북쪽 화전동

- 이 화전동은 오소장(五所場)⁶³⁾ 상잣 북쪽 안천악(安川岳, 안천이오름, 해발 736m)과 한대봉(閑大奉, 한대오름, 해발 914m) 사이에 펼쳐진 완경사지에 있다. 5 소장 내에는 생천악(生泉岳, 산세미오름, 해발 652m), 대록고산(큰녹고메, 해발 837m), 소록고산(죽은 녹고메, 해발 775m)이 위치한다. 대록고산과 소록고산까지가 5 소장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화전동 남쪽 5 소장 아래에는 금덕리(애월읍 유수암리)와 유신동(애월읍 광령리)이 위치해 두 마을 사람들의 일부가 이곳 화전동을 개척했다고 볼 수 있다.

(2) 산남지역(서귀포시) 화전동

① 칠소장 위 대병악 동쪽 화전동

- 이 화전동은 칠소장(七所場)⁶⁴⁾ 상잣 위쪽 천서악과 대병악 사이에 위치한다. 행정구역 상 안덕면 동광리, 상천리, 광평리 그리고 서귀포시 색달동에 해당한다. 안덕면 광평리와 상천리를 연결한 화전 지대에는 창고천이 통과하여 화전민들이 이용함. 강제검과 방성칠이 민란을 일으켰던 무대였다.
- 팔소장(八所場)⁶⁵⁾ 상잣 위쪽 녹하악 서쪽에도 화전동이 위치한다. 1918년에 제작된 제주도 지형도에는 모라이악(색달동 산16번지) 일대에 집들이 등장한다. 8소장 내에 있는 오름(측화산) 아래의‘法河’는 오름 이름이 아니라 고려 시대 사찰인 법화사에 해당한다. 이 오름은 하원동에 있는 구산봉이다.

62) 제주에서는 해발 14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방목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상산에 올린다”라고 했다. 상산 (1400~1950m)은 해발고도가 높아 여름철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많아 진드기 피해가 적은 곳이었다. 상산방목은 한라산 산정부의 지형조건과 기후 및 식생 환경을 인식한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63) 오소장은 애월읍 광령리 외도천~금성천 중간간 목장지대에 해당한다. 5 소장 둘레는『제주읍지』에 의하면, 60리에 해당하며, 마감 2명의 책임 아래, 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78명이 1,094필을 방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라고사』의 「목장도형」에 근거할 때, 5 소장의 공간 범위는 동서 25리, 남북 20리로 기록되고 있다.

64) 칠소장(七所場)은 안덕면 동광리부터 서귀포시 색달동 우보악까지이다. 『제주읍지』에는 7 소장의 주사면(周四面) 이 10리 그리고 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28명이 440필을 방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65) 팔소장은 서귀포시 중문동~영남동~고근산까지였다.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중문동·대포동·회수동·하원동·도순동·영남동 초지대가 해당한다. 목장면적이 작아 조선 후기 말 사육 필수가 중간 10개 목장 중 가장 적었다.

- ▶ 팔소장 녹하지 동쪽에도 별개의 화전동이 있다. 1918년에 제작된 제주도 지형도에는 화전마을인 ‘녹하지’가 실제로 존재한다. 조선 시대 7 소장 내에 형성된 화전마을인 상천리(모록밭)와 8 소장 위의 녹하지(중문동 지경)를 연결하는 지대에 광범위한 화전 농경지와 화전마을이 존재해 상호 연락망을 구축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7 소장 내 상천리와 8 소장 위 녹하악 일대의 화전마을(1918)



② 구소장 위 처암 동쪽 화전동

- ▶ 구소장(九所場)⁶⁶⁾ 상잣 위쪽, 각씨바위(妻岩) 동쪽에 화전동이 있다. 이 화전마을 남쪽에는 서홍리와 동홍리가 있다. 이곳 화전동은 두 개의 하천 사이에 있으며, 또한 화전동 북쪽의 오름은 겨울철 차가운 북서풍을 막는 역할을 했다. 바다로 흘러가는 두 개의 하천은 하천의 실제 분포상황을 고려할 경우 좌측 하천은 연외천(솜반내), 우측 하천은 동홍천일 가능성이 크다. 두 하천의 위치와 아랫마을 이름을 가지고 화전동을 비교하면 서홍동의 생수동과 동홍동의 연자골 가능성이 크다.

③ 산장 위 두한봉 일대 화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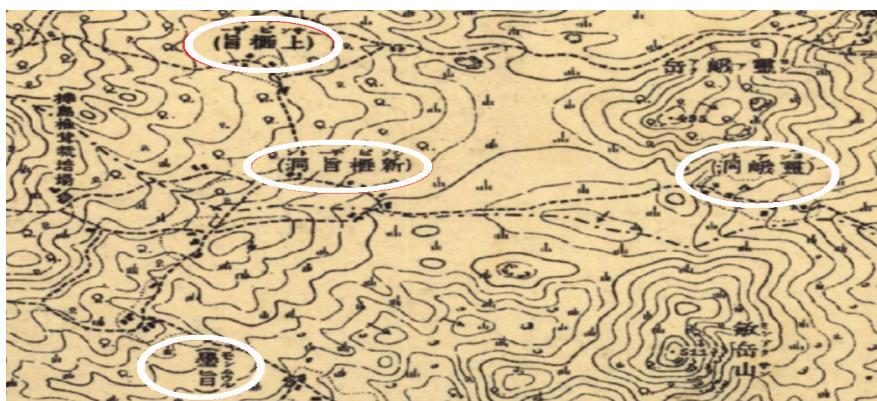
- ▶ 구소장(九所場)과 산장의 상잣 위쪽 두한봉(斗漢峰) 일대에 화전동이 등장한다. 구소장과 산장(山場)의 경계선은 한남리에 있는 하천 즉, 현재의 서중천에 해당한다. 산장의 상잣 위에는 마체봉(馬體峰, 머체오름), 거인악(巨仁岳, 거린오름), 두한봉(말한이오름, 마은이), 보한봉(保漢峰) 등이 있다. 특히 거인악과 두한봉 동쪽의 완경사지에 화전동이

66) 구소장은 서귀포시 호근동 고근산~남원읍 한남리 서중천까지의 중산간 목장지대를 말한다. 『제주읍지』에 의하면, 9소장의 둘레는 70리로, 동서 길이가 가장 넓었던 국마장이었다. 마감 2명의 책임 아래, 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51명이 함께 514필을 방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장한다. 현재 이곳은 남원읍 수망리 산179번지 일대로, 마흐니오름(두한봉)과 물영아리오름, 민오름, 거인악 사이 형성된 완경사지에 화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있다.

- 1918년 제작된 제주지형도(1:5,000)에는 물영아리오름과 민오름 서쪽 완경사지에 빗물르(上樞旨), 새빗므로(新樞旨洞), 먹물(墨旨)이라는 마을이 등장한다⁶⁷⁾. 민악산 북쪽의 영 아악은 현재 물영아리오름에 해당한다⁶⁸⁾.

〈그림 2-3〉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서쪽 화전터



3-3. 화전민의 발생원인

- 조선총독부(1928) 보고서는⁶⁹⁾ 화전민 발생원인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① 평지에서 자산 잃어도 쉽게 화전에 의해 경작지를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
 - ② 신규화전은 대부분 평지의 숙전 보다 비옥하다.
 - ③ 대개 각종 세금, 공과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으며 부과되더라도 극히 낮은 과세를 부과한다.
 - ④ 벽지 화전민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휘 감독 내지, 장려지도 기회가 적어서 안이하게,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복잡한 사회와 떨어져 생활하기 쉽다.

67) 남원읍 수망리(2017), 『수망리지』, p. 96.

68) 1918년 지형도에 등장한 민악산 북쪽 영아악과 영아동의 위치는 실제와 다르다. 민악산과 인접한 오름은 실제로는 영아악(영아리오름-분화구에 물이 없음)이 아니라 물영아리오름이다. 영아악은 물영아리오름과 떨어져 있으며, 화전마을인 영아동도 마찬가지이다. 1918년 일제가 제작한 지형도에는 오류가 종종 확인되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확한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오름 이름이 부여된 사례들이 많다.

69) 橋本傳左衛門(1928), 『화전 조사보고서』, 조선총독부, pp. 4~7.

- ⑤ 점유한 화전 지력이 소모되면 다시 새로운 화전지로 이전하기가 쉽기에 지력 보전을 위한 추비(堆肥), 금비 또는 토사 유출 및 토양보전을 애쓰지 않아도 된다.
 - ⑥ 삼림령 기타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등 강력한 규정이 있지만 일단 입산하여 가옥을 건축하고 토지를 개간하는 화전민에 대해 삼림 감독관이나 일반 경찰의 강제철거 및 단속이 극히 곤란하다.
 - ⑦ 화전민 생활이 대부분 빈곤하며 이를 봄이면 저장하였던 농산물을 거의 소비하여 없어져 새로운 곡물 나올 때까지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자가 많다. 그들은 삼림법 및 농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아 감옥 들어간다 해도 옥사의 식생활이 오히려 자기 집보다 좋아 그 처벌이 화전민에게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다.
 - ⑧ 화전모경(火田冒耕)에 의하여 형을 받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며 자기 자신도 치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⑨ 국유림, 또는 공유림 내 화전 침간자(侵墾者)가 기소유예, 징계처분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아도 자기가 침간 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자책하지 않는다. 자기가 받는 벌은 그 토지가 자기 경작지로 공인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자기가 얼마를 정부에 냈기 때문에 이 화전은 자기 화전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⑩ 화전민들은 동계 연료 문제는 식생활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 때문에 화전민이 산중에서 마음대로 연료를 획득해도 이에 대한 죄책감이나 단속 우려가 없다.
 - ⑪ 지방행정관이나 사법 관리 대부분은 화전민이 먹고살기 위하여 부득불 화전을 경작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화전민들은 그들이 자신들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태연하게 화전을 모경(冒耕) 한다.
- 이를 토대로 하여 제주도 화전민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제주도 역시 쉽게 화전에 의하여 경작지를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보아 진다. 화전민에 대한 행정 관청의 지휘 감독 혹은 장려지도 등의 기회가 적어서, 안이하고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복잡한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 점유한 화전 지력 소모되면 다시 새로운 화전지로 이전하기 쉬워 지력 보전을 위한 추비나 금비 또는 토사 유출 및 토양보전을 노력할 필요가 없다.
- 이외에 삼림령 기타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등 강력한 규정이 있지만 일단 입산하여 가옥을 건축하고 토지를 개간하더라도 화전민에 대해서는 삼림감독관이나 일반 경찰의 강제철거 및 단속이 극히 곤란하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아울러 제주도 화전민들은 동계

연료 문제는 식생활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 화전민이 산중에서 마음대로 연료 획득에 대한 죄책감이나 단속 위험이 없다.

3-4. 제주의 화전민⁷⁰⁾

- 제주도에서 화전의 명칭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목안에서는 ‘캐운밧’이라 하고 정의에서는 ‘남친밧’, ‘불겄밧’, 대정에서는 ‘친밧’, ‘멀왓’이라 불렸다. 목안에서 비교적 가까운 해안동에서는 화전을 ‘캐운밧’이라 했다. 구한말에는 화전에도 세금을 받아간 때가 있었다. 당시 감관(監官)이 나와서 화전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세곡(稅穀)을 매기면 동임(洞任)⁷¹⁾이 받아 봉상 하였다. 신축년 난리 이전 콩 열 밭밖에 안 난 화전에 콩 닷 말을 내라고 하여 그 값 대신 ‘지다리(두더지) 감퇴(모자)’를 바쳐 세곡을 면제받을 일도 있었다. 그러다 신축년 난리(1901년 이재수의 난) 후 감관이 오지 아니하였다.
- 예전에는 대부분 생활이 어렵거나 무슨 연고가 있어 동네에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외지둥에 청새로 인 막사리’를 지어 살았다. 화전민들의 반찬은 산나물이나 들짐승 고기였고 신은‘꼭 신’(칡 줄기로 엮은 신), 옷은‘가죽물체’ 입고 살았다. 그리고 참기름은 약재로 이용되기에 반드시 있어야 했고 소금은 필수 양념이었다. 그래서 화전민들은 창출과 같은 약재를 캐어 아랫마을에서 소금과 바꾸어 먹으며 살기도 했다.
- 화전민들은 보통 목자(태우리) 생활을 겸하기도 했다. 목자 노릇을 하며 틈틈이 화전 농사를 하여 재산을 모으는 경우가 많았다. 화전민들은 산 앞(한라산 남쪽이라는 뜻)의 들과 산을 아니 돌아다녔던 곳이 없었다. 그렇게 다니다가 오무룩한 땅⁷²⁾이 있으면 거기 에 불을 질러 두었다가 봄 되면 콩 씨나 팥 씨를 몇 알 뿌려두었다.
- 그러나 가을이 되어 다행히 열매가 달렸으면 따오고 안 달렸으면 부싯돌 닳아진 것만 손해를 볼 뿐이라고 했다. 간혹 풍작이 될 때는 팥 대여섯 섬, 메밀 여남은 섬씩 싣고 올 때 있었다. 그러나 길이 험해 소에 싣고 올 때 곡식 알맹이들이 나무에 걸려 떨어져 흘려버리면 손해 볼 때도 왕왕 있었다.
- 화전은 다른 농사들에 공이 덜 들어서 좋다. 땅만 골라 불 질러 씨 뿌려둔다. 다행히 풍작을 만나면 거둬들이고 그렇지 못하면 종자만 손해 보면 그만이다. 다만 나무를 베어내

70) 소농 선생은 한동(漢東), 상도(上道), 송당(松堂), 선흘(善屹), 해안(海安), 명도암(明道庵), 불그뭇(造水2리), 상창(上昌), 한남(漢南), 수망(水望), 삼달(三達), 고집(高子: 水山2리) 등지의 촌로들에게 들었던 화전 농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화전 경작의 형태를 살펴보려 했다. 그러한 소농 선생 논문 중 화전 농사에 대한 인터뷰기록을 발췌하여 옮긴다.

71) 동네일을 맡아보는 사람

72) 조금 얕고 평평한 곳, 즉 화전에 적합한 곳

는 일과 ‘곳(藪)’ 밖으로 곡식을 운반하는 일이 아주 고되었다.

- 구한말이전에는 아무 곳에서나 화전을 일궈도 관청에서 단속하는 일이 없었다. 넓은 천하가 나라님 땅이고 땅 위에 사는 백성들은 모두 임금님 신하⁷³⁾이니 없는 백성이 나라의 땅을 일구어 먹는데 관청에서 말릴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부터 화전을 못하다가 해방된 뒤에 부업으로 조금씩 화전을 하였다.
- 화전 농사는 씨를 뿌린 후 싹이 돋아서 땅에 뿌리가 붙을 때까지만 큰비가 내리지 않으면 틀림없이 풍작이 된다. 땅에는 오랫동안 나뭇잎이 깔려 썩는 데다가 쌓인 나뭇잎을 태운 재까지 흩어져 있어 땅이 기름지기 때문이다. 털끝만차라도 뿌리가 땅에 붙기 시작하면 아주 잘 자라 팥이나 콩 한 나무에 한 되씩 수확할 때도 있었다. 예상외로 눈이 일찍 내리는 날에는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 화전은 땅을 쟁기로 일구지 않아도 된다. 돌이 많이 박혀 있어 쟁기 따위로는 갈거나 일굴 수도 없었다. 씨를 뿌린 후 따비로 띄엄띄엄 찍어낸 후 그 주위에 널려져 있는 나뭇잎 썩은 흙을 뿌려두면 그만이다. 화전에는 원래 잡초 씨앗이 없어서 잡초가 나지 않는다. 다. 그러나 삼 년이 지나면 잡초의 일종인 ‘방동사리(방동사나)’가 나기 시작하는데, 해가 둑을수록 더 많이 난다. 방동사리가 나기 시작하면 토맥(土脈)이 거의 메말라가기 마련이라 작물도 되지 않는다.
- 화전 하는 사람들은 초기들이 되면 화전으로 가서 추수한다. 화전은 고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을이 일찍 오기 마련이다. 여러 날 묵어야 할 때 서 있는 나무의 가지를 쳐내고 그 위에 나무를 얹어 임시 오두막을 만들어 그곳에서 며칠을 묵는다. 화전 곡식은 땅이 기름졌기 때문에 늦게 익는다. 그러기 때문에 곡식을 베어 여러 날 말린 후 타작이 가능하다. 타작할 때는 ‘띠(矛)’를 베어다가 두껍게 땅에 깔아 놓고 그 위에서 타작하면 땅으로 곡식이 새어들지 않는다. 곡식이 많지 않은 경우는 ‘덕석(멍석)’을 깔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얹어 놓고 곡식을 자그마하게 묶어 단을 만들고 그 돌에 쳐 타작한다. 곡식을 묶는 줄은 보통 ‘드름’ 넝쿨이나 ‘종갱이’ 줄을 이용하였다.
- 화전 농사에는 농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나무를 베어내는 데도 ‘뫼호미’⁷⁴⁾ 하나면 족하다. 또 검질(잡초)을 매지 않으니 호미(골갱이)가 필요 없고 곡식을 벌 때도 뿌리가 너무 굵어 낫(호미)으로는 베어내기 어려우면 ‘뫼호미’로 찍어 베어냈었다. 기유년 해방 되던 해, 콩 씨 반 되로 화전을 하였는데 그 해는 용케 잘되어서 콩 나무가 어린아이 팔뚝만큼씩 살쪘다. 그 콩은 낫(호미)으로는 벌 수 없어 뫼호미로 베어야 했는데 깜박 잊

73) 普天下之下莫非王土率土之民幕非王臣

74) 뫼호미=미호미=메호미=찢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낫 비슷한 연장, 나대=나타(なた, 鉈)라고도 함.

고 낫만을 가지고 갔다. 집으로 되돌아와서 뵐호미를 가지고 가다 보면 날이 저물겠으므로 날쌘 돌멩이로 찍어 베었다. 강낭콩은 낫으로 베는 것보다 돌멩이로 베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 화전에서 많이 재배하는 곡식은 ‘두불콩’과 ‘강낭콩’이다. 한 밭에 한 알씩만 심어두면 거리고 퍼지고 하여 강낭콩 한 나무에 두 되가 열릴 때도 있다. 또 화전에서는 담배가 잘된다. 한라산 가을 날씨는 가랑비(짐뱅이)가 많이 오므로 곡식을 말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엄막’(임시 건물)을 지어 말리기도 하였으나 여러 날 걸리기 때문에 불편을 느꼈다. 화전 하는 사람은 ‘파빗밧’⁷⁵⁾을 잘 갈아야 한다. ‘파빗밧’ 가는 사람은 하루에 ‘외(웨)말치’⁷⁶⁾ 밥 거뜬히 먹어치웠다. ‘두 말띠기’⁷⁷⁾밥 혼자 먹어 치우는 사람도 있었다.
- 가끔 화전민들이 예상외로 횡재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추수하러 갔다가 평년과 다르게 산에 눈이 일찍 내려, 오래 ‘엄막’에 머물러 있으면 노루도 눈을 피하여 ‘엄막’으로 들어 올 때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럴 때는 그 노루를 잡지 아니한다. 예부터 자기 스스로 울안에 들어온 짐승은 잡지 않는다는 습속(習俗)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루가 추수할 곡식을 먹어 버릴 때가 있다. 한번 먹고 나면 맛을 알아 자주 오기 때문에 이때는 덫을 놓아 잡는다. 노루 고기는 산제(山祭)의 제물로 쓰고 피는 보신용으로 팔리기 때문에 노루를 잡으면 횡재다.
- 어떤 때는 야우(野牛)를 잡을 수도 있다. 야우는 임자 없이 산속에서 야생하는 들소이다. 일정한 곳에서 살지만, 동작이 빠르고 사람을 보면 날쌔게 달아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냥하는 개로 하여 소를 쫓게 하여 한나절을 지나면 야우는 힘이 빠져 물 있는 곳으로 찾아가 물을 마신다. 물을 마실 때 줄을 던져 잡는다. 만약 줄을 던져도 잡지 못하면 개로 하여 또 쫓게 하여 야우가 힘이 다 빠져 버렸을 때 쫓아가 잡는다.
- 예전 제주에는 대대로 화전만을 생업으로 하여 살아온 집도 있다. 특히 ‘콩 볼리는 목’(송당리 대천동)에는 5~6대 동안이나 화전을 업으로 하여 살아온 화전민들이 있었다. 화전민들의 사는 집은 눈이 많이 쌓인 때 노루 사냥꾼들이 머물다 가는 집이 되기도 하였다. 또는 명당자리를 보러 다니는 논산객(論山客) 또는 약초 캐러 다니는 사람들의 하룻밤쯤 묵어가는 곳이기도 했다. 화전민 집에서 밤을 묵는 사람들은 그 값으로 소금이나 ‘자리젓(자리돔 젓갈)’ 등을 주곤 했는데 화전민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 원래 ‘드리(橋來里)’는 동네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 ‘웃드리’가 300여 호, 알도리가

75) 따비로 일굴 수밖에 없는 밭

76) 한 말들이 솔

77) 두말들이 솔

‘웃드리’는 3, 4호밖에 안 남았다. 옛날에는 산속에도 연가호(煙家戶)가 있었다. 그들은 거의 화전을 일구면서 살았다. 일제 강점기 이후에도 계속 화전을 하다가 일제가 산이나 들에 소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화전을 못하게 하였다. 교래리 사람들은 반은 ‘곶’에 살고 반은 집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곶’에서는 양하(양애)나 버섯(초기)을 따다 반찬을 했다. 가끔 화전에서 피를 베어 우마에 싣고 오는 길에 ‘유름(으름)’이나 머루를 한 움큼 따다 주면 집에 있던 아이들이 날듯이 기뻐했다. 간혹 가을에 피를 베어 쌓아두면 밤에 싣고 가버리는 도둑도 있었다. 그래서 밤에 ‘핏 가리(눌)’ 옆에서 자며 지킬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조금 날씨가 풀려 눈이 녹으면 재빨리 피를 실어 왔다.

III. 제주도 화전과 화전마을

1. 제주도 화전과 화전마을

- 제주도 화전에 관한 소농 오문복 선생의 연구에 의하면¹⁾, 제주에서 화전 명칭은 지방마다 다르다. 목안(제주시 관내)에서는 ‘캐운밭’이라 하고 정의(서귀포시 동부)에서는 ‘남친밭’, ‘불큰밭’, 대정(서귀포시 서부)에서는 ‘친밭’, ‘멀왓’이라 불렀다. 이외에 활쏘기 연습장인 사장(射場)에서도 화전 농사를 지었으며 세금을 냈다. 다음은 도내 각 마을 지명 중 이와 관련된 지명을 발췌하여 정리한 표이다²⁾.

〈표 3-1〉 화전 관련 제주 도내 마을 지명

마을명	지명	지명유래
가시리	사장터	옛날 설촌 초기부터 여러 사람이 모여 활을 쏘던 자리로 ‘사장터’라 불렸음.
	참남밭못	참남밭 한 모퉁이에 인위적으로 우마 급수장으로 만든 못이어서 ‘참남밭못’이라고 하였음.
	안좌름내	붉은오름 앞에서 발원하여 안좌동을 경유, 두리물 동네를 돌아 가시나 물 동쪽에서 구석물내와 합류, 안좌동에서는 안좌름내 두리물 동네에서는 두리물내로 각각 호칭하고 있음.
신풍리	사장터	조선 시대 활쏘기 연습하던 터
성읍2리	뱃데기 산전	성읍2리 3164번지 북쪽, 이 마을의 배 부분에 해당하는 깊은 산 속 밭(山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창천리	사장밭, 사장밭동	안덕 농협 창천 지소 동쪽 지역, 옛날 궁사들이 무술 연마하며 활쏘기 연습하던 곳, 이 일대 형성된 마을 이름을 ‘사장밭동’이라 함.
상창리	개낭산밭	상창리 685번지 일대, 예전 ‘개낭’이 많이 자생한 밭이라는 데서 연유된 지명, ‘개낭’은 누리장나무, ‘산밭’은 산 밭의 제주어

1) 오문복(1987), 전계 논문.

2)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의 마을(<https://jeju.go.kr/index.htm>)

마을명	지명	지명유래
상천리	모록궤	옛날에 흰 사슴이 ‘모록궤’에 와서 새끼를 낳아 치므로 이에 연유한 이름, 약 130년 전에 수해와 태풍이 겹쳐 아름드리나무까지 다 휩쓸릴 정도로 피해가 커 바닷가 마을에 심한 흉년이 들자 몇몇 주민이 이 중 산간으로 올라와 화전 일구었음. 농사가 잘된다는 소문이 나자 조씨, 김씨, 박씨 세 성이 입주하여 설촌 됐으며 콩, 피, 목축업으로 생활했음. 이후 마을이 커지면서 ‘창천리’에서 합리하려 했으나 주민이 반대하면서 독립 마을을 지키려고 이름을 지었는데 ‘백록리’라 했음. 한 일 합방 이후에도 ‘하창리’에서 마을 합치려고 시도한 적 있는데 여전히 독립하여 ‘창고내’ 위쪽 있다 하여 ‘상천리’로 바꿔 불렸음.
	상잣궤	상천리 산 2번지 경, 이 지역이 국마장이었던 당시 이곳은 상잣에 해당함. 즉, 상잣 궤 옆에 있는 집터임. ‘궤’는 위쪽은 큰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려지고 땅속 깊숙이 파인 곳을 말하는 제주어
	문턱궤	상천리 600번지 경, 냇가 인근에 있는 ‘궤’인데 예전에 사람이 살면서 이곳에 문을 달아 살았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 1948년 발발한 ‘제주 4.3’ 이전만 하더라도 이 인근에 촌락 이루어 사람이 살았으나 ‘제주 4.3’으로 소개된 후 복구되지 않아 폐동 되었음.
	천망동 쳇망어음	상천리 15번지 일대, 이곳 지형이 가루를 쳐내거나 액체를 받아내는데 쓰는 기구인 ‘체’와 닮았다는 데서 연유했다고도 하고, 약 150여 년 전에 이 동네가 설촌 당시 한 풍수사가 지나다가 ‘이 동네는 저 냇물을 바라보는 형이다’라고 한 데서 연유했다고도 함. 지금은 마소를 방목하는 목장지대로 이용되고 있음. 상천리 17번지 일대 형성된 동네를 ‘쳇망 웃동네’, 82번지 일대 동네를 중동네, 111번지 일대 이루어진 동네를 ‘쳇망 알동네’라고 함. ‘쳇망’은 체의 망, ‘어음’은 ‘바위’와 더불어 체의 테두리를 말하는 제주어임.
	모록밭 백록리	상천리 옛 이름, 옛날에 흰 사슴이 ‘모록궤’에 와서 새끼를 낳아 치므로 연유한 지명이라 함. 이 마을은 처음 화전민이 정착 설촌 하였으나 마을이 커지면서 창천리에서 합치려 했으나 주민이 반대하면서 독립된 마을로 지키려고 ‘백록리’라 했음.
광평리	광평리	광평리는 조선 시대 목장과 화전지역으로 동광리에 속해 있었음. 이 마을의 설촌은 지금부터 200여 년 전 현재 마을 동쪽 ‘조가위’에 조씨가 살기 시작하면서 이뤄졌다 하며 그 후 ‘마통어귀’와 ‘감나물’, ‘모살목’ 등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70여 세대를 이루었는데 1948년 ‘제주 4.3’ 때 완전 폐동 되었다가 1963년 재건정책에 따라 다시 마을이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가막세왓	광평리 파라다이스 골프장 남쪽 일대, 지형이 총 방아쇠와 비슷하므로 그 형체를 따서 부르고 있으며, ‘방아쇠앗’이라 부르다 ‘가막세왓’으로 어원이 변했음.
	고백이 동산	‘고백’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하여 ‘고백이 동산’이라 불리며, 그 후손들은 한 명도 거주하는 이가 없는데 그 당시 화전 생활로 인해 다른 곳에 이주했다고 추측됨.

마을명	지명	지명유래
화전마을	조가동	광평리 마을 동북쪽 500m 일대, 1750년경 조씨 성 가진 분이 설촌 하였다 하여 '조가위', '조가궤'라고 부르며, 약 40세대 거주하였으나 '제주 4·3' 당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현재는 집터만 있음.
	가시남궤	광평리 산 32번지 일대, 이돈이오름 서쪽 일대를 일컫는 지명, 이 지역에 가시나무 숲이 있고 그 안에 천연동굴이 있어서 연유했음. '가시남'은 가시나무를 말하는 제주어임.
	고장친밭	광평리 289번지 일대, 왕이메오름 서남쪽, 예전에 이곳은 황무지였는데 고씨 성 가진 사람이 개간하여 경작했다는 데서 연유했음.
	조가궤 조가위 조개동	광평리 82번지 일대 지명, 설촌 터의 한곳이며, 1950년경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설촌 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임. 이 마을에 약 40여 세대가 거주하였으나 1948년 발발한 '제주 4·3'으로 당시 주민들이 해안마을로 소개되었고 그 후 복구되지 않아 폐촌되어 지금은 집터만 남아있음.
	숯굳동산	광평리 산 40번지 산록도로 남쪽에 위치함. 예전에 이 일대에 숯 구덩이를 만들어 숯을 굽던 터였던 데서 붙여진 지명임. 지금은 숯 구덩이의 흔적이 전혀 없으며 이 지역 일부에 삼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숯굳'은 숯 구덩이의 제주어임.
동광리	삼밭구석, 무동이왓	지금으로부터 360여 년 전 만수동 지역에 임(任)씨가 정착하여 마을을 이룬 후 1670년대 마전동(麻田洞) 지역으로 분산 이주하여 마을이 2개로 나뉘었음. 1700년대 '무동이왓(舞童洞)'에도 동네가 형성되었는데 자단리(自丹里)에 속했다가 한때 광청리(廣淸里)로 불린 때도 있었으며 1839년 동광리(東廣里)로 개칭했음. 동광리 48번지 석교동 동쪽 일대, 약 170년 전 풍수사가 머물면서 이 일대 지형 지세를 살핀 다음 말하길 "춤을 추는 어린이를 닮았다." 한데서 연유한 이름, 이 마을 설촌 터로 지금도 대나무 등이 무성함. 이 마을은 본디 식수원이 없어 마을 터로 적합하지 않았으나 화전 농사하기에 매우 적당한 지대에서 바닷가에 살던 이들이 이주했으며 제주 양씨가 이주해온 이후로 그때부터 마을이 점점 커지니 '자단리'에서 각 마을이 독립해 나가고 이 지역을 포함하여 '광청리'라 했다가 다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동쪽에 있는 광청리란 뜻으로 '동광리'라 하게 되었음. 이 마을은 제주의 서부 중산간 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산남과 산북을 잇는 지름길이 닦여 있어 일찍이 교통의 요지임. 무동이왓, 무동동(無童洞), 동광리 48번지 일대, 석교동 동쪽 일대를 일컫는 지명, 무동이왓, 무동동 이곳은 '제주 4·3'으로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고 초입에 '제주 4·3' 유적비만 있음.
		서광동리 929번지 경 있었던 물, 옛날 이 근처에 궁사들이 활쏘기했던 밭 가까이 있는 연못에서 연유한 지명임. 지금은 마소의 급수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밧'은 '왓'과 더불어 밭을 말하는 제주어
서광	사장밧	서광서리 집하장 터, 무술을 연마하며 활을 쏘는 연습장으로 활용되었

마을명	지명	지명유래
서리		다고 하여 '사장밭'으로 불리며, 연못이 있었으나 3년 전 마을 공동소득을 위한 집하장 시설로 매립되어 없어졌음.
	거림솟꽃	서광서리 24번지에서 35번지 일대, 현재 채석장 위쪽을 말함. 예전에 숯을 굽는 가마가 있는 세거리라는 데서 연유한 지명, '거림'은 거리를 '솟'은 숯을, '꽃'은 굽 또는 그루를 얘기하는 제주어
	새장밭	서광서리 2167번지 일대, 현재 감협 선과장 부지를 이름. 조선 시대 활쏘기 연습장이었다는 데서 붙여진 지명
신천리	하목장	신천 마장, 신천리에 있는 진상하던 말을 임시로 먹이던 목장, 조선 고종 때 동암 오장헌의 효행과 덕행을 칭찬하여 이 목장을 두 번 하사하였으나 청렴한 그는 끝내 받지 않으므로 신천리에 사는 향리에게 하사하였던 것인데 현재 마을 공동목장이 됨.
삼달2리	산전밭	미천이 미르 북쪽에 있는 두둑
수산2리	물막산전	수산2리 북쪽 200m 지역, 수산리 갑부 큰 가름 강 집에서 말을 목양 할 당시 우마 관리를 위해 막을 지었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 '밀막에 움'(말을 가두어 두는 곳)이라고도 함.
수산1리	화전동	양마산지(良馬產地): 『탐라지』에 보면 고려 충렬왕 3년(1227년) 원에서 본도를 지배할 당시(1273~1368) 동서아막(東西阿幕)을 설치하고 다루기자로 하여 놓고마 160필을 제주에서 감목(監牧)하게 하였는데, 동아막(東阿幕)을 수산(首山)평에 설치하여 목양과 병참기지로 삼았다고 함. 충렬왕 25년(1300년) 동서도(東西道)에다 10현을 설치했는데, 동도에는 조천(朝天), 별방(別坊), 하도(下道), 돈의(敦義), 수산에 두어 현감이 다스렸음. 그때 원의 기왕후(奇王后)가 탐라적(耽羅赤)으로 하여금 소, 말, 노새, 양, 나귀 등을 실어와 수산평에 방목하고 목자를 두어 감목하게 하였는데, 그중 말이 크게 번성하여 산야에 가득하였으니 말을 명월포(明月浦)에서 원으로 반출, 이러한 원이 탐라를 지배하면서 1276년 말 등을 수산평에서 방목할 당시 수산리에 마을이 형성되고 연못 등이 시설되어 가축 방목할 만한 여건 조성되었을 것으로 믿어지고, 수산 1, 2리 인근 지역에 방묘, 지석묘 등이 산재해 있으며 석기가 발견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한 고촌(古村)임.
고성리	사장전 (사장밭)	고성리 2191번지 일대, 선비들이 활쏘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비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던 훈련장
	살쓰디왓	고성리 1045-2번지 일대, 관원과 선비들이 활을 쏘던 곳이며 관에서 활쏘기 대회를 열어 합격자에게 선달 벼슬을 줬다고 함.
수망리	진산전	수망리 산 120, 156번지 일대 충혼묘지 서남쪽, 들판이 길고 습지라 붙여진 이름. 지금은 조림지 및 초지로 이용되고 있음.
신도1리	사장밭	화살 터, 옛날 한량들이 궁술연습 하던 곳으로 현재 두 곳이 구전되고 있음. 맨처남, 동쪽 200m 지점 등.
무릉1리	사장동	옛날 지역주민들의 활쏘기 연습장이던 곳으로 오늘날도 그 동네 이름은 그대로 '사장동'이라 불리고 있음.

마을명	지명	지명유래
	쓸대왓	지금 무릉초등학교 운동장이 있는 자리를 ‘쓸대왓’이라 부르는데 옛날 활쏘기 연습하는데 사장동에서 활을 쏘면 쓸대(과녁)에 맞도록 활쏘기 연습을 했는데 그 쓸대가 있던 자리여서 붙여진 이름
	사장밧	대정읍 무릉 1리 화살 터, 활쏘기 연습하던 곳
신평리	사장밧	신평리 1148번지, 옛날 선비들이 이곳에서 무예를 연마하여 활을 쏘던 데서 연유한 이름
	황개친밧	신평리 산 21번지, 근처에 이 마을 설촌 터의 하나인 ‘새빈나리’가 있는데 황씨 성을 가진 이의 소유였던 데서 연유한 이름
안성리	사장터	대정읍 안성리 일대, 현 안성리 사무소 북쪽에 위치, ‘사장’이란 ‘활터’를 말하며 옛 대정현 군사들이 활을 쏘던 곳,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례도』 제30도(圖)인 ‘대정강사’에 성안에 사수들이 활쏘기를 점검하는 장면이 있음.
법환리	사장, 소장왓	법환동 297번지 일대, 마을주민들이 활 쓰는 연습하기 위해 과녁을 세웠던 장소이며, 과녁 있는 곳을 ‘사장밧’이라고 함. 옛날 범섬을 점거한 목호 소탕하기 위하여 최영 장군 이끄는 군사들이 ‘막숙’에 숙영 할 때 활쏘기 훈련하던 곳으로 지금도 ‘소장 앞’이라 불리고 있음.
서홍동	화전	야산 지대 내 위치, 1800년대 화전민들이 경작했던 밭이 있음. 덤불이나 잡목 태우고 만들어진 밭, 야산 지대 밭의 총칭
	생물도	태양 목장 북쪽 하천, 목축지 안 우마 먹는 물이 있는 넷도, 부근에 인가가 있었음. 성안 봉아 오름에서 넘어온 진주 강씨가 처음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함.
	볼래낭 산전	서홍동 2469번지, ‘볼래낭’은 보리수나무, 산전은 산에 있는 밭을 나타냄.
	멀왓	서홍동 44~100번지 일대, ‘멀왓’은 화전의 제주어
상예동	친밧	예전 넷가 근처에 나무가 무성했는데 이 나무들을 다 쳐내고 화전으로 일구어냈다고 해서 이 부근을 ‘친밧’이라 부름.
	가가동, 친밧당	상예동 5010번지, 예전 넷가 근처에 나무가 무성했는데, 이 나무들을 다 쳐내고 화전 밭으로 일구어냈다고 해서 이 부근을 ‘친밧’이라 불리었음.
색달동	냇서왓, 내서왓 (川西洞)	천제연 북쪽, 네 서쪽에 있다 하여 ‘냇서왓’이라 함. 화전이 한참 성하던 때는 농사도 잘돼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 하였음.
호근동	원제왓	호근동 919~21번지 일대, 각수 바위 동쪽에 있던 마을, ‘제주 4.3’으로 폐촌이 됨. ‘왓’은 밭의 제주어
	호시니 마을	호근동 산 1번지, 일제 강점기 35가호 72명 살았음. 현 서귀포 ‘치유의 숲’ 안에 거주지 흔적이 있음.
동홍동	연저골/	위치는 ‘솔오름’ 서북쪽 300m 지점에 있는 동홍동 2171번지 지역,

마을명	지명	지명유래
	연제골/ 연자골	이곳 지형이 제비가 알을 푸는 현상으로 움푹 내려앉은 곳이라 하여 '연저골' 또는 '연제골', '연자골'이라 부름. 옛날 화전 농경시대 강(姜)씨 및 김(金)씨 등 15가구가 살았으며 '넙작지' 인근에도 고(高)씨 외 2~3가구가 한 동네를 이루고 살다가 동홍동 '위셋동네'에, 그리고 서홍동 및 서귀포 등지로 이주하였다고 함.
회수리	법정악	옛날 이 오름에 법정사(法井寺)라는 절이 있었다는데 연유하여 '법정 악'(法井岳), '법정이오름'이라 부르고 있음.
	거린사슴	'거린사슴'은 오름인데, 오름이 두 개의 봉우리로 갈리어져 있어 '거리다'는 '갈라지다'의 옛말이며, 사슴이 살았다고 해서, 이를 합해 '거린 사슴'이라 불리고 있음.
	녹하지역	중문동 산 2번지 일대, 한라산 사슴들이 겨울이 되면 무리로 내려와 살았다 하여 녹하지역이라 불림.
	도룡골왓	이 일대에는 메밀, 산도, 조 등을 경작하였다고 함. 이곳에 물이 있는 자가 있었는데 그 물통 모양이 '도룡이'처럼 둥글게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 '왓'은 밭의 제주어
하원리	법정악	하원동 산 1-1번지, 해발 760m 오름으로 그 어원이나 유래는 특이한 지명에서 유래된 것이라기보다 단순히 법정사가 위치하여 법정이오름이라고 함.
	너른도 너른냇도	하원동 산 66번지 일대, 하천이 생활용수와 산림이 인접하여 오래전부터 화전민들이 살았었으나 '제주 4·3'으로 인하여 당시 하원마을로 이주하였음.
중문리	웃중문리	웃중문리(上文里)라는 이름은 대정군 고지(태종 16년, 1416년)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화전 밭 일구어 농사짓고 사냥하면서 삶을 이어갔는데 화전은 원시적 농경법으로 산이나 들에 불을 지르고 그 자리에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데 녹하지 뒤쪽 일부 움텅밭 일부와 섯단동산 일부에 섯단동산(사단동)이 그 규모가 가장 크고 땅이 기름쳤다고 함. '제주 4·3' 전까지만 해도 수십 가호가 군데군데 모여 생활하였는데 이 지역 통틀어 상문리라 불렸음. 그 중심은 섯단동산(사단동)인데 인근에는 냇 줄기가 뻗어 있고 그 속에 많은 물이 고여 있어 이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음. 지금은 사단동 일부 지역만 경작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고 그 속에 과거에 사람들의 주거지 역임을 말해주는 대나무가 자라고 울타리를 둘렸던 많은 돌담이 오랜 역사 지켜주고 있음.
	박가밭 박애밭	너른냇도 동쪽에 있으며 중문동 459번지, 박씨 성 가진 사람이 이곳에 살면서 땅을 개간하여 농사지으며 살았다고 붙여진 이름, '밭'은 밭의 제주어
토평동	솔대왓 시장밭	토평동 2204번지, '솔대'는 활 쏘는 과녁으로 마을마다 일정한 장소에 세워 군사훈련을 시켰음. 솔대를 길 좌우에 과녁으로 세워놓고 말을 카고 지나가면서 화살을 쏘던 곳

마을명	지명	지명유래
상효동	사장밭	상효동 445번지, 옛날 활을 쏘았던 밭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곳
법호촌	상동	100여 년 전 상동 화전민 6세대, 하동 4세대 등 10여 세대 있었으나 서귀포와 토평으로 이주하였고, 1948년경 연주 현 씨가 영천악 기슭에 거주하였으나 '제주 4·3' 당시 한라산 공비 소탕하기 위하여 전초 기지로 군경이 주둔하였으며, 1955년 귀농 정착 개척단이 보사부의 허가 받아 이곳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마을 형성의 시초임.
하효동	맛세밭	막 친 모양으로 높은 곳이라는 뜻
	사장동	솔대 세워서 활 연습하던 곳으로 활쏘기 시험에 합격하면 천총(千摠) 벼슬 주었다 함.
하례2리	하례2리	9 소장은 서귀포 소장 관내의 국축마(國畜馬)와 사둔마(私屯馬) 점검하는 곳이 바로 이곳 1656번지 중심으로 한 직사(直舍)땅 이었음. 원래 이 마을 설촌은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조세진(趙世珍)이란 사람이 단신으로 육지에서 들어와 지금 셈밀도 북쪽 금물과원(禁物果園)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음. 한편 화전민들은 뱅디왓, 올난도, 어워도, 밭진므로 등지에 모여들어 화전을 일구며 살아왔음. 그러다가 화전민들이 점차 아랫마을로 내려와 직사, 돈드르, 두수오름(頭首岳) 북쪽에 정착하기 시작하였음.
도순동	사장밭	도순동, 353번지, 활 연습하던 곳, 사장세 납부기록 있음. 도순에 약 200년 전부터 '사장밭'이 있었는데, 지금의 도순초등학교 남쪽 실습지 전부가 '사장밭'이라고 불리는 곳임. 동서 길이가 100여m이고 서쪽 끝에 솔대 새워놓고 화살 쏘았음. 이곳에서 갈고 닦은 무예로 과거 치렀으며 전주 이씨 형제와 장씨 가문에서 급제한 적이 있음.
	쇠테왓	이 마을 서쪽에 있는데 옛날 우마 방목과 관련된 지명으로 보이며 얼마 전까지 여기에서 묵은 기왓장들이 나왔음.
덕수리	사장밭	활 연습을 하던 곳
용흥동	활오름	오름 정상 생김새가 활처럼 구부려져 있다고 해서 부른 이름, '제주 4.3' 전 오름 뒤에는 약 30여 호가 모여 사는 동네였으나 '제주 4.3'으로 중산간 마을 소개령에 의해 용흥, 도순, 강정 등으로 연고 찾아 이주하면서 마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음.
강정동	팔소장	현 강정 공동목장 속칭 '참송이케'가 팔 소장 자리, 이곳은 옛날 나라에 바칠 국마를 사육하던 곳, 예전부터 제주도에는 수많은 말과 소가 사육하였음. 이원진『탐라기』(1653년)에 당시 제주목 마장이 7소 38자, 6450필 말이 있었고, 정의현에 마장이 3장 17자, 2,383필 말, 대정현에 마장이 1장 3자, 1,552필 말 있던 곳으로 기록되고 있음. 김석익『탐라기』(1918년)에는 조선 숙종 30년 (1740년) 목사 송정규(宋廷奎)가 조정에 계청(啓請)하여 목장을 축(築)함에 20소 60둔(屯)을 합하여 10소로 정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음. 이로 미루어 보아 13세기 후반 원나라 지배하에서 제주도에 우마가 방목되기 시작한 이래, 17세기 전반 제주도 전역에 11개 목마장이, 그 후반에는 20개 목마장

마을명	지명	지명유래
		이 있다가, 18세기에 이르러서 축장(築墻)된 목마장 10개소로 되었음. 그중 1, 2, 3, 4, 5, 6소는 제주목에 속하게 하고 7, 8, 9, 10소는 대정·정의 양현(兩縣)에 속하게 하였다는데, 팔 소장이 바로 현 강정 공동목장 자리였다고 함. 당시 팔소장은 마감(馬監) 2인, 군두(群頭) 2인, 목자 24명이었으며, 둔마수(屯馬數)는 190여 필
	켓담	예전부터 제주도 산간지역에서 많은 우마를 방목했음. 그런데 산간에 방목되는 우마들이 가을과 겨울철에는 해안마을인 강정리까지 내려와 마을주민들이 가꾸어 놓은 농작물들을 먹어버리는 등 방목한 우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심하여 마을주민들이 편히 살 수 없었음. 이러한 주민들의 곤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 180여 년 전 당시 경민장(현재 里長)이던 윤신채(尹信彩)의 지혜와 지도로, 강정리 북쪽 지경 일선에 돌담으로 축성하였음. 이를 속칭 강정 '켓담'이라 함. 방목 우마들이 마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이 '켓담'은 북서편으로 월평리와의 경계선에서부터 북동편으로 난정이도까지 약 3km에 이르는데 구명 물길, 말길, 난정이도라고 불리는 주요 삼통로에는 정주목을 세워놓고 정낭을 놓았음. 이를 각각 서정도, 동정도, 난정이도라고 불렸음. 그리고 이 캇담 안쪽에 주민들이 우마를 방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마에 줄을 매어 기르기로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놋그릇, 식기 등을 마을에 바치기로 향악으로 정한 후, 윤신채 스스로 가축을 야간에 풀어 놓았다가 놋그릇을 마을에 내놓은 시범을 보였다고 함. 그 후 강정 마을에서 가축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함. '제주 4·3' 당시, '켓담'에 쌓아졌던 돌담들이 마을 방어 축성 자재로 쓰이면서 '켓담'은 허물어졌고 서정도, 동정도, 난정이도에 세워졌던 정주목도 포대 어귀들로 사용하기 위해 옮겨져 버려 현재 강정 '켓담'은 흔적도 없음.
	사장밭	활 연습을 하던 곳, 사장세 납부기록이 있음.
용당리	산전밭	옛날 잡초가 무성히 자라는 밭
판포리	사장밭	상동에 있는 밭 이름
함덕리	사장들	사장(射場)드르
북촌리	사장밭, 새왓질 산전	'한숨이' 남쪽에 있는 밭, 사장(활터)이었음.
	새왓질 산전	'개구못' 동쪽에 있던 밭, 길가 새(띠) 밭, '새왓질'에 있는 산전
하도리	솔대왓	대왓과 대동소이함. '솔'은 화살을 쏘는 목표임.
세화리	사장, 솔대왓	구좌 충훈묘지 동쪽 200m 지점에 북측은 사장터, 남측은 솔대왓터임. 전자는 군관 사출들이 궁술 연마하던 곳이고 후자는 깃(旗)대와 같은 것이라 군사훈련 하던 곳임.
한동리	민동이산전	'진모살' 서북쪽 길가 지경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들녘이라 뜻, 정수리 까지 벗어진 민머리를 제주도에서는 '민동 대가리', '호박 대가리'라 하는데, '민동이산전'의 '민동이'도 같은 의미임.

마을명	지명	지명유래
고성2리	사장밭	'보로미' 동산 서북쪽 기슭, 지금 고성 주택단지 바로 북쪽 밭, 여기서 활 쏘고 무예 익혔으리라 짐작됨. 고성리 주민이나 인근 마을 사람들 이 함께 이용했으리라 생각됨.
하귀1리	사장밭, 활왓	사장밭(=밭)이란 활터를 일컫는 말
장전리	사장밭	현재 장전에 사장밭은 동·서 길이 300m, 남·북 길이 200m나 되는 넓은 들판임. 김통정 장군의 지휘 아래 대몽항쟁 당시 군사적으로 훈련하던 장소(밭)라는 데서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임. 이 밭이 사장밭으로 지금까지 구전과 일치하고 있음.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 당시 최초로 장전마을 사람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장전리에 촌락이 형성된 후로 이 사장밭은 개인 소유, 당시 장전리 청년회에서는 이 밭의 역사적 장소임을 고려하여 공금으로 일괄 사고, 공공의 장소로 활용해 오다가 장전리에 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을 느껴 마을에 기증, 1946년경 국가에 기부하였음. 이에 따라 장전리에서는 1946년 8월 21일, 장전공립학교로 설립인가를 받고 배움의 터전으로 활용 중 1948년 11월 '제주 4·3'으로 인하여 소개병에 따라 장전마을이 소개되자 장전마을과 함께 학교가 전부 타버렸음.
하가리	하가리	고려 시대부터 화전민이 모여 살다가 1418년(조선 태종 18년) 현촌 고내리에서 분리되어 가락리로 불리다 1448년(조선 세종 30년) 무진년 판관 하담의 일설에 의하면, 이강이 재임 시 윗동네를 상가락, 아랫동네를 하가락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음. 그 후 1798년(조선 정조 22년) 판관 김계보 재임 시 상가락을 상가리로 하가락을 하가리로 개칭하였음. 지금 '더력'으로 부르다가 '더할 가'자의 '더'자와 '즐거울 락'자의 '락'자가 합하여 우리말로 '더력'으로 부르다 음운 변천 과정에서 '더력'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함.
납읍리	사장터	옛 선조들이 사궁병법(射弓兵法) 연마하던 사궁장(射弓場)이 서쪽 약 100m 거리에 있어서 그 일대를 속칭 '사장'이라 함.
봉성동	화전동	1895년(조선 고종 33년) 도내산리를 어도리로 개명하여 58년간 불러오다가 1953년 봉성리로 개명되었음. 봉성리는 최초에 일구, 이구로 분리되어 있었음. 일구는 동개동, 서성동, 중화동, 구몰동, 화전동 등 5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었음. 그 유래를 살펴보면 동동네, 석각씨동으로 부르다가 2개 동을 합하여 동개동이라 불렸으며, 청경이동·서근이동 2개의 동을 합하여 서성동이라 불렸으며, 중화동은 마파지동이라 부르다가 관전동 앞 동네를 합하여 중화동으로 하였고, 구몰동은 지세나못이 있는데 목과 지형 지세가 거북이가 진흙에 빠진 형이라 하여 구몰니동이라 부르다 구몰동으로 하였으며, 화전동은 솔도동·공초동이 합하여 '화전동'이라 하였음.
옹포리	사장밭	군사들이 활쏘기 연습도 하고 격식을 갖추지 않고 사람 시신을 임시 매장 했던 곳
금악리	알곳	금악봉을 북쪽에 두고 서남쪽에 만조약이 있으며 남쪽에는 남송악, 도

마을명	지명	지명유래
월림리	(下火田) 활쓰동산 솔대왓	널약이 보이고 동남쪽에 정수약과 당오름 등으로 둘러싸인 잡목지대를 이룬 지역을 말함. 이곳은 원시적인 상록관목의 자생지로 잡목 숲을 이룬 나무들이 뿌리 깊게 자가로 쌓인 틈에서 생육하고 있음. 자갈밭의 특성상 건기에는 생기 없이 자라다가도 우기가 되면 초목이 무성하고 잡목들 사이에는 야생초가 무수히 자라고 있음. * 상화전은 지금의 애월읍 봉성리 화전동으로 추측됨.
	백개산전	산전(山田) 솔대를 놓아 활쏘기 연습을 하던 터
대림리	사장밭	옛날 이곳에는 ‘움부리’란 습지 같은 큰 연못이 있었음. 지금부터 약 270여 년 전 금능리에 살던 고혜한이란 사람이 집안 식구를 전부 데리고 움부리물 아래쪽에 이사 와서 활집을 짓고 사냥을 하면서 살게 되었고 잡은 짐승을 팔아 부자가 되자 말과 소를 기르며 주변 잡목이 우거진 밀림지대를 개간하여 살기 시작했는데 그가 이 마을의 발상 시조가 되며 그때부터 이 마을은 ‘움부리(音富里)’로 불렸음. 1953년 행정구역 폐통합 당시 한경면 일부와 상명리 일부를 합쳐 월림(月林)리로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됨.
	사장밭	사장밭
도련동	사장밭	사장밭
	산쟁이왓	산전밭
유수암리	사장밭	유수암리 2080-1번지, 어느 때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활 쓰는 연습을 하였던 곳이라는 데서 붙여졌음.
	상장털 (상장들)	유수암리 산 27번지, 유수암리 공동목장으로서 상장털은 ‘상장들’이 ‘상장들’, ‘상장털’로 된소리화되었음. 서편 경계가 되는 하천에 웃신구물, 셋신구물, 일신구물이 있음.
	섯솔대왓	유수암리 443-2번지, 범미왓 동네를 중심으로 서남쪽에 솔대가 세워졌던 밭이라는 말인 데서 연유한 지명
	화생이	유수암리 2265번지 주변, 화생(火生, 불씨를 잘 이어 가는 사람)이 이곳에 살면서 여러 사람에게 불씨를 전해주는 곳이었다는 데서 지명이 되었음.
귀덕3리	멀왓 (馬屹洞, 馬田)	높은 지대에 말들이 많은 남쪽 동네라 하여 멀왓이라 불렸음.
오등동	오드싱마을, 죽성, 긠파시마을, 민밭(민밭)	민밭은 죽성에서 남동쪽으로 500m 정도 올라간 해발 300m 지점에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음. 1914년 세부측량 당시 이곳이 오등동의 시초 기점이 됨으로써 오등동 1번지로 시작된 마을임. 이 마을 명칭은 ‘민밭’ 또는 화전마을이라 했음. 설촌 연대는 역 100여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음. 죽성에 살던 고 씨가 축산을 목적으로 옮겨 설촌 시초가

마을명	지명	지명유래
		됨. 그 후 인근 마을에서 한두 가구씩 이전하여 10여 세대의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제주 4.3’ 소개령 이후 집터만 남아있음.
월평동	사장밭	월평동 299번지 일대, 마을 중심지에서 동북쪽 450m 지점에 있으며, 활을 쏘는 장소였다는 데서 연유했음. 옛날 한라산에 사슴과 멧돼지가 서식하여서 수렵을 위한 활쏘기 연습과 무예 연마로 출세를 꿈꾸었던 자리였음. 때로 인근 마을 청년들과 활쏘기 경기를 했던 곳으로도 알려진 곳임.
아라동	솔대왓	솔대를 놓아 활쏘기 연습을 하던 터
	새산전내	아라1동 산 59번지와 산 62번지 사이를 흐르는 하천을 말함. 삼의양 오름에서 남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내(川) 이름으로 예전 이곳이 화전 지대이던 당시 새로 만든 화전에서 흐른다는 데서 연유했음. ‘막은내’ 남쪽에 있음.
	솟므로	아라2동 1018번지이며, 금산공원에서 서남서쪽으로 250m 떨어진 곳에 있는 지경으로, 등성이가 졌다는 데서 연유한 지명, ‘솟’은 예전에 연료로 사용했던 솟을, ‘므로’는 ‘므로 물이 물렁이’라고도 하는데 등성이진 곳을 말하는 제주어
영평동	난전밭	난전(難田)밭
	목장밭	목장밭
	삼수장 (삼소장)	예전 제주의 중산간 지대는 목장지대, 1429년(세종 11년) 세종은 제주 출신 고득종(高得宗)은 목초지 확보하고 농경지를 우마의 유린에서 보호하기 위해 “한라산 중턱 약 4식(120리) 되는 땅에 목장을 건설하여 공사마(公私馬)를 들여보내 방목하게 목장 안에 사는 60호는 모두 목장 밖으로 옮겨 그들이 소원하는 땅을 주어 살게 하도록” 건의하였음. 조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한라산 중턱에 돌로 주위 165리의 담장 쌓은 다음, 다음 해인 1430년(세종 12년) 2월 9일 목장을 설치하여 10개 목장 기초를 확립하였음. 이때 아라동 전 지역이 삼소장에 해당함. 특히 영평동과 월평동은 삼소장의 중심지, 이를 두고 이르는 지명이며 ‘삼수장’이라고도 함.
	솔대왓	각시풀 동쪽에 있는 밭, 밭이 크고 길어서 불어진 이름
	네마리화전	예전 화전 농사를 했던 지역으로 추정됨.
	성악이 친밭	영평동 김성악이라는 사람의 선조가 화전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던 일대를 이름.
	손당친밭	영평동 출신으로 송당리에 장가를 든 사람이 있었는데 ‘손당’은 바로 그 사람의 다른 이름임. 그 사람이 화전을 일궈 농사를 지었던 일대를 이름.
봉개동, 명도암	강서북 산전	봉개동 산78-1번지, 거친오름 남동쪽 평지 부근, 산전은 화전을 뜻함. 강서북이라는 사람이 화전 일구었다는 데서 유래
	사장밭	봉개동 551번지, 활쏘기 연습하던 밭, 선황두(현황두) 전설과 관련 있음.

마을명	지명	지명유래
	목장밭, 화전밭, 산잣성	용강목장 내 상잣성 부근 화전밭, '물'동 태운 후 개간
회천	사장밭 사장질	회천동 2126번지 일대를 사장, 또는 사장밭이라 함. 조선 시대 마을마다 활쏘기 연습하는 사장이 있었음. 이 마을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던 곳임. 밭 모양이 남북으로 길게 나 있음.
	도련 목축지	회천동 497번지, 도련동 주민들이 목축지로 이용했던 밭 일대, 일제강점기에 조성되었다고 추정됨.
	사장밭	회천동 1413번지, 사장이었던 밭 이름, 새미 마을에서는 이곳에서 활쏘기 연습하지 않으면 무관시험 붙을 수 없었다 함.
용강	사장밭	용강동 662-1번지, 활쏘기 훈련장, 동서로 길쭉함.
선흘1리	이만냉이친 밭	이만냉이라는 사람이 화전 일구어 농사짓고 살았던 지역, 흔적이 남아 있음.
	철영이굴왓	철영이라는 사람이 개척하여 살던 곳
	사장밭	활쏘기 연습하던 터
위미1리	사장동네	옛날 활터가 설치되어서 마을 사람들이 활쏘기 통하여 심신 단련하던 곳에서 유래된 지명, 이곳에서는 과녁을 주로 쏘았고 훌래동산에 '솔대'가 있어 여기에서 활 솜씨를 겨루었음.
한남리	머체왓 동네	한남리 산76번지 일대로 현재 공동목장, 이 지역에 돌무더기가 많아 불여진 이름, 머채는 돌무더기 많은 밭을 뜻하는 제주어, 화전 농사를 하는 주민들이 몇 가구 모여 동네 이루고 살았으나 '제주 4·3' 당시 폐동 되었음.

2. 화전세와 마을 유래

2-1. 화전세(火粟田)와 마을 유래

- 1899년 봉세관(捧稅官) 강봉헌(姜鳳憲)이 화전세 징세 자료로 작성한『제주삼읍공토조사성책, 州山場新起火田株』에 의하면, 영평(寧坪), 월평(越坪), 용강(龍崗), 명덕(明德, 명도암), 교래(橋來), 교래경(橋來境), 안좌(安坐境, 가시리), 오등(吾等境), 어음(於音境), 어도(於道境, 봉성리) 등 대략 10곳에서 화전세(火粟田)를 징수하였다 보아 진다.

寧坪二十人火粟田四斗落睹錢四十兩³⁾

越坪六十五人火粟田十三斗落賭錢一百三十兩
龍崗二十人火粟田三斗三落升賭錢三十三兩
明德⁴⁾四十人火粟田十三斗一落升賭錢一百三十一兩
橋來五十人火粟田一石十三斗一升落賭錢二四百八十一兩
橋來境一百八十人稷田⁵⁾一石三斗七升七合落賭錢七十七兩
安坐⁶⁾境九人火粟田三斗二升落賭錢十一兩
三所吾等境三十八人火粟田七斗八升落賭錢七十八兩
六小四十八人火粟田十三斗三升落賭錢一百三十三兩
同於音境八人火粟田三斗八升落賭錢三十八兩
同於道⁷⁾境十人火粟田八斗三升落賭錢八十三兩
合錢 一千三十五兩
己上都合錢六千八百四十六兩七錢七分
加入一千八十兩 庵牛二百四十首稅 每首四兩五錢式
合錢七千九百二十六兩七錢七分

① 영평동(寧坪洞)⁸⁾

- 지금으로부터 약 5백 년 전 진주 강씨 위량공(渭亮公)은 1459년(세종 4년) 기묘 9월 19일 한양에서 출생, 학문과 덕업을 쌓아 어모장군 관직을 거쳐 정삼품 당상관 통정대부에 올랐으나 연산군 10년 갑자사화에 연류 되어 관직을 버리고 한양을 떠나 피신하였다. 이후 은거(隱居)의 모진 역경을 겪으며 안주할 곳 찾아 제주도로 입도하였다.
- 제주에 온 후 명당 찾아 한라산 정기 바른 제주시 영평동에 정착하였다. 이로써 이곳의

3) 火粟田=火田, 落=마지기, 賭田=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해마다 내는 세금

4) 明德=명도암

5) 稷=기장

6) 현 가시리 지경 안좌오름 부근 안좌마을

7) 현 봉성리

8) 아라동지편찬위원회(2008), 『아라동지』, pp. 957~958.

설촌 계기가 되었다. 이후 척박한 땅을 개척하는 한편 학문과 덕업을 후세에 가르치며 슬하에 7남 두었다. 큰아들 수의부위 어모장군 세평(世平)은 영평에 남아 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며 6형제는 관직 따라 한양으로 갔다.

- 수의부위 어모장군 세평은 4남을 두었다. 큰아들 언웅(彦雄)은 삼양(감수동)으로 이주하고 2남 권지 훈련원 선무랑 군자 감주부 언준(彦俊)은 영평에 거주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학문과 덕업을 후세에 가르치다가 1555년 을묘왜변 때 갑사로 참가하여 왜 군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운 두 번째 사위 라주 김씨 위남(衛南)에게 집터를 물려주고 명당을 찾아 현재 애월읍 봉성리로 이주하였다.
- 현재 애월읍 봉성리는 진주 강씨 집성촌이다. 라주 김씨 갑사 위남은 학문과 덕업을 후세에 가르치며 덕망과 학자로 집안이 번창하여 현재 라주 김씨 도 종손 16대손까지 옛 집터에서 집성촌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 영평동에는 진주 강씨와 라주 김씨가 주로 살고 있으며 자연마을이 형성되면서 여러 성씨가 정착하여 살았다.
- 설촌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곳은 ‘가시나물’로 불리고 있다. 옛 선조들은 이곳에서 자라는 가시나무를 베어다 농기구 등 생활 필요한 용구 만들어 사용하거나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렇게 가시나무로 만든 용구가 널리 알려져 이곳을 ‘가시나물’이라 불렀다 한다.
- 지금 영평초등학교 동남쪽 약 700m 떨어진 곳에 ‘올리소’라는 봉천수가 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올리소’ 주변에 가시나무가 울창했다. 매년 겨울 천둥오리가 날아와 가시나무 숲에 둉지 틀어 살았다 해서 그 봉천수를 ‘올리(오리)소(沼)’라 했다고 한다. 이처럼 ‘동세미’와 그 주변 울창한 숲, 주위에 넓게 펼쳐진 들판 등이 설촌 입지조건으로 적합하였기 때문에 ‘동새미’ 주변에 일찍부터 자연마을이 형성되었다. 한편 3 소장을 중심으로 마을을 치던 ‘테우리’나 화전민들이 조선조 말 목장이 폐장되면서 자연히 이곳에 정착했다. 이후 화순 오씨(和順 吳氏) · 광산 김씨(光山 金氏) · 경주 이씨(慶州 李氏) 등이 정착하기 시작하여 중산간에서 가장 큰 자연마을이 되었다.
- 설촌 이후 이곳에는 많은 장인과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 살았다. 영평 상동을 중심으로 ‘강비자’ 집터 · ‘오수원’ 집터 · ‘윤남마을’ · ‘외왓’ · ‘불미터’ · ‘감남밭’이라 불리는 곳들이다. 그 중 ‘와앗’(瓦田)은 1882년(고종 19년) 관덕정 증수 때 이곳에서 기와를 구웠다 하여 생긴 지명이며 ‘불미터’는 대장간이 있던 데서 유래했다.
- 영평동은 영평 상동과 영평 하동으로 나뉜다. 영평 상동 옛 지명은 ‘가시나물’이라 하고, 영평 하동은 원래 ‘전못’(前池, 앞 못)이라 불리는 곳 중심으로 마을 형성되어 ‘알무드내’라 한다. 1904년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摺冊)』에 ‘영평’이라 기록되었다.
- 이후 영평 하동 사람들은 풍수지리설에 따라 거주지를 ‘새가름’으로 옮겼다. 사람이 살

기 시작한 현 500번지 일대 지경이 남과 북이 높고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은 분지로 물이 모이기만 하고 빠지지 않아 장애인이 많이 생기고 젊은이들이 단명하였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걱정 태산이었다. 마침 어느 풍수사가 당시 마을 위쪽(남쪽)으로 이주하면 사람들이 편안하고 자손만대 부귀영화 누린다는 말에 ‘새가름’으로 이주했다 한다. 이를 먼저 실행한 성씨는 부씨(夫氏)로 1754년 제주 부씨 『세보(世譜)』에 ‘제주부씨사 언영조무진생(濟州夫氏士彦英祖戊辰生)’이라는 기록 보면 약 250여 년 전이다.

- 조선 시대 ‘무드내’를 따라 마을이 형성됐다고 하여 ‘무드내마을(無等川村, 無等乃村)’이라 했고 17세기 말까지만 해도 ‘알무드내 마을’과 ‘웃무드내 마을’(지금의 용강동)은 같은 마을이었다. ‘전못’을 중심으로 ‘알무드네’ 마을이 형성됐고 ‘알무드내’ 웃동네(남서쪽)에 ‘가시나물동네’와 ‘감남동네(柿木洞, 시목동)’, ‘구여를동네(九如旨洞)’가 이루어졌다. ‘가시나물’을 조선 시대‘가시촌’(加時村), ‘가시마을’(嘉時洞)로 각 성씨 족보나 금석문에 ‘가시촌’으로 기록되어 있다.
- 19세기 말부터 가시동(加時洞)으로 표기하여 행정구역상 영평리로 하였고 1955년,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영평동으로 개칭되면서 영평 웃동네에 해당하여 영평 상동이라 했다. 1962년 동 개편으로 행정구역상 아라동에 포함됐다.
- 18세기 초, ‘무드내마을’은 지금 용강동인 ‘웃무드내마을(上無等川村)’과 영평하동 ‘알무드내마을(下無等川村)’로 나누어졌고 19세기, 표기 줄여 각각 상무리(上無里), 하무리(下無里)라 했다. 일제 강점기, 하무리는 영평리 하무동(下武洞)으로 썼다. 19세기 말부터 상무리는 용강리(龍崗里)로 하무리는 영평리(寧坪里)로 바뀌었다.
-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하면서 1962년 1월, 동제(洞制) 실시에 따라 용강동은 봉개동(奉蓋洞), 영평동은 아라동으로 편입되었다. 오늘날 영평동은 영평 상동과 영평 하동으로 나뉘는데 영평 상동은 ‘가시나물’이라 칭하고 영평 하동은 ‘알무드네’라 부르고 있다.

② 월평동(月坪洞)⁹⁾

- 월평동 옛 이름은 ‘다라콧’으로 ‘다라’는 고구려어로 ‘높은 곳에 있는 숲 또는 덤불’ 이란 뜻이다. 1702년 『탐라순력도』에는 ‘별라화(別羅花)’로, 1709년 『탐라지도』에는 ‘별라화리(別羅花里)’로 표기되어있다. 이는 다라콧의 한자 표기이다. 1904년 『삼군호구가간총책』에 ‘월평(月坪)’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래 제주군 중면 지역으로 월평이라고 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월평리라고 하여 제주면에 편입되었다. 1955년, 제주시에 편입되어 월평동이 되었고, 1962년에 아라동 지역이 되었다.

9) 아라동지편찬위원회(2008), 『아라동지』, pp. 932~933.

- 월평동 설촌은 400여 년 전이다. 월평동에 처음 살기 시작한 사람은 영국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 훈련원 판관 강한종(姜翰宗)의 아버지 강인홍(姜仁弘)이다. 강한종¹⁰⁾ 태어난 해가 1605년이어서 40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 월평동에는 ‘귀여물’이란 곳이 있는데 지형이 요(凹)형이다.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고, 수천 평으로 분지를 이루는 곳이다. 인근에 ‘드레샘’이라는 샘물이 있어 사람이 거주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춘 곳이다. 월평동 사람들은 이곳에 처음 사람이 살았다고 추측하고 있다.
- 월평동 설촌 내력비를 보면 삼 소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월평동의 설촌은 조선조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이 고려 시대부터 우마를 사육하던 제주 목마장을 1430년, 제주 출신 상호군(上護軍) 고득종의 상소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9일, 목장을 설치하여 십소장으로 분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월평동은 당시 삼소장에 속했으며 삼소장 둘레는 50리였다. 고지도에 의하면 삼소장 아래의 마을은 별라화리(別羅花里, 다라꽃마을), 인다라(仁多羅村, 인다라^ヲ을), 삼매양촌(三每陽村, 세미양^ヲ을), 양다시촌(良多時村, カタシ^ヲ을), 봉개악리(奉蓋岳里, 봉개오름^ヲ을) 등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 별라화리가 처음 나타난 기록은 1703년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이 발행한 『탐라순력도』에서이다. 1485년 조선조 제9대 임금 성종은 『경국대전』을 제작 반포했다. 이 책에는 오호 작통(作統)이라 하여 오호를 둑어 일통, 오통을 일리라 했다. 이를 미루어 보면 1600년대 말 다라콧(別羅花里)에는 최소한 25호 이상이 상주했다고 할 수 있다.”
- “월평동의 설촌을 요약해 보면 1400년대 중반부터 목자들이 살기 시작하여 약 400여 년 전에 촌락이 형성되었다. 1900년대 초 상주민구가 391명, 1929년 470명이었다. 이후 1948년 발발한 제주도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으로 인해 소실되었다가, 1954년 가을 마을 중심부에 약 8,000여 평에 둘레 700여 미터, 높이 3미터, 폭 1미터 성을 쌓고 피난 갔던 주민들이 귀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월평동 옛 이름은 ‘다라콧, 다라콧, 다랏꽃’이다 1702년 이형상 목사에 의하여 제작된 『탐라순력도』, 『한라장축』에 ‘별리화(別羅花)’, 1709년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 중 『탐라지도』에 ‘별라화리(別羅花里)’, 1750년경 『해동지도(海東地圖)』,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에 ‘별라화촌(別羅花村)’이라 기록되어 있다.

10) 1906년(광무 10년)『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에 강한종에 관한 기록을 보면, “姜翰宗…晉州人司果仁祖朝丙戌湖西賊伏誅參寧國原從二等功臣領原從錄券特賜不兆”라 하였다

- 1770년대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에 ‘별라화리(別羅花里)’, 1780년과 1789년 정조대에 간행된 『제주읍지』에 ‘별라화리(別羅花里)’로 되었다. 1872년 『제주 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와 1899년 『제주군읍지』 중 제주읍지에 월평동(月坪洞)’으로 1904년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에 ‘월평(月坪)’으로 나와 있다. 1919년 50,000분의 1 지도에는 ‘월평리(月坪里)’로 표기되어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월평동 명칭은 1700년대에는 ‘별라화리’, 혹은 ‘별라화촌’, 1800년대에 들어 ‘월평동’, ‘월평’, ‘월평리’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 ‘사농친벗’은 월평동 산 6번지 서북쪽 ‘문또왓’ 남쪽에 있는 지경이다. 사냥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세웠던 곳이라는 데서 연유했다. ‘사농치다’라는 말은 사냥하다 라는 뜻의 제주어이다. 이곳에는 20여 평 남짓한 평지에 돌담으로 에워싼 곳이 있다. 옛사람들은 사냥을 나갈 때는 이곳에 모여 사냥 계획 세우고 사냥을 시작했다. 즉 사냥꾼들이 모였던 밭이란 뜻이다.
- 사장밭은 월평동 299번지 일대이다. 마을 중심지에서 동북쪽 450m 지점에 있으며, 활쏘는 장소였다는 데서 연유했다. 옛날 한라산에 사슴과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어 수렵을 위한 활쏘기 연습과 무예 연마하며 출세를 꿈을 꾸던 자리이고, 때로 인근 마을 청년들과 활쏘기 연습했던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③ 용강(龍崗)¹¹⁾

- 원래 ‘웃무드내’라고 불렸다. 한자 옛 지명 중 가장 발음이 가까운 ‘상무목천촌’(上無木川村, 웃무드내 푸을)이다. 이 마을에 ‘늘용’(비룡, 飛龍)이라는 언덕이 있어 이를 한자로 표기해 ‘용강(龍崗)’이라 한다. 보통 ‘웃무드내’라고 부르는 마을로 ‘상무등천리(上無等川里)’, ‘상무등천촌(上無等川村)’ 등으로 표기하여 오다 1904년(광무 8년)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에 ‘용강(龍崗)’이라 하였다. 1914년 제주면에 속했으며, 1931년 제주읍에 속했고, 1955년 제주시 관할구역이 되었으며 1962년 1월 동제 실시에 따라 봉개동 지역이 되었다.
- 1592년(조선 선조 25년), 충주에 거주하던 병조 좌랑 안동 권씨 견(擊)이 제주에 건너와 하북동 부록 마을에 기거했다. 1637년, 그의 손자 응서(應瑞)가 용강마을로 옮겨와 살기 시작했다. 그다음 남양 흥씨가 권씨 가문에 장가들어 살았으며 제주 고씨 고병호 11대조가 살기 시작했다.
- 1750년경 예조 좌랑 경주 김용(金墉)이 고씨 집안에 장가들어 살았으며 1776년, 여산

1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2020), 『봉개동 마을지』, pp. 140~141.

송씨 창윤(昌胤), 1779년 진주 강씨 의(懿)의 아들 세건(世健)이 이주하였다. 1824년, 제주 부씨 대정 현감을 지낸 사민(士敏)이 들어와 살았다. 이후 남평 문씨와 연안 김씨가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 1698~1703년 사이 제작된 『여지도(輿地圖)』에 ‘상무건촌’(上無巾村)이 나오며 1700년 대 전반 『제주지도』에 ‘상무등리’(上無等里), 1700년대 전라남북도 중 『제주지도』 ‘상무등촌’(上無等村), 1700년대 『호남전도』 중 제주목 해설에 ‘상무등내촌’(上無等乃村), 1750년 『해동지도』중 『제주삼현도』에 ‘상무목천촌’(上無木川村), 다른 『해동지도』 중 『제주삼현도』에 ‘상무등내촌’(上無等乃村), 1770년대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圖總地圖)』에 ‘상무목천촌’(上無木川村), 1872년 『제주지도』에 ‘상무리’(上無里), 1899년 『제주군읍지』 『제주지도』에 ‘용강리’(龍崗里), 1914년 『탐라략도(耽羅略圖)』에 ‘용강’(龍崗)이라고 표기되어있다.
- 일찍부터 농경과 목축을 하며 마을이 이루어졌으며 17세기 이르러 촌락이 형성되었다. 본래 제주군 중면 지역으로 영평동 무드내 위쪽이라 ‘웃무드내’, ‘상무’, ‘상무동’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강리’라 하여 제주면에 편입되었다. ‘펜안산전’은 용강동 210번지 일대로 안쪽에 있는 산전이라는 의미이다. 산전은 화전을 말한다. 솔대왓, 숫대왓은 용강동 763번지 일대이다.

④ 명덕(明德, 명도암)¹²⁾

- 예로부터 ‘맹도암’, ‘명도암’이라 불렸다. ‘맹도암’은 한자차용 표기로 ‘명도암(明道岩)’ 또는 ‘명도암(明道庵)’으로 표기했다. 이곳에 있는 오름을 ‘명도악’(明道岳) 또는 ‘명도암’으로 표기한 사실로 보아 ‘명도암’이 오름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추측된다. 조선 중기부터 ‘명도암’, ‘맹도암’으로 부르고 ‘명도암’ 또는 ‘명도악’으로 표기하였다. ‘명도암’ 혹은 ‘명도악’ 등으로 표기하기도 하며 오늘날 ‘명도암’(明道岩)¹³⁾으로 부르고 있다.
- ‘명도암(明道岩)’은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에 표기되어있다. 이는 김진용 호인 ‘명도암’ 따붙인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제주삼현도』 ‘명도악’(明道岳)은 ‘바위암’ 대신 ‘악(岳)’으로 대치되었다.
- 예전부터 ‘명도암’ 혹은 ‘명도암 오름’으로 불리는 오름과 ‘명도암 물’로 불리는 용천수 일대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마을 이름을 ‘명도암’ 또는 ‘명도악’으로 표기하였다고 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2020), 『봉개동 마을지』, p. 137.

13) 명도암에서 나고 자란 김 씨 어르신(당시 86세)에 의하면 명도암리=명덕(明德)이라 한다.

-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마을 동쪽에 절이 세워져 스님들이 살았었다. 조선 초기 들어 한성 판윤을 지낸 고득종 손자인 고이지(高以智)가 ‘당가름’에 기와집을 지어 살게 됨에 따라 제주 고씨들이 살았다. 그 북동쪽으로 남양 흥씨와 고 씨가 함께 살았으며, 고려 시대 절터 옆에 고이지의 아들, 경곤(景鶴)의 사위 광산 김씨 김진용 선생이 정착하면서 이어 경주 김씨, 나주 김씨, 김해 김씨, 진주 강씨가 거주하였다.
- ‘높은 숭이’는 봉개동 87번지, 90번지 돌투성이 지형이라는 뜻이다. 주변보다 높은 지역 형성된 돌투성이 지형으로 예전 화전민들이 불렀던 지명이다.
- ‘사장밭’은 봉개동 551번지로 활쏘기 연습을 하던 밭이다. ‘안세미 오름’은 높이 396.4m, 비고 91m, 둘레 1,718m, 면적 174,311m², 폭은 584m로 되어 있으며 말굽형의 북동향을 하고 있다. 화구 방향의 오름 기슭 자락에 보호 시설이 잘 갖추어진 ‘조리새미’(명도암물)라는 맑은 샘이 있고 오름 기슭에 있는 마을 이름이 명도촌(明道村) 이어서 ‘명도오름’이라 부른다. 이 마을에 은거했던 명도암 김진용을 추앙하는 후인들이 그의 호 명도암에 연관 지어 명도암 오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 오름 기슭에 ‘조리새미’¹⁴⁾, ‘조래천’(鳥來川)¹⁵⁾, ‘명도천(明道川)’이라 부르는 샘이 있으므로 인해 ‘조리새미오름’이라 불리고 있다. 또 이 샘을 중심으로 ‘안(內)과 밖(外)’를 구분하여 안쪽은 ‘안새미오름’, 밖쪽은 ‘밖새미오름’이라 부르고 있다. 이 두 오름을 합쳐 ‘형제오름’ 또는 ‘형제봉’이라고 한다. 『제주군읍지』에 안새미오름은 ‘형봉(兄峰)’, 밖새미 오름은 ‘제봉(弟峰)’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안새미오름과 밖새미오름 높이를 비교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망동산’, ‘정자동산’, ‘밖새미오름’, ‘개오리오름’(견월악) 등지에 목장 밭과 화전 밭이 있었다 한다.

(5) 교래(橋來)

- 교래의 옛 이름은 ‘도리’이며 ‘도리마을’이라 부른다. 마을 남서쪽에서부터 하동마을(뒷 숭물)에 이르는 약 1km의 빌레(암반지대)가 길게 다리 모양의 형체를 하고 있다 하여 다리교(橋), 올래(來)를 써서 ‘교래리’로 불린다. 또는 예부터 다리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진다. 한라산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이 많아 다리 건너서 마을을 왕래하였다 하여 ‘도리’라 불렸고 이를 한자로 표기하여 ‘교래’라 하였다.
- 『세종실록』과 『탐라방영총람』 방리 좌면에 ‘교래리(교리마을)’, 『탐라순력도』 ‘한라장축

14) 쌀을 이는 데 쓰는 조리같이 생긴 샘

15) 깊은 산 속에 새가 와서 먹고 가는 응달샘

(漢撃壯囑)에 ‘교래(교리)’, 일제 강점기 2만 5천분의 1 지도에 ‘교래리’, ‘상동’, ‘하동’, ‘길영동’(吉永洞), ‘고영동’(古永洞), ‘감발래(甘發來)’ 등으로 표기되었다. 『제주읍지』 방리 좌면에 “드리모을은 제주 동남쪽 30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86호, 남자는 181명, 여자 125명 합하여 243명, 초가 179칸이다.” 『삼군호구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제주군 신좌면에 “드리 연가는 74호이다. 남자 118명과 여자 125명 합하여 243명, 초가 179칸이다.” 라 기록되어 있다.

- 교래리에는 ‘상동’, ‘하동’, ‘길영동’(吉永洞), ‘고영동’(古永洞), ‘감발래’(甘發來) 자연마을이 있다. ‘알동네’는 ‘알드리’ 하동이다. ‘돔베오름’ 서쪽에 ‘백해굴왓’이 있다.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길영동’이라 하였다. ‘백해굴왓’ 북쪽에 고영이라는 곳이 있다. 마을 동쪽에 ‘감발래’가 있다.
- 약 700여 년 전 화전민들이 평평한 땅을 개간하여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지금 교래에서 4~5km 떨어진 곳에 있는 감나무골, 뱀 죽은 물 등에 화전민이 살았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먹모르’ 화전 등 서너 군데의 화전민이 합쳐서 본리(本里)에 거주했다고 한다.
- 제주도 전역을 10 소장으로 구분하고 한라산 동쪽 해발고도가 더 높은 지역에 산마장(山馬場)을 설치했다. 그러자 제주도 전역 목장설치로 인해 농사지를 땅이 모자라 식량 확보에 차질이 생기자 경작을 원하는 백성들의 탄원을 받아들여 목장 내 화전을 허락했다. 산마장을 마장세(馬場稅) 징수 차원에서 침장(針場), 상장(上場), 녹산장(鹿山場)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 경작을 허용하는 지역과 금지하는 지역으로 나누었다. 교래리는 그 중 ‘침장’이던 곳이다.
- 원래 제주군 신좌(조천)면 지역으로 교래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교래리라 하여 1946년 북제주군에 편입되었다. ‘교래’라는 명칭은 1702년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 교래대렵(橋來大獵)에 등장한다. 1702년(숙종 28년) 10월 11일 교래 지경에서 진상을 위한 산짐승과 날짐승을 사냥하는 그림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700~800년 전부터 목자와 화전민이 기거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날 사냥에 참여한 관원은 삼읍 수령과 감목관이며 사냥에 동원된 인원은 말을 타고 사냥하는 마군 200명, 걸으며 짐승을 일정한 장소로 모는 보졸 400여 명, 포수 120명이며, 사냥을 통해 사슴 177마리, 돼지 11마리, 노루 101마리, 꿩 22마리를 잡았다.

(6) 안좌(가시리)¹⁶⁾

- ‘가시리’는 가시오름(가세오름) 북쪽, 설오름 남쪽, 갑선이오름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중산간 마을이다. 마을 동쪽으로 ‘가마천’(加麻川), 마을 서쪽으로 ‘안좌천’(安坐川)이 흐른다. 가시리는 700여 년 전 ‘안좌름’과 ‘와개우영’ 일대에 변 씨가 들어오고, 600여 년 전 지금 가시리에 한 씨, 450여 년 전 군위 오 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 그 후 순흥 안씨, 신천 강씨 등이 들어왔다.
- 가시리 옛 이름은 ‘가시오름 뜻을’ 또는 ‘가스름’이다. 가시오름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가시리 일대에서 확인되는 첫 마을은 17세기 말 『탐라도(耽羅圖)』에 보이는 ‘상악촌’(橡岳村, 남오름 뜻을)과 ‘안좌촌’(安坐村)이다. 그 후 18세기 중반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圖總地圖)』에 상악촌과 안좌악촌(安坐岳村, 안좌오름 뜻을)이 확인되고, 18세기 말 『호구총수』(정의, 토산)와 『제주읍지』 정의현지, 방리, 중면에서 가시악리(加時岳里, 가시오름 뜻을)와 안좌악리(安坐岳里, 안좌오름 뜻을)를 확인할 수 있다.
- ‘상악촌’은 확인이 어려운데, ‘남오름 뜻을’의 한자차용 표기로 보이며, 지금 가시리의 전신으로 보인다. 상악촌은 18세기 후반 가시악리로 표기되고, 19세기부터 가시리로 표기되었다. 19세기 말, 가시리가 둘로 나뉘어 ‘동가시악리(동가시오름 뜻을)’, ‘서가시악리(서가시오름 뜻을)’라 하였다. 전자를 동가시리(東加時里, 동가시오름 뜻을) 동가리(東加里)라 하고, 서가시리(西加時里, 서가시리 뜻을) 서가리(西加里)라 하였다. 서가시리는 20세기 초반 가시리라고 하였다. 1905년 이후 동가시리를 통합하여 가시리라고 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안좌촌(安坐村)’은 안좌악(安坐岳, 屏花岳) 아래에 형성되었던 마을을 이른다. 안좌악촌(安坐岳村, 안좌오름 뜻을)과 안좌악리(安坐岳里, 안좌오름 뜻을)로 표기되다가 18세기 안좌리(안좌 뜻을)로 표기되었다. 안좌악(安佐岳, 安坐岳)은 ‘안좌오름’의 한자차용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안좌롬’, ‘안좌오롬’이라 한다. ‘안좌오롬’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안좌오롬 뜻을’이라 하고 한자로 안좌악촌, 안좌악리 또는 악(岳)을 생략하여 ‘안좌리’라 하였다.
- 20세기 초까지는 독립된 마을이었으나 1914년부터 일부는 가시리, 일부는 수망리, 일부는 신흥리로 병합되면서 안좌리라는 마을 이름이 사라졌다. 오늘날 ‘안좌동’은 가시리의 한 자연마을로 남아있다.
- 17세기 말 『탐라도』에는 오름 이름은 병화악(屏花岳), 마을 이름은 안좌촌으로 표기하고 있다. 18세기 『삼읍도총지도』에 오름 이름은 병화악(병꽃오름), 마을 이름은 안좌악

16) 서귀포문화원(2009), 『우리 고장의 설촌 유래』.

촌(안좌오름 끝을)으로 표기했다. 장고동 또는 장구동은 수망리 1037번지 일대인 민오름 북쪽에 위치하고 ‘제주 4.3’ 전에는 고씨와 조씨 등 예닐곱 가구가 화전촌을 이루고 있었다. 이외에 북지는 민오름 부근에, 영아동은 영아리오름 남쪽에, 신비지동은 물영아리오름 북쪽 1.5km 지점에 화전을 일구며 거주했다.

- ‘가시악(加時岳)’은 ‘가시오름’의 한자차용 표기이다. ‘가사악(可沙岳, 加沙岳)’은 ‘가사오름, 가세오름’의 한자차용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가시오름’, ‘가세오름’, ‘가스름’이라고 한다. 오름 형세가 ‘☒세’(가위의 제주어)와 같다는 데서 ‘가세오름’이라 하였다고 한다. 가시오름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가시오름 끝을’이라 하였다. 그러나 실제 마을은 ‘가시오름’과 거리가 있다. 오히려 토산 1리와 세화 1리가 ‘가세오름’ 근처에 있다.
- 가시리는 19세기 말 ‘동가시악리’와 ‘서가시악리’ 2개 마을로 나뉘었다. 이들은 각각 악(岳)을 생략하여 표기하기도 하였다. 20세기 초 동가시악리는 ‘동가리’라 하고, 서가시악리는 ‘가시리’라 하였다. 동가리와 서가리는 1905년 이후 다시 가시리로 병합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동중면 가시리와 안좌리 일부 병합하여 ‘가시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갑선낙(甲先岳, 갑선이오름) 바로 서쪽에 상악촌으로 표기한 마을이 있다. 상악(橡岳)도 ‘가시오름’의 한자차용 표기이고, 상악촌도 ‘가시오름 끝을’의 한자차용 표기이다. ‘가시오름 끝을’이 주로 가시악촌이나 가시악리로 표기하거나, 상악촌으로 표기했다.
- 상(橡)은 ‘상실이’ 상수리지만 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초남’, ‘초낭’ 또는 ‘가시낭’이다. 이 중 ‘가시낭’에 대응하는 훈독자 표기가 상이다. 곧 ‘가시낭’이 많은 오름이라는 데서 ‘상악’이라 하고, 그 오름 가까이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상악촌’이라 하였다. 18세기 중후반부터 가시악리로 표기하면서 상악촌이라는 마을 이름은 쓰지 않는다.
- 현재 가시리는 ‘중동’, ‘안좌동’, ‘두리동’, ‘폭남동’, ‘동상동’, ‘역지동’ 등 6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중동’은 가시리 중심마을이다. ‘안좌동’은 ‘안좌오름’(병칭 ‘벵꽃오름’) 앞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을 이룬다. 옛 ‘안좌오름 끝을’ 일대 형성된 동네다. ‘두리동’은 ‘두이동’이라고도 하는데, 마을 서쪽에 있는 ‘두리를’ 일대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이다. ‘동상동’은 웃동네 동쪽 동네를 이룬다. ‘폭남동’은 중동 남쪽 ‘폭남’(팽나무) 일대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이다. ‘역지동’은 가시리 동남쪽 ‘역 끝’ 일대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 ‘영지동’이라고도 한다. ‘역지동’은 일제 강점기 ‘영지동(靈旨洞, 영 끝동네)’으로 표기되었다.

⑦ 오등동(梧登洞)¹⁷⁾

- 오등동은 옛 이름인 ‘오드싱’과 ‘다시’ 마을로 이루어졌다. ‘오드싱’은 1783년 『제주읍지』에 ‘오등생리(梧登生里)’라 표기되었다. ‘오드싱’이라 불리 운 것이 후에 한자 표기로 ‘오등’이라 칭하게 되어 1904년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에 ‘오등(梧登)’이라 기록되어 있다.
- 1702년 『탐라순력도』에 ‘간다시(艮多時)’라 표기되었다. 이는 ‘다시’의 한자 표기로 ‘다시’는 ‘같이’에서 온 말로 추측되며 오등의 한 마을인 ‘죽성’(竹城)은 대나무가 많다는 데서 명칭이 유래하였다. 오드싱 마을은 1702년 이형상 목사에 의해 제작된 『탐라순력도』에 ‘오등생리’와 ‘간다시’ 등이 명기되었고 리 단위임을 고려할 때 최소 25가구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인다.
- 『오등동 향토지』¹⁸⁾에는 오등동의 설촌이 최소 400여 년 전 이뤄졌다고 하고 있다. 오등동 일대는 농토가 비교적 비옥하고 논밭도 있다. ‘오드싱’ 마을 주변인 ‘무친골’과 ‘물머리’ 주변 ‘총이밭’ 일대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 많이 남아있다. ‘총이밭’, ‘병문천’ 변에는 연자방아 흔적 남아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오등동에는 제주에 목마장이 설치되기 이전인 1200년대 초, 사람들이 들어와 농작물 재배하며 살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 또한 ‘제주 4·3’ 이전 ‘오드싱’ 마을 ‘서마을’ 세거리 도로 옆 밭 경계에 수령 5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한 그루가 벌채되었는데, 그 주위 사람이 살았던 ‘돌박낭우영’, ‘장개우영’, ‘권달이우영’, ‘정택이터’ 등 집터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1416년(태종 16년) 제주도가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으로 분치 되면서 외진 촌락은 난적(亂賊) 피해 막기 위해 ‘오등생리’(오등 본동) 중심으로 이주하여 마을 형성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 『오등동 향토지』에 의하면 ‘근다시’마을은 오등동 1793번지에 있는 허문터(許文據)¹⁹⁾로 추측하고 있다. 허문터는 1665년(현종 6) 최진남(崔鎮南) 판관이 충암묘를 장수당 남쪽으로 옮기어 사(祠)로 삼고 장수당(藏修堂)을 재(齋)로 삼아 개칭한 굴림서원(橘林書院)에서 맡았다.
- 또, “동래 정씨 입도 조 8대손인 정희관 선생이 1680년(숙종 6년) 문과 별시에 병과로 급제하고, 경상도 유곡 찰방을 지내던 중 제주 교수로 보임되어 굴림서원 원장 역임할 당시 굴림서원 서책을 보관하기 위하여 오등동 1800번지(간다시)에 서재고 인 서재당

17) 아라동지편찬위원회(2008), 『아라동지』, pp. 959~961.

18) 오등동향토지편찬위원회(2007), 『梧登洞鄉土誌』.

19) 교육 장소를 훈도와 유학자들을 상대로 판관, 어사들이 강론하던 장소

을 건축한 곳이 지금의 간다시 서재 터이다. 이것이 바로 동래 정씨가 오등동에 거주하게 된 동기이다.

- 오드싱의 동래 정씨 입향조는 입도 조 정질목(鄭秩睦)의 10세손 정석규(鄭錫珪)이다. 죽성마을 설촌 유래는 1993년『제주도지』²⁰⁾에서 찾을 수 있다. “김안보(金安寶)는 고려 말 한림학사이었는데 고려가 망하자 제주에 들어와 거로(巨老)에 은거하니 이가 연안 김씨 입도 조이다. 그 아들 복수(福壽)는 목축에 착안하여 고마장(古馬場)을 운영하였다고 전한다”라 하였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주선현지(濟州先賢誌)』에서 보면 “김안보는 낙향 후 후학을 가르치는 등 학문을 벗하여 여생을 보냈으나 그의 아들 복수는 제주 성 동문 밖에 거로촌을 설촌하여 목축업 크게 하고 고마장 1천여 정보를 운영하는 등 개척자로서 왕성한 의욕과 업적 남겼다. 이 고마장은 이후 4대 걸쳐 가업으로 전수되었는데, 선조 때 필마 용도가 크게 인정됨에 따라 국마장으로 징용되었다. 입도 후 이 가문은 김복수 김석장, 김세양, 김성두로 그 인맥이 이어지다가 이때 이르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 김성두는 아들 형제를 두니 이가 곧 선의(善義)와 효의(孝義)이다. 둘째 김효의는 성남(城南) 죽성(竹城)으로 옮겨 황무지 1천여 정보를 다시 개간 농사와 양축으로 가업의 바탕을 열었다. 그러나 10대에 걸친 3백여 년 동안 위농위축(爲農爲畜)의 기반을 튼튼히 다진 이는 김효의 큰아들 강(崗)이다. 김강은 성 밖 15리 밖 죽성리에 있는 1천여 정보의 광활한 땅을 옥토로 만들어 여기서 농사와 가축을 기르고 남아도는 농·축산물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등 공공복리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남문 밖 여문댁(閭門宅, 이문안집)’이라면 모를 사람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이 높았다”라고 했다.
- 오등동에 있는 김강의 묘비명도 이와 비슷하다. “……公之設村竹城仍居四代派分斯麟趾長龍崗中竹城末月山仍居累代往在黃鼠之時天降袁亂大行殺戮名村古里蓋爲灰燼堂是時子孫散之四方生活困難時運順還賞海善心(……공은 죽성을 설촌 하여 4대를 살았는데 파가 나뉘어 장(長)은 용강(龍崗)에 중(中)은 죽성에 밀(末)은 월산(月山)에 여러 대를 살아왔으며, 옛날 족제비 같은 놈들이 난데없이 나타나 난리 피워서 명촌을 살육하니 묵은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고 당시 자손들은 흩어져 생활하니 어려움이 대단하였다. 이를 시운으로 생각하여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 했다.
- 위 내용을 보면 죽성은 1600년대 중반에 김효의에 의해 설촌 되었으며, 그의 큰아들 강이 이 지역을 개척하여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 중심으로 한 이웃 마을인 ‘오드싱’(梧登洞), ‘간다시’(艮多時) 등이 ‘죽성’과 같은 시대 설촌 되었다 추측할 수 있다.

20) 제주도(1993), 『濟州道誌』第1卷.

- 『여지도(輿地圖)』중 제주목에 의하면 당시 아라동 관내 자연마을 이름들이 나타나는데 艮多時村(근다시촌), 三義壤村(삼의양촌), 我羅好村(아라촌), 永同音村(구호름촌), 五赤生里(오드승 무을), 竹城村(죽성촌), 下無赤乃村(알무드내촌)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마을은 대개 1600년대 전후해 설촌 되었으며, 여기에 사용된 ‘촌’이나 ‘리’는 사람이 사는 고을로 명시한 시기는 조선 시대인 1485년(성종 16년)에 간행된 『경국대전』 이후이며 인보 조직으로 5가를 1통으로 묶고, 5통을 리나 촌으로 칭한 데서 비롯된다.
- 한편 ‘민밧’은 죽성에서 남동쪽으로 500m 정도 올라가면 해발 300m 지점에 있던 촌락으로 1914년 세부측량 당시 이곳이 오등동의 시초 기점이 됨으로써 오등동 1번지로 시작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민밧’ 또는 ‘화전마을’이라 했는데 설촌 연대는 약 100여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죽성에 살던 고씨가 축산을 목적으로 옮겨간 것이 설촌 시초이다. 그 후 인근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한두 가구씩 이전하여 10여 세대가 되어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제주 4·3’으로 소개되었으나 이후 재건되지 않아 지금은 잡초에 묻혀 있는 집터만 덩그렇게 남아있다.

⑧ 어음(於音)

- 어음 1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문씨 할아버지와 송씨 할머니가 맨 처음 이 마을에 정착하여 설촌 하였다고 한다. 그곳이 ‘한동 거리’라는 곳이고 변방 우영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땅 형국으로 보아 과원 동산으로 능선이 뻗쳐 북풍을 막아주고 앞에 ‘어음봉’을 마주하여 사람 살기 아늑한 곳이다.
- 이때부터 사람들이 모여 가구가 차차 늘고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처음 설촌한 문씨는 부부갈등으로 가출하고 훌로 남은 송씨 부인은 날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자 한에 맷혀 세상을 떠났다. 평생소원은 남편의 얼굴을 한번만이라도 보고 죽는 것이 애절한 소망이었다고 한다. 이래서 ‘부면이(夫面伊)’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 후 가구가 늘어 김해 김씨 집성촌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성씨도 많이 입주하여 1930년대 180가구에 이르렀다.
- 어음 1리 옛 이름은 ‘부멘이’, ‘비멘이’이다. 18세기 말까지 독립된 행정마을이었으나 19세기 초부터 행정상 ‘어름비’로 통합되었다. 1964년 옛 ‘부멘이’ 일대와 ‘독우영(계원동)’ 일대 합하여 어음 1리가 되었다.
- ‘정자촌(正子村)’ 설촌 113년 후인 1616년 조선 광해군 당시 강씨 선조가 정착하였다. 그 후 안씨, 양씨, 김씨 등의 선조가 정착하였으며 마을 이름을 ‘어음비리(於音非里)’라 칭하였다. ‘어음비리’란 국가에서 조세를 감면코자 ‘리’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아니비

(非)자를 썼다는 설과 파선 지형인바 고기 잡는 어부가 배를 파손되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옹비래’(於翁非來)라 칭하였다는 설도 있다. 그 후 발음 편의상 ‘어음비’ 또는 ‘어름비’라 불리어 왔다고 추정된다. 비슷한 시대에 어음 1리는 문씨, 김씨, 선조 등이 정착하여 리명을 ‘부면리(夫面里)’ 속칭 ‘비면리’라 하고 촌락을 이루어 현재 어음 1리가 되었다.

- ‘고지(高旨)우영’은 본 마을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다. 동쪽에 고지동산이 있어 ‘고지우영’이라 한다. 여기에 설촌 한 사람은 양익태이다. 설촌은 약 200여년 전으로 추정되며 그 후 가구가 불어 20여 가구에 이르렀다. 양씨의 집성 마을이다.
- 어음 2리 설촌 유래를 보면, 현재 어음 2리 서남방 약 1km 지점 하천 동측에 1504년 (조선 연산군) 갑자사화 당시 은산 부원군 후예인 흥문관 교리였던 정자 박후신(正子 朴厚信)이 노복 30여 명 거느리고 유배되었다. 그 지점 일대에 비옥한 황무지를 개척하여 자기 호 따라 ‘정자촌’(正字村)이라 칭하여 거주하였는데 바로 어음 2리 설촌 유래이다.
- 정자 사후 그곳에 묻어 지금도 정자묘가 평지(平地)되어 있고, ‘박씨 문중회’에서는 입도 선묘로 음력 3월 15일 묘제를 지내고 있다. 그 부근 일대를 ‘정자캐’라 하는데 지금도 밭을 갈다 보면 옛날 기와 조각이 나온다. 하천은 금성리(錦城里)까지 따라가면서 정자호 따라 ‘정자내’(川)이라 칭하다가 지금은 ‘정지촌’(鼎地川)이라 부르고 있다.
- 어음 2리 옛 이름은 ‘어름비’, ‘어림비’이다. 18세기 초 ‘부멘이’까지 한데 합하여 ‘어름비’라 하였다. 1964년 옛 ‘부멘이’ 일대가 어음 1리로 분리되고 ‘어름비’와 ‘돌깍이’ 일대를 합하여 현재 어음 2리가 되었다.

⑨ 어도(於道, 봉성리)

- 어도리는 1600년(조선 선조 33년)경 설촌 되었다고 추측된다. 처음에 마을 이름을 ‘어음비도내산리’로 부르다 ‘도내산리’로 개명하였다. 어도리 유래는 속칭 ‘도노미’로 불리는 데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도노미’라고 불리는 지역은 처음에는 ‘어음비도내산리’로 불렸다고 생각된다. 한자표기 기록은 1211년(고려 희종 7년) 당시 ‘도내산리’로 표기되었다. 그 후 1352년(고려 공민왕 원년)까지 140여 년간 봉수대 위치를 ‘도내리’로 표기한 점으로 보아 ‘도노미’를 한자로 ‘도내산리’로 사용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 1895년(조선 고종 33년) ‘도내산리’를 ‘어도리’로 개명 58년간 불려오다가 1953년 봉성리로 개명하였다. 봉성리는 1구, 2구로 분리되어 있었다. 1구 ‘동개동’, ‘서성동’, ‘중화동’, ‘구물동’, ‘화전동’ 등 5개 자연마을 형성되었다.

- 그 유래를 살펴보면, 처음 동동네 ‘석각씨동’으로 부르다가 2개 동을 합하여 ‘동개동’이라고 불렸다. ‘청경이동’과 ‘서근이동’ 2개 동 합하여 ‘서성동’이라 불렸다. ‘중화동’은 ‘마파지동’이라 부르다가 ‘관전동’ 앞 동네를 합하여 ‘중화동’으로 하였다. ‘구몰동’은 ‘지세나못’이 있다. 목과 지형 지세가 거북이가 진흙에 빠진 형이라 하여 ‘구몰니동’이라 부르다 ‘구몰동’으로 하였다. ‘화전동’은 ‘솔도동·공초동’이 합하여 ‘화전동’이라 하였다.
- 2구는 ‘자이동’, ‘고도동’, ‘마전동’, ‘상시동’, ‘마당이동’, ‘금천동’이다. 1948년 ‘제주 4·3’으로 인해 각자로 소개되어 분산되었다가 택지를 택하여 집단으로 마을을 재건하였다. 1950년 2구 행정이 1구로 합병하게 됨에 따라 동 이름을 ‘신명동’으로 호칭하고 5개 동으로 형성되었다. 그 후 각 씨족이 도내 각처에서 전입하면서 집성촌 형성되었다.
- 1895년에 제작된 『제주삼읍전도』에는 ‘어도리’로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면 1895년(고종 32년)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시 ‘도내산리’를 ‘어도리’로 개명하여 불러왔다고 보아 진다. 현재 봉성리는 ‘어도리’라는 마을 이름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생긴다 하여 새롭게 만든 이름이다. ‘도노미’라는 오름이 마치 옥봉귀소형(玉鳳歸巢形)으로 봉황이 성을 두른 듯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는 의미에서 ‘봉성리(鳳城里)’라고 개명했다. ‘제주 4·3’ 이후 불안한 사회 환경에서 마을주민의 안녕과 화합은 물론 침체 일로에 있는 마을 면모를 새롭게 혁신시키기 위하여 1953년, 지형과 지세 고려해 봉성리로 개명하였다. 1993년 4월 북제주군 조례로 ‘어도리’를 ‘봉성리’로 바꿨다.

2-2. 공토세(公土稅)와 마을 유래

- 1899년 봉세관 강봉헌이 공토(公土) 집세(執稅)를 위해 작성한 『대정군각공토조사성책(大靜郡各公土調查成冊)』를 보면, 상천(上川境), 광평(廣坪境), 광청(光清境), 서광청(西廣清), 영남경(瀛南境)에서 목장세(牧場稅), 안성(安城), 덕수(德修), 도순(道順), 강정(江汀)에서 사장(射場稅), 칠소폐장향교(七所廢場鄉校), 단산원향교(簞山員鄉校), 범질원향교(犯叱員鄉校)에서 지세를 징수했음을 알 수 있다.

各場茅草田

七所

同火上川境 茅草一百四十五駄價錢七十二兩五錢

廣坪境茅草三百二十一駄價錢一百六十兩五錢

光清境茅草六十三鉢價錢三十一兩五錢

西廣清境茅草六十六駄價錢三十三兩

瀛南境茅草六十一鉢價錢三十兩五錢

合錢七百十兩

各射場

安城射場牟田一石七斗五升落賭錢三十三兩七錢五分

庚子春郡守蔡龜錫以衙舍改造所人

德修射場粟田七升落賭錢七兩

道順射場粟田三升落賭錢三兩

江汀射場牟田七斗落賭錢十兩五錢

合錢五十四兩二錢五分

己上都合錢二千九百五兩九錢五分

加入三百六十兩

庖牛八十首稅

每秀四兩五錢式

辛丑爲始

七所廢場鄉校田稅粟三石七斗代錢三十一兩二錢

簾山員鄉校田稅牟一石五斗代錢十二兩

犯叱員鄉校沓米一石代錢三十兩

合錢二千八十一兩四錢五分

① 상천리²¹⁾

- 상천리(上川里)는 동쪽은 색달동(穡達洞), 서쪽은 동광리(東廣里), 남쪽은 상창리(上倉里), 남동쪽은 상예동(上貌洞)과 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영아리오름(靈阿利岳)이다. 구전에 의하면 옛날에 흰 사슴(白鹿)이 상천마을에 있는 궤에 서식하며 새끼를 낳았으므로 ‘모록벗’ 또는 ‘백록동(白鹿洞)’으로 불렸다고 한다. 230여 년 전 조 씨, 박 씨, 김씨 등이 ‘올리튼물 동네’, ‘비지남흘 동네’, ‘거미흘’, ‘쳇망에움’, ‘큰빗대기’ 집터 등에 정착하여 목축과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된 이후 설촌 되었다.
- 1884년(고종 21년) 제주에 수해와 1885년 태풍이 연이어 겹쳐 큰 나무까지 다 휩쓸릴 정도로 피해가 컸다. 이 때문에 바닷가 마을에 심한 흉년 들어 살기 어려워진 몇몇 주민이 중산간으로 올라와 화전 일구었다. 다행히 농사가 잘되어, 조 씨, 김씨, 박 씨 등이 뒤를 이어 입주하여 설촌 했다. 이후 마을이 커져 ‘창천리(倉川里)’와 합치려 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여 따로 독립된 마을을 지키려는 취지에서 이름을 ‘백록리(百鹿里)’라고 이름 지었다. 한 일 합방 이후 ‘하창리(下倉里)’에서 마을을 합치려 시도한 적이 있지만, 여전히 독립을 유지하다 ‘창고내’ 위쪽에 있다는 의미로 ‘상천리’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
- 이 상천리 옛 이름은 ‘모록벗’이다. 18세기 중엽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圖總地圖)』에 ‘부연’(鳩淵, 올리소)으로, 1899년 『대정군읍지』, 『대정지도』와 『제주군읍지』, 『제주지도』 등에 ‘상천리’(웃내里)로 표기되었다. 이리하여 대정군 중면 상천리가 되었다. 1910년 8월 28일 한 일 합방 이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정군이 제주군에 통합되었다. 그래서 1915년 제주도 중면에 속하였다가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이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가 되었다. 1948년 ‘제주 4·3’이 발발하자 11월 13일 토벌대가 들이닥쳐 주택은 불에 타고 마을은 초토화되었다. 그 후 11월 23일, 소개령이 내려지자 일부 주민은 해안마을로 내려가고 일부 주민은 산야에 은신하며 헤매다가 희생을 당했다. 이 마을의 복구는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9월이다. 그러나 ‘올리튼물동네’, ‘비지남흘동네’, ‘거미흘’은 영영 폐동되어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현재 상천리는 ‘모록벗’을 중심으로 형성된 본동 1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 ‘천망동(쳇망어음)’은 상천리 마을 동북쪽 일대로 지금부터 약 150년 전 설촌 된 마을이며, 당시 한 풍수가 지나가다 ‘이 마을은 저 냇물을 바라보는 형’이라고 한데서 불리게 되었다. 인근 마을에서 축우들을 이곳에 방목하는 목장지대로 활용되고 있다.

21) 서귀포문화원(2009), 전계서, pp. 292~293.

② 광평리²²⁾

- 광평리는 조선 시대 목장과 화전이 있던 지역으로 동광리에 속했다. 광평리는 안덕면의 가장 북쪽 위치하며 북동쪽은 애월읍 봉성리(鳳城里), 북서쪽은 한림읍 금악리(今岳里)와 접하고 있다. 남동쪽은 상천리와 남서쪽은 동광리와 경계를 이룬다. 이 마을은 해발 480m 높은 지대에 형성되어 있어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지역 있는 마을 중 하나이다.
- 1750년경, 현 위치에서 조금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조 씨가 처음 들어와 살았다고 하여 ‘조가위’, ‘조가궤’, ‘조가동’의 이름이 있고 현재 지도에 ‘조가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광평리 뒷동산은 ‘고백이’란 분이 살았다 하여 ‘고백이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 후손은 광평리에 살고 있지 않다. 그 당시 이동화전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이주했다고 한다.
- 그 뒤 ‘물통어귀(馬洞洞)', '감남굴', '모살목' 일대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 당시 조정에서 광평리 지역이 축산 적지라 하여 국마장을 개설, 운영하였다. 따라서 광평리는 화전민들에 의해 처음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뒤에 국마장 설치로 마을 세가 커지기 시작했다. 한편 한림읍 동명리 출신 정만석 훈장 행적을 보면 1900년(광무 4년)과 1904년(광무 8년) 광평리에서 훈장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이곳에 일정 수준 이상 사람이 살았다고 보아 진다.
- 광평리 옛 이름은 ‘넓은곳’, ‘넓은술’, ‘넓은드르’이다. 『제주삼읍도총지도』와 『제주읍지』 대정현지 도로 등에 ‘광수’(廣薮, 넓은꽃)로, 『제주군지도』와 『대정군지도』에 ‘광림평’(廣林坪, 넓은곳드르)으로, 『대정군읍지』 방리에 ‘광평리’(넓은드르 뭍을)로, 일제 강점기 50,000분의 1 지도에는 ‘광평리’, ‘마통동’(馬洞洞, 물통동네), ‘조가동’(趙哥洞, 조가웨동네) 등으로 표기되었다.
- 이 마을은 19세기 말 이전 ‘자단리’(自丹里, 동서광리)와 ‘광청리’(광청이)에 속해 있었다. 1910년 8월 29일 한 일 합방 이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통동’, ‘조가동’, ‘조숙동’을 병합하여 ‘광평리’라 하였고 제주군 중면에 예속되었다. 1915년 제주도 중면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가 되었다.
- ‘제주 4·3’ 전 ‘조가동’에 40세대, ‘마통동’에 20세대, ‘감남물’에 4세대, ‘모살목’에 5세대 정도 총 70여 세대가 살고 있어 큰 동네가 형성되었다. 그러다가 1948년 ‘제주 4·3’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주민들은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가 1955년 ‘므통’ 어귀인 고베기 동산 앞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

22) 서귀포문화원(2009), 상계서, pp. 290~291.

재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지금은 본동 1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 ‘조가동’은 광평리 마을 동북쪽 500m 일대로 1750년경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설촌 했다고 하여 ‘좌가위’, ‘조가궤’라고도 부른다. 약 40세대가 거주하였으나 ‘제주 4·3’ 당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현재는 집터만 남아있다.
- ‘고장친밭’은 광평리 289번지 일대로 ‘왕이메’오름 서남쪽이다. 예전에 이곳은 황무지였는데 고씨 성을 가진 사람이 개간하여 경작했다는 데서 연유했다. 지금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 ‘조가궤’, ‘조가위’, ‘조개동’은 광평리 82번지 일대 지명이다. 설촌 터 한곳이며, 1950년경 조씨 성 가진 사람이 설촌 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에 약 40여 세대가 거주하였으나 1948년 ‘제주 4·3’으로 당시 주민들이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그 후 복구되지 않아 지금 집터만 남아있다.

③ 광청(光淸, 동광리)²³⁾

- 동광리는 동은 광평리와 상천리, 서쪽과 북쪽은 한림읍 금악리, 남쪽은 서광리 및 상창리와 접하고 있다. 동광리는 지금으로부터 360여 년 전 동광리 남쪽 1km 만주동(만주골) 일대에 임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1670년(현종 11년)경 마을 서부에 광산 김씨가 입주하여 삼(麻) 농사를 지었으므로 삼밭구석(麻田洞)이라 하였다. 그 후 1700년대 제주 양씨, 진주 하씨 등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그 지형이 마치 어린아이가 춤을 추고 있는 형상과 같다 하는 ‘무동이왓(舞童洞)’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더욱 커지기 시작하였다.
- 동광리는 원래 ‘자단리’(自丹里, 동광, 서광)에 속했다. 옛 이름은 ‘자단리’, ‘광쳉이’, ‘동광쳉’이다. 『대정군읍지』 「대정지도」에 ‘신청리’(新淸里, 새광쳉이)로, 1872년 『제주삼읍전도』 「대정군지도」에 ‘광청리’(광쳉이)로 표기되었다. 광청리는 원래 대정군 우면에 속하였는데 1870년 중면 신설되자 중면 지역이 되었다.
- 1898년(광무 2년) 동광리는 광청리에서 분리하여 ‘신청리’(新淸里, 새광쳉이)라 하였다. 1904년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摺冊)』 대정군 중면에 ‘동광청’(東光淸)으로, 일제 강점기 지도에 ‘동광리’, ‘무전동’(舞田洞, 무동이왓), ‘조숙개동’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1910년 한 일 합방 이후 1912년경 동광리(東光里)를 ‘동광리’(東廣里)로 개칭하였다. 이때 광(光)이 광(廣)이 된 이유는 ‘광쳉이오름’이라 하는 광해악(廣蟹岳)의 광(廣)

23) 서귀포시 문화원(2009), 상계서, pp. 289~291.

에서 유래하였다고 보아 진다.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정군이 제주군으로 통합되었다. 이때 제주군 중면 동광리가 되었으며 1915년 제주도 중면 관할에 들어갔다.
- 화전민들이 대다수였던 ‘무동이왓’은 관의 경제적 수탈에 항거 1862년 임술 농민 봉기와 1898년 무술 농민봉기 진원지이다. 이 마을은 일제 강점기 ‘무동이왓’에 100여 가구, ‘조수궤’에 10여 가구, ‘사장밭’에 3가구, ‘삼밭구석’에 40여 가구, ‘간장리’에 10여 가구 등 합 160여 가구 살던 큰 마을이었다. 중산간 마을이지만 개화운동 일찍 일어나 1925년경 이 마을주민 강위경(姜渭慶)씨가 ‘광선사숙(廣善私塾)’을 개설하여 숙장(塾長)과 2명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쳤다. 1939년 ‘무동이왓’에 2년제 ‘동광간이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는 감산리에 있던 ‘안덕공립보통학교’를 제외하고 이 지방에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다. 그래서 부근 마을인 창천, 서광, 상천, 덕수, 색달 등지에서 이 학교 다녔다고 한다.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가 되었다.
- 1948년 ‘제주 4·3’이 일어난 후 11월 15일 위치적으로 해안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마을에 갑자기 토벌군이 들이닥쳤다. 그 즉시 마을은 파괴되었고 많은 주민이 처참히 희생당했다. 그렇게 초토화된 이 마을이 폐동이 되었다가 1953년 ‘간장리’만 재건되었고 ‘무동이왓’, ‘삼밭구석’, ‘조수궤’ 등은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1951년 1월 22일, 육군 제1 훈련소가 대정읍 모슬포 지역으로 이동해 온 후 동광리에 신병 제1 숙영지와 하사관 교육대 제2 숙영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 1969년 중산간 개발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소득증대 사업으로 ‘거새왓’에 양잠개척 단지를 조성하여 33가구가 입주하였다. 현재 동광리는 본동과 양잠단지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 ‘활손동산’은 동광리 48번지 경이다. 옛날에 궁사들이 화를 쏘며 심신을 단련하던 동산인 데서 붙여진 지명이다. 이곳에서 시행된 무술시합에서 우승한 궁사에게는 선달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지금은 경작지로 변모하였다.

(4) 서광청(西廣淸, 서광)²⁴⁾

- 서광 서리는 동쪽은 서광동리와 동광리, 서쪽은 대정읍 구억리, 북쪽은 한림읍 금악리, 북서쪽은 한경면 저지리, 남쪽 덕수리가 자리 잡고 있다. 안덕면 서쪽 끝 마을이며 중산간 지역에 있다. 구전에 의하면 서광리는 700여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때 중원

24) 서귀포시 문화원(2009), 상계서, pp. 283~286.

대륙은 이미 원이 장악하여 1231년(고려 고종 18년) 몽골군이 침입을 개시하였다. 전 세계가 몽골군에 굴복하였지만 고려 무신정권 지배자인 최이(崔怡)는 이에 굴하지 않고 1232년(고려 고종 19년) 6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장기 항전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전 국토가 몽골군에 유린 되어 강토가 초토화되고 민생이 피폐해지자 하는 수 없이 1270년(고려 원종 11년) 원에 굴복하고 개경 환도(還都)를 단행하였다. 그러자 삼별초는 몽골에 굽힐 수 없다며 항거하여 진도를 거쳐 최후 거점 항파두리(缸坡頭里,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웅거(雄據)하였다. 이들은 제주도민을 동원하여 항파두리 내, 와성과 ‘환해장성(環海長城)’을 쌓았다. 그 가혹한 노역에 견디다 못한 고씨, 김씨, 양씨가 탈출하여 ‘자단이(自丹里)곶’ 일대에 숨어 살았다. 바로 서광리 설촌 유래이다.

- 서광리 옛 이름은 ‘자단리’, ‘광청이’, ‘서광청’이다. 1625년(인조 3년)경 동광리와 서광리는 ‘자단리(自丹里)’로 불리다 1872년(고종 9년) ‘광청리’(光清里)가 되었다. 1898년(광무 2년) 동광리는 광청리에서 분리하여 ‘신청리’(新清里)라 하였다. 1910년 한 일 합방 이후 1912년 광청리를 ‘서광리’(西廣里)라 하였다.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정군 중면 동광리와 서광리는 각각 제주군 중면으로 통합되었다. 1915년 제주도 중면이 됨과 동시에 서광리(서광서리 관전동)에 면사무소가 설치되었다가 1917년에 감산리로 이전하였다.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여 1938년 광해악을 중심으로 동쪽은 서광 1구, 서쪽은 서광 2구로 분구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 서리가 되었다.
- 1948년 ‘제주 4·3’이 생겨난 후 11월 초순 군 토벌대가 서광리 관전동(官田洞)에 들이 닥쳐 불을 질렀다. 11월 20일경 소개령이 내리자 주민들은 해안마을로 내려갔지만, 화순리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당했다. 1949년 봄, 서광 1구(동리), 건곤동(乾坤洞)에 성을 쌓고 서광, 동광 주민들이 올라와 움막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서광 2구(서리)는 1950년 봄, 동광리는 1953년 4월 간장리(동광리 관내)로 재건하였다.
- 1951년 1월 22일 육군 제1 훈련소가 대정읍 모슬포 지역으로 이동해 온 후 광해악 앞 서광리 983, 985번지, 서광리 741번지에 하사관 교육대 설치하여 부사관급 간부들을 양성하였다. 1963년 10월 ‘건곤동’ 일대를 ‘서광동리’로, ‘사수동’(蛇首洞), ‘진부동’(進富洞), ‘응전동(應田洞)’ 일대를 ‘서광’ 서리로 분리하였다. 현재 서광 서리는 ‘사수동’, ‘진부동’, ‘웅전동’ 등 4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서광 동리는 광해악 사이 두고 서쪽 서광 서리와 나누어졌다. 동쪽 상창리, 남쪽 화순리, 남서쪽 덕수리, 북쪽은 동광리다.
- 1948년 ‘제주 4·3’이 일어난 후 11월 초순 군 토벌대가 서광리 관전동에 들이닥쳐 불

을 질렸다. 전전긍긍하던 주민들은 11월 20일경 소개령이 내리자 해안마을로 내려갔으나 화순리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당하였다. 1949년 봄, 서광 1구(동리), 건곤동에 성 쌓고 서광, 동광 주민들이 올라와 움막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서광 2구(서리)는 1950년 봄, 동광리는 1953년 4월 간장리(동광리 관내)로 재건하였다.

- 1963년 10월, 건곤동 일대를 서광 동리로, 사수동(蛇首洞), 진부동(進富洞), 응전동(應田洞) 일대를 서광 서리로 분리하였다. 현재 서광 동리는 건곤동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⑤ 영남(瀛南)²⁵⁾

- 영남동은 행정구역상 현재 강정동에 속해 있다. 하지만 토지 지번은 영남리로 되어 있어 없어져 버린 마을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영남마을 안에서 보면서 남쪽은 도순 녹차 공장, 북쪽으로 ‘어점이악’, 동남쪽으로 고근산이 있다. 그 고근산과 겹쳐져 멀리 범섬이 보인다. 이 영남마을은 전 씨 노인 혼자 농사지으며 30여 년 살고 있었다. ‘제주 4·3’이 있기 전 마을이 융성했을 때 50여 호 넘는 작지 않은 마을이었다. 영남마을 위쪽으로 몇 호씩 흩어져 화전 일구어 살던 사람들이 세월 흐르면서 영남마을로 모여들었다.
- 영남마을은 1800년대 중반 설촌 되었다고 한다. 영남동이라는 지명은 대정현 있을 조선 중엽 당시, 대정현에서 마을 이름 적어 올리라 하여 마을 촌로(村老) 중 한학 한 사람이 ‘영남(瀛南)’이라는 마을 이름으로 올렸다. 그 이후 기록에 ‘영남’이라 적고 있다.
- 기록에 ‘영남동’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기록은 1898년에 있었던 ‘방성칠의 난’ 때다. 화전민들이 많이 참여하였던 이 민란에 영남마을 사람도 참여했다. 일제 강점기 기록에 의하면 영남동은 일제 강점기 초기 하나의 리로 인정받고 있었다고 보아 진다.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 재판기록에도 영남리가 나온다. 특히 1928년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생활상태조사』 제주도에 중문면을 11개 리로 나누면서 ‘영남’을 하나의 행정리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 마을 이름은 일제 패망 때까지 변동 없이 통용되었다.
- ‘제주 4·3’ 당시 마을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이 마을을 떠나버려 1948년 8월경 16호 인구 92명 정도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중산간 마을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영남동은 곧바로 풍비박산이 났다. 1948년 음력 10월 20일경 마을이 불탔다. ‘제주 4·3’을 거치면서 영남동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뿐 아니라 대부분 대가 끊긴 집안이 많다.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어린 아기나 아동들이라 고아로 자랐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강정동이나 용흥, 도순, 법환 등지로 흩어져 살았다.

25) 서귀포시 문화원(2009), 상계서, pp. 93~94.

(6) 안성(安城)²⁶⁾

- 안성리 설촌은 대정현과 같다. 대정현 설치 이전 이 지역에 동현(東軒) 터(현 보성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풍천 임씨 나주 정씨 여산 송씨 등이 거주하였으며 북문 밖 ‘수월이못’(水月池) 근처에 해주 오씨, 원주 원씨 등 삼백여 호가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 1416년(태종 16년) 제주 목사 겸 도안무사 오식(吳湜)이 제주에 백성이 많아지면서 소송이 끊이지 않았는데, 한라산 북쪽 한 곳만 관아가 있어 제주목 산남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관아 왕래가 불편할 뿐 아니라 토착세력들이 불법 약탈을 종종 일삼으므로 이 폐단을 시정 하기 위하여 제주의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함을 조정에 호소했다. 마침 당시 조선 조정은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지방통치를 위해 8도 체제에서 군현 정비를 시도하던 때라 제주에 삼읍(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체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 1416년(태종 16년) 대정현 설치하고 현감을 두었다. 행정구역은 동쪽으로 법환리, 서쪽으로 판포리에 미쳤다. 그 후 법환리는 서귀면에 두모, 저지, 조수 판포리는 구우면에 편입되었다. 대정은 남쪽으로 단산과 송악산, 우측에 모슬봉, 좌측에 산방산, 북쪽으로 한라산 등지고 넓은 평원을 이루고 있으며 현 중심부에 위치하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현청(縣廳) 소재지가 되었다.
- 대정현 설치 2년 후인 1418년(태종 18년), 대정 현감 유신(兪信) 때 1개월 만에 대정현 성을 완성하였다. 성은 동서남북, 4문이 있었다. 선조 때 북문은 옹성(壅城)으로 쌓았다가 후 폐쇄하였다. 성안에는 관아에 종사하는 사람과 일부 민가가 있었다.
- 『탐라기년』에 의하면 1300년(고려 충렬왕 25년) 동서도현(東西道縣)을 설치하였을 당시 귀일, 고내, 명월, 함덕, 김녕, 예래, 차귀(고산) 등과 같이 산방(山房)이라 불리었다. 1416년(조선 태종 16년) 대정현 신설할 당시 풍천 임씨, 나주 정씨, 여산 송씨 등이 사는 마을로 형성되었다.
- 현 설치 뒤 읍성이 축조되고 나자 주민들은 읍성을 중심으로 모여 읍성이 동서로 마을이 발전하였다. 동쪽 마을은 동성리(東城里), 서쪽 마을은 서성리(西城里)라 하였다. 1870년(고종 2년) 동성리는 다시 안성리(安城里)와 인성리(仁城里)로 개칭되면서 분리되었다. 그 후 1887년(고종 24년) 서성리는 보성리(保城里)로 개칭되었다.
- 안성리는 조선 초기 대정현청이 이 일대에 설치된 후 성을 둘렀는데 그 시절부터 부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불리는 이름이다. 대정성은 1418년(조선 태종 18년)에 축조되었다. 성축 둘레는 4,890척(2,092m), 높이는 17척 3촌(7.44m), 폭은 7척 4촌(3.16m)

26) 서귀포시 문화원(2009), 상계서, pp. 115~117.

이다. 처음에는 북문을 두어 동서남북 사대문이 있었다가 이후 북문을 폐쇄하여 나머지 삼 문이 있었다.

- ‘사장터(射場)’는 대정읍 안성리 일대로 현 안성리 사무소 북쪽이다. ‘사장’은 옛 대정현 군사들이 활을 쏘던 곳이다. 이형상 목사의『탐라순력도』, 대정강사(大靜講射)를 보면 성 안에서 사수(射手)들이 활쏘기를 점검하는 장면이 나온다.

⑦ 덕수(德修)²⁷⁾

- 덕수리는 안덕면 맨 서쪽에 위치하며 일주도로와 서부 관광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마을이다. 동쪽은 화순리, 북동쪽 서광동리, 북서쪽 서광서리, 남쪽 사계리, 서북쪽 대정읍 구억리, 서남쪽 대정읍 안성리와 접하고 있다.
- 1625년(인조 3년) 김해 김씨, 진주 강씨, 남평 문씨 등이 지금 ‘곳바구리’를 중심으로 ‘고분밭’ 근처에 목축과 농경을 하며 정착하였다. 그 뒤 송씨, 양씨, 이씨, 윤씨, 박씨, 고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큰가름(東洞)’과 ‘덕수골(西洞)’로 마을이 커졌다. 1770년경 ‘도련동(道淵洞)’에 사람이 들어와 세 자연마을이 형성되었다.
- 덕수리 옛 이름은 ‘쇄당’ 혹은 ‘새당’이라 하였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쇄당촌(刷堂村, 쇄당町을)’, 18세기 말 고문서에 ‘쇄당(刷堂)’, 『탐라지초본』 권4 대정현, 과원과 19세기 중반 『호적중초』에 ‘신당(新堂 새당)’,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지도』 및 『대정읍지』에 덕수리, 일제 강점기 50,000분의 1 지도에 덕수리, 동동(동동네), 도이지동(道伊沚洞, 도리못골) 등으로 표기되었다.
- 이 ‘새당마을’은 1784년(정조 8년) ‘금물로리(今勿路里, 금을질町을, 사계리)’에서 분리되었다. ‘새당’은 ‘자단리(自丹里)’로 되었다가 1831년(순조 31년) 상동은 ‘자단리’로 남고 하동은 다시 ‘새당’으로 변경되었다.
- 옛 덕수리 지역은 화전지역이다. 대정현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으로 인해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화전 경작이 늘어났다. 1831년, 신당리로 개칭하였다가 1840년(조선 현종 6년) ‘새당’이라는 호칭이 불길하다 하여 마을 사람 송문규(宋文奎)가 더욱 부촌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덕수리’로 마을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대정현 우면에 속했다가 1870년경 중면이 신설되자 대정군 중면 덕수리로 되었다.
- 1910년 8월 28일, 한 일 합방 이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제주군 중면에 예속되었다. 1915년, 제주도 중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27) 서귀포시 문화원(2009), 상계서, pp. 282~284.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가 되었다. 현재 덕수리는 동동, 서동, 도이연동(道伊淵洞, 道淵洞)으로 나누어 있다.

(8) 도순²⁸⁾

- 도순동은 서귀포 시가지 8km 서쪽에 있다. 동쪽 용흥동, 남쪽 강정동, 서남쪽 월평동, 서쪽 하원동과 이웃하며 동쪽 옆으로 강정천이 흐르고 있다. 도순동 마을은 1402년(태종 2년)에 이천 서씨와 전주 이씨, 고부 이씨 등에 의해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416년(태종 16년)에 제주도 삼현 통치 시기 대정현에 속하는 ‘석송리’였다. 마을 이름을 ‘석송리’라 한 이유는 마을 인근에 돌 더미와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과 이 마을에 석송이란 토호가 살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 이 마을 서쪽에 속칭 ‘쇠태왓’이 있다. 옛날 우마 방목과 관련된 지명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도 여기에서 오래된 기왓장들이 나왔다고 한다. 740여 년 전, 속칭 ‘쇠태왓’에서 발견되는 기왓장이 고려 후기에 만든 기와로 추측되고 있다. 이 지역은 법화사에서 사용한 기와 등을 구운 가마터로 추정되어 1269년(고려 원종 10년) 이후 도순마을이 설촌 했다고 여겨지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 다른 구전에는 600여 년 전, ‘돌송이’ 일대에 이천 서씨, 전주 이씨, 고부 이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설촌 되었다고 한다. ‘정든 므슬 고지세’ 일대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일찍부터 ‘돌송이’ 또는 ‘돌생이’로 불려왔고 한자차용 표기로 석송(石宋, 石宋, 돌송이) 등으로 표기해 왔다.
-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 한라장촉에 ‘石宋(돌송이)’, 『대정읍지』 대정현지 좌면에 ‘石宋里(돌송이 므을)’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石宋村(돌송이 므을), 19세기 고문서와 주변 비석에 石宋員(돌송이), 『제주삼읍전도』와 『제주군읍지』 「제주지도」에 道順里(도순 므을), 일제 강점기 25,000분의 1 지도에 ‘道順里, 古旨洞(고지세)’으로 표기되어 있다.
- 『제주읍지』 대정현지 좌면에 “돌송이 므을은 대정현 동쪽 45리 거리에 있다. 민호(民戶)는 51호 남자는 90명 여자는 134명이다.”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대정군 좌면 “도순 연가(煙家)는 123호이다. 남자 231명 여자 328명 합하여 559명이고 초가 172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돌송이’ 한자 표기인 석송(石宋 夏宋) 표기가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19세기 중후반

28) 서귀포시 문화원(2009), 상계서, pp. 85~87.

(1858년)에 이르러 부드러운 이름인 한자 도순(道順)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함풍 팔년 무자식 정월 일 대정현 도순리 호적 중초를 통해 알 수 있다. 1858년 (조선 고종 9년) 1월 이전 호적 중초에는 돌송리(復宋里)로 표기하였지만 1858년 1월 이후 호적 중초에는 도순리로 표기하고 있다. 월평마을은 오랫동안 도순마을에 속해 있다가 1861년(철종 12년) 분리(分里)되었다.

- 이후 1896년, 군제 시행 당시 좌면 돌송리(일설에는 독송리 獨宋里)라고 이름을 바꿔 불려오다가, 일제 강점기 지금처럼 도순리로 불리게 되었다. 이 마을에는 나이 많은 노인으로 향장, 부향장, 삼향장 등 삼위를 마을 행정자문위원회로 추대하는 경로사상이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1981년 7월 1일, 서귀읍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도순동은 행정적으로 대천동에 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사장벗’은 도순동 353번지로 활 연습을 하던 곳이다. 1899년 사장세(射場稅) 징수 기록이 있다. 약 200년 전부터 ‘사장벗’이 있었다. 지금 도순초등학교 남쪽 실습지 전부가 ‘사장벗’이라 불리는 곳이다. 동서 길이가 100여m이고 서쪽 끝에 솔대 새워놓고 화살 쏘았다고 한다. 이곳에서 갈고 닦은 무예로 과거를 치렀으며 전주 이씨 형제와 장씨 가문에서 급제한 적이 있다.

⑨ 강정(江汀)²⁹⁾

- 강정은 동쪽으로 법환, 서쪽으로 월평, 북쪽은 도순과 이웃하고 있다. 용천수가 많아 예전부터 벼농사를 지었다. 강정동 설촌은 700여 년 전 또는 400여 년 전 ‘아끈내’ 상류의 ‘소왕이물(沼旺水)’ 동쪽 ‘고상머들’ 또는 ‘더냇동네’ 일대에 김해 김씨, 제주 고씨, 파평 윤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 동네에 한때 서식병이 번져 어느 한 사람이 기침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침을 하게 되는 정도에 이르러 결국 ‘고상머들’ 동네 살던 선인이 그 동네 떠나 지금 강정 마을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 강정 마을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도 현재 강정동에 사람이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강정동이 ‘가래현’ 또는 ‘가래촌’으로 불렸다는 점에서 그렇다. 현재 강정동 4264 번지는 예부터 속칭 ‘대궐터’라 불리고 있다. 이곳에는 지금도 옛 건물의 흔적으로 보이는 기와 조각과 이 지방에서 나오지 않는 대리석 조각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강정동이 ‘가래현’으로 불리었던 시대는 1300년(고려 충렬왕 26년) 이전으로 보인다. 속칭 ‘대궐터’에서 발견되는 유편들은 옛 가래현 청사 자취거나 아니면 옛 탐라 국왕(또는 성주) 별관이 세워졌던 흔적으로 추측된다.

29) 서귀포시 문화원(2009), 상계서, pp. 81~83.

- 이후 강씨, 조씨, 홍씨, 이씨 등이 들어오면서 마을이 커졌다. 강정 마을 주변 ‘정의논’ 일대(마을 서남쪽)에 기원전 200년경 옛 마을이 들어서 있었다고 확인되는 유물이 있는 점으로 보아, 옛 마을이 점차 ‘앞물’ 일대로 주거지역을 이동하였다고 보아 진다.
- 『대정현지』 방리조(坊里條)에 의하면, “좌면 강정 마을은 동쪽 거리가 47리이다. 민호는 96가구이다. 남자 190명이고 여자 257명이다.” 『고지도』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並書)』에 의하면, ‘소가래천’(小加來川), ‘대가래천’(大加來川) 동쪽에 ‘새수촌’(塞水村)이 있으며, 북동쪽에 ‘고둔촌’(羔屯村)과 ‘고둔과원’(羔屯果園)이 있다. 그리고 ‘소가래천·대가래천’ 서쪽 ‘강정포’(江汀浦)와 ‘강정촌(江汀村)’이 나타난다. 그리고 『제주삼현도』에도 『탐라지도병서』와 마찬가지로 ‘새수촌’, ‘고둔촌’, ‘고둔과원’, ‘소가래천’, ‘대가래천’, ‘강정포’, ‘강정촌’이 나타나고 있다.
- 보통, 리는 25호 이상일 때 붙이고 25호 미만일 때는 촌으로 부른다. 이로 보면 강정은 그 이전에는 25호가 되지 않았다. 1709년 이전 강정촌으로 부르다가 25호 이상이 되자 강정 마을로 바꿨다고 추측할 수 있다.
- 『제주삼읍전도』에 ‘소가래천’과 ‘대가래천’ 남서쪽에 강정 마을이 나타난다. ‘소가래천·대가래천’의 동북쪽에 ‘고둔’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795년 5월 강정리 을묘식 호구 단자를 봐도 강정 마을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 조선 시대 17개 현촌(懸村)을 삼 읍에 분속 시켰으며 강정은 대정현 좌면에 속했다. 강정 마을은 먼저 세종 21년(1439년) 동해 방호소(가내관방)가 설치되었다. 이 동해 방호소에는 마, 보병 군인 56명 있었다. 이런 군사 방어시설인 동해 방호소 주위 촌락이 형성되어 마을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동해 방호소는 1510년(중종 5년)에 현 동쪽 45리인 ‘회수(廻水)’ 지경으로 옮겨졌다. 1709년 고지도에도 ‘새수촌’, ‘고둔촌’, ‘강정촌’이 나타나고 있다.
- ‘팔소장’은 현 강정 공동목장 속칭 ‘참송이케’가 자리에 있었다. 이곳은 옛날 나라에 바칠 국마를 사육하던 곳이다. 이원진 『탐라지』에 당시 제주목에 마장이 7소 38자, 6450필 말이 있었고, 정의현에 마장이 3장 17자, 2383필 말이 있었으며, 대정현에 마장이 1장 3자, 1552필 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김석익 『탐라기념』에는 1740년(숙종 30년) 목사 송정규가 조정에 계청(啓請)하여 목장을 축(築)함에 20소 60둔을 합하여 10 소로 정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보면, 13세기 후반 원나라 지배하에서 제주도에 우마가 방목되기 시작한 이래, 17세기 전반기 제주도 전역에 11개 목마장이, 후반기 20개 목마장이 있었다. 18세기 이르러 축장(築牆)된 목마장이 10개소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그중 1, 2, 3, 4, 5, 6 소는 제주목에 속하게 하고 7, 8, 9, 10 소는 대정·정의 두 현에 속하였다. 8 소장이 바로 현 강정 공동목장 자리였다고 한다. 당시 8 소장은 주위 30리, 마감(馬監) 2인, 군두(群頭) 2인, 목자 24명이었으며, 둔마수(屯馬數)는 190여 필이 되었다. 한편 강정 마을에도 1899년 사장세를 징수한 기록이 있다.

3-3. 화전세와 제주도 민란

(1) 구한말 제주도의 지세제도³⁰⁾

- 제주는 조선 시대 때부터 조세법이 시행되었다. 종전에는 토호들이 토지를 점유하여 빈민에게 경작시켜 임의로 수확물을 징수하였으며 관에서는 조세를 거둬들이지 못하였다. 1413년(태종 13년) 전라도 관찰사 건의에 따라 제주도 토지를 측량하여 관원에게 봉급을 지급하고 남은 전지(田地)는 군자(軍資)에 붙여 조세를 거두어 두었다가 나중에 빈민 구휼에 썼다.

“제주는 비록 바다의 섬이기는 하나 왕토(王土)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제(田制)가 바로 서 있지 않아 토호들이 함부로 부모 조상의 전지라 하여 비옥한 땅을 널리 점령하여 자가에서 경작하고 그 밖에 나머지 밭은 빈민에게 경작하도록 하여 임의로 조세를 무겁게 받아들임이 끝이 없습니다. 섬 땅이 비록 척박하다 하나 편의에 따라서 측량하여 관원의 봉급을 몇 번에 나누어 주고 나머지 밭은 아울러 군자(軍資)에 붙여서 때로 수세 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진휼하십시오.”

- 이후 태종 15년 도안무사 오식(吳湜)이 조세를 법대로 거둬들이도록 건의함에 따라 토지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시행하도록 하교가 내려졌지만, 실제 시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후 세종 조 들어 전분(田分) 육등법과 연분(年分) 구등법의 전제와 조세법이 갖추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 토지에 등급을 매기게 되었다.
- 1419년(세종 원년) 내자시윤 김유성(金由性)과 사재감부정 오을제(吳乙濟)를 제주도에 파견하여 토지를 측량하였다. 측량 결과 제주의 전지는 제주목 밭 3,977 결³¹⁾, 논 31

30) 김영순(2020),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제주도 지세제도 변화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1) 이 넓이가 농가 한 가구에 나누어 주기 위한 면적이었으므로 ‘결’이라고도 하였다. 삼국시대에서 고려 문종 때까지 1 결의 넓이는, 장년 농부의 10지(指)를 기준한 지척(指尺)으로, 사방 640척이 차지한 정방형으로 $15,447.5\text{m}^2$ 가 된다. 고려 문종 때부터는 전토(田土)를 3등급으로 나누어 옛 1 결은 하등전(下等田) 1 결이 되고, 중등전(中等田) 1 결은 하등전의 9분의 6.25배, 상등전 1 결은 9분의 4배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삼등전 제도는 다시 개혁되어 1444년(조선 세종 26년)부터는 6등급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1 등전 1 결의 넓이는 고려 때 하등전 1 결의 3분의 2의 넓이로, 그 넓이는 주척 477.5척 사방의 정방형으로 하였다. 따라서 1 등전 1 결의 넓이는 $9,859.7\text{m}^2$ 로 변했다. 임진왜란 이후 다시 변하여 1634년(인조 12년)부터 1 등전 1 결의 넓이는 $10,809\text{m}^2$ 가 되

결, 정의현 밭 3,208 결, 대정현 밭 2,227 결, 논 85 결이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리적 여건상 교통이 불편하며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공물 상납을 빼고 대부분은 중앙 지휘를 받지 않고 지방관인 목사나 판관이 향리층이나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 조선 시대 제주도 지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1419년) 9월 11일 계축 7번째 기사에,

濟州子弟文忠德, 高得宗等上言

濟州邈在海中, 未有收租儲備之法, 故一遭水旱, 人無所資, 未免餓莩 今國家降從寬典, 依兩界例量田, 欲立收租之法, 以備不虞 然濟州土地磽薄, 農人之家, 服勤南畝, 艱難辛苦, 百倍其功, 而常有卒歲無食之嘆 因此, 不事農業, 而務行商賈者頗多 其打量之際, 山田沙田, 雖依本朝田制, 悉降三甲, 然人心安於舊習, 猶以爲重, 收租之際, 不無愁嘆 傳》曰: 因時制宜, 使合於人情, 而宜於土俗 伏望下令有司, 其沙田山田, 或降以五甲, 六甲而打量, 以寬其稅, 則民心不駭, 而公私兩便矣

上乃命隨宜打量, 使無怨咨

- 제주의 청년 문충덕(文忠德)³²⁾과 고득종(高得宗)³³⁾ 등이 아뢰기를,

"제주도는 멀리 바다 가운데에 있어서 조세를 받아 저축하는 법이 없으므로, 한 번만 수재(水災)나 한재(旱災)를 만나도 사람들이 자생(資生)할 길이 없어 굶어 죽음을 면치 못하더니, 이제 국가에서 관대한 법전을 내리시어 양쪽 경계 근처에 전례(典例)에 의거하여 토지를 측량하시고, 조세를 걷는 법을 실행하여 비상에 대비한다 하오나, 제주의 토지는 본래 메말라 농사짓는 사람이 토지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애쓰고 힘써서 그 공력을 백배나 들여도 항상 한 해 동안의 양식이 모자랄까 걱정하여, 농업을 하지 아니하고 상업에만 힘쓰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측량할 적에 산전과 모래밭은 비록 본국의 옛 제도에 의거하여 모두 삼으로 강등하였으나, 사람 마음은 구습에 젖어서 그래도 중하다고 생각하여 조세를 거둘 때 근심하고 탄식하는 자 없지 않사옵니다. 『전(傳)』에 말하기를, ‘때를 따라 편의하게 제정하여 인정에 맞게 하고, 토속에 적당하게 하라.’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유사에게 하명 하시어 모래밭과 산전은 오등이나, 혹은 육등으로 내려 정하여 조세를 관대하게 하시면, 민심이

32) 탐라의 왕자, 문신보(文臣甫)의 아들이며 문충보(文忠甫)의 동생

33) 본관은 제주, 조선전기 중추원부사, 동지중추원사,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한 문신, 1413년(태종 13년) 효행으로 천거 받아 읍지으로 직장(直長)이 되고, 이듬해 친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음.

소동되지 아니하고 공사가 다 편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명하기를, "편의를 따라 측량하여 원망이 없게 하라." 하였다.

- 『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1426년) 7월 8일 기해 4번째 기사에는,

傳旨戶曹 濟州田租, 於陸地田地例, 減半收之

호조에 전지하기를, "제주 전조(田租)는 육지 전지의 예보다 반을 감하여 수납하라." 하였다.

- 이를 근거로 제주지역은 1 결 2두를 수납하도록 하고 그 곡물은 제주 원회곡(元會穀)으로 삼아 자체 지방재정에 사용하였다. 당시 제주 관아의 재정은 전정(田政)·군정(軍政)·잡역(雜役)에 의존하고 있었다. 전정의 경우 세율도 낮았지만, 수취액이 매우 적어 지방 관아 경비로 충당되었다. 이는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토질과 토양이 척박하여 농작물 경작이 불리한 탓에 기인하였다.
- 이원진의 『탐라지』 전결(田結)³⁴⁾에,

"제주도의 옛 규식은 무릇 요역(徭役)에 있어서 정남(人丁)에게만 책임 지우고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쓰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토호의 밭은 뚝(阡陌)으로 연결되어 가난한 백성은 송곳을 꽂을 만한 땅도 없다."

가난한 백성들이 수공업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실로 여기에서 연유한다. 전(前) 목사가 측량하여 고칠 것을 임금에게 정하자 밭이 많은 사람은 논밭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세법을 적용할까 두려워 맞은 세율(脈道)을 달게 여겨 도리어 사정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어사 또한 토호의 의논(浮議)에 움직여서 장계 개혁안을 정지하고 옛 법(古制)을 준수하니 국법을 행할 기약이 없으므로 탄식할 만하다. 대개 이 섬은 땅이 척박하여 해마다 밭을 갈아 씨를 뿌리지 못한다.

옛날부터 척박한 토지는 번갈아 휴경하여 지력을 회복하는 농법을 답습했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하여 둑은 밭(陳田)을 내주어 농사를 지은 것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이 섬은 지세가 산이 높아 풍재(風災)가 많고 골짜기가 깊어 수재(水災)가 많으며 토질이 박하여 가뭄 피해가 잦은데 세 가지 재해가 함께 침범하여 해마다 흉년이 들 때가 많으니 정규세법(영정법)에 의해 세금 거둬들이기를 책임 지우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연분(年分)은 재상(災傷)을 덜어내고 풍실 수에 따라 셈하여 몇 말의 쌀을 거두어들

34) 논밭에 매기는 조세

인다.³⁵⁾”고 하였다.

- 조선전기 전세의 부과는 수전(水田) 1 결에 미(米) 4斗, 한전(旱田) 1 결에 태(太, 대두, 황두) 4두로 세곡을 하고 세곡을 모두 호조에 상납하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 수세는 정률과세제(定率課稅制)에서 총액 세제로 변화했다. 총액세액이 결당 4~6두로 정착되었다.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결세에 대한 부과항목이 조선전기 전세에만 있었으나, 심수량(三手糧), 결작(結作), 대동미(大同米) 등이 결세로 토지에 부과되는 등 토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세결 세목이 점차 늘어났다. 총액 세액제는 군현을 단위로 세액 정해놓고 정해진 세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국가 허락 없이 변경할 수 없었다. 이 방식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 제주 전안에 기재된 토지를 한전과 수전을 나누어 살펴보면, 원장부결수(元帳簿結數)의 경우 제주목은 총 4,297 결 83부 9속이다. 이중 수전은 305 결 82부 9속, 한전은 3,991 결 92부 9속, 정의현은 총 3,399 결 70부 3속으로 수전은 16 결 57부, 한전은 3,383 결 13부 3속, 대정현은 2,427 결 94부 5속 중 수전 199 결 5부 2속, 한전은 2,228 결 89부 3속이다. 한전과 수전을 합쳐 총 10,125 결 48부 70속이다.
- 지세 부과액도 원장부(元帳簿) 결복(結卜)에 따라 조세를 거두지 않고 농사 풍흉에 따라 부과대상지를 상, 중, 하종(下摠)으로 정하여 연기가 나는 연호(煙戶)에서 거두어들였다. 이때 징수액은 제주, 대정, 정의 모두 상종 해 환산하여 쌀 106석, 중종 해는 절미(折米) 71석, 하종 해는 절미 23석 3두로 차등 징수하였다. 이에서 보면 원장부 기재된 결수에 의한 부과체계 따르지 않고 그해 경작상황 따라 징수액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전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전의 경우 소유 주체에 따라 민답(民畠)과 관둔답(官屯畠)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민답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 수세액은 미미했다. 관둔답(官屯田)은 자경무세지(自耕無稅地)로 관아에 예속된 관노비 사역이 원칙이지만, 실제는 인근 농민이 경작하여 관아 재정운영에 충당하였다. 이 역시 규모가 작아 18세기 중엽 호남 연해 저치미(儲置米)를 환급받아 지방관아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 조세를 거둬들이면 이를 모두 “군자창(軍資倉)에 회록(會錄)되었고 제향(祭享) 및 장사 수료(將士須料)로 사용되어 실제 상부에 상납 세금은 없었다. 빙궁함으로 말미암아 가히 ‘유전무세’(有田無稅)”라고 기록되어 있다.
- 이처럼 제주지방의 경우 19세기 중반까지 전정인 토지세는 국가에 바치는 정규 조세가 아니라 제주 삼읍의 지방관아 재정으로 충당되었다. 대동세(大同稅)도 토지 결수에 따라

35) 이는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으로 풍흉에 따른 수확 손실을 열 등분하여 손실이 20면 조(組)에서 2분을 감하여 수세하며 수확이 8분 감(減) 할 때는 조(組) 전액을 면제하는 세법

미(米) · 포(布) · 전화(錢貨)로 수세 하는 방식이었지만, 제주의 경우 과세할 토지가 거의 없어 결에 의하지 않고 인정(人丁)에 부과하였다. 장정마다 참깨(眞莊) 1되를 받았다. 이외에 영문(營門)에 딸린 둔전에 매긴 조세로 영전세(營田稅)가 있다. 좁쌀 4섬의 수세 가 해마다 같지 않다고 하여, 원전(元田) 이외에 새로 일군 논밭에서 농사짓는 대로 세금 거두어 제주목 관아 각종 비용으로 썼다.

-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자체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 공마를 키우는 목장 안에서 불법적으로 경작하는 토지인 목장전에 부과하는 목장세와 공한지나 진폐(陳弊)된 토지를 개간하여 경작한 토지에 부과하는 가경세, 중산간 지대 숲이나 나무를 불태워 경작하는 화전에 화전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들 세금은 전안에는 올라있지 않지만, 비정기적으로 경작할 때마다 부과하는 세금들로 수기수세의 대상이다.
- 1794년(정조 18년) 각장범경처(各場犯耕處)에 대한 징수를 단행하여 이를 마감(馬監), 목자의 료미(料米)로 대체하였다가 1799년(정조 23년) 공용, 즉 지방재정으로 전환하였다. 19세기 공식적으로 목장 내 화전 경작이 허용되면서 화전은 범경처(犯耕處)가 아닌 수세지로 인식되었다. 제주의 경우 중산간 지대 10 소장, 산장 3장(針場, 上場, 鹿山場) 도합 13장 토지를 관할 하여 그 안의 목장전, 가경전, 화전으로부터 수기수세 하였다. 목장전과 가경전은 명칭 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목장 안에 있고 수기수세의 대상이라 구분이 힘들다. 그리고 화전은 개간과 경작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달라 별도 세목으로 징수하였다. 이들 중산간 지대 13장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은 이후 조선 말기까지 제주의 중요한 세원이 되었다.
- 이렇듯 지방재정에 충당하기 위해 관아는 기존 목자들에게 경작이 허용되던 장전(場田)에 장세(場稅)를, 새로운 개간지 화전에 대해 화전세를 부과하였다. 이때 거두어들인 화전세와 장세 총액은 1,330섬으로 삼읍의 지세 192석 3斗에 비하여 아주 많았다. 한편 1899년 『제주읍지』를 보면 대정과 정의의 전세에 대해 ‘전세즉장세(田稅卽場稅)’ 하여 이 지역은 화전세를 전세로 간주, 징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⁶⁾.
- 갑오재정개혁 이전 조선 재정은 왕실, 중앙 관아, 지방관아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중앙 재무기관 난립은 농민수탈 강화되고 낭비와 횡령 조장하여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간 주요한 요인 되었다. 18~19세기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더불어 확대된 수취체계 파탄과 삼정 문란은 19세기 중엽 이후 민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진주민란에 이은 갑오농민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재무기관 난립과 황실재정 및 국가재정 혼돈을 극복하기 위하

36) 오상학(2004), “조선 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 『탐라문화』24,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pp. 131~153.

여 갑오 재정개혁이 추진되었다. 조선 조정이 갑오 재정개혁 정책은 크게 중앙재정기구에 대한 정비와 근대적 재정 이행을 위한 법제 마련을 들 수 있다. 이 재정개혁 목적으로 징세 기구 정리를 통한 재정수지 일원화, 각종 조세 금납화, 회계법 제정과 예산제도 수립 등을 들 수 있다.

- 이 갑오재정개혁에서 가장 실효를 거둔 정책으로 지세, 호세(戶稅), 삼세(蔴稅) 등을 개혁하여 허다한 명목의 잡세 폐지와 함께 조세 금납화를 추진하여 현물세를 폐지한 일이다. 특히 세제개혁 가운데 결가(結價)로 불리는 지세 개혁은 갑오 재정개혁의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조선전기 토지에 부과하는 지세는 전세뿐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한 토지에 전세 이외에 삼수미·대동·결작·포량미 등 각종 세목의 조세가 부과되었다. 화전에 화세(火稅), 로전(蘆田)에는 로세(蘆稅) 등을 부과하고 여기에 부가세 성격으로 작지(作紙)·역가(役價)·잡비·선가(船價) 등이 더불어 부과되었다. 토지에 본세·부가세 이외 불법적으로 징세하는 허다한 종목 규외 잡세가 부과되었다. 그리고 조세 금납화를 추진하여 재정을 탁지부로 일원화한 다음 종래 미·포 중심 현물과 엽전으로 불리는 화폐로 수납하던 각종 조세를 모두 화폐로 수납하였다.
- 1894~1895년에 걸쳐 진행된 근대개혁은 중앙재정뿐 아니라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도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지방 관서에서 종래 각종 둔토(관유지)와 분급 징조지가 혁파되었으며 지방재정에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 대동유치미(大同留置米)가 없어졌다. 그 밖에 지방 공물과 모든 잡세가 혁파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 관서, 군문 등은 자체 수입원을 모두 상실하고 경비 전적으로 중앙재정에 의존하였다. 1895년 4월부터 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비를 내부에서 계상하여 해당 관서에 지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지방재정 개혁정책에 따라 제주도 재정정책도 일부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 갑오개혁 이후 제주도 재정운영방식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당시 세입·세출 기록을 보면 갑오재정개혁에 따른 재정 운영방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갑오개혁 이후 동포세(洞布稅)를 부과하고 공마를 폐하여 전납(錢納)하였다. 기타 해세(海稅), 장세(場稅) 등을 부과하여 동포세, 해세, 장세, 포세(布稅) 낙마세(烙馬稅), 관유지세(官有地稅), 원결세(田結稅)로 구분하여 징세하였다.
- 갑오 재정개혁으로 시행된 조세 금납화 조치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대전(代錢)하여 보고하였다. 현물 대전가격은 지세미(地稅米)의 경우 매석에 8량, 관전세(官田稅)는 매석 6냥, 담백미(沓白米)는 매석 18량, 장화세(場火稅)의 경우 매석 7량 2전으로 대전하고 있다. 곡물 시가에 따라 대전가(代錢價)는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곡물도 세목에 따라 대

전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 다른 지역 지세 부과는 결당 결가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현물 시가에 대한 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어 결에 의한 작부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

- 세목 중 가장 두드러진 장화세는 공마 대전과 더불어 제주도의 특수한 세로, 목장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곳을 징수하는 소작료 성격의 세금이다. 경작지 확대 따라 수기수세 하던 세금 정규화하여 부과한 세금이다. 공마 대전은 공마 폐지하고 대신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따로 경리원에 냈기 때문에 이들 조세목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역시 이들 경작자에게 부과하는 부가세로 가마련(加磨鍊)이라 하였다. 1906년 목장별로 거두어들인 장세는 1년 7,000량, 공마 대전으로 5,000량 거둬들였다. 1898년부터 장화세 명목으로 7,000량 정액 부과하여 상당 기간 정률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징수한 조세는 모두 관야재정에 사용함으로써 실제 중앙에 상납한 금액은 없었다. 갑오 재정개혁으로 징수한 모든 세금은 상납하고 지방비를 계상해버리면 이를 해당 중앙관서에서 지급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시행되지 있지 않아 제주도는 계속하여 독립재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 한편 19세기 후반 제주지역 화전이 확대되었다. 이들 화전민은 농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해안지대 토지를 팔고 산으로 들어간 빈민층들이었다. 이들에게 광활한 중산간 목장지대는 개척 대상이었다. 법적으로 국가 소유지만 영구경작권을 인정받음으로써 화전토는 “주인이 있는 공토”로 대대로 이어가며 경작 가능한 토지로 여겨왔다. 그런데 이 화전에 대하여 관리들이 국유지라 정하고 지방관아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거나 집중적 수탈이 이루어졌다. 이는 ‘방성칠 난’의 발생원인이다. 이어 1899년 화전과 목장전에 대하여 역둔토(驛屯土)를 황실 소속 내장원에 귀속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봉세관 강봉현이 입도하여 이들 토지에 과도한 세금을 직접 남징(濫徵)하다가 1901년 ‘이재수의 난’이 일어났다.

(2) 봉세관의 세폐(稅弊)와 화전세

- 제주도 경지는 공토로 둔전, 궁방전, 목장토 위주였다. 전답은 소유권이 없었으며 매매 역시 사용권 매매에 불과하였다. 대부분 농민은 자신 소유 토지 없이 공토를 차경(借耕) 하였으므로 지세가 아닌 지대를 내는 국가소작인으로 존재하였다. 더욱이 제주도는 공물 상납을 제외하고는 행정과 재정운영이 거의 독립 이루어졌다³⁷⁾. 광무 정부는 수취제도의 근대적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재정을 전부 중앙재정에 편입시켜 일원화하였다.

37) 김양식(1989), “1901년 제주 민란의 재검토”,『제주도 연구』 제6집, pp. 125~166.

이뿐만 아니라 을미사변과 광무사검을 통해 국가 지주제를 강화하는 한편, 정도(定賭), 가도(加賭), 양전(量田)을 통해 지대와 지세를 인상했다.

- 또 부족한 재원 메꾸기 위해 호주세(戶主稅), 문검세(文檢稅), 관승(官繩索錢), 어장세(漁場稅), 시장세(市場稅) 등 각종 세목 하에 잡세를 부과하였다. 광무 정부는 파원(派員), 독쇄관(督刷官), 세감(稅監), 봉세관 등으로 불리는 세원(稅員)을 파견하여 세원조사와 세금납부를 독촉하였다. 이 상황에서 1989년 왕실 재정 주관하는 내장원이 설치되어 잡세를 주관하기 시작했고 1899~1900년 광무사검을 실시하였다³⁸⁾.
- 1900년 봄 제주도에 강봉현이 봉세관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지역 특수성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토 집세에만 치중하여 도민들로부터 많은 원성 샀다³⁹⁾. 그런데도 탁지부에서는 강봉현에게 도중(島中) 지세를 부과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 『고종실록』 고종 38년(1901년, 광무 5년) 2월 8일 조(條)에,

度支部大臣閔丙奭奏：“各道正供，自有定章 而至於濟州牧，一自更張以後，各稅之收捧，莫知盈縮 其在率普同供之地，宜其有調整之舉 內藏院捧稅官姜鳳憲，調查委員差下，使之從實查櫛何如？”允之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병석(閔丙奭)이 아뢰기를, "각도(各道)의 정공(正供)은 원래 정해진 법이 있는데, 제주목의 경우에 경장(更張) 이후 징수하는 각종 세금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온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바치는 것인 만큼 조정하는 조치 있어야 하겠으니, 내장원 봉세관 강봉현을 조사위원으로 차하(差下)하여 사실대로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제주도는 원래 토지가 척박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조정에서 지세를 면제하여왔다. 하지만 왕실 재정을 채워 넣기 위하여 새로 지세를 부과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봉세관은 탁지부 훈령으로, 지세를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내장원 훈령과 마패(馬牌)를 소지하고 목사 이하 관리들의 치적, 장부(臧否), 향리 감독과 민간 득실까지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삼군의 공토, 공마잔장화세(貢馬盡場禾稅), 담백미(荅白米), 어장, 염분, 산림 및 기타 삼군의 재산을 일일이 조사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⁴⁰⁾.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은 수세는 왕실 재정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수긍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모순에 대해 많은 불만을 지녔다.

38) 이혜경(1987), “1901년 제주 민란의 역사적 고찰”, 『녹우회보』No 29,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과. pp. 19~36.

39) 김석익(1918), 『탐라기년(耽羅紀年)』.

40) 김윤식(1887년 5월 29일~1921년 12월 31일), 『속음청사(續陰晴史)』.

- 1901년(광무 5년) 6월 21일, 황성신문에서 그 폐단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어업세를 거두며 묘세(墓稅), 항수(巷樹), 원목(園木), 청초(青草), 모초(茅草)에 징세한 일로 임야를 가졌던 도민들이 산림을 일시에 작벌(斫伐)해 버린 일도 있고 각 향리에 토속신봉(土俗信奉)의 유서 깊은 신당과 신목이 서 있는 공유지와 또 목장지 기타 국유지 등을 일반민에게 분매(分賣)했는데, 그것을 사들이는 자가 주로 천주교 신자였고 강봉현이 집세할 때 마름은 모두 천주교 신자들을 전용하였는데 그들 중에 무뢰한이 많았고 공사를 혼동하여 사색토전(土索討錢)하는 일 행했고 공토의 마름으로 신자들을 전용하여 억탈궁민(抑奪窮民)하여 선집(先執)의 전사(田事)를 행했고 각 포(角浦)의 소산잡물(所產雜物)을 교인 시켜서 집세하고 가격 정해서 도미하였고 화전으로 오래된 땅을 새로 개척한 땅이라고 하고 다시 집세하여 토뇌징봉(討賂徵捧)했다⁴¹⁾.

- 이처럼 제주에서 봉세관 전횡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주도는 대부분 토지가 국유지였으므로 지대수취 강화, 농민들의 경작권, 사용권 등에 대한 자의적 탈취, 각종 산물에 대한 집세가 쉬운 토지보유 구조를 가졌고 지방관을 감독할 수 있었으며 모든 조세 업무를 장악하여 실질적으로 지방관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제주도민들은 이러한 봉세관 세폐와 아울러 교폐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단합하여 상무사(商務社)를 조직하고 이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민란 후 대정 군수 채구석이 면직되고 봉세관이었던 강봉현이 그 후임으로 임명되자 민당(民黨)에서는 “차라리 대포에 맞아 죽을망정 강봉현 손에 죽지 않겠다. 라며 절규했다고 한다. 이를 목격한 김윤식도 이에 대한 도민 저항은 필연적이라고 봤다.
- 실제로 민란의 대의명분을 쓴 글에서 “基一捧稅官之弊 基二教弊 基三茂戌倡義之罪”라 하여 봉세관의 세폐를 가장 으뜸으로 들었다. 이처럼 당시 제주지역에서 가장 심했던 봉세관의 세폐는 화전세라고 할 수 있다.
- ‘화전세’란 조선 후기 화전에 징수하던 조세이다. 화전은 산골짜기 궁핍한 주민들이 주인 없는 산에 불을 질려서 밭으로 만들어 곡식을 재배하던 농경법이다. 화전세는 이러한 밭에 징수하던 조세이다.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일찍부터 재앙의 섬, 천형(天刑)의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지층은 현무암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표 토가 화산회 토가 덮여 있어 농사에 부적합한 토양층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지표 수가 거의 없어 농사할 수 없는 곳이라, 농민들은 메마른 땅에서 근근이 농사짓고 사는 형편이었다. 도내 화전을 일구고 사는 사람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대정현에 더욱 많은 화전민이 모여 살았다.

41) 황성신문, 1901년(광무 5년) 6월 21일 자 기사

- 제주도에 화전세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841년(현종 7년) 제주 목사 이원조 『탐라록(耽羅錄)』 「삼천서당폐장가획절목서(三泉書堂幣場加劃節目序)」에는 제주도에서 화전세를 받아 서당 경비로 썼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는 화전 관행이 인정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어 조선 후기 화전세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 화전민들에게 해마다 목장 운영비로 장세가 부과되어 조를 거둬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색리(色吏)들은 장세를 부과하면서 여러 가지 손모분(損耗分)을 가산하는가 하면, 색리에게 농물을 바친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시켜 주었다. 일반 농민들에게 그만큼 세금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화전에 대한 과세는 소장별로 분담되고 있었다.
- 강제검의 난과 방성칠의 난, 두 민란은 모두 중산간 지역의 화전세 과다징수로 발생했다. 동광 일대가 당시 중요한 화전촌이었던 까닭에 이곳 사람들은 민란 주축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들 화전동에 대한 화전세는 화전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어 생활 근간을 흔들어 놓을 정도였다. 이로 인하여 민란이 발생했다. 방성칠 난을 주도한 남학당(南學黨) 역시 동학농민운동 이후 제주도에 들어와 대정현 광청리 일대에서 화전을 하며 포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3) 제주 민란

- ① 강제검란(姜悌儉亂, 1862년)
- 1862년 진주민란⁴²⁾ 영향을 받아 제주도에서 발생한 민란으로 ‘제주 민란’이라고 하며 ‘강제검의 난’이라 부른다. 강제검(미상~1863년) 본관은 진주이며 대정현 안덕면 서광리 출신 화전민이다. 강제검은 같은 해 2월 진주에서 불이 붙어 삼남 지방으로 번졌던 민란의 영향 받았다⁴³⁾. 그해 9월 대정현 강제검과 제주 봉개리 김홍채 등의 중심이 되어 향리와 아전들에게 항거하였다. 1862년(철종 13년)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세 차례 민란이 일어났다. 강제검은 2차와 3차 봉기 때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 조선 후기 제주도민들이 나라에 내는 세금은 중앙 정부에 올리지 않고 대부분 지방관아 재정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본래 조세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 관아재정 및 진상을 마련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진상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42) 1862년(철종 13년) 2월 18일, 경상도,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들의 반관숙정운동(反官肅正運動), 철종 때의 임술 민란의 도화선이 되었다. 직접 동기는 경상도 우병사 백낙신(白樂莘)의 불법 탐학에 있었다. 이 민란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다른 지방 농민을 자극해 이 해 전국 30여 개 지역에서 농민이 봉기하였다.

43) 조선 시대 순조 이후 60여 년간 계속된 안동 김씨 세도정치는 철종 대 이르러 그 병폐가 더욱 극심해졌다. 왕권 약화와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가운데, 지방관 수탈이 가중되었고, 결국 1862년(철종 13년) 2월, 경상도, 진주를 효시로 삼남 지방 일대를 휩쓴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강제검의 란’은 당시 전국 농민항쟁 가운데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제주도 남자들을 대상으로 평역미(平役米)를 거두었다.

- 민란이 발생했던 1862년 당시 제주도 남자들은 평역미로 1년에 여섯 말을 봄, 가을로 나누어 지방관아에 바쳐야 했다.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부담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농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법으로 개간이 허용되지 않는 목장에 들어가 목장토를 일구어 경작하였다. 지방관아에서는 관아재정 확보를 위해 개간지에 대한 화전세와 목장세를 과도하게 징수하였다.
- 이 민란은 화전세 등의 조세 폐단 시정, 부패한 제주 목사 처단, 제주도 토호들이 주요 독점을 통한 사리 추구 지적하고 이를 시정 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했다. 당시 정부에서 파견한 수령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착취와 부역 부과하는 탐관오리들에 대해 분노 쌓여 일어났으며 화전민 지지받아 확대되었다. 또 지나치게 조세 많이 거두었고 부역을 불공평하게 매겼으며, 또 환곡에서 부정 많이 저질러졌다는 이유로 봉기가 발생하였다.
- 1862년 9월 6일 대정현 덕수리에 거주하는 화전민 김석란이 광정리에 거주하는 김두일에게 금년도 화전세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내용의 통문을 보내며 시작되었다. 그 해 9, 10, 11월 3차례 봉기하였으며, 3차 봉기 때인 1863년 1월 제주 감영을 점령하고 제주 목 전체를 장악하기도 했다. 관아를 점령하고 잠시나마 장악했던 이 봉기는 1863년 1월, 관군에 의해 진압되고 강제검, 김흥채 등을 체포되어 압송된 뒤 처형당하였다.

가. 1차 봉기

- 9월 12일에 일어난 1차 봉기는 대정현 화전민들에 부과된 과다한 화전세 징수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민란은 대정현 자단리 조만송(趙萬松)과 장환(張煥) 등의 주도로 발생하였다. 과다한 화전세 징수에 저항하는 대정현 화전민들이 거사에 참여한 민란이었다. 추수기가 다가오자 지방관아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애당초 한 말로 정해진 세금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네, 다섯 말을 징수하였다. 이에 대해 덕수리 김석란 등이 부당한 화전세 징수에 저항하자는 취지의 사발통문을 돌리면서 모의가 시작되었다.
- 강제검은 평소에 의기투합하였던 김흥채(金興採)와 거사, 봉기를 결심하고 지역 유생인 김석구(金錫九)의 자문받아 장환, 김석란(金錫蘭), 김두일(金斗日), 박흥열(朴興悅), 김연홍(金蓮弘), 현재득(玄才得) 등의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이후 10월 6일을 거사 일로 하자는 통문을 각 읍의 동임(洞任)에 보내어 거사 범위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시켰다.
- 1862년 9월 12일, 화전민들과 함께 감관⁴⁴⁾과 색리 처소로 몰려가 뇌물로 받아 둔 명

44) 감관(監官)이란 조선 시대 각 관아나 궁방에서 금전 출납을 맡아보거나 중앙 정부를 대신하여 특정 업무의 진행을 감독하던 관직이다. 이러한 감관 자리는 항상 불안하였고 신분도 미천하였으므로, 감관은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하

주·포목·남초(南草)⁴⁵⁾ 등의 재물을 화전세 수세 문서를 불태우고 색리를 구타하였다. 그해 9월 13일, 화전민 1,000여 명이 중장도에 모여 담험 감관 진경로(秦京路)와 강위진(姜謂鎮) 집을 때려 부수었다. 그해 9월 14일, 성문이 굳게 닫혀 주출하였다가 9월 15일, 아침 성문이 열리자 색리 정승우(鄭承宇)와 영이방(營吏房) 김종주(金鍾周)의 집을 부수고 재물을 꺼내어 짓밟고, 제주 목사 임현대(任憲大)에게 화전세 감세와 군포 폐단 시정을 요구하였다. 봉기한 민중은 제주 목사에게 화전세를 재조사하고 모든 폐해를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난 뒤 해산했다.

나. 2차 봉기

- 2차 봉기는 10월 6일부터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강제검과 현재득 주동으로 삼읍 도민 1만여 명 참여로 전개되었다. 1만여 명이 넘는 봉기민들이 패랭이를 쓰고 농동으로 성안을 급습하여, 1862년 10월 6일 백성의 원성을 사고 있던 제주목 장교와 아전들인 김종주, 송인원, 송응환, 김석룡, 김현량 등 5명을 직접 처형하려 했다. 그리고 조천 등지에서 제주지역 주요 산물인 미역, 양태 등을 독점하여 폭리를 쟁기는 포구 주인과 제주 토호 등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이들 집을 부수고 불태우며 재물을 빼앗았다.
- 그러나 봉기민들은 백성들을 괴롭히던 아전 5명을 직접 살해하려 했던 애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제주 목사에게 그들을 국법에 따라 처형하겠다는 확답 받은 뒤 자진 해산했다. 그런데 제주 목사는 봉기민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대정현과 정의현 봉기 참가자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 3차 봉기

- 3차 봉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어졌다. 2차 봉기 시 국법에 따라 부패 관리를 처벌해주겠다던 목사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봉기민들은 더는 목사와 타협할 수 없다며 관아를 점거하였다. 이때 참여한 민중의 수는 수만 명이 넘었다.
- 강제검의 지휘 아래 김흥채(金興彩), 박흥열(朴興悅), 조만송 등이 주축이 되어 일어났다. 1862년 11월 15일, 삼읍(三邑)의 봉기민 수만 명이 동문 밖 연무정 앞에 집결하였다. 강제검 등이 남문과 동문으로 들어가 제주 읍성을 장악하였다. 다음날인 11월 16일 제주 읍성 밖에서 부호 집을 부수고 불태우며, 제주 목사 설득에 응하지 않았다. 그다음

기 위하여 합법적·비합법적 방법을 막론하고 재부 축적에 노력하여 산림 벌채, 벌꿀 업자들에 대한 수세 등의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조선 후기 백성들의 지탄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45) 담배

날인 11월 17일, 이들이 제주 관아를 점거하자 겁에 질린 제주 목사는 화북포로 피신하였다. 목사는 화북포로 피신 갔다가 11월 25일에 돌아왔다.

- 11월 19일 봉기민은 각종 민폐 시정에 착수하여 장부를 조사하고 11월 21일 『민폐시 정규칙(民弊施政規則)』 ‘구폐절목(舊弊節目)’을 제시했다. 그러나 11월 25일, 제주 목사의 반격으로 강제검이 불잡혔으나 수십 명 농민이 다시 그를 구출했다. 이후 봉기민들은 12월 9일까지 모든 시정 자의적으로 처리하였다. 그 후 김석한(金錫翰), 김성수(金性洙), 이일성(李日成), 김종주 등은 사람들에게 맞아 죽고, 김석룡은 자결하였다.
- 1862년 12월 14일, 조정에서 제주 목사 임현대를 파직시키고 정기원(鄭岐源)⁴⁶⁾을 파견하였다. 제주 목사로 정기원이 부임한 지 7일, 삼 읍민 180여 명을 인솔한 강제검은 『민폐시정규칙』을 제주 목사에게 전해주며 실행을 요구하였다. 강제검은 시정규칙 이행을 제주 목사에게 요구하기 위해 다시 거사가 필요하다는 통문을 전 지역에 띄웠다. 그러나 제주 목사가 먼저 알고 처소 급습하여 강제검을 체포하였다.
- 1863년 2월 2일, 제주 목사 정기원은 강제검과 김홍채를 효수하고, 다른 봉기 가담자 30여 명 체포한 후 안핵사를 기다렸다. 1863년 4월, 제주도에 도착한 제주 안핵 겸 칠리사 이건필은 30명 체포자 중 주모자급인 11명을 정배(定配)했다. 조만송도 처형당했으며 장환은 처형이 선고되었다. 관속 중 화전세 감관 강위진과 색리 정승우는 정배 되었으며, 이전 제주 목사 임현대는 함경도로 정배 되었다. 이때 처형된 자들은 관리 16명, 강제검, 김홍채의 효수를 비롯한 봉기민 22명이었다. 부정 이서(吏書) 5인 중 김종주, 김석룡과 그 밖에 김성수, 김석한, 이일성은 타살되었다.
- 한편 『제주목안핵장계등록(濟州牧按覈狀啓贍錄)』은 강제검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조정에서 파견한 안핵겸찰리사 부호군 이건필의 민란 전말 공초(供招)⁴⁷⁾ 기록이다.
- 이건필 『제주목안핵장계등록』

罪人旌義縣西歸里玄才得 年四十三 更推 白等 汝矣前招內 以初參見於火田民倡時亂之
意 納古是矣 以任順千 朴興悅 洪奉孝所招觀之 則汝矣或同謀助虐 或以罷黜 二字 倘言
於稠中 或以言 語納諂於悌儉之狀 已出於諸招 雖以汝矣所招言之 當初姜悌儉發通後 聞
洞任之言 越山入城之 隨往朝天里也 金旌義家舍 興船隻及浦主人夫壽彭倉吏宋信國家舍
燒火事 以汝矣主張 至於捉囚受棍之境 則如無干涉 岂有是理是稱

46)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에 정기원의 선정을 기리는 ‘목사정공기원선정비(牧使鄭公岐源善政碑)’가 있다. 비석 후면에 “정기원은 재임 중 강제검, 김홍채 등의 난을 진압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 세율을 개정하여 평역미(平役米)를 감해 금전으로 배정하는 등 청렴 정직하고 매사에 위엄이 있었다.”라고 쓰여 있다.

47) 조선 시대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일, 또는 그 진술

철종 13년(1862년) 죄인 정의현 서귀리 현재득, 나이 43세, 다시 묻고 아뢰었습니다. “너희 지난번 공초 가운데 애초에 화전민들이 때에 난리를 창의하였는데, 참가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고하여 아뢰었다. 임순천, 박홍열, 홍봉효의 공초로 본다면, 네가 조학(助虐)하는데, 같이 공모하였고 파출(罷黜) 두 글자로 여러 난민들이 모인 속에 창언(唱言)하였으며 홍봉효의 말을 강제검에게 일러바쳤던 모습들이 이미 여러 공초에 나와 있다. 비록 너의 공초로 말을 한다 해도 당초 강제검의 통문⁴⁸⁾ 발송 뒤에 동임(洞任)⁴⁹⁾의 말을 듣고 한라산을 넘고서 제주성을 들어왔다가 목사 행렬인 부수팽과 창고의 아전인 송신국의 집들이 불태워진 일로 불들리어 들어가 곤장을 맡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만약 간섭함이 없었다고 하면 어찌 이와 같은 까닭이 있겠느냐?”

- 이에서 보더라도 강제검의 난은 화전세로 인하여 고초를 겪던 당시 화전민들과 제주도 민이 함께 거사한 농민항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강제검의 난은 제주도 농어민 기질과 제주도 특유 경제적 수탈 및 내륙지역 민란 영향 등이 합쳐져 발생한 임술 민란의 대표적 농민항쟁으로 평가된다. 강제검은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하나로 뭉어 조직적 투쟁으로 발전시켰다. 이 민란은 지배계층의 경제적 수탈을 고발하고 징계하여 농민들의 공감대를 이끈 점에서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② 방성칠란(房星七亂, 1898년)

- ‘방성칠의 난’은 제주 목사 이병휘(李秉輝)의 화전세, 목장세에 대한 과도한 수탈 때문에 발생했다. 1896년 부임한 제주 목사 이병휘는 부임 초기부터 가렴주구를 일삼아 탐관 오리로 제주도민들에게 원성이 자자했다. 당시 제주 목사 이병휘가 수탈한 장화세(場火稅)는 1897년, 제주읍 장부에 기재된 규정 집세액은 1,200석이었으나, 실제 도민들로부터 집세한 액수는 1,838석이었다. 또 이 민란에 참여하였던 도민 중에 1896년 제주 민란을 진압했던 대정 군수 채구석과 조천 김씨 등 제주도 토호세력에 대해 반감을 품은 사람들도 많았다.

- 이 1898년 제주 민란은 전라남도 동복 출신으로 1891년, 제주도에 들어온 방성칠이⁵⁰⁾ 주도하였다. 그는 친군(親軍)을 구성하고 통문을 돌려 민심을 고무하고 매 가호당 장정

48) 여럿이 돌려 보는 통지문

49) 동네일을 맡아보는 사람

50) 전라도, 화순에서 태어난 동복군 사람으로 동학이 실패로 끝난 1894년에 방성칠은 강벽곡(姜辟穀) · 정세마(鄭洗馬) 등과 함께 남학당 교도 수백 명을 이끌고 전라도에서 제주도로 갔다. 지금의 제주시 오라 능화동에 거주하며 화전 경작을 하였다. 이후 대정군 광청리로 이주하여 화전민을 주요 대상으로 포교하던 중 지방관아에 의한 화전 세 과다 집세에 저항하여 민란을 주도하였다.

1명씩 강압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각기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남자(南字)’를 각인한 목봉을 들고 2월 28일 제주 성으로 향하였고, 29일 성내에 들어갔다. 이 ‘남자’를 근거로 이 민란이 남학당이라는 종교 조직에서 주도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남학당 간부 방성칠, 강벽곡, 정세마 세 사람이 직접 장두가 되고, 강제평, 김안 일을 선군령(先軍領)으로, 양용이, 강명송을 후군령(後軍領)으로 정하고, 오을생과 방성화(방성칠의 동생)는 장정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민군을 조직했다. 그리고 방성칠의 심복 부대인 어남군(御南軍)은 200명으로 구성되었다.

- 제주도로 유배를 와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김윤식(金允植)은 『속음청사(續陰晴史)』에 “목사가 탐욕이 심하여 오랫동안 백성의 원망을 샀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다음은 『속음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 방성칠 난이 일어난 시기 기록이다.

■ 2월 7일

제주 목사 이병휘가 탐욕스러워 오랫동안 백성의 원망을 샀는데 시골 사람들이 장차 억울함으로 호소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2월 8일

총민 수백 명이 관가에 모였는데 방(房)씨 성을 가진 사람이 화전세 및 마장세(馬場稅)의 지나친 징수, 호포의 지나친 징수, 사환을 관에서 맘대로 조정하는 폐단을 고쳐줄 것을 요구했는데, 제주 목사 이병휘가 모두 들어주겠다 하여 해산했다 한다.

■ 2월 20일

40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 이승오와 함께 교동의 판관 김응빈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다음날 정병조 등도 풀려났고 정병조와 서주보는 김윤식의 거처 뒤에 거처하게 되어 담장을 터서 왕래하였다. 또 앞에는 김순화가 거처하여 담장을 트고 왕래하였다.

■ 2월 26일

유배객인 이용호, 김낙영, 장윤선 등이 와서 만났는데 민란이 일어나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봉등이를 쥐고 제주 성으로 달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2월 28일

방성칠이 목사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 “우리는 반드시 성에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 모여 다만 물어볼 죄인이 있으니 호출하는 대로 내보내 주기만 하면 된다. 내일은 모두 성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였다.

■ 3월 1일

여러 사람이 와서 만났다. 들으니 민당(民黨) 수만 명이 성 밖에 모여 있고 장두는 방갑 일명 진두 또는 일명 성칠 인데 동복 사람으로 몇 년 전에 섬에 들어온 자이다. 신체가 장대하며 담력이 있고 술수를 좋아하여 강벽곡, 정선마와 더불어 산제를 몇 년 드렸으며 세 노인이나 아이들이 모두 이인이라 칭했다.

삼군에 통문을 보냈다. 그러나 화전민은 거의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라 수백 명을 뽑아 친군을 삼아 스스로 호위하는 것이 매우 치밀하고 삼군에서 모여든 백성을 조종하고 단속하는데 감히 이오함이 없고 호령도 자못 엄하였다. 아마도 지난달 등소 때에 주 목사가 일일이 들어 주마다 했으나 한결같이 둔취하고 있는데 소위 화전민이면서 모두 남학당이다. 들고 있는 몽둥이에 모두 남자를 썼다.

방성칠 즉 이 유배 온 사람인 최영순, 김낙영을 불러다 같이 일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자 최, 김이 모두 거짓 허락하자 방이 말하기를 제주는 방성 한참서 선회 서 참서 주보 벗 김사찬, 이부위, 이태황 모두이다. 주인이 눈을 무릅쓰고 조천 김해미 응전 집으로 출발했다. 정세마 병조 황감역 이병욱 역시 와서 모였다.

함께 마을 장정 천 명을 모아 창의하여 적을 치려 했는데 다음날 적병이 오자 마을 장정들이 모두 도망가 흩어졌다. 나와 이 판서 및 나 배 양군 이부위는 어렵사리 도망쳐 방역은 성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무리를 이끌고 화전이 있는 옛 소굴로 달아났다. 성안은 구 목사 이병희를 맞이하여 임시로 주무를 보고 있다.

■ 3월 4일

방성칠이 유배 온 사람인 최영순, 김낙영에게 같이 일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자, 최영순과 김낙영이 모두 거짓 허락하니 그가 말하기를 “오늘의 난은 하늘이 뜻이다. 지금 나라의 운이 이미 쇠퇴하여 진인이 바다의 섬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또 제주에 적객이 많기가 요즘과 같은 적이 없는데 이로써 문무가 모두 갖춰졌으니 이는 하늘이 나의 거사를 돋는 것이다. 지금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다투고 조정에는 일이 많아 여기까지 파병할 틈이 없다.” 하였다.

최영순을 말하기를 “만약 나를 이용하고 싶거든 꼭 내 말을 들어라. 반드시 약탈을 하거나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며, 촌민을 줄여서 돌려보내고 적객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적객은 모두 서울 사부이니 꼭 이용하려 해서 안 되고 다만 인명만 다치게 할 뿐이다.” 하니 방성칠이 자못 그 말을 옳게 여겼다. 방성칠은 김낙영, 최영순을 각각 좌우 대장으로 삼아 각 천명 배정하고 대장전령으로 삼군에 행하니 삼군이 휩쓸리지 않음이 없었다.

■ 3월 5일

모두 피난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오직 판관 김응빈만 민란에 분개하여 적을 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김응빈과 나를 비롯한 유배객들이 모여 방성칠의 난을 토벌할 일을 상의하였다.

■ 3월 6일

방성칠이 12시에 군사 2천 명으로 조천을 공격하러 온다는 전령을 듣고 사람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이라고는 모두가 한자 남짓의 채찍뿐이었다. 조천, 신촌의 사람들을 모두 합치니 천 명 가까이 되었는데 조천진의 군기창 80자루를 나누어 주었더니 그들이 모두 땅에 던져버렸다. 오후 4시에 난민의 무리가 가까워지자 모두 뿔뿔이 달아나버렸다. 나는 이승오와 이태황과 함께 시흥리에 피신하였다.

■ 3월 7일

일본 배를 빌려 타고 피난할 계획이었으나 방성칠이 이미 단속을 하여 배를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 3월 9일

김도여를 통하여 일본어선 한 척을 구해 목포에 도달하여 군대를 요청하거나 일본 영사에게 말하여 상민을 보호할 병선을 파견하여 보내도록 하고, 아니면 일본 어민들에게 알려 협력하여 적을 토벌하고 어업에 받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김도여가 마을 사람에게 불잡히고 말았다.

■ 3월 10일

유배인들과 함께 피난하려 했으나 6, 70여 리를 빙빙 돌아다녀도 몸을 맡길 곳이 없자 위험을 무릅쓰고 성안으로 다시 모여들었다. 오직 이용호만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몰래 최영순, 김낙영 두 사람과 약속을 하며, 겉으로는 방성칠에게 이용당하는 척하였으나 속내막은 형편을 살펴 도모하려는 것이었고 또 몰래 여러 유배인들을 보호하였다.

■ 3월 14일

최영순이 방성칠에게 일본에 제주 삼군의 토지와 호구를 일본에 바치고 도주(島主)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유인하여 일본으로 가는 배편에서 방성칠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으나, 풍랑으로 여의치 못하게 되었다. 이용호, 김사찬, 정병조 등이 성안 백성을 설득하여 의병소를 설치하고 송두옥 등 7인이 성을 닫아걸고 방성칠이 성안으로 들어오는 것

을 막았다. 방성칠의 난이 처음부터 김낙영이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어떤 사람이 그를 밸로 차서 성 아래로 떨어뜨리니 군중이 함께 그를 죽였다.

■ 3월 15일

제주 창의군이 민병 천 명을 징발하여 방성칠의 뒤를 쫓아갔다. 방성칠은 달아나다가 민가에 들어가니 성안의 병사들이 집을 둘러싸고 불을 지르자 방성칠은 나오며 피하려다가 대중이 앞을 향해 달려들어 난자하니 모두 일곱 군데 창을 맞고 쓰러졌다고 한다. 그의 나이 46세였고 일당 7명도 죽었다.

- 이상 내용을 종합해 보면, 1898년 2월 22일 장두 방성칠과 광청리 주민 수백여 명이 화전세와 목장세, 호포, 환상의 지나친 징수를 시정 해 달라며 제주목 관아에 몰려와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목사 이병휘는 시정 약속을 하였고 난민들은 자진 해산하였다. 그러나 목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목사는 시정조치는 안 하고 오히려 등소(等訴)를 끊살 시키고자 했다. 그뿐 아니라 장정 육십 명을 시켜 관아에서 방성칠과 다른 주모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다.
- 사실을 알게 된 방성칠과 그 일행들은 광청리를 중심으로 법정리 일대에서 삼군에 통문을 돌려 집마다 한 명씩 참여하라고 호소한다. 수많은 사람이 봉기했다. 그들은 머리에 흰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손에 봉동이를 들고 제주 성 밖에 모였다. 그때 모인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렀다. 그때 제주에 유배와 있던 김낙영(金洛榮), 최형순(崔亨淳)이 민란군 지도부에 합류했다.
- 2월 28일 방성칠과 남학교들로 구성된 어남군 2백여 명이 앞장서, 도민들 수천 명이 뒤를 따른다. 성을 점거한 도민들은 관아를 부수고, 공문서와 인장을 빼앗는 한, 관덕정 뜰에 모여 탐관오리들의 비행을 성토하였다. 결국, 목사와 1896년 민란 진압의 장본인 대정 군수 채구석을 구타하여 내쫓고 향리들 몇 명도 맞아 죽고, 나머지는 도망하였다.
- 방성칠 일행은 모든 배를 물으로 끌어올려 묶어놓아 육지와의 연락을 막고, 도망간 향리들을 수색하는 한편, 유배와 있던 적객 중에서 김낙영과 최형순을 끌어들여 지도부를 강화하였다. 성난 민중들로부터 심한 몰매를 맞고서 중상을 입은 목사 이병휘는 밤 깊은 뒤 당시 화북포에 정박해 있던 배를 얻어 타고 섬을 빠져나갔다. 성을 점령한 봉기민들은 관아를 부수고 공문서를 불태운 다음, 목사의 비리를 낱낱이 밝혔다.
- 3월 2일 민란지도부는 “제주·대정·정의의 세 군수를 혁파하고 환상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방문을 성안에 붙였다. 또 각 마을에 전령을 보내 도내의 모든 배를 물으로 끌어올려 묶어놓아 육지와 연락을 두절시켰고, 호고(戶庫)를 열어 쌀을 풀고 무기고 창과 검을 꺼내어 봉기민을 무장시켰다.

- 이런 상황에서 성안의 양반들은 5일 조천으로 도망하여 그곳 양반들과 합세하여 토벌군을 구성하였지만, 방성칠 등의 선제공격을 받아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흘러쳤다. 이후 방성칠 등 지도부는 장기 전략을 모색하며 무너진 성과 무기를 보수하고 향후 전투를 준비했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조천에서는 김가가 나서 조천, 신촌지역 천여 명을 모았고, 이 소식을 들은 남학도들은 재빨리 조천으로 쳐들어갔는데, 그곳은 준비가 덜 된 상태라 다 도망가 버리고 결국 조천이 불타는 등 커다란 피해가 났다.
- 방성칠은 제주 성을 장악한 뒤 별국(別國)을 세우려고 시도하였다. 처음에는 강벽곡이 오등촌 고여송이란 인물을 주법(主法)으로 세우려 하였으나, 방성칠은 정감록(鄭鑑錄) 참언(讖言)에 따라 유배인 정병조를 주법으로 삼으려고 구상했다. 그러나 정병조가 도피하여 버림에 따라 결국 자신이 스스로 법사가 되어 독립 국가 건설을 시도하였다. 여기에는『정감록』과 함께 ‘방성 분야’라는 천문지리 설이 동원되었다. 제주도는 방 씨 임금이 태어날 방성의 땅이라는 게 핵심 내용으로 방성칠의 성을 별자리에 갖다 맞추었다.
- 방성칠은 이에 근거하여 자신이 주도하는 민군의 독립 국가 건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조선 조정은 외세에 정신없이 시달리는 상황이라 진압군 파견이 쉽지 않아 생각했다. 그리고 당시 제주도에 유배된 중앙 정객들을 포섭함으로써 부족한 정당성을 채울 수 있다 판단하였다. 그래서 방성칠은 유배인들로 하여금 육조를 구성해 하여 중앙 정부와 같은 체제를 수립하려 하였다.
-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았다. 정의 군수 지난 홍재진(洪在晉)과 대정 군수 지난 송두옥이 지방 토착세력들과 당시 유배 와있던 이용호, 정병조, 김사찬과 협의하여 창의군 일으켰다. 이에 호응한 사람들이 사오천 명에 이르렀다. 토착세력으로 구성된 반군이 전열 정비하여 3월 13일 방성칠이 제주 성 비운 3월 14일, 성안으로 진입하여 제주 성을 장악했다.
- 민군에 합류한 유배인 최형순과 김낙영은 방성칠과 민란지도부를 교묘하게 설득했다. 관군이 오면 승산이 없으니 일본에 찾아가 복속을 요청하자는 얘기였다. 그러면 최소한 제주도의 자치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다. 이에 넘어간 방성칠은 일본으로 가는 배를 구하기 위해 제주 성을 빠져나갔다. 방성칠은 당시 제주도에 머물며 고기 잡이하던 일본인들에게 도움을 청해 일본으로 들어가 민란을 일으킨 이유를 알리겠다고 했다. 그렇게 산지포에서 배를 띄웠지만 심한 풍랑 때문에 실패했다. 이때 도민들 사이에서 제주도가 일본에 복속된다는 소문이 나돌아 민군 지도부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다. 게다가 남학당과 일반 도민 사이가 안 좋아 성안에서 토착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 정의 현감을 지냈던 홍재진과 송두옥이 가족과 하인 동원하여 성문 모두 닫아걸었다. 이

를 안 방성칠이 배에서 내려 입성하려 했지만, 도민 호응이 절대 부족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한편 지도부로 참여했던 김낙영과 최형순이 성안으로 들어가 합세하자 방성칠 이끄는 남학당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 반면 사기가 오른 반군은 서쪽으로 약 20리를 쫓아가 외도리 파군봉(현 동귀리) 방성칠 민군과 접전을 벌였다. 수세에 몰린 남학당 군대는 결국 흩어졌다. 방성칠은 귀리(貴里, 현 귀일리)의 농가로 들어가 숨었다. 이를 최형순, 오순영, 강시형, 조성오 등이 힘을 합쳐 집에 불을 지른다. 그렇게 4월 4일 창의군은 민가에 숨어 있던 방성칠과 그 주모자들을 찾아 처형하고, 유배인으로 동참했던 김낙인도 처형되면서 난이 진압되었다. 이렇게 난이 일어난 지 약 한 달 만에 방성칠 난은 막을 내린다.
- 이 민란은 3년 후 발생한 1901년 제주 민란, 즉 ‘이재수(李在秀)의 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방성칠 난, 초기에는 농민들이 적극적이었으나,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해 민란지도 부와 농민과의 결속력이 급격히 약화 되었다. 특히 남학당은 농민들은 봉기 주체에서 소외시켰다고 한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불신은 곧바로 도민 신뢰를 잃게 되어 민란이 실패하게 되었다.
- 이 민란에 관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3097책 고종 35년(1898년) 5월 5일 기사에, 議政府參政尹容善謹奏, 卽接內部大臣朴定陽照會, 則察理使兼濟州牧使朴用元報告內, 本 牧亂魁房星七作鬧時, 倡義諸人請施褒賞矣 前縣監洪在晉, 前縣監洪在深兄弟之倡義閉門, 招民發討, 前縣監宋斗玉, 其子錫珍, 出身宋允玉父子兄弟, 閉門倡義, 出身金南胤之率民接戰, 推還印信, 極爲嘉尙, 紣宜褒賞, 而係干恩典, 不敢擅便, 伏候聖裁 前主事金熙斗之迎還牧使, 前僉使梁濟夏, 前主事金在鏞之守城, 前郎廳吳順泳, 前五衛將高在璿, 前司果姜時馨之或守城, 或發討, 索令該牧, 從優施賞, 前判官金膺海, 前主事金膺斌, 但日, 首先倡義, 而未著實事, 軍校趙成五有日, 銃鎗交加, 瘦厥房賊, 第念交加之中, 何以的知成五之殲厥, 姜辟穀之捉納, 是黃炳郁之家僮, 而以炳郁請賞, 未免爽實, 崔亨順·李容鎬俱是流配罪人, 雖日首先倡義, 不當遽論恩賞, 索置之, 請賞有關事體, 不可仍置, 察理使朴用元, 姑先譴責, 敢奏。奉旨, 依奏 洪在晉·宋斗玉·金南胤索加資

의정부 참정 윤용선(尹容善)이 삼가 아뢰기를,

“방금 내부대신 박정양(朴定陽)의 조회(照會)를 보니, ‘찰리사(察理使) 겸 제주 목사 박 용원(朴用元)의 보고 내에, “본목(本牧)에서 변란을 일으킨 우드머리 방성칠이 소란을 일으켰을 때, 창의(倡義)한 여러 사람에게 포상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현감 홍재진(洪在晉)과 전 현감 홍재심(洪在深) 형제는 창의하여 집안을 돌보지 않고 백성을 불러 모아 역적을 토벌하였으며, 전 현감 송두옥(宋斗玉)과 그 아들 송석진(宋錫

珍), 송윤옥(宋允玉)의 부자 형제는 집안을 돌보지 않고 창의하였으며, 출신 김남윤(金南胤)은 백성을 이끌고 싸워 인신(印信)을 찾아왔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모두 포상해야 하는데 은전(恩典)에 관계되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였습니다.

전 주사(主事) 김희두(金熙斗)는 목사를 맞이하여 돌아왔으며, 전 첨사(僉使) 양제하(梁濟夏)와 전 주사 김재용(金在鏞)은 성을 지켰으며, 전 낭청(郎廳) 오순영(吳順泳), 전 오위장(五衛將) 고재용(高在璿), 전 사과(司果) 강시형(姜時馨)은 성을 지키기도 하고 역적을 토벌하기도 하였으니, 모두 해목(該牧)으로 하여금 넉넉하게 시상하도록 하소서. 그러나 전 판관 김응해(金膺海)와 전 주사 김응빈(金膺斌)은 제일 먼저 창의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 드러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교(軍校) 조성오(趙成五)가 이르기를, 총과 창으로 접전하던 중에 괴수 방성칠을 죽였다고 하였으나, 접전하던 중에 참으로 조성오가 그놈을 죽였는지를 어찌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강벽곡(姜辟穀)을 붙잡아 들인 것은 황병욱(黃炳郁)의 가동(家僮)이 한 일인데, 황병욱에게 상을 내리도록 청하였으니 이는 진실을 잃은 처사입니다. 그리고 최형순(崔亨順)과 이용호(李容鎬)는 모두 유배된 죄인이므로 비록 앞장서서 창의하였더라도 대번에 은상(恩賞)을 논해서는 안 되는데, 아울러 상을 내리도록 청하였으니, 사체로 볼 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찰리사 박용원을 우선 견책하소서. 감히 아릅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아뢴 대로 하고, 홍재진, 송두옥, 김남윤에게는 모두 가자(加賚)하라." 하였다.

③ 이재수의 난⁵¹⁾

- '이재수의 난'은 구한말 봉세관의 조세 수탈과 프랑스 선교사를 앞세운 천주교회의 폐단에 맞선 민란이다. 신축민란(辛丑民亂), 제주 신축교난, 제주 교난(敎難)⁵²⁾이라고도 한다. 당시 '방성칠의 난'을 수습했던 제주 목사 박용원이 경질되고 탐관의 전형적 유형인 이상규가 새로 부임하였다. 또 왕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익의 심복인 강봉현이 봉세관으로 제주로 왔다.

51)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제주도 신축교난(濟州島辛丑敎難), 신축민란(辛丑民亂), 신축년 난리, 신축성교난(辛丑聖敎亂), 제주 민란(濟州民亂), 제주교란(濟州敎亂), 신축교안(辛丑敎案), 이재수의 난으로 불린다. 천주교 측에서는 천주교도가 처형됐다는 사실에 주목해 교난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당시 봉기한 민군이 외친 세폐(稅弊) 시정(是正) 관점에서 '이재수의 난'으로 칭한다.

52) 토착 신앙이 전통 종교이자 사상·정신의 토대였던 제주도 민중의, 횡포를 부리는 외래 종교인 천주교를 향한 반감과 제주도 경제권을 둘러싼 토호세력과 중앙에서 파견한 봉세관 간의 갈등이 봉기 원인이다. 사건의 희생자가 많았을 뿐 아니라 한 외래 종교의 횡포에 대한 민중의 반항으로 나타났으며, 또 외국 신부와 관련해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 되는 후유증을 치러야 했다.

- 1899년 겨울, 제주에 내려온 강봉현은 1895년 면제했던 세금을 징수했을 뿐 아니라 국, 공유지와 어장, 소금밭, 삼림, 특산물, 집 크기까지 조사하여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제주도민들은 나무, 띠(茅), 갈대, 잡초, 어망, 소, 말, 닭, 개에게도 세금을 매기자 ‘산천초목, 조수어별(鳥獸魚別)’이 모두 난리를 만나 삼읍의 돈이 마르고 소와 말, 밭 가격이, 떨어지니 어찌 난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며 하늘을 보며 원망했다고 한다.
- 이와 함께 제주도민들은 1899년 제주에 들어온 천주교가 교세 확장 과정에서 프랑스 신부의 치외법권 특권을 악용하는 교도의 교폐에 시달리고 있었다. 고종으로부터 ‘여아 대(如我待, 나와 같이 대하라)’라는 증명서를 지닌 프랑스 신부는 입교자에게 정치·경제적 이권을 부여하여 초기 10개월간 5명에 불과하던 교인을, 1901년 봄 900여 명으로 증가시킬 만큼 교세 키웠다.
- 이런 치외법권 권력을 등에 업은 일부 교인들은 천주교와 분쟁을 벌인 마을 유지를 교당으로 끌고 가 사사로이 형벌을 가했지만, 면책받았으며, 심지어 옥에 갇힌 입교자를 구하기 위해 옥문을 부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미 팔았던 토지와 가옥을 원가에 돌려받거나, 다시 팔기, 반감 가진 이에게 폭력 행사하기 등으로 제주도민들에 많은 반감을 샀다. 이와 더불어 ‘방성칠의 난’ 때 배신자 최선달이 프랑스 신부의 측근이 되어, 봉세관과 결탁하여 천주교인들을 마름으로 고용하여 많은 세금을 강제로 거두었다. 또 수백 년 묵은 신당의 수목을 함부로 베어버리며, 전통 신앙마저 억압하고 강제로 천주교에 입교시키기까지 했다.
- 당시 봉기한 민군은 가장 먼저 세폐와 교폐의 시정을 요구했다. 민란 발발의 간접적 원인은 1900년(광무 4년) 한성에서 제주로 파견된 봉세관 강봉현의 극심한 작폐와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세금이 과다하고 가혹한 징수에 있었다. 직접적 요인은 당시 프랑스에서 온 신부 마르셀 라크루(한국명 구마슬)를 비롯한 선교사들의 치외법권적 권리과 이에 편승한 천주교도들의 횡포에 있었다.
- 중앙에서 파견된 강봉현은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물렸다.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던 민포(民布)를 다시 징수했고, 가옥, 수목, 가축, 어장, 어망, 염분, 노위 등의 세금은 물론, 심지어 잡초에까지 세금 매겼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두는데 천주교인들을 동원했다. 그로 인하여 1890년 겨울, 정의 고을의 현유순과 오신락이 반기독교 격문을 내걸었다. 그러나 천주교도들은 그 두 사람을 말꼬리에 매달아 잡아갔고 그 와중에 오신락 노인이 죽었다. 이 죽음을 계기로 위기를 느낀 제주 유생들은 상무사를 조직하고, 3년 전 방성 칠의 난 때 활약했던 남학당 잔당들을 규합하였다.
- 오 노인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자 대정지역에서는 4월 7일, 자위 조직인 상무사를

구성하고 좌수 오대현을 장두로 하여 조직적인 대응을 모색했다. 이어 제주 목사에게 호소할 진정단(陳情團)과 도민 공론장인 민회소(民會所)를 설치하여 세폐 시정을 요구했다. 이런 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감지한 봉세관 강봉현은 5월 10일, 육지로 도주해 버려 공격의 화살은 자연히 봉세관의 마름 역할을 했던 천주교도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천주교 측은 협상을 제기하여 5월 13일, 한림에 집결한 민회소를 급습, 장두인 오대현(吳大鉉)을 사로잡고 다수의 도민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무력 충돌이라는 극한대립으로 치닫게 되었다.

- 이에 민회는 관노 출신인 이재수⁵³⁾를 서진, 방성칠의 난에 참여했던 화전민 강우백(姜愚伯)⁵⁴⁾을 동진의 장두로 삼아 새로운 진용을 짠 후, 5월 16일 황사평에 집결했다. 이들은 성안으로 진격하여 세폐와 교폐 혁파, 무술창의(戊戌倡義) 계승을 내걸고 제주 성을 포위한 후 작폐가 심한 교인들을 내놓으라며 천주교도들을 압박했다.
- 당시의 격문은 다음과 같다.

격(檄)!

오호라! 오늘날 탐라 백성이 업을 잊고 도로와 산골에 방황하여 생계의 도를 자유치 못 하니, 그 민폐의 근원은 무엇이뇨! 이는 곧 살생과 폭행과 재물 늑탈을 일삼는 교도 무리로 말미암은 것이니, 저들은 교도가 아니라 폭도요, 저들이 믿는 것은 교가 아니라 미신이로다. 모여라! 모여라! 영웅 열사여!

- 당시 민군이 호소한 세폐와 더불어 또 하나의 폐단이었던 교폐는 천주교도, 그들의 뒤에 있었던 프랑스인 신부들이 있었다. 외국인으로 치외법권의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당시 황제 고종이 몸소 지급한 “여아대”라는 패(牌)를 가진 프랑스 신부들을 제주 목사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이들 프랑스 신부들을 등에 업은 천주교도들은 제주 도내에서 마음대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허울뿐인 천주교도가 천주교를 내세워 염전에 나가 주인 허락도 없이 멋대로 소금 한 섬을 짚어지고 나오는가 하면, 성당에 형틀을 갖춰 놓고 천주교인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잡아다가 개인형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를 처벌해야 할 관리들도 천주교도를 자칭하며 범법을 저지르고 성당에 숨어버리면 그들을 잡을 수조차 없었다.

53) 이재수(李在守, 1877~1901)는 본관은 고부(古阜, 전북 정읍), 인성리 출신이다. 시준(時俊)과 송씨 사이 둘째 아들, 관노, 마부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싸움과 장난을 잘하였고, 칼과 활 등 무예도 뛰어났다. 집안이 어려워 대정군 관아의 노비로 있었고 오대현이 그의 총명함을 높이 사 특히 아꼈다고 전해진다. 갑오개혁으로 노비제도가 타파된 이후 관아 급사로 일했다.

54) 강우백은 하원리 출신으로 월평리 리강을 맡을 만큼 유력한 사람으로 1898년 방성칠의 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물, 화전민이라는 설이 있고 당시 화전민이 주를 이루었던 동진의 장두였다.

- 당시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김윤식의 『속음청사』에, 1901년(광무 5년) 3월 5일, 천주교 신도회장 박 토마스가 퇴임하려는 전임 목사 이상규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뺏겼다며, 현직 목사가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10여 명을 인솔해 그 앞에서 행패를 부렸고, 3월 18일, 라크루 신부가 구속되어있는 유배 죄인 중 이범수는 천주교 인이므로 풀려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청하며 제주 목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기어이 옥문을 부수고 이범수를 풀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뿐 아니라 제주도에 천주교도의 불법행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찰리사 황기연의 보고서에도 이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 심지어 살인, 부녀자 강간 및 강탈, 도둑질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사람을 죽여도 관가에서 체포하지 못한다. 교도들을 비방하거나 언쟁을 벌인 사람들을 “천주교를 모독했다.” 라며 성당에 끌어다가 매를 치거나 가두고, 관에 체포된 사람을 천주교도라고 하여 도중에 빼돌리거나 관가 감옥에 갇힌 사람을 강권으로 풀어주기도 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오래된 신당을 파괴하는 등 토속 신앙을 유린시켰다.
- 이 같은 천주교도들의 불법행위를 보면서도 프랑스 신부는 방관하였다. 이는 차츰 한국 자체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는 국면으로 발전하였다. 제주도는 천주교인들에 의한 무법천지 지역으로 전락해 통치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일반 도민들은 천주교인들의 전횡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들의 반천주교 의식은 더욱 높아져 갔다.
- 이러한 상황에서 탐관오리와 불량 교도들의 불법행위에 대항할 집단으로 대정군 유지들이 모여 상무사를 조직하였다. 상무사 대표는 당시 대정 군수 채구석이 맡고 위원으로 이성교, 송희수, 오대현, 강우백, 강백, 강철호 등이 맡았다. 설립 취지에 찬동한 대정 군내 향색 선비와 백성이 상무사에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봉세관의 토색(討索)과 남정 행위를 폭로하고 규탄하며, 교인들의 비행과 폭력에 대해 완력으로 맞서게 되었다. 이는 양측 마찰과 분쟁으로 이어졌다.
- 1901년(광무 5년), 대정군에서 천주교도 오달현, 오창우 등이 교인들을 이끌고 마을 유지였던 훈장 현유순의 집을 습격해 현유순과 그 아버지 현규석, 그리고 동지인 장의 오신락을 잡아다 교당에 가두고 고문하였다. 그 과정에서 오신락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천주교인들은 그가 감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했다고 하고, 사망자의 두 아들은 천주교도들에게 붙잡혀 매 맞아 죽었다 하며 증언이 서로 엇갈렸다.
- 대정 군수 채구석이 검시관으로 관노 이재수를 데리고 시신을 검시하고 범인을 잡고자 하였으나 교당에 은신하여 잡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도민들을 자극했고, 도민들은 나

름대로 통문을 돌리는 등 교회와 담판하려 하였다. 이에 교도들도 대항할 준비 갖추기 시작했다.

- 4월 29일, 다시 대정군 신평리 상무사 위원 송희수의 집이 천주교도 수십 명에게 습격 당했다. 천주교도들은 송희수 머리를 말꼬리에 불들어 매고 대정 읍내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신평리 동민들의 항의로 간신히 저지되어 송희수는 겨우 빠져나왔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상무사 위원 강우백, 강희봉, 마찬삼 그리고 향장 오대현 등 수십 명이 작당하여 대정 천주 교당을 습격하여 교당을 부수고 교인 몇 명을 폭행했다. 이 사건은 위텔(한국명 민덕효) 주교를 통해 한성 주재 프랑스 공사에 보고되었으며 신축교란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 5월 6일, 상무사원들은 천주교도에 대한 성토 민중대회를 열었다. 오대현과 강우백이 주도한 이 민중대회는 제주에서 민중의 지지와 힘을 얻어 교도들과 맞설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무력봉기의 직접 계기를 마련했다. 민중대회를 주도한 두 사람은 천주교도의 횡포, 봉세관과 결탁해 백성을 괴롭히는 만행을 폭로하고 규탄하며, 다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주성으로 가서 목사에게 호소하자고 제창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도민이 찬성하여 오대현이 장두로 뽑혔다⁵⁵⁾.
- 한편 천주교도들도 상무사의 민중대회에 맞서 산방산 뒤에 따로 모여 대정성으로 들어와 민중과 충돌, 부상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크게 벌지지는 않았다. 당시 온건적 성향이던 오대현은 애초부터 무력이 아닌 평화적 호소에 그치려고 했다.
- 이로부터 이를 뒤 다시 상무사와 천주교도 사이에 충돌사건이 생겨났다. 천주교도였던 대정군 관아 부이방 김옥돌이 향장 오대현의 기첩(妓妾)과 간음했다는 죄목으로 관에 고발되자 대정 군수 채구석은 김옥돌을 유부녀 간음죄로 태형 30대를 때린 뒤 가두고, 교인들의 항의를 무마하려 오대현도 태형 15대를 때리고 석방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천주교인 김진사가 무리 50여 명을 이끌고 군수 채구석에게 와서 천주교인을 때려 가둔 연유를 성토하며 멍대로 옥문을 열어 김옥돌을 풀어준 뒤 상무사 회민(會民)을 잡아갔다. 이에 맞서 상무사 회민들은 잡혀가던 회민을 길 위에서 구해내고, 김옥돌과 김진사 두 사람을 빙사지경에 이를 정도로 구타했다.
- 이때 오대현을 장두로 주성으로 향하는 수천 명의 진정단을 천주교 타도를 위해 난을 일으킨 것으로 착각한 제주 천주교회는 마르셀 라크루와 무세(제주명 문제만) 신부가 각각 화기로 무장한 교도 3백 명을 인솔하고 나섰는데, 이들은 명월진에서 충돌하였다. 이때 해산하지 않고 버티는 진정단에게 라크루 신부가 몇 발 위협 사격했다. 이로 진정

55) 이 민중대회가 있고 난 직후 강봉현은 마침 제주에 정박한 회륜선을 얻어 타고 한성으로 도주함.

단이 잠시 해산한 틈 타 천주교도들이 오대현 및 진정 단원 다섯 명 납치해 주목으로 넘겨버리고, 철수하는 진정단 쫓아 대정군으로 몰려와 군내 무기고를 탈취해 주민들을 위협했다. 이때 천주교도들의 무차별 사격으로 신도리 주민 김봉년 즉사했다.

- 장수가 없는 상태에서 대정군 관노 이재수가 나서서 강우백과 조사생, 오대현(오대현의 형)과 사후대책을 협의하고, ‘무력 없는 평화’에 의지하며 온건적이었던 오대현과 달리 새로운 장수가 된 이재수는 비무장 도민에게까지 총을 쏘는 비겁한 짓 서슴지 않는 천주교도들에 대해 무장봉기 결심하였다.
- 이재수는 각 리에 격문을 보내 장정을 모으고 동지를 소집하였다. 이에 이틀 만에 수천에 달하는 장정이 대정에서 모였다 각 리에서도 40여 명, 포수들이 총포를 들고 참가하였다. 5월 15일, 장수 이재수가 이끄는 민군은 각각 총, 검, 봉, 죽창 등 무기가 될 만한 장비를 가지고 식량을 넣은 전대를 차고 척사기(斥邪旗)를 앞세워 주성으로 향했다. 그들이 내세운 봉기 목표는 프랑스 신부와 교도들을 탄도하고 다시는 악질 봉세관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모든 민원대상을 무력으로 밟본색원함이다.
- 민군은 동, 서 두 개의 진으로 나뉘어 동진은 강우백이 맡고, 서진은 이재수 본인이 맡아 제주 섬을 동서로 돌아 주성으로 향했다. 민군은 진군 도중 교도들의 은거지 색출해 소탕하며 진격했다. 이때 천주교도들의 횡포와 세금 남징에 치를 떨던 마을주민들은 가는 곳마다 민군을 성원하였다.
- 5월 16일, 이재수가 이끄는 서진 민군은 제주 성 가까이 도달하여 황사평에 진을 쳤다. 동진의 강우백도 정의현을 거쳐 주성에 도달해 동서, 양 진이 제주 성을 포위했다. 양곡 반입과 교통과 육지로 오가는 모든 왕래를 일체 봉쇄했다. 제주 성안 천주교인들도 군기 고와 탄약고에서 무기와 탄약 등을 탈취해 제주성의 세 성문을 모두 닫은 채 성벽 위에 각종 포를 설치하고 민군에 맞섰다. 민군에서 동원된 포수들은 성안의 화기 공격에 응사해 사격전이 이어졌다.
- 5월 23일, 제주 군수 김창수가 민군과 교도 사이 중재를 시도하였다. 그는 구마술 신부와 교섭하여 감금되었던 오대현을 풀어주며 민군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이재수가 이끄는 민군은 군수의 정전제의를 거부했고, 풀려나온 오대현과 강우백이 각각 동, 서진의 대장이 되어 전력을 강화했다.
- 주성 안 주민들은 식량과 땔감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나날이 이어지는 공방전에 총탄이 민가에 날아드는 지경에 이르자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황사평과 오라리에 집결한 민군은 진용을 다시 짜서, 제주성 삼 문 바깥 1리 거리에서 성을 칠 듯 기세를 보이며 성을 향해 통문을 보내거나, 성을 향해 외치며 주민에게 경계 호소했다. 이에 제주

성안 민심 크게 동요했다.

- 5월 25일, 김남혁이 주도하여 관덕정 광장에 주민들이(대부분 부녀자) 모여, 당장 성문을 열어 민군을 성내로 들일 것을 요구했다. 라크루 신부는 사흘간 말미를 주면 성문을 열겠다며 주민들을 해산시켰다. 이는 프랑스 함대 지원을 염두에 둔 농간이었다. 프랑스 신부 마르셀 라크루는 적객으로 있던 장윤성을 몰래 목포로 보내 프랑스 공사관에 연락을 넣어 인천에 주둔하고 있던 본국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약속한 사흘까지 신부가 기대하던 프랑스 군함은 오지 않았다⁵⁶⁾.
- 성내 주민들은 다시 프랑스 신부에게 몰려가 제주 성의 개방을 요구했다. 흰 수건을 머리에 쓴 부녀자 1천 명이 성문 개방을 외치며 봉동이를 들고 성으로 올라가, 성을 지키던 교인들을 잡아다 묶고 총포를 모조리 내던진 뒤, 세 성문을 모두 열어 민군을 주성으로 들어오게 했다. 마르셀 라크루 등 프랑스 신부들은 정의 군수 김희주의 도움으로 동현에 몸을 숨겨 간신히 살아남았다.
- 이재수는 서문으로, 오대현 형제와 강우백 등 동, 서진의 대장은 남문과 동문을 통해 각각 입성했다. 입성할 때마다 공포 소리와 함성이 요란했다. 관덕정에 앉은 이재수는 사태 해결을 위한 지시를 하나하나 하달하고, 천주교도들의 죄상을 신랄하게 열거하여 불들려 있거나 숨어 있었던 천주교도들을 색출해 처형했다.
- 제주에 유배 중이던 천주교도 최형순도 불들려 처형당했다. 그는 과거 봉세관 강봉헌 밑에서 징세 실무를 맡았을 뿐 아니라 광양에서 민군을 향해 발포를 명했던 적이 있었다. 민군이 주성에 입성한 5월 28일, 29일 양일간 3백 명의 천주교도가 피살되었다. 그해 7월 작성된 『삼군평민교민물고성책(三郡平民敎民物故成冊)』을 보면, 물고(物故) 사망자는 총 317명으로 천주교도 309명, 평민 8명, 성별로 남자 305명, 여자 12명이다.
- 5월 31일 프랑스 군함 두 척이 제주 앞바다에 정박한 뒤 제주 성으로 들어왔다. 이때 프랑스 군함을 타고 한국 정부의 신임 제주 목사 이재호와 민군 진압을 위한 선발대로 중대장 홍순명이 지휘하는 강화 진위대 1백 명, 궁내부 고문관을 맡고 있던 미국인 샌드(W. Sand, 한국명 산도)와 번역 과장 고의경 등이 함께 들어왔다.
- 인천에서 일본 군함 제원호도 프랑스 군함을 따라 제주로 왔다. 제주 성에 프랑스 국기를 내건 프랑스 해군은 천주교도를 학살한 민군에 대한 복수로 천주교도를 제외한 나머지 제주도민은 모조리 죽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신임 제주 목사 이재호가 부당하다며 이를 막려 중지되었다.

56) 프랑스 군함은 5월 30일 제주 도착

- 프랑스 군함 왔다는 소식에 이재수는 일전 불사해 다시 결기할 것 호소하여 다시 민군이 몰려들었다. 가까스로 프랑스 해군과 한국 조정군 담판으로 프랑스 군함은 자국 신부와 교도 40명을 데리고 귀환했다. 하지만 강화 진위대 중대장 홍순명은 “민란이 아직 진압되지 않았다”라고 조정에 보고했다.
- 한국조정은 임명해 두었던 박용원을 해임하고 다시 안핵사로 특진관 황기연을 제주 찰리사, 제주 군수로 홍희를 임명하고 대정 군수는 강봉현 대신 허철로 교체하였다. 아울러 순검 13명에 강화 진위대 참령 윤철규가 1백 명을 이끌고 제주로 급파되었고, 이어 수원 진위대 2백 명이 제주로 왔다.
- 6월 10일, 제주에 도착한 찰리사 황기연은 도착 즉시, 교폐와 세폐 시정을 명한 황제의 고유(告諭)가 담긴 방문을 붙여 민중을 달래고자 했다. 이에 이재수는 자발적으로 민군 1만 명을 해산시킨 뒤 자수했다. 이어 강우백과 오대현 두 사람도 자수했다. 이들이 구속된 6월 11일, 제주 유배객 가운데 천주교도로 지목된 이용호와 이범주, 장윤선, 대정 군수 채구석과 전임 봉세관 강봉현 구속했다. 제주도민들은 다시 모여들어 장두를 풀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찰리사 황기연과 대대장 윤철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풀어 주겠다.” 약속한 채 세 장두를 한성으로 압송하였다.
- 6월 13일, 수원 진위대 2백 명이 제주에 도착했다. 프랑스 군함과 궁내부 고문관 샌드, 참리관 고의경도 한성으로 귀환했으며, 7월 10일, 김윤식 등 제주에 있던 유배인들에 대한 다른 지역으로 이배(移配) 조치가 처해 졌다.
- 7월 18일, 이재수 등 세 장두는 한성으로 압송되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열린 재판에 회부 되었다. 재판 결과 사형이 언도 되어 10월 9일, 한성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 졌다. 가담자 김남혁, 조사성, 고영수, 이원방 등 11인은 외역형에 처해 졌고, 대정 군수 채구석은 처음에는 사형이 구형되었다가 나중에 사면되었다. 강봉현은 한성 압송된 뒤 석방되어 고향 평북으로 낙향했으나, 무죄방면은 부당하다는 여론에 따라 다시 체포하여 의 법처리 하려 했지만, 다시 체포하지 못했다.
- 당시 25세의 장두 이재수는,

“한 번 교회에 들어가면 관에서도 다스릴 수 없고, 남의 재물을 뺏고 소송에 간여해도 누구도 어찌할 수 없고, 심지어 인명을 살상해도 감옥에 가두지 못한다. 3군의 민인들이 세폐를 견디지 못하여 일제히 모여 호소한 것이 어찌 교인들에게 관계되겠는가? 우리들이 죽인 것은 역적인 것이요? 양민이 아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 최후 진술하였다”

- 이러한 이재수의 난을 ‘봉세관의 조세 수탈을 시정 하기 위하여 일어난 조세 항쟁’⁵⁷⁾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당시 전제군주 체제 강화를 꾀하던 대한제국이 황실재정을 채우기 위하여 내장원에서 제주에 내려보낸 봉세관 강봉현이 공유지에 대해 무리한 징세를 하였다. 심지어 어장, 그물, 소나무, 목초지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겼다. 그는 지금까지 징세를 담당하던 지방관·향임 세력들을 배제하고 독점적 징세를 함으로써 토착세력과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혔다. 그 과정에서 일부 천주교인들이 봉세관 강봉현의 중간 징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잃어버린 화전마을

-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자 중산간 마을 사람들 상당수는 살던 곳을 찾아 돌아갔다. 그러나 마을로 돌아간 주민들이 다시 농토를 개간하고 새로 집을 복구하고 살기란 쉽지 않았다. 여전히 중산간 지역은 ‘공비 출몰지역’이라 하여 자주 소개(燒開)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제주 4·3’ 과정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아픈 흔적이 오롯이 남아있어, 많은 주민이 복귀하기를 꺼렸다. 그리고 중산간 마을에 살던 사람 중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해안지대로 소개되어 각지에 분산되어 정착한 주민들도 있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웠다.
- 이런저런 사연으로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적극적인 복구사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재민의 절반에 가까운 주민들이 원래 거주지로의 복귀를 꺼렸다. 오히려 정부의 복구사업으로 인해 육지에서 유입된 6·25 피난민들이 전쟁이 끝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산간 마을주민으로 자리 잡는 경우 많았다⁵⁸⁾.
- 결국 ‘제주 4·3’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난민정착 복구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원래 마을주민들이 복귀하지 않아 이제는 폐허가 되어 버린 마을들이 제주 도내 곳곳에 생겨났다. 바로 ‘잃어버린 마을’이다. 제주에서 ‘잃어버린 마을’이란 ‘제주 4·3’ 때 심한 피해 마을 가운데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아 마을이 이전처럼 복원되지 못해 황폐화하거나 단순 농경지로 바뀌면서 그 이상 마을공동체가 존재하지 않고 사라진 경우를 말한다⁵⁹⁾.

57) 이 민란의 성과는 6월 17일 세페를 협파하겠다는 약속인 ‘17개 협파 조항’과 7월 2일 교폐 방지를 위한 12 조항의 ‘교민 학의 약정’이라 할 수 있다.

58)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p. 517~518.

59) 제주4·3사건 제50주년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1998),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p. 9.

현재 대부분의 ‘잃어버린 마을’에는 지자체와 마을에서 건립한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있다. 간혹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없는 자연마을에는 자체적으로 ‘흔적비’ 같은 표석을 세워 사라져 가는 역사적 기억들을 각인시키고 있다⁶⁰⁾.

- 2021년 ‘제주 4.3 연구소’의 추가진상 조사 결과⁶¹⁾, 2019년 현재까지 제주 도내에서 총 134개의 잃어버린 자연마을이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읍이 34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애월면(29개), 조천면(15개), 남원면(12개), 안덕면(12개), 한림면(11개), 구좌면(8개), 중문면(7개) 순이다. 이밖에 대정면, 표선면에 각각 2개, 성산면, 서귀면에 각각 1개씩 잃어버린 자연마을이 확인되었다. 이 글에서는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아카이브(<http://43archives.or.kr>) 4·3 유적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2003), 『제주 4·3 추가 진상보고서』, 제주 4·3 연구소(2021), 『제주 4·3 유적』 등과 한라일보 연재물(2007년 4월 3일~2008년 12월 30일) ‘오승국⁶²⁾의 4·3 유적지를 찾아서’를 참고하여 잃어버린 134개 마을 중에서 40여 개의 중산간 화전 마을을 동선 별로 정리했다.

3-1. 가시리 새가름 마을

- 표선면 가시리 마을은 한라산 동남쪽으로 뻗은 지세가 원만한 사면을 이루며 표선 백사장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대지의 마을이다. 제동목장에서 가시리 마을로 이어지는 들판에는 ‘따라비오름’, ‘대록산’, ‘모지오름’, ‘장자오름’, ‘새끼오름’ 등이 펼쳐져 있어 드넓은 초원지대를 이루고 있다. ‘가시오름’에 둘러싸인 가시리 마을은 울창한 수목 속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이다.
- 가시리는 ‘가시오름(가세⁶³⁾오름)’ 북쪽, ‘설오름’ 남쪽, ‘갑선이오름’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중산간 마을이다. 마을 동쪽으로 ‘가마천(加麻川)’, 마을 서쪽으로 ‘안좌천(安坐川)’이 흐른다. 가시리는 700여 년 전 ‘안좌름’, ‘와계우영’ 일대에 변 씨가 들어오고, 600여 년 전 지금 가시리에 한씨, 450여 년 전 군위 오 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번성해졌다. 그 후 순흥 안씨, 신천 강씨 등이 들어왔다.
- ‘제주 4·3’ 당시 가시리는 동상동, 중동, 동하동의 본동과 ‘안좌동’, ‘폭낭모루’, ‘용머리왓’, ‘두리풀’, ‘생기동’, ‘뒷뱅듸’, ‘새가름’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이 중 ‘새가름’은

60) 예를 들면 천서동‘흔적비’나 원동의‘원자석’이다.

61) 제주4·3평화재단(2020), 『제주4·3 추가 진상보고서』, p. 124.

62) 시인, 전 4·3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 전 제주 4·3 평화재단 기업사업팀장, 전 제주 4·3 연구소 사무처장

63) 가세는 가위의 제주어

‘제주 4·3’ 이후 복구되지 못해 지금은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다.

- ‘새가름’은 초토화 당시 모두 불타버려 여태껏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5백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새가름’은 가시천 동쪽 일대에 형성됐던 마을이다. ‘제주 4·3’ 당시 50여 호에 2백여 명이 살았던 이곳은, 1948년 11월 15일 초토화된 이후 아직껏 복구되지 못한 채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 그 당시 가시리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스럽고 참혹한 과정을 고스란히 겪은 ‘새가름’ 주민들은 25명이 희생당하는 등 많은 인명을 잃었다. 각지를 떠돌던 가시리 주민들은 ‘제주 4·3’ 이후 본동(本洞)을 중심으로 재건 준비에 들어갔지만, 성 밖에 있던 ‘새가름’은 이후에도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지금은 대부분 과수원이나 농경지로 변했으며, 무성한 대나무 숲이 간간이 있어 옛 집터였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2002년 4월, 제주도에서 세운 잃어버린 마을 표석이 ‘새가름’을 지키고 있다. 비문에는,
- 이곳은 1948년 11월 15일 4.3사건으로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새가름 마을 터이다. 가시천 동쪽에 새로이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신설동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320여 년 전에 오 씨가 설총한 아래 20여 가호에 100여 명의 주민이 조, 메밀, 콩 등 잡곡을 가꾸고 우마를 키우면서 살아가던 평화로운 중산간 마을이었다.
- 그러나 4.3의 광풍은 이 마을에도 여지없이 불어 닥쳐 마을은 전소되어 잿더미가 되었고 주민들은 인근 마을 등 주변에 흩어져 연명하였다. 그 중 표선 국민학교에 수용되었던 이 주민들 가운데 17명이 속칭 버들못 근처에서 목숨을 잃는 등 4.3사건을 거치면서 25명이 희생되었다.
- 1949년 2월부터 가시리가 현재의 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재건되면서 2가호가 새가름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외로움에 못 이겨 또다시 떠나가 버려 끝내 예전의 마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억울하게 희생된 고혼들을 신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4.3사건과 같은 역사적 비극이 재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상생의 염원을 모아 이 표석을 세운다.
- 그리고 인근 수망리 장고동 혹은 장구동은 수망리 1037번지 일대인 민오름 북쪽에 위치하고 ‘제주 4.3’ 전에는 고 씨와 조 씨 등 예닐곱 가구가 화전촌을 이루고 있었고, 뚝지는 수망리 1033-2번지로 장고못 동네 바로 남쪽, 민오름 인근에, 영아동은 영아리오름 남쪽, 신비지동(새빗모르)은 수망리 산 202번지로 물영아리오름 북쪽 1.5km 지점에 있던 마을로 화전 일구며 살았으나, ‘제주 4.3’ 때 폐동 되었다.

3-2. 교래리 북받친밭(이덕구 산전)

- 예전 교래리에는 ‘상동’, ‘하동’, ‘길영동(吉永洞)’, ‘고영동(古永洞)’, ‘감발래(甘發來)’ 등 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알동네’는 ‘알드리 하동’이다. ‘돔베오름’ 서쪽에 ‘백해굴왓’이 있다.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길영동’이라 하였다. ‘백해굴왓’ 북쪽에 ‘고영이’라는 곳 이 있다. 이 마을 동쪽에 ‘감발래’가 있다.
- 약 700여 년 전 화전민들이 평평한 땅을 개간하여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지금 교 래에서 4~5km 떨어진 곳에 있는 ‘감나무골’과 ‘뱀 죽은 물’에 화전민이 살았다는 얘기 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먹모르’ 화전 등 서너 군데의 화전민이 합쳐서 본리에 거주했 다고 한다⁶⁴⁾.
- 1948년 11월 20일, 제주읍 봉개리가 초토화되자 주민들은 인근 야산의 ‘궤’나 동굴 등 지로 피신하게 되었다. 낮에는 들에서 밤에는 불타버린 집을 의지해서 움막을 짓고 살았 다. 그러나 1949년 2월 4일, 동부 8리 대토벌을 계기로 많은 주민이 희생당하고 봉개 리에 군부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 주민들은 은신하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다 ‘거친오름’ 뒤편과 ‘대나오름’ 서남쪽의 ‘머흘 뿔’, ‘못밧’, ‘새머흘’ 등지 숲속에 임시 움막을 짓고 생활했다. 하지만 토벌이 강화될수 록 피난 간 주민들은 더욱더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안모루’, ‘북받친 밧’, ‘밤남도왓’까지 가 은신 생활했다.
- ‘북받친밭’은 난리를 피해 숨어들어온 주민들이 집단거주했다. 대부분의 피난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 무장대 사령부인 이덕구 부대가 잠시 주둔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곳 일대를 ‘이덕구 산전’이라 부른다.
- 조천읍 교래리 ‘북받친밭’은 제주시에서 제1 횡단 도로를 따라 서귀포로 가다가 교래 입 구에서 교래 쪽으로 1.1km를 내려가면 ‘검은오름’으로 향하는 시멘트 길이 있다. 그 시 멘트 길을 따라가서 1.8km 지점에 건천이 있다. 그 건천을 ‘밤남도왓내’라고 한다. 건 천 동쪽 편으로 농업용 차량이 다니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 700여m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나무에 표시가 있는데, 100m 정도 오른쪽으로 가면 ‘밤남도왓내’의 상류가 있다. 상류는 두 개의 내 지류가 만나는 지점이다. 남쪽 내는 ‘밧삿모루내’, 북쪽은 ‘안 삿모루내’이다. 두 개의 내는 Y자 형태를 그리며 만난다. Y자의 가운데 부분이 ‘북받친

64) 1899년 『제주삼읍공토조사성책』에는 교래 50인, 교래경 100인으로부터 화전세를 징수한 기록이 있다. 다른 마 을에 비해 가장 많다.

밭(이덕구 산전)'이다.

- 이 ‘북받친밭’을 중심으로 ‘밤남도왓내’ 하류 쪽으로 1948년 말부터 토벌대 학살을 피해 피난 온 마을주민이 많았다. 그들은 봉개리, 용강리, 회천리, 도련리 등의 사람들이었다. 마을별로 집단을 이뤄 살았다. ‘밤남도왓내’ 하류 쪽으로는 도련리 사람들이, ‘안삿모루’와 ‘밧삿모루’가 만나는 지점 주변이 봉개리 사람들이 피난처였다. ‘북받친 밭’에는 용강마을 사람이 많았다. 1948년 말부터 1949년 3월경까지 겨울을 수백여 명의 피난민들이 ‘북받친밭’을 중심으로 지냈다. 이 겨울 동안 당시 무장대 주력부대였던 이덕구 부대가 이곳에 잠시 머무르기도 했다.

3-3. 금악리 웃동네, 일동이못, 오소록이, 동카름, 새카름

- 금악리는 한림에서 6km 정도 떨어져 있어 한림읍 마을 중 최고 높은 곳에 있다. 그러나 마을 언덕에 올라서면 서쪽 멀리 비양도가 보이고, 마을 앞에 금악리를 지켜주는 ‘금악오름’이 우뚝 솟아있다. 넓은 들판에 배부른 암소가 누워있는 형상의 금악오름은 마을 지명 유래가 되었다. 금악을 중심으로 ‘정풀오름’, ‘누운오름’, ‘세미소오름’, ‘당오름’이 마을을 감싸 안아 제주 중산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 마을이다.
- ‘제주 4·3’ 전만 해도 집마다 소나 말 5마리가량 키우고 있었다. 대지가 넓어 소들이 많았다. 오름 분화구에 물이 있어 금악에 숫소, 당오름에 암소 풀어 놓았다. 이 마을 목장을 ‘금당 목장’이라 부르며 조합원이 백 명이라는 뜻에서 ‘백인목장’으로도 불렸다. ‘제주 4·3’ 당시 금악마을은 본동(병대동), ‘동동’, ‘중동’, ‘웃동네’, ‘일동이못’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으며 한림읍 중산간 마을 중 가장 컸다. 그런 금악리는 ‘제주 4·3’을 겪으면서 주민 100여 명 희생되었다. 많던 소와 말을 다 잃는 등 재산피해도 엄청났다. 특히 ‘웃동네’와 ‘일동이못’ 마을은 ‘제주 4·3’ 이후 복구를 못해 지금은 사라져 버렸다.
- ‘제주 4·3’ 발발 직후부터 금악마을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948년 4월 8일, 경찰이 마을 일부 가옥을 방화한 후 1948년 5월 9일, 대부분 주민이 5·10 단선을 피해 ‘정풀오름’ 앞 속칭 ‘개역빌레 궤’나 그 인근으로 피신했다. 이후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금악리 주민들은 1949년 5월부터 ‘고림동’(명월 상동) 마을을 둘러 성을 쌓고 임시 집을 지어 집단생활을 시작했다. 이때 ‘고림동’ 성안에 명월 상동 주민뿐 아니라 상명과 금악 주민도 같이 기거했다. 상명리 주민들은 ‘고림동 성’에서 2년 정도 살다 마을 복구하여 되돌아갔다. 그러나 계엄 당국에서 금악리 주민들의 마을 재건을 좀처럼 허가해 주지 않았다. 한국전쟁 후에도 금악리를 계속 위험지구로 여겼기 때문이다.

- 이런 이유로 마을 복구 과정에서 38가호가 살던 ‘웃동네’(금악 1281-1번지 일대)와 12 가호의 ‘일동이못’(금악 3048-3, 3049-4번지 일대)은 복구되지 못하고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주민들이 본동을 재건하고 거기에 그냥 눌러앉아 버려, 폐촌 되었다. ‘웃동네’는 금악리를 떠받치는 ‘금오름’ 서남쪽에 옛 마을 터가 자리한다. 당시 집터였던 곳에 대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있으며 군데군데 올레 흔적도 남아있다.
- 2003년 4월 3일, 금악리 1281-1번지 남쪽 팽나무 아래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세워졌다. 비문에는,

여기는 4.3사건으로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웃동네 마을 터이다. 4백여 년 전에 설총된 유서 깊은 이 마을은 금악리 상동이라는 뜻에서 웃동네로 불리었고, 이씨, 김씨, 송씨, 박씨, 등 38호에 141명의 주민이 밭농사와 우마를 키우며 정겹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4.3사건은 이 마을에도 비극으로 다가왔으니 1948년 11월 21일경 소개령에 의해 주민들은 정든 마을을 떠나 한림리 협재리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마을은 전소되어 폐촌 되었고, 이 와중에 무고한 주민 8명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그 후 주민들은 재건 명령에 따라 명월리 고림동에 잠시 거주하다가 다시 금악리 본 마을로 이주하여 정착한 이후 웃동네는 그대로 방치되어 버렸다.

지금은 당시 마을 대소사를 의논하고 아이들이 술래잡기하며 뛰놀던 팽나무와 그리고 사려져 버린 집터 주변의 대나무만이 옛날에도 여기에 사람들이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다시는 이 땅에 4.3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표석을 세운다.

- ‘일동이못’ 마을 옛터에 대나무들이 군데군데 무더기로 자라고 있어 옛 마을 터임을 알게 해줄 뿐 다른 흔적은 없다. ‘오소록이’는 금악리 1445번지 일대이다. ‘오소록이’는 ‘구석지면서 아득한 곳에 있다 해서 ‘오소록 허다’에서 마을 이름을 따왔다는 설과 ‘검은 매(오, 烏+소록이)가 사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다. ‘오소록’은 웃동네와 함께 상동이다. 상동은 ‘제주 4.3’ 시기 38가호 정도 살고 있었다. 마을 남쪽에 ‘알곳’이라는 곳자왈이 있다. 이 곳자왈은 한경면 저지리와 안덕면 서광리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어 당시 주민들은 위협을 느껴 이 ‘알곳’으로 피신했다고 한다.
- 1948년 6월 7일 ‘오소록이’ 주민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웃동네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에서 길을 따라 남서쪽으로 약 400m 가면 금악리 ‘4.3길’, ‘오소록이’ 표지판이 있다. 마을 터는 그곳부터 남쪽 일대에 펼쳐져 있다.

- ‘동카름’은 금악리 1091번지, 2343-1번지 일대로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금악리 ‘동카름’은 본동에서 북동쪽으로 약 9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제주 4.3’ 이전 50여 가호의 주민들이 살았던 큰 마을이다. ‘동카름’은 본동보다 지대가 높았고 마을에 나무가 많았다. 본동에서 보면 경사면을 따라 나무들이 걸쳐 보이는 모양이 마치‘늘’과 같다고 했다. 마을은 북쪽으로 ‘각생이내’까지 형성되어 있다. ‘동카름’ 북쪽에는 ‘새카름’이 있다. ‘동카름’은 1948년 11월 20일, 금악리가 소개된 후 복구되지 못하고 지금은 잃어버린 마을로 되어버렸다.
- ‘새카름’은 금악리 2377-1번지 일대로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금악리 본동에서 북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주로 ‘동카름’에 살던 양씨들이 모여들어 집성촌을 이루었던 마을이다. ‘제주 4.3’ 전에는 약 30가호 주민들이 살았다. 이곳 주민들은 ‘새카름풀’과 ‘각생이냇풀’을 식수원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1948년 금악리가 소개된 이후 지금껏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마을 북서쪽 약 500m 떨어진 곳에 ‘처녀당(아미당)’이 있다. 마을 흔적은 주로 ‘새카름내(각생이내)’ 남쪽에 남아있다. 주변 밭 담 여기저기 지금도 대나무가 많다.

3-4. 다랑쉬 마을

- 구좌읍 세화리 중산간 지역에 있는 ‘다랑쉬’ 마을은 대략 100여 년 전 설촌 되었다. ‘다랑쉬’라는 지명 유래에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중 마을 북사면을 차지하고 앉아 하느바람 막아주는 ‘다랑쉬오름(月郎峰)’, 분화구가 마치 달처럼 둥글게 보인다 하여 ‘다랑쉬’라 붙여졌다는 설이 가장 친숙하다.
- ‘다랑쉬오름’을 등지고 따뜻한 남쪽 햇볕을 받아 안으며 자리하고 있던 이 마을은 해안의 세화리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해발 170m 중산간에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사라졌고, 사람도 집도 없이 흉량함만 감도는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마을 중심에 팽나무가 있고 폐촌임을 알려주는 대나무 숲이 10여 군데 있다. 말라버린 ‘쇠물먹이못’(‘준못’이라 불렀다), 식수로 쓰기 위해 빗물을 받아 두던 식수 터 4곳, 그리고 곳곳에 깨어진 사기그릇 파편들이 여기가 한때 사람이 살았던 마을이었음을 말해준다.
- 예전에는 농사지을 땅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방치되다시피 했던 이 중산간 지역으로 옮겨 와 집도 짓고 피, 산듸, 메밀, 조 등을 농사지어 먹고 살았다. 그러다 토지주인(목장 밭 주인)이 나타나면 그제 서야 사정 이야기를 하고 약간의 지대를 지불 했다⁶⁵⁾. 남의 소나 말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테우리’⁶⁶⁾들이 있었다.

- ‘제주 4·3’ 당시 이 마을주민들은 산듸, 피, 메밀, 조 등을 일구거나 우마를 키우며 살고 있었다. 60년이 흐른 지금도 팽나무 중심으로 연못 터가 여러 군데 남아있고, 옛집 터 주변에 대나무들이 무성히 자라나 있어 당시 집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어렵잖이 짐작하게 해준다.
- ‘다랑쉬’ 마을주민들은 일찍 세화리로 소개했기 때문에 ‘제주 4·3’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오히려 해안마을인 종달리, 하도리 주민들이 당시 빈 들판이었던 이곳에 피신했다가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⁶⁷⁾.
- 1949년 봄부터 중산간 마을로의 복귀가 조금씩 허용되었다. 하지만 ‘다랑쉬’ 마을은 1950년대 중반 되어서야 하나둘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대부분 원주민은 이미 피난지에 정착하여 살고 있어서 정작 ‘다랑쉬’ 마을로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에 이 마을에 살지 않았던 다른 마을주민들이 ‘다랑쉬’ 마을로 들어와 살면서 한때 가구 수가 10호가량 있었다. 1962년 ‘제주 4·3’ 이재민 2차 복귀 사업이 추진되어, ‘다랑쉬’ 마을에 양철지붕 집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들어 하나둘씩 떠나,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3-5. 동광리 무등이왓, 삼밭구석, 조수궤

- 마을을 포근히 감싸 안은 ‘거린오름’과 ‘원물오름’, 그리고 멀리 ‘도너리오름’과 ‘병오름’ 등으로 둘러싸인 동광리는 안덕면의 대표적인 중산간 마을이다.
- 안덕면 중산간 한복판에 자리 잡은 동광리는 1670년대 임씨가 정착한 이래 ‘만수동’, ‘마전동(麻田洞)’, ‘무동동(舞童洞)’, ‘자단동(自丹洞)’, ‘광청리(廣淸里)’ 등으로 불렸으며 1839년 동광리로 개칭되었다. ‘제주 4·3’ 당시 ‘무등이왓’(무동이왓, 130여 호), ‘조수궤’(10여 호), ‘사장벗’(3호), ‘간장리’(10여 호), ‘삼밭구석’(마전동, 45호) 등 5개 자연 마을, 약 200여 호 규모 전형적 중산간 마을이다.
- ‘동광리 무등이왓’은 조선 시대부터 끊임없는 관의 경제적 수탈에 항거해 일어난 농민봉기인 1862년 임술 민란(강제검의 난)과 1898년 제주 민란(방성칠의 난)의 진원지이다.

65) 이 같은 경우는 영평이나 월평, 용강 등지 어르신들의 경험담과 일치한다. 농작물을 약간을 지대로 지불 한다고 해도 5년 미만이며 그 이후는 지력이 다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66) 주로 들에서 많은 수의 마소를 방목하여 기르는 사람

67) ‘다랑쉬굴’이 대표적이다. 제주시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2608-6번지 일대에 소재한 다랑쉬굴은 ‘제주 4·3’ 당시인 1948년 12월 18일, 하도리, 종달리 주민 11명이 피신해 살다가 굴이 벌각되어 집단희생 당한 곳이다.

또 일제 강점기 일제 탄압에 반대하여 일어났던 1918년 보천교(普天敎)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

- 일제 강점기 공출, 징용, 징병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수탈과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동광리 사람들은 8·15해방을 맞으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자율적인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일제가 남기고 간 가난과 정치적 공백을 신속하게 메꾸어나갔다. 그러나 해방되자마자 바로 ‘공출이 없는 세상’이 되리라 기대했던 그들은 해방이 되어도 일제 식민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공출⁶⁸⁾이 계속되자 당연히 저항했다.
- 동광리에서 ‘제주 4·3’이 발발하기 이전인 1947년 8월 8일, 보리수매 독려차 마을을 방문했던 관리들이 마을 청년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소위 ‘성출 반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미 군정 곡물 수집 정책에 반대하던 마을 청년 3명이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동광리는 미 군정이 주목하는 마을이 되어 수시로 경찰이 들락거렸고, 동광마을 청년들은 경찰을 피해 일본, 육지, 도내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 ‘무등이왓’과 ‘삼밭구석’은 ‘제주 4·3’ 당시 동광리의 가장 큰 중심마을이었다. 그러나 ‘제주 4·3’ 이후 마을 재건과정에서 가장 아랫마을인 ‘간장리’에 마을이 재건하다 보니 이 두 마을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 ‘무등이왓’은 300여 년 전에 설촌 된 마을로 주민들은 화전을 일구며 살았다. ‘무등이왓’이라는 지명은 지형이 ‘춤을 추는 어린이(무동, 舞童)를 닮았다’라는 데서 유래했다. ‘무등이왓(무동이왓)’은 대나무가 많아 탕건⁶⁹⁾, 망건⁷⁰⁾, 양태⁷¹⁾, 차롱⁷²⁾ 등 제주의 대표적 수공예품의 주산지였다.
- 1939년 무등이왓에 2년제인 동광간이학교가 건립되었다. 이 학교는 감산리에 있었던 안덕 공립보통학교를 제외하고는 이 지역 유일의 교육기관이었다. 그래서 창천, 서광, 덕수, 상천 등지는 물론 중문면 색달리 학생들도 다녔다고 한다.
- 동광리는 ‘제주 4·3’ 당시 140여 가호(무등이왓 80여 호, 삼밭구석 40여 호, 조수궤 10여 호, 간장리 10여 호)에 살던 주민 2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당했다. 1948년 11월 중순 이후 중산간 마을에 대한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이 이뤄지면서 마을은 거의 전소됐고,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다. ‘제주 4·3’ 이후 동광리는 동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간장리에 마을이 복구되어 ‘무등이왓’과 ‘삼밭구석’, ‘조수궤’ 등의 마을은 사라져 버렸다.

68) 당시 제주에서는 ‘공출’(供出)을 ‘성출’(誠出)이라고 했음.

69) 조선 시대 벼슬아치들이 갓 아래 받쳐 쓰던 관

70) 상투 틀고 머리를 단정히 매던 머리띠처럼 생긴 그물망

71) 갓의 밑 둘레 밖으로 둥글넓적하게 된 부분

72) 음식을 보관하는 대바구니

- ‘무등이왓’은 마을 규모가 컼던 만큼 피해가 큰 마을이다. 여전히 대나무 숲과 팽나무들이 남아있어 예전 마을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활 쓴 동산’ 초입에는 ‘제주 4·3’으로 완전히 멸문된 양씨 가족묘지가 있다. 현재 이 마을 입구에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세운 ‘4·3사건 위령비’가 있다. 마을 터에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남아있다. 비문에,

여기는 4.3사건의 와중인 1948년 11월 21일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무등이왓 터이다. 약 300년 전에 관의 침탈을 피해 숨어든 사람들이 화전을 일궈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된 이래 4.3 당시 동광리에는 무등이왓 이외에도 삼밭구석, 사장밭, 조수궤, 간장리의 5개 자연마을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주로 조, 메밀, 콩 등을 재배했고, 교육열이 높아 일제 강점기 광신사숙과 2년제 동광간이학교가 세워졌다.

4.3사건은 이 마을을 피해가지 않았다. 폐촌 후 주민들은 도너리오름 앞쪽의 큰 넓궤에 숨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눈 덮인 벌판을 헤매다 유명을 달리했다. 한 할머니는 그 후 맷돌을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다. “난 돼지 집에 숨언 살았수다. 살려 줍서, 살려 줍서 하는 얘기 놔두고 나만 혼자 살아 낫수다.”

4.3으로 무등이왓(130호)에서 약 100명, 삼밭구석(46호)에서 약 50명, 조수궤(6호)에서 6명이 희생됐다. 인가가 자리했을 대숲을 지난 아이들이 뒤쳐 나올 듯한 올렛길을 걸어보라. 시신 없는 헛묘도 찾아보고 유일하게 복구된 간장리 마을을 지난 큰넓궤로 발길을 돌려보라. 평화를 기원하는 외침이 들려올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4.3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표석을 세운다.

- 상동에 있는 ‘조수궤’는 동광리 23번지 일대로 동광리 ‘원물오름’에서 동쪽으로 약 1.5km, ‘무악(개오름)’에서 서북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제주 4·3’ 시기 ‘조수궤’에는 10여 호 주민이 살고 있었다. 토벌대는 1948년 11월 15일 간장리 초토화를 시작으로 11월 21일, ‘무등이왓’, ‘삼밭구석’, ‘조수궤’의 모든 가옥이 불에 탔다. 현재 ‘조수궤’와 연결된 도로는 없다. 마을 옛터는 사람 손 미치지 않아 멀리서 보면 대나무 숲처럼 보인다.
- ‘삼밭구석’은 동광리 1425번지 일대로 삼을 재배하던 마을이라서 ‘삼밭구석’이라 이름 붙여졌다. ‘제주 4·3’ 시기 46가호 주민이 살고 있었다. 1948년 11월 21일, ‘삼밭구석’이 토벌대에 의해 초토화되자 주민들은 은신처를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다 12월경 ‘큰넓궤’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이곳 생활도 잠시, 토벌대에 발각되자 주민들은 다시 영실 부근 ‘볼레오름’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그마저 토벌대에 의해 발각되었다. 그 후 이곳 주민들은 간장리에 성을 쌓고 정착하게 되면서 ‘삼밭구석’은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마

을 터는 동광 육거리에서 서쪽 약 900m 떨어진 곳으로 이곳 큰길가 입구에 2005년 4월 3일,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세워졌다. 비문에는,

여기는 4.3사건 때 마을이 전소되어 없어져 버린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삼밭구석 마을 터이다. 300년 전 설촌된 이후 50여 호에 150여 명의 주민이 밭농사와 목축을 생업으로 평화롭게 살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다.

마을 이름은 삼을 재배하던 마을이라 하여 마전동(麻田洞)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4.3의 광풍은 이 마을이라고 비켜 가지 않았으나 1948년 11월 종순 토벌대에 의해 마을이 방화된 후 주민들은 마을 부근 속칭 큰넓궤라는 굴에 숨었다가 다시 영실 부근 불레오름 지경까지 피신하였다. 이 와중에 50여 명의 주민이 마을 안 또는 서귀포 정방폭포 등지에서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주민들이 간장리(동광리)에 성을 쌓고 살기 시작한 이후 삼밭구석은 재건이 되지 않았다. 지금은 개간된 밭들 사이로 드문드문 서 있는 빈 집터의 대나무만이 지나간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 4.3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마을로 재건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비를 세운다.

3-6. 봉성리 자리왓, 화전동 솔도

- 봉성리는 1600년(선조 33년)경 설촌 되었다고 추측된다. 구전에 의하면 최초 마을 이름을 ‘어음비도내산리’로 부르다가 ‘도내산리’로 개명되었다고 여겨진다. 봉성리(鳳城里) 옛 이름은 ‘도노미’이다. 조선 고종 이후 어도리(於道里)로 부르다가 1950년 봉성리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제주 4·3’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 어도 2구는 ‘자리왓’(35가호), ‘열류왓’(15가호), ‘멀팟’(15가호), ‘고들리왓’(15가호), ‘지름기’(15가호), ‘상시머름’(10가호), ‘솔도’ 등 7개 자연마을이 있었다.
- ‘자리왓’을 비롯한 어도 2구 주민들은 소개령이 내려지자 어도 1구로 내려와 살다가 현재 ‘신명동’에 재건 마을을 형성한 후, 1구와 2구가 합병하면서 ‘봉성리’로 마을 이름을 개칭하게 된다. 당시 마을개명추진위원회에서는 마을 앞에 있는 ‘어도봉’(도내봉)이 봉황새 형상하고 있어 ‘봉성리’로 마을 이름을 개칭하였다고 한다.
- ‘자리왓’은 봉성리 1417-1번지 일대로 어도 2구의 중심마을이었다. ‘자리왓’은 1948년 5월 10일, 단독선거 반대를 위해 전 주민이 ‘새별오름’ 앞에 있는 ‘자굴왓 굴’로 피신했다가, 다음날 마을로 돌아오며 ‘제주 4·3’의 수령으로 들어가게 된다. 토벌대 작전이 시작되면서 ‘자리왓’에 1948년 11월 23~25일 3일간 소개 명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곧이

어 벌어진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마을이 폐허로 변해버렸다. 그 후 주민들이 마을에 와보니 잿더미가 된 ‘자리왓’은 벌겋게 달구어진 붉은 땅이 되었다.

- 일제 강점기 초 ‘자리왓’ 마을 입구에 자리 잡았던 신명 서당이 세워졌다. 구학문을 가르쳤으나 1940년대부터 학년제를 도입하여 신학문을 교육했다. ‘제주 4·3’ 당시 4학년 까지 재학 중이었으며, 어도 2구 학생은 물론 1구와 어음리 학생들까지 배우러 올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다.
- ‘신명동’은 봉성리 서남쪽에 있는 ‘제주 4·3’ 이후 재건 마을로 ‘자리왓’을 비롯한 어도 2구 주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어도 2구 주민들은 소개 후 1구와 귀덕 등지에 흩어져 살았다. 1구에 소개했던 2구 주민들은 약 2년 후 고향 마을 되돌아가기 어려워지자, 회의 열어 1구 정착을 결정했다. 이들은 어도리 3147번지 일대 땅을 외상으로 사들여 각자 터를 잡아 움막을 짓고 살았다. 이런 움직임에 그동안 남의 집에 세 들어 살거나 귀덕 등지에 흩어졌던 주민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신명동’이라는 큰 동네가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 1962년, 마을 재건정책에 따라 10여 호 정도가 건축자재를 지원받아 ‘자리왓’에 정착했으나 몇 년 후 다시 내려오고 말았다.
- 어도 2구 주민들이 고향 마을을 복구하지 않은 이유는 ‘신명동’에 살면서도 농사짓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마을 중심에 있는 애월읍 농협 봉성지점에서 남쪽(한라산 방향) 신명동 쪽 대로로 들어서서 700m 정도 가면 마을 끝 지점에 첫 갈림길이 나온다. 남서쪽 방향 시멘트 도로를 따라 2km 정도 올라가면 오른쪽 소로길에 큰 팽나무가 있는 곳이 당시 마을 중심지였던 ‘왕돌 거리’이다. 2002년 4월 3일 이곳에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을 세웠다. 비문에는,

이곳은 4.3의 와중에서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북제주군 애월읍 어도 2구 자리왓 마을 터이다. 250여 년 전 남평 문씨 일가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기 시작한 이래 30여 가호에 150여 주민들이 밭농사를 지으며 살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었다. 마을 가운데 신명 서당이 있어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뛰어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다. 주위의 작은 규모의 자연마을인 지름기, 열류왓, 상수모를, 말밭, 고도리왓 등의 촌장들이 자리왓 팽나무 아래 모여서 대소사를 의논하며 정겹게 살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4.3의 광풍은 이 마을들을 여지없이 세차게 뒤흔들어 놓았으니 1948년 11월 중순경 소개령이 내려지고 주민들이 아랫마을로 이주한 후 마을은 전소되어 잿더미가 되었고, 이 와중에 5명이 희생되었다. 주민들은 봉성리 입구 신명동에 터를 잡아 살기 시작한 이후 자리왓 등으로 전혀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곳을 지나는 길손들이여,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라. 저 바람에 스翕 대는 대숲이 있던 집터와 밭 담 사이로 자그맣게

남아있는 올레, 그리고 마을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온 저 팽나무를. 서려운 옛이야기가 들리지 않는가.

다시는 이 땅에 4.3과 같은 서려운 역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표석을 세운다.

- 이외에도 봉성리 1345번지 일대인 ‘지름기’, 봉성리 511번지 일대인 ‘몰팟(마전동, 馬田洞)’, 봉성리 626번지 일대인 ‘고도리왓(고두리왓)’, 봉성리 1733번지 일대인 ‘열류 왓’, 봉성리 3825번지 일대, ‘상수모를’ 등이 1948년 11월 25일 소개된 이후 ‘잃어버린 마을’로 변해버렸다.

□ 화전동 솔도

- ‘어도리’는 1600년(조선 선조 33년) 설촌 되었다고 한다. 구전에 의하면 최초 마을 이름은 ‘어음비도내산리’로 부르다가 ‘도내산리’로 개명하였다. 1895년(조선 고종 33년) ‘도내산리’를 ‘어도리’로 개명하여 58년간 불러오다가 1953년 ‘봉성리’로 개명하였다. ‘봉성리’는 최초에 1구, 2구로 분리되어 있었다. 1구는 ‘동개동’, ‘서성동’, ‘중화동’, ‘구몰동’, ‘화전동’ 등 5개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다. ‘솔도동’과 ‘공초동’이 합하여 ‘화전동’이라 하였다.
- 화전동 ‘솔도’는 봉성리 산 23-10번지, 45번지 일대이다. 1948년 11월 13일, 토벌대 군인들이 소개령 고지도 없이 ‘원동(院洞)’을 시작으로 갑자기 마을을 기습했다. 화전마을 주민들은 당일 아침 7시, 아침 준비하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이 마을 불태우는 바람에 주변 밀림지대로 숨어들었다.
-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 보니 남은 거 하나 없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 이날 토벌대는 ‘원동’을 시작으로 해서 ‘북케초남밧’, ‘화전동’, ‘광평’으로 이어지는 산간마을에서 초토화 작전을 자행했다. 이날 작전은 보통 중산간 마을 초토화 작전이 계엄령이 시작되는 11월 17일 이후 벌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빠른 편이다.
- 이날 ‘원동’은 마을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화전동’은 인명피해가 없었다. 초토화 작전 후 여성들과 일부 몇 가호 주민을 제외한 대부분 사람은 마을 근처 밀림지대인 ‘한대비케’에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중 50여 명은 다음 해 2~3월경 군경·민 합동 대토벌 작전 때 ‘폭낭오름’ 굴에서 발각되어 주정 공장 등지로 끌려갔다. 다른 사람들도 토벌대 피해 다니다가 잡혀 죽거나 행방 불명되었다.

- 당시 호수는 40여 호(하화전 20호, 상화전 20호) 정도였으며 ‘공초왓’에도 있었다. 현재 ‘상화전’은 골프장이 들어서 있으며 ‘하화전’은 건물이 들어서 있다. 아직도 군데군데 마을 흔적이 남아있다.

3-7. 소길리 원동마을, 윤남비

- ‘원동마을’은 조선 시대 제주목과 대정현을 잇는 ‘웃한길’ 중간지점으로 ‘제주 4·3’ 당시 나그네가 쉬어 가는 주막이 있던 마을이다.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을 경계로 동쪽은 소길리, 서쪽은 상가리에 해당하지만, 전체 16가구 중 상가리 지경에는 약 5호 정도밖에 살지 않아 보통 ‘소길리’로 여겨졌다. 주민들은 주막을 운영하던 1가구 외에 주로 메밀, 산듸, 조, 콩 등을 경작하거나 마소를 키우며 생활하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다.
- 애월면 소길리 원동마을은 무차별 강경 진압 작전이 막 개시되던 1948년 11월 13일 이후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원동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항상 토벌대의 주목을 받았다. 1948년 11월 13일, 토벌대는 원동 주민들과 원동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무차별 체포했다. 이날 토벌대는 주민 60여 명을 마을 중심인 속칭 ‘주막 번데기’에 모아 놓고 총을 쏘아 학살한 후, 시신 위에 이불과 옷가지 등을 얹혀 휘발유로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 현재 원동마을 옛터는 대나무와 삼나무 등 갖가지 잡목이 무성하다. 대부분 집터는 그 후 자라난 대나무 숲속에 덮여 있다. 게다가 평화로가 확장되면서 당시 학살 터, 집터가 도로에 편입되어 버려 마을 흔적이 사라졌다. 원동마을 옛터는 제주경마장 서쪽 약 2km 지점에 있다. 원동마을 들머리에는 고향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원지(院址)’라는 표석이 있다. 그 비문에는,

“원동마을은 태종 16년에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3읍이 정립될 때 원(院)이란 마을이 있었던 곳으로 당시 출장하는 관리들에게 숙식의 편리를 주기 위하여 숙식소를 두게 하였고, 이에 따라 5, 6채의 인가가 형성되어 농경과 목축업에 종사하던 지역민들이 이곳을 지날 때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갈증을 풀었다.”

- ‘윤남비’라는 곳은 소길리 953번지 일대로 ‘제주 4·3’ 이전 목축업이 융성했던 자연마을이다. 1948년 중순, 소개 당시 단지 3~4가호 주민만이 살고 있었다. 마을 중심에 큰 ‘윤남비 못’이 있어 주변에서 방목하던 마소에 물 먹이려 ‘테우리’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제주 4·3’ 이후 ‘윤남비’ 마을은 복구되지 못하고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 한편 ‘윤남비’ 마을 ‘알녁동산’에는 1951년 봄 토벌대 주둔을 위해 경찰 주둔소를 쌓기도 했다. 지금도 마을 터에 서면 당시 북적이던 ‘테우리’들과 마소를 연상케 하는 큰 못(윤남비 못)과 팽나무, 그 주변에 식수로 쓰던 작은 못(윤남비 물)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도 못 주변에는 대나무가 듬성듬성 자라고 있으며 옛 집터들이 남아있다.

3-8. 영남마을

- 영남리 마을 설촌은 1800년대 중반으로 보인다. 이 일대의 북쪽 ‘어점이오름’ 앞에 있는 ‘왕하리’와 ‘판관마을’, 영남리 동 동네 근처에 있었던 ‘틀낭밭’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설촌 되었다. 마을이 융성했던 일제 강점기 중반 50여 가호가 살던 마을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많은 주민이 경제 활동 기회 많은 해안마을로 옮겨가 해방 이후 20여 호 정도만 남아있게 되었다.
- 1898년 ‘방성칠 난’과 1901년 ‘이재수 난’에 영남리 주민들이 참여한 기록이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일어난 법정사 항일운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기록이 있다. 당시 법정기록에 이들 주소가 영남리로 표기된 점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 초기 마을조사 과정에서 하나의 독립된 리(里)로 승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영남마을 사람들은 화전이 중요한 생활 수단이었다. 초기 화전을 일구어 다량이 밭을 만들고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였다. 주요작물은 고구마, 메밀, 콩, 산듸 등이다. 또 영남리 주민들은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다. 마을 중심에 있는 김원희의 집에 서당을 세우고 아이들 교육에 애썼다.
- 1948년 11월 18일쯤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에 따른 소개령이 내려지자 대부분 주민은 ‘이 사태가 금방 끝나겠지’라며 단순하게 생각하여 해안마을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 대신 마을 위쪽 ‘어점이악 왕하리’와, ‘내명궤’, ‘땅궤’ 등에 숨어 지내다가 토벌대에 잡혀 학살되었다. 11월 20일, 영남리 마을은 토벌대에 의해 완전히 불에 타버렸다. 주민들은 조상들이 살았던 ‘왕하리’ 냇가에 움막을 지어 피신 생활을 하던 중 1949년 1월, 2 연대 1중대, 서귀포와 중문 경찰, 민보단 등의 합동 대토벌 때 거의 희생되었다.
- ‘제주 4·3’을 거치면서 영남마을은 주민 70%가 희생되었으며, 마을은 완전히 폐촌 되었다. 현재 마을 옛터에는 계단식 화전이 남아있으며, 올레길과 대나무가 무성한 집터, 밭 담, 4곳의 우물터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 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즐겼던 ‘왕돌 빌레’와 다섯 군데 ‘통시’ 자리가 남아있어 마을 옛터임을 알 수 있다.

- ‘제주 4·3’ 당시 많은 사람이 마을을 떠나버려 1948년 8월경 16호, 인구 92명 정도 만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마저 중산간 마을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영남동’은 곧바로 풍비박산 났다. 1948년 음력 11월 18일 온 마을이 불탔다. ‘제주 4·3’ 거치면서 ‘영남동’은 완전히 폐촌 되었다. 이뿐 아니라 사람들도 대부분 대 끊긴 집안이 많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어린 아기나 아동들이어서 고아로 자랐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강정동이나 용흥, 도순, 법환 등지로 흘어져 살았다. 2001년 영남동 마을 터(영남동 274번지)에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 새워졌다. 비문에는,

여기는 4.3 와중인 1948년 11월 20일경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서귀포시 영남동 영남마을 터이다. 이 마을에는 19세기 중반 무렵 생활이 어려웠던 제주도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기 시작한 이래 호수가 많을 때는 50여 호가 넘기도 했다. 주민들은 감자, 메밀, 콩, 산드(밭벼)를 주식으로 삼았고 목축을 하였으며 마을에 서당이 있어 학동들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재수의 항쟁 등 여러 항쟁에 많은 주민이 참여했고 1918년 법정사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한 주민 6명이 일제에 구속되기도 했다. 그중 옥사한 김두삼(당시 25세)은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어 마을의 명예를 높여주고 있다.

4.3사건은 이 마을을 피해가지 않았다. 16가호의 주민 90여 명 중 피신하지 못한 50여 명이 희생되는 불운을 맞았다. 주위로 눈을 돌려 화전 같이 흔적이 뚜렷한 층계 밭을 보라. 옛 우물터를 찾아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며 영남마을 주민들의 아팠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 이곳에 밝은 햇살이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며 이 표석을 세운다.

3-9. 와흘리 궤뜨르와 물터진골

- 와흘리는 제주시 조천읍의 중산간 마을이다. 번영로와 남조로가 교차하는 경찰검문소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5백 미터 내려가면 ‘궤뜨르’ 마을 보인다. 거기서 서쪽 5백 미터 쯤 ‘물터진골’ 마을 있다. 궤가 많아 ‘궤뜨르’, 물 터져 ‘물터진골’이라 하다 ‘고평동(古坪洞)’과 ‘수기동(水基洞)’이라는 한자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행정구역상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속한다. ‘제주 4·3’ 당시 두 마을은 조천면 와흘 2구 이루는 당당한 법정리였다.
- ‘제주 4·3’ 초기 와흘 2구는 중산간 마을이었다. 1948년 4월 3일, 마을 주변 ‘바늘오름’과 ‘새미오름’에 봉화가 오르는 걸 주민들은 보았다고 한다. 5월 10일, 제헌 의원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사표를 내고 잠적해버렸다. ‘궤뜨르’와 ‘물터진골’ 주민들은 밭에서 일하거나 ‘바늘오름’과 ‘새미오름’ 근처에 잠시 피신했다.

- 당시 와흘 2구는 약 40여 호에 2백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본 마을인 와흘 1구는 이를 전 마을 방화에도 불구하고 큰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와흘 2구는 이날 50여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당시 ‘궤뜨르’에는 23가호가 살고 있었지만 그 날 희생자가 없는 집이 거의 없다. ‘제주 4·3’ 동안 18가구 가족이 전멸했다. 3가구는 가족 중 일부가 죽었다. 두 가구를 제외하곤 모두 피해당했다.
- 그 후 ‘궤뜨르’와 ‘물터진골’의 와흘 2구 주민들은 대흘국민학교에 성을 쌓아 살았다. 일부는 1957년 마을 재건과 함께 옮라갔지만 대부분 다시 내려가 신촌, 대흘, 조천, 제주시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고평동’과 ‘수기동’에는 지금도 ‘횃드르 당’, ‘버들못’, ‘실꽃궤’, ‘마을궤’, 올레와 밭 담, ‘상뒷동산’, ‘새통우물터’ 등이 남아있다. 현재 ‘궤뜨르’에는 살아남은 마을주민 혼자 동네를 지키고 있다. ‘물터진골’ 중심에 우석 목장이 들어서 있다. 그 터에 2001년 4월 3일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을 세웠다. 비문에는,

여기는 4.3의 와중인 1948년 11월 13일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의 한 자연마을 물터진골(水基洞)터이다. 그 이름이 “바농오름에 모인 물이 이곳 주민들의 식수였던 새통에 모였다 아래로 흘러간다”하여 붙여진 이 마을은 약 300년 전 김명천이 남원읍 의귀리에서 이주하여 우마를 방목하고 화전을 일궈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됐다. 물터진골은 해방 후에도 12가호 50여 명 주민들이 공동체적 유습을 유지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던 제주도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었다.

그러나 4.3은 이 마을을 피해가지 않았다. 인근 횃드르(古坪洞)와 와흘리가 불에 탔던 그 날, 물터진골 주민들은 집을 잃은 설움에 겹쳐 주민 대다수인 40여 명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날 인근 신촌에서 피난 왔던 여성 9명도 희생되었다. 마을 재건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픈 기억이 항상 머릿속에서 굽들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위로 눈을 돌려 삶의 흔적이 뚜렷이 묻어나는 대나무 숲을 보라. 옛 올레를 걸어 들어가 주민들이 마셨을 새통터를 찾아보고 이들의 아팠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 다시는 이 땅이 4.3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는 영원한 평화의 섬이기를 바라며 이 표석을 세운다.

3-10. 월평리 웃동네

- 월평동의 옛 이름은 ‘다라콧’이다. ‘다라’는 고구려어로 높은 곳에 있는 숲 또는 덤불이 란 뜻이다. 1702년 『탐라순력도』에는 ‘별라화(別羅花)’로, 1709년 『탐라지도』에는 ‘별라화리(別羅花里)’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다라콧’의 한자 표기이다. 1904년 『삼군호구

가간총책』에는 ‘월평(月坪)’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래 제주군 중면 지역으로 ‘월평’이라고 했다.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월평리’라고 하여 제주면에 편입되었다. 1955년 제주시에 편입되어 월평동이 되었고, 1962년 아라동 지역이 되었다.

- 월평동의 설촌은 400여 년 전이다. 월평동에 처음 살기 시작한 사람은 영국원종공신, 훈련원 판관 강한종(姜翰宗)의 아버지 강인홍(姜仁弘)이다. 강한종⁷³⁾이 태어난 해가 1605년이어서 400년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월평리 ‘웃동네’는 제주시 월평동 880번지 일대이다. 이곳 ‘웃동네’는 ‘제주 4·3’ 당시 10여 가호, 주민 50여 명이 살고 있었다. 월평리는 1948년 11월 11일, 마을 일부가 토벌대의 방화로 전부 소실되었다. 며칠 후 나머지 가옥들도 모두 불태워져 초토화되었다. 이때 ‘웃동네’도 불태워졌는데, 그 후 이곳에 주민이 아무도 돌아가지 않아 잊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지금은 모두 밭이나 과수원으로 개간되었으나 옛 집터와 올레가 무성하게 자란 대나무에 뒤덮인 채 두렷이 남아있다.

3-11. 와산리 종낭밭

- 와산리는 ‘눈뫼’라는 아름다운 지명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와산리에 있는 ‘당오름’의 형상에서 유래한다. ‘당오름’은 신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름 형상이 누워있는 모습이라 ‘누운산’에서 와산(瓦山)이란 지명이 생겼다. 와산리는 본동을 비롯하여 ‘종낭밭’, ‘제비보리’, ‘웃동네’, ‘섯가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1백30여 가호가 살았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다. 약 3백여 년 전 설촌된 이 마을은 목축업이 성행했고 넓은 농토로 인해 비교적 잘사는 부촌이었다.
- ‘종낭밭’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431-1번지 일대로 조천읍 와산리 본동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당오름’ 정상 뒤편에 자리 잡고 있다. ‘제주 4·3’ 당시 12가호 60명 내외의 주민들이 농사와 축산에 종사하면서 살던 자연마을이다. 아래 동네인 ‘제비보리’와 함께 한씨 집성촌이며, 한치홍, 한치명, 한달천, 양상길, 강시봉 등 조씨, 양씨, 김씨가 모여 살았다.
- 1948년 11월 18일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벌어지면서 와산리는 군인 토벌 대에 의해 방화가 되어 폐허로 변함으로써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일부 주민들은 함덕, 조천 등지 해안마을로 소개되어 생활하다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희생되

73) 1906년(광무10)『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에 강한종에 관한 기록을 보면, “姜翰宗…晉州人司果仁祖朝丙戌湖西賊伏誅參寧國原從二等功臣領原從錄券特賜不兆”라 하였다

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왕모루곶’, ‘동산전’, ‘새미오름’등지에 피신했다가 토벌대에 발각되어 총살되었다.

- ‘제주 4·3’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1949년, 대흘국민학교에 성을 쌓아 대흘, 와흘, 교래리 주민과 함께 임시 집에 집단생활하다가, 1952년, 와산 본동 돌아와 마을 재건했다. 그러나 본동을 제외한 ‘종낭밭’, ‘제비보리’, ‘웃동네’ 등 자연마을은 그 후 사람 살지 않아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다.
- 특히 ‘종낭밭’은 1948년 11월 18일, 군인 토벌대에 의해 소각된 이후 복구되지 않아, 설촌 1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다. 와산 본동에서 ‘선인동’가는 길 5백 미터 지점에서 우측 시멘트 포장길로 ‘당오름’ 정상으로 1.2km 올라가면 밀양 박씨 가족묘지가 보인다. 바로 그 뒤편 삼나무와 대나무로 우거진 곳에 ‘종낭밭’ 옛터가 있다.
- ‘종낭밭’의 옛 집터들은 현재 대나무와 덤불 숲에 남아있으며 마을 길과 올레 등이 비교적 뚜렷이 남아있다. ‘종낭밭’은 ‘제주 4·3’ 이후 지금까지 다른 마을에 비해 복구되지 않았다. ‘종낭밭’ 옛터에는 집 세 채의 형상이 지붕이 걷어진 채 그대로 남아있다. 마당으로 들어가는 올레와 외양간, 통시, 그리고 깨어진 옹기와 민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잃어버린 마을’의 쓸쓸함을 달래고 있다. 이외에도 초토화 이전 주민들이 직접 조성하여 이용했던 농천수 우물 두 곳과 우마용 물통 한곳이 그대로 남아있다. ‘잃어버린 마을’ 중 집 울타리 담이 남아있는 곳은 ‘종낭밭’이 유일하다.
- 종남 마을 1km 남쪽에 ‘제주 4·3’ 당시 8호 정도 있었던 ‘제비동(제비보리)’이 ‘잃어버린 마을’로 남아있다. 이곳 옛 집터는 대나무 숲에 덮여 있다. 2012년 10월, 세워진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 비문에는,

조천읍 와산리는 ‘눈뫼’라는 아름다운 옛 이름을 간직한 곳으로 ‘종낭밭’은 와산리 본동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당오름 뒤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제주 4·3 당시에 10호 50여 명 주민이 농사와 축산을 하며 살아가던 조그만 자연마을이었다.

1948년 11월 20일 토벌대들이 마을을 방화함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해안마을로 소개되어 생활하다가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희생되기도 하였으며 왕모루곶, 동산전, 새미오름 등지에 피신했다가 토벌대에 발각되어 총살당하기도 하였다.

이 비극의 와중에 살아남은 주민들은 1949년 대흘국민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다가 1952년 본동으로 돌아와 마을을 재건하였으나 ‘종낭밭’은 복구가 되지 않아 1백 년 역사를 지닌 종남 마을은 사라지게 되었다.

덤불과 대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올레와 우물 그리고 깨진 옹기 등이 비극적인 마을의 역사를 묵묵히 전하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 4.3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표석을 세운다.

3-12. 오등리 죽성 마을(큰가름, 새가름, 새장밭, 선돌목)

- 오등동은 최소 400여 년 전에 설촌 되었다고 한다. 오등동 일대는 농토가 비교적 비옥하고 논밭도 있었다. ‘오등성’ 마을 주변인 ‘무친골’과 ‘물머리’ 주변 ‘총이밭’ 일대에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다. ‘총이밭’, ‘병문천’ 주변에 아직도 연자방아 흔적이 남아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오등동에는 제주에 목마장이 설치되기 이전인 1200년대 초에도, 사람들이 거주하며 화전 방식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며 살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 오등리 ‘죽성(竹城)’은 ‘큰가름’, ‘새가름’, ‘새장밭’, ‘큰담밭’, ‘선돌목’ 5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죽성’은 가호와 인구 면에서 오등리 중심마을이었으나 지금 ‘죽성’ 전체가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오등리는 ‘제주 4·3’ 이전만 해도 76가호의 ‘죽성’과 58가호의 ‘오봉동’, 36가호의 ‘병다동’ 등 170여 가호가 농사와 목축에 종사하며 살던 중산간 마을이다. 당시 제주읍에서 최고 높은 곳에 있어서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며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다.
- 1948년 5월 8일, 무장대가 마을을 습격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대동 청년단의 가족 등을 학살한 사건은 ‘제주 4·3’의 회오리에 휩싸이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죽성’을 포함한 오등리는 초토화 작전이 벌어지기 훨씬 전인 5월경 이미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마을로 변해버렸다. 특히 6월 초순 11연대에 배속된 9연대 1대대가 ‘죽성 설새미’에 주둔하게 되자 주민들은 마을 근처에 오기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 ‘모슬포 대대’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괄시받던 ‘죽성 부대’는 이곳 ‘설새미’에 주둔하게 되면서 사실상 격리 되었다. ‘죽성 부대’는 모슬포 9연대 소속이었으나 일부 장병들이 입산한 이후 미 군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죽성 주둔 부대는 기존 9연대의 제주병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토벌 작전과 각종 보급 등에서 차별을 받으며 괄시받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 후 1948년 11월 7일, 군인들은 오등리 전체 가옥에 불 지르기 시작하였다. 젊은 사람들은 마을 인근 냇가나 궤에 숨었으며 더러 산속 깊은 곳으로 피신했다.

- 오등리의 ‘제주 4·3’ 희생자는 110여 명에 이른다. ‘죽성’마을을 이루었던 ‘큰동네’(15여 호), ‘새가름’(10여 호), ‘새장밭’(5여 호), ‘큰담밭’(6여 호), ‘민밭’(5여 호), ‘선들목’(8여 호) 마을은 아라동의 많은 자연마을 중 유일하게 재건되지 못해 여태껏 ‘잃어버린 마을’로 남아있다. 1951년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랫마을을 ‘오드싱’을 중심으로 성을 쌓아 마을을 재건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죽성’의 여러 자연마을은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끝내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 군인들이 천막을 쳐 숙영했던 곳은 현재 삼나무 숲으로 뒤덮여 있다. 군인들의 음용수(飲用水)로 이용했던 ‘설샘’은 아직도 남아있다. ‘제주 4·3’ 이전만 해도 융성했던 ‘죽성’ 마을은 거의 밭으로 변해 있지만, 올레와 대나무 등이 남아있어 큰 마을 옛터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여기에 ‘잃어버린 마을’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았다. 죽성 덕흥사를 중심으로 맞은편은 ‘큰가름’, 뒤편으로는 ‘새장밭’, ‘새가름’, ‘큰담밭’, ‘선돌목’ 마을 옛터가 대나무 숲에 묻혀있다. 2014년 6월 30일, 덕흥사 앞 길가에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세워졌다. 비문에는,

오등리 죽성마을은 4.3 당시 76여 가구 400명 내외의 주민들이 농축산업에 종사하며 살아가던 마을로 큰동네(15가구), 새가름(10가구), 새장밭(5가구), 큰담밭(6가구), 민밭(5가구), 선들목(5가구) 등 여섯 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오등리의 가장 큰 마을로 고지대에 위치한 중산마을이란 이유로 초토화의 광풍을 피할 수 없었다.

1948년 11월 7일 군인들이 죽성을 포함한 오등리 마을 전체를 초토화시킴에 따라 주민들은 산에서의 피신이나 소개 생활 중 희생당하기도 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1951년 아랫마을 오드싱을 중심으로 성을 쌓아 어려운 재건 생활을 했다. 하지만 죽성은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끝내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다. 현재 덕흥사 주변인 죽성 마을 옛터에는 올레와 대나무, 물통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잃어버린 마을의 쓸쓸함을 달래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 4.3사건과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표석을 세운다.

- ‘민밭’은 ‘죽성’에서 남동쪽으로 500m 정도 올라간 해발 300m 지점에 있던 마을이다. 1914년, 세부측량 당시 이곳이 오등동의 시초 기점이라 하여 오등동 1번지로 시작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민밭’ 또는 ‘화전마을’이라 했다. 설촌 연대는 약 100여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죽성’에 살던 고 씨가 축산을 목적으로 옮겨간 계기가 설촌의 시초이다. 그 후 인근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한두 가구씩 이전하여 10여 세대가 되어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제주 4·3’으로 소개되었다. 이후 재건되지 못하고 지금은 잡초에 묻혀 있는 집터만 덩그렇게 남아있다.

3-13. 회천동 드르생이, 새가름, 산물낭우영

- ‘야생동’이라 불리웠던 ‘드르생이’는 제주시 회천동 2694번지 일대이다. 서회천의 자연 마을로 ‘웃드르생이’(6가호)와 ‘알드르생이’(10가호)로 나누어졌다. 이 마을은 1948년 11월 27일 군경 토벌대에 초토화되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화북, 삼양, 신촌 등지 해안마을에서 소개 생활을 하다가 일부는 1949년 봄 재건과 더불어 봉개리로 올라갔다.
- 1953년 들어 회천리 재건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1차 재건된 동, 서 회천에 정착한 주민들이 많아 ‘드르생이’라는 지역은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다. 현재 옛 마을 터는 대부분 과수원으로 개간되었다. 물통이 세 군데나 있었지만, 이제는 메워지고 없다. 다만 올레 터와 대나무 숲이 일부 남아있어 이곳에 마을 있었음을 어렴풋이 알려주고 있다.
- ‘새가름’은 제주시 회천동 2255번지 일대이다. 서회천의 한 자연마을로 10여 가호의 주민들이 거주했었다. 이 마을은 11월 27일 군경 토벌대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그 후 이웃 마을인 ‘드르생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동회천과 서회천 중간에 있는 ‘새가름’에는 당시 삶의 흔적 안 남아있다. 현재 옛 마을 터는 모두 감귤과수원으로 변해 있다.
- ‘산물낭우영’은 제주시 회천동 2424-2번지 일대로 ‘제주 4.3’ 당시 7가호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이곳은 1948년 11월 27일, 토벌대에 의해 마을이 초토화된 후 여태껏 재건되지 않아 ‘드르생이’, ‘새가름’과 함께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예전 주민들이 살았던 곳에는 지금도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있으며 민가로 이어지던 올레와 마을 안길도 잘 보전되어 있다.

3-14. 선흘리 백화동(백해동), 새동네(장상동), 큰굴왓(큰동네), 봉냉이동산

- 마을에서는 ‘백해동’이라 불리는 ‘백화동’은 선흘리 403번지 일대로 선흘 2구에 속하며 선인동 남동쪽 위, ‘우진제비’ 동쪽에 있다. 김씨, 안씨, 문씨 등 약 15가호 주민 80여 명이 보리, 조, 산듸 같은 밭농사와 축산을 주업으로 살고 있었다. 마을 중심에 300여 평 규모 ‘골연못’이 있어 주민들 식수와 우마용으로 사용했다.
- ‘백화동’은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 본동과 함께 초토화되었다. 이 마을을 소개한다는 말은 그 전부터 나돌았지만, 우마와 가을걷이 곡식을 두고 떠날 수 없어 대다수 주민은 마을 인근 야산에 몸 숨겨 생활했다. 군 토벌대 초토화 작전으로 삶의 터전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하는 광경 지켜본 주민들은 ‘윗마오름’ 인근 ‘벤벵듸굴’ 가서 선인동 주민들

과 함께 숨었다. 그러나 이 굴은 며칠 지나지 않아 토벌대 발각되고 그곳에서 많은 주민이 학살됐다.

- 그 후 선흘리 본동과 ‘선인동’은 복구되었지만 ‘선인동’과 멀리 떨어진 ‘백화동’은 끝내 재건되지 못해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현재 ‘백화동’에는 당시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골연못’이 남아있으며 그 주변에는 아직도 대나무 숲이 무성하다.
- ‘장상동(새동네)’은 선흘리 203번지 일대로 ‘장상동(壯上洞)’, ‘장생동(長生洞)’이라 불리었던 화전마을이다. ‘제주 4.3’ 이전 10여 가호 주민 50여 명이 조와 산듸를 재배하고 우마 키우며 살았다. 마을 인근 ‘반못’이 있어 주민들의 식수와 가축 급수를 공급했다.
- 이곳은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 ‘도틀굴’(반못굴)과 ‘목시물굴’ 등지에 숨어들었다. 그러나 곧 그 굴들이 발각되면서 많은 주민이 학살되었다. 1949년 들어 선흘리는 복구되었지만, 본동과 멀리 떨어진 이곳 ‘새동네’ 지역은 복구하지 못하여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옛 마을 터 대부분이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다. 올레 군데군데 대나무 숲이 남아있어 이곳이 예전에 마을이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 ‘큰굴왓(큰동네)’은 선흘리 890번지 일대로 ‘선흘곶’ 서쪽을 끼고 ‘반못’ 서북쪽에 형성되었던 마을이다. 약 20여 가호 주민 100여 명이 조, 산듸 같은 밭농사를 짓고 우마를 키우며 살았다. 이곳은 설촌 연대가 650~700여 년 전으로 거슬러가는 유서 깊은 마을이다. 인근 ‘반못’을 식수와 가축 급수로 사용했다.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 본동과 함께 초토화되었다. 이웃 ‘새동네’, ‘백화동’ 등과 같이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마을 옛터 대부분은 과수원으로 개간되어 옛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올레와 군데군데 대나무 숲이 있어 예전 이곳에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봉냉이동산’은 선흘리 3490번지 일대로 10가호 주민 50여 명이 조나 산듸 농사짓고 우마 키우며 살던 마을이다. ‘낙선동’ 서북쪽에 있다. 지금은 올레나 대나무 숲 있어 이곳이 옛 마을 터임을 짐작하게 해줄 뿐 동산 주변은 전부 감귤과수원으로 변해 있다.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 본동과 함께 소개됐고 이웃 ‘큰굴왓’이나 ‘실물가름’과 같이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3-15. 덕천리 웬밧(화전동)

- ‘웬밧’은 덕천리 409번지 일대로 조선 시대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주민들이 화전을 일구면서 응기를 구워 생활했던 마을이다. 이곳 토질이 응기 굽기에 적당해 응기를 제작

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당시 10여 가호 주민 50여 명이 살았다. 1948년 11월 18일경 덕천리가 초토화된 후 ‘큰곳도’와 같이 재건되지 못해 현재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지금은 농가 주택 한 채가 있는 ‘웬밧’이 나온다. 마을 터는 평평한 지형으로 지금은 밭과 과수원으로 변해 있다. 올레 담과 대나무 숲 곳곳에 남아있다.

3-16. 명월리 빌레못 마을

- ‘빌레못’은 한림읍 명월리 1678번지 일대로 명월 상동에 속하는 마을이다. 고림동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다. ‘빌레못’이 있다 해서 마을 이름도 ‘빌레못’이라 불렸다. 1948년 11월 20일 토벌대의 소개 때 마을이 모두 불탔다. 다음 해인 1949년 봄 상동이 복구되었을 때에도 ‘빌레못’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사람이 가서 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잃어버린 마을’처럼 주민들은 이미 인근 마을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 ‘빌레못’은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다.
- ‘빌레못’ 옛 마을 터 인근에 현재 가축을 기르는 축사들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옛 자취가 사라졌다. ‘빌레못’이라는 마을 이름을 탄생시킨 ‘빌레못’도 지금은 메꿔져 그 흔적이 안 남아있다. 다만 올레와 집터들이 자리했던 곳에 대나무가 남아있다. 마을 입구(명월리 164번지)에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있다. 비문에는,

여기는 4.3의 와중에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북제주군 명월리 빌레못 마을 터이다. 빌레못이란 돌빌레 위에 뜻이 형성된 곳으로 옛날에는 식수와 우마 먹이는 물로 사용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80여 년 전 강씨, 흥씨, 양씨 세 가호가 설촌한 이래 25가호 130여 명의 주민이 밭농사를 지으며 살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었다.

바람도 소리 없이 찾아들어 머물러 가던 이 마을에도 1948년 제주 전역을 휩쓴 4.3의 광풍은 여지없이 몰아쳤다. 11월 20일경 소개령에 의해 가옥은 전소되어 잿더미가 되고 주민들은 해안마을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어디 이뿐이랴. 20여 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어 바람길 구름길에 떠도는 고훈이 되었구나.

1949년 봄 명월리 고림동에 축성을 하고 가건물을 지어 살게 된 이후 주민들은 빌레못으로 돌아오지 않아 지금은 연못터와 대나무만이 예전에 사람이 살았음을 증언하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 4.3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표석을 세운다.

3-17. 어음리 고지우영, 뒷동네, 너산밧, 빌렛거리, 새동네, 동돌궤기

- 1504년 갑자사화 당시 은산 부원군 후예인 흥문관 교리였던 정자 박후신(正子 朴厚信)이 노복 30여 명을 거느리고 어음(於音) 2리 서남쪽 약 1km 지점 하천 동쪽에 유배되었다. 그는 그 지역 일대 황무지를 개척하여 자기 호를 따라 ‘정자촌(正字村)’이라 칭하여 거주하였다. 바로 어음 2리 설촌의 시초이다.
- ‘고지(高旨)우영’은 어음리 2881번지 일대로 본 마을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다. 동쪽에 고지동산이 있어 ‘고지우영’이라 했다. 1948년 11월 21일, 어음리 주민들은 토벌대 명령 따라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당시 30여 가호 주민들이 살던 ‘고지우영’ 마을은 이날 토벌대에 의해 폐허가 된 후 복구되지 않아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 옛 마을 터는 길 아래 낮은 곳이다. 밭 담을 따라 옛 집터임을 말해주는 대나무 숲과 올레 터, 주춧돌, 그릇 파편이 여기저기 발견된다. ‘뒤예기못’과 ‘상마추왓 할망당’도 남아있다. 길 원편 역시 ‘잃어버린 마을’인 ‘사낭굴터’로 당시 10여 호의 집들이 있었다.
- ‘뒷동네’는 어음리 2032번지 일대로 1948년 11월 22일, 어음리 주민들은 토벌대 명령 따라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당시 30여 가호의 ‘뒷동네’는 이날 토벌대에 의해 폐허가 된 후 복구되지 않아 ‘잃어버린 마을’로 남게 되었다.
- ‘너산밧’은 어음리 1999번지 일대로 1948년 11월 22일, 어음리 주민들은 토벌대의 명령에 따라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당시 30여 가호의 ‘너산밧’은 이날 토벌대에 의해 폐허가 된 후 복구되지 않아 ‘잃어버린 마을’로 남아있다. ‘너산밧’ 마을 터는 넓은 지역에 걸쳐 밭 담을 따라 대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10여 호가 복구하였으나, 5~6년 후 하나둘 다시 떠나버려 지금은 빈 집터만 남아있다. 이제는 수백 년 된 팽나무만 예전 마을을 지키고 있다.
- ‘빌렛거리’는 어음리 3112-1번지 일대로 1948년 11월 22일, 어음리 주민들은 토벌대 명령에 따라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당시 15가호의 ‘빌렛거리’라는 곳은 토벌대에 의해 폐허가 된 후 복구되지 않아 여전히 ‘잃어버린 마을’로 남아있다.
- ‘새동네’는 어음리 2088-1번지 일대로 1948년 11월 22일 어음리 주민들은 토벌대 명령에 따라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당시 10여 가호의 ‘새동네’는 이날 토벌대에 의해 폐허가 된 후 복구되지 않아 ‘잃어버린 마을’로 남아있게 되었다. 지금은 울창한 대나무 숲과 옛 올레가 남아있다. 당시 집터에는 깨진 사기그릇 파편들이 널려있다.
- ‘동돌궤기’라는 지역은 어음리 1052번지 일대로 1948년 11월 22일 어음리 주민들은 토벌대 명령에 따라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원래 이곳은 물이 좋았다고 한다. 그중 ‘돌

돌궤기’못이 유명해 인근 마을에서도 이곳으로 물 길으러 왔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 있는 ‘동돌궤기’ 못은 예전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물이 풍족하다. 당시 10여 가호 주민들은 이날 토벌대에 의해 폐허가 된 후 복구되지 않아 ‘잃어버린 마을’로 남아있게 되었다. 지금도 예전 마을 터 곳곳에 대나무 숲, 집터가 남아있다.

3-18. 서홍동 생물도

- ‘생물도’ 마을은 서홍동 산1번지 일대로 1930년대 말 주민 이주로 폐촌된 화전마을이다. 생물도 주둔지는 서홍동 옛‘생물도’ 마을에서 600m 위쪽에 있던 응원 경찰 주둔소였다. ‘생물’은 마을 동쪽 서홍천 지류에서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을 지칭했다. ‘생물도’는 서홍리 목장 우마가 산 위로 올라갈 때 이용했던 길이다.
- ‘생물도’ 마을은 근처‘솔오름’ 기슭 ‘연제골’ 마을과 함께 서귀포 관내 대표적인 화전마을이다. 하지만 남원읍 하례리 ‘평대진전’ 마을과 같이 1930년대 주민들이 해안마을로 이주하면서 폐촌 되었다. ‘생물도’ 마을 옛터에 마을 흔적인 집터와 ‘물방애’ 터, ‘통시’, ‘사농바치’ 터, 돌담이 아직 남아있다.

3-19. 색달동 천서동 마을

- ‘천서동(川西洞)’은 내 서쪽에 있다 하여 ‘냇서왓’으로 불렸다. ‘천서동’은 ‘냇새왓슬’의 한자어 표기이다. 이곳은 색달동 본동에서 북쪽으로 약 3.5km 떨어져 있었고 현재 마을 북쪽으로 산록남로와 접해 있다. ‘제주 4.3’ 때 약 45가구, 120여 명 정도 주민이 화전 농사와 목축을 하며 살고 있었다. ‘천서동’은 동동과 서동으로 나누어진 비교적 큰 자연마을이었다. 주민들은 서동보다 동동에 많이 거주했다.
- ‘천서동’은 1948년 11월 중순 토벌대가 대낮에 마을을 방화하면서 대부분 집이 불에 타 없어졌다. 이날 토벌대는 안덕면 서광리 쪽에서부터 마을을 불 지르며 강정리와 염돈 방면으로 넘어가다가 ‘천서동’을 방화했다. 주민들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채 속수 무책이었다. 다행히 주민들은 서쪽에서 들어오는 토벌대를 보고 미리 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후 주민들은 색달리 본동으로 내려가거나 인근 안덕면이나 한림면으로 소개했다. 일부는 근처 곶자왈에 숨어 지내다가 토벌대에 잡혀 희생되었다.
- 이듬해 색달리 본동이 재건되고 주민들이 올라오면서 ‘천서동’ 주민 일부가 마을로 돌아왔다. 그러나 바로 ‘천서동’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본동에 머물렀다. 그 후 1962년 정부 융자금으로 ‘천서동’ 마을이 재건되면서 원래 마을 터 아래쪽에 14세대 정도 돌아와 살

았다. 그러나 이들도 10여 년 뒤 생활고 때문에 모두 본동으로 이주하거나 각처로 흩어져 현재 아무도 살지 않는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 현재 ‘천서동’ 대부분은 롯데 스카이힐 제주 CC 부지로 편입되었고 거주하는 주민들은 없다. 1962년 재건 당시 주민들이 입주했던 곳은 향교 땅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조성된 곳이다. 지금 옛터에는 집터 흔적은 안 남아있고 종을 매달았던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아 있다. 2005년 이곳에 ‘냇서왓 흔적비(川西洞 痕迹碑)’가 새워졌다. 비문에는,

본동(本洞)은 해발 400고지 선상에 위치 동쪽으로는 속칭 감티동산 백만원케 서쪽은 서동네 동산 북쪽은 모라리오름과 병풍석 남쪽은 앞동산, 마치 병풍처럼 둘러쌓인 곳 안에는 1850년대 초부터 진주(晉州) 강(姜)씨, 양천(陽川) 허(許)씨, 청주(淸州) 한(韓)씨, 김해(金海) 김(金)씨 등 40여 세대가 씨족을 이루어 윗빌래 서동네 동카름 등으로 호칭 삫의 터전이던 곳

목축과 화전(火田)에 의존하여 주 작물로는 지슬, 메밀, 마시리조, 봉개사리조, 산듸(밭벼), 팥 등 산성토양에 적합한 작물을 재배 해변 마을과 쌀, 보리 등을 물물교환 양식하였고 생활용수는 나누물 새울통 앞내창 만내꼴내창 큰울영 웅통물 등지에서 봉천수로 먹었으나 극한 가뭄에는 동천전물을 이용하면서 한집안 식구처럼 살아오던 중 1948년 제주 4.3사건이 발발하자 동년 음력 10월 11일 진압부대에 의해 전 가옥을 불 지르고 강제 소개령을 발동 산산히 흩어지게 되었다. 그 후 1962년도 5.16 혁명 정부 하에 25세대가 응자금으로 재건 입주하였으나 차츰 소득이 떨어져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동(波洞)되어 역사 속에 마을로만 부르게 되었다. 이에 마을의 역사를 이 비에 새겨 후손들에게 알리고 냇서왓 火田마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이 표석을 건립합니다.

3-20. 상창리 대난도 마을

- ‘대난도’ 마을은 상창리 117번지 일대이다. ‘대난도’는 ‘대낭도’, ‘대남도’로 불리는데 대나무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마을은 중잣성 위쪽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대병악’과 ‘소병악’이 있고 동쪽으로는 ‘창고천’이 흐른다. ‘대난도’는 상창리에서 약 3.1km 거리지만 상천리는 약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제주 4.3’ 때 10여 가호 주민들이 1개 1반을 이루고 화전 농사와 목축을 주업으로 삼아 살고 있었다.
- 1948년 12월 9일 토벌대가 상창리에 소개령을 내려 불에 탄 뒤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았다. 마을 남쪽 중잣성 부근, ‘창고천’ 주변에 1949년 봄 2 연대 3중대 병력이 안덕면 청년들로 구성된 특공대와 함께 주둔하기도 했다. 현재 ‘대난도’는 대부분 임야이며 ‘창

고천' 주변 성 담 일부와 집터 흔적이 남아있다. 비포장도로 따라 약 600m 더 들어가면 군데군데 대나무가 자라난 마을 옛터가 있다.

3-21. 상천리 모록밭, 오리튼물, 거마을, 비자남흘, 챗망어음

□ 모록밭

- 상천리는 '모록밭(무록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목축에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중산간 화전마을이다. '제주 4.3'시기 상천리는 '오라튼물'(40여 호)을 중심으로 '거마을'과 '비자남흘', '챗망어음', '큰빅데기' 같은 여러 자연마을이 합쳐 형성된 70여 호 자연마을이다.
- 1948년 11월 3일 토벌대는 상천리를 완전히 불태워 버렸다. 그때까지 다른 마을에는 소개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토벌대가 이 마을에 방화한 이유는 상천리가 애월면 다른 화전마을처럼 산간마을에 가까운 마을이어서 무장대의 근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상천리 주민들은 집터 등지에 움막을 짓고 생활했다.
- 그 후 다시 소개령이 내려진 것은 약 열흘 후인 11월 23일이다. 당시 주민 일부는 해안 마을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웃 동광마을 주민들처럼 내려가기 두려웠던 대다수 주민은 눈 덮인 들판 여기저기 흘어져 숨어 지냈다.
- 마을 복구는 1954년에 이루어졌다. 소개 전 '오리튼물'이 상천리에 가장 큰 자연마을이었다. 하지만 고만고만한 작은 자연마을들이 여기저기 흘어져 이루어진 마을이었던 탓에 상천리는 소개 이전 마을이 없던 현재의 신설마을 상천리를 세웠다. 당시 20여 호 정도 주민들이 마을 둘러 성 쌓고 살았다.

□ 오리튼물

- '오리튼물'은 상천리 447번지 일대이다. 이곳에는 '제주 4.3' 당시 40여 호의 주민들이 화전과 목축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1948년 11월 23일 소개령이 내려지기 열흘 전 이미 마을은 전소된 상태였다. '오리튼물' 주민들은 '제주 4.3'으로 고향 마을을 잃어버렸다. '오리튼물'은 지금도 옛 마을 흔적이 남아있다. 당시 집터는 대부분 밭으로 변해버렸다. '오리튼물'은 지금도 오리가 날아갈 듯이 물이 맑다. 2004년 4월, '오리튼물' 마을 터(상천리 414번지)에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세워졌다. 비문에, 이곳은 4.3사건으로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 속칭 오리튼물

마을 터이다. 오리튼물이라는 말은 오리가 날아와서 앉았던 물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2백여 년 전 설촌된 이 마을은 제주 4.3 사건 당시 40여 가호에 170여 명의 주민이 우마 키우고 밭농사 지으며 넉넉하게 살던 중산간 마을이었다. 주위에 작은 규모의 자연마을인 거마을, 비지남흘, 천망어음, 큰빗데기 등을 합쳐 약 70여 가호를 이루었고, 일제 강점기 이전엔 백록(白鹿)마을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4.3의 광풍은 이 마을들을 여지없이 뒤흔들어 놓았으니, 1948년 12월 12일 마을이 전소되고 12월 21일경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주민들은 아랫마을로 내려가거나 산중으로 은신하였고 토벌대에 의해 마을은 전소되고, 십여 명의 주민들은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흘어졌던 주민들은 이웃 상창리와 경계지점에 집을 다시 지어 살기 시작하였고 국가의 지원으로 현재의 상천리에 정착한 뒤 다시는 오리튼물로는 돌아오지 않았으니 지나는 길손들이여, 주위를 둘러보라! 병약과 영아리오름 사이에 자리 잡은 집터와 밭 담 사이로 자그맣게 남아있는 올레, 그리고 저 집터마다 무더기 무더기로 자란 대숲들이 마을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는 이 땅에 4.3사건과 같은 서러운 역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이 표석을 세운다.

□ 거마을

- ‘거마을’은 상천리 530번지 일대로 현재 산록남로와 병악로가 만나는 교차로 남쪽 일대에 있던 마을이다. 소개 당시 10여 호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현재 예전 마을 터는 밭으로 되었다. 밭에서는 깨진 사기그릇 등 생활 도구들이 발견된다.

□ 비지남흘

- ‘비지남흘’은 상천리 648번지 일대로 ‘무악(개오름)’ 동쪽 약 700m 지점에 있던 마을이다. 1948년 11월 중순 마을이 전소될 당시 10여 가호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 터 대부분은 경작지로 바뀌었으나 주변에는 아직도 곳곳에 대나무가 무리지어 자라고 있다. 마을 옛터 남쪽과 서쪽에 ‘무악(개오름)’과 ‘병악(대병악, 소병악)’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 첫망어음

- ‘첫망어음’은 상천리 산 31번지 일대이다. ‘첫망’은 체와 망사리가 합쳐진 말로 한자로는 ‘천망(天望)’으로 표기한다. ‘어음’은 바가지처럼 움푹 들어간 곳을 가리킨다. ‘첫망어음’ 지역은 ‘하늬오름’과 ‘용와이(영아리)오름’, ‘어오름’, ‘모라이오름(모라이악)’에 둘러

싸인 체 주변보다 지형이 낮다. ‘쳇망어음’ 남쪽에 ‘천망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곳에 5가구 정도가 생활하고 있었는데, ‘제주 4·3’ 이후 두 가구만 복귀했다.

3-22. 광평리 모살목(모살동), 조가웨(조가궤, 조가동), 마통동(몰통어귀)

- 광평리는 조선 시대 목장과 화전이 있던 지역으로 동광리에 속했다. 광평리는 안덕면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북동쪽은 애월읍 봉성리, 북서쪽은 한림읍 금악리와 접하고 있다. 남동쪽은 상천리와, 남서쪽은 동광리와 경계를 이룬다. 이 마을은 해발 480m 높은 지대에 형성되어 있어 제주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던 마을 중 하나이다.
- 1750년경 현 위치에서 조금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조 씨가 처음 들어와 살았다고 하여 ‘조가위’, ‘조가궤’, ‘조가동’의 이름이 남아있다. 현재 지도에 ‘조가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뒤 ‘몰통어귀(馬洞洞)’, ‘감남굴’, ‘모살목’ 일대에 사람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
- ‘제주 4·3’ 전 ‘조가동’에 40세대, ‘마통동’에 20세대, ‘감남물’에 4세대, ‘모살목’에 5세대 정도 모두 70여 세대가 살아 큰 동네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48년 ‘제주 4·3’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주민들은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가 1955년 ‘毋通’어귀인 ‘고베기 동산’ 앞에 사람들이 올라와 살면서 마을이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지금은 본동(本洞) 1개의 자연마을만 남아있다.
- ‘모살목(모살동)’은 광평리 123번지(서쪽), 147번지(동쪽) 일대 광평로 중심으로 동서로 약 200m 거리 두고 둘로 나뉘어 있다. 모두 12가구 정도가 살았다. 현재 마을 터는 모두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서쪽 마을 터, 밭 경계선 대나무들이 무리 지어 자리 이전 가옥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동쪽 마을 터는 지적도에 집터가 존재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큰 농경지로 정비되어 있어 옛 마을 터 흔적 찾아볼 수 없다.
- ‘조가궤’, ‘조가위’, ‘조개동’은 광평리 82번지 일대 지명이다. 설촌 터의 한 곳이며, 1950년경 조씨 성 가진 사람이 설촌 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에 약 40여 세대 거주하였으나 1948년 ‘제주 4·3’으로 당시 주민들이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그 후 복구되지 않아 지금은 집터만 남아있다.
- ‘마통동(몰통어귀)’은 광평리 247번지 일대로 조선 시대 조정에 올리는 진상마(進上馬)를 기르던 국마장 있던 곳이다. 10~20여 호 정도 주민이 살았다. 북쪽으로 ‘왕이메오름’이 있고 마을 터와 ‘왕이메오름’ 사이 목장과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현재 마을 터에 여기저기 대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IV. 제주도 화전 생활사

1. 제주도 목축문화

- 제주도의 전통적 목축문화는 지역주민들이 중산간 지역 자연초지대를 이용해서 목축 생활을 하며 만들어 놓은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축문화는 1년 동안 방목지에서 이루어지는 목축력(牧畜曆)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4-1〉 제주도의 목축력

계절	월 (음력)	목축력	계절	월 (음력)	목축력
봄	1	축사에서 기르기(家飼)	가을	7	백종 마불림제 테우리 코스
	2	축사에서 기르기 공동목장 방애 놓기(火入)		8	공동목장 방목 진드기 구제
	3	축사에서 기르기 소, 말에 낙인(烙印) 하기 목장 돌담, 축사, 급수장 보수		9	월동사료 “출”(꼴)베기 공동목장 종목(終牧)
여름	4	공동목장 방목하기(~9월) -우마관리: 번치기(애월음 소길리)"	겨울	10	소에 귀표(耳標) 하기 말에 낙인 하기 축사에서 기르기
	5	공동목장 방목하기(~9월)		11	축사에서 기르기
	6	소 상산(上山) 올리기(~9월) 공동목장 방목하기(~9월) -방목형태 : 이목(移牧) 말에 낙인 하기		12	축사에서 기르기

- 공동목장의 방목기는 대체로 음력 3월(양력 4월)부터 음력 9(양력 10월)까지 그리고 겨울과 봄철에 축사에서 기르는 가사기(家飼期)는 음력 10월부터 2월까지였다.

1-1. 방목

(1) 중산간 지대의 방목

-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었던 방법으로 해발 2~3백m에서 6백m(이 주변에 상잣이라 하는 감목관 시대 목장 경계인 울타리가 있다)에 이르는 지역에서 방목하고 있으며, 농번 기에는 여러 가족이 연합하여 우마를 만들어 가족 교대로 책임 맡는다. 종일 감시자를 둔다. 그러나 농번기가 지나면 감시의 책임은 각자 가족에게 돌아가지만 매일 항상 옆에 붙어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 망보러 가는 정도이며, 우마는 자유롭게 방목한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풀을 따라 한라산정 부근까지 올라갔던 우마들은 큰 눈 때문에 움직이기 곤란하여 하사할 수 없으므로 마소들을 모아 좁은 휴한지에 몰아넣는 것이다.

(2) 산간지대의 방목

- 이곳에서는 완전히 산악지대에 우마를 방목하여, 다만 때때로 살펴보는 정도로, 완전히 우마의 자유에 맡겨두는 방식이다. 한적한 산중, 특히 상잣성 위에서 방목하는 우마는 점점 산 위로 올라가 겨울에 큰 눈을 만나 죽지만, 늘 방목해오던 우마는 도리어 산정 가까이 오르지 않으며 가을이 되면 스스로 내려와서 얼어 죽지 않도록 훈련되었다. 초지도 경계도 나누지 않은 곳에서 방목하기 때문에 그 소유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우마에 표시한다. 표시는 마을마다 다르지만, 소에는 표를 찍고 말에는 귀를 자르는 것이다. 이를 낙인(烙印)과 귀패(耳)라 하였다.

(3) 이목(移牧)

- 공동목장에서의 이루어지는 방목형태는 계절적 방목에 해당한다. 이것은 지리학적 의미에서 이목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목이란 겨울철에는 저지(低地 : 해안마을)에서 목축하다가, 여름이 되면 산지(중산간)로 이동해 가축을 사육하는 형태로, 제주도는 해안에서부터 한라산 정상까지 수직적인 지형환경을 가지고 있게 때문에 겨울철에는 온난한 해안 취락 지역(0~100m)에서 방목한 후 새로운 풀이 돋아나는 양력 4월부터는 다시 중산간 지역(200~600m)의 공동목장으로 우마를 이동시켜 방목하는 것이다. 즉 일정 계절(여름~가을) 동안 공동목장에서 방목한 후 추석을 지낸 후 한겨울을 지낼 '출'(꼴)을 베어 건초로 만든 다음 음력 9월경 공동목장의 우마들을 해안 저지대의 축사로 몰고 와서 키우는 방목형태이다. 이러한 이목은 제주도의 기후와 지형환경이 만들어낸 전통적 방목형태라고 볼 수 있다.

- 공동목장에서 이루어진 이목의 구체적인 형태로 일명 ‘번치기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여기서 번치기 목축이란 마을 사람들끼리 일정한 차례로 순번을 정하여 들과 산이나 공동목장에서 방목시킨 우마를 관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한편 공동목장의 방목과 관련하여 ‘캐파장, 방둔, 간목, 번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를 끈다. 이는 애월읍 고성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고성리 공동목장에서 우마의 사육방법을 보면, 음력 4월이 되면 ‘방둔’하고 9~10월쯤 되면 ‘간목’하였다. 여기서 방둔은 우마를 공동목장으로 옮겨 여름 동안 방목하는 것이며 겨울이 되어 우마가 공동목장의 야산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되면 마을로 이끌고 와서 사육하는 것을 ‘간목’이라 하였다. 이때 우마의 수가 3~4마리인 경우에는 축사를 지어 간목 하지만 그 수가 많을 때는 인근 자기 밭에 가둔 다음 “출(건초)”를 주면서 사육하였다. 그리고 공동목장에 방목 시에는 목감(牧監)을 두어 우마를 관리하게 하였고, 그 대신 목감(캐파장)에게는 우마의 두수에 따라 보리쌀로 그 산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번곡’이라 하였다. 번곡은 탈곡한 보리로 하였는데 조합원인 경우, 넉 되(소두 한 말), 비조합원인 경우는 여덟 되, 어린 송아지의 경우에는 그 절반을 받아 목감 급료로 주었다.

1-2. 낙인(烙印)

- 낙인은 자형(字型)이나 도형(圖形)이 새겨진 쇠붙이를 달구어 가죽에 찍는 일종의 쇠도장을 의미한다. 제주지방에서 낙인은 조선 시대의 십소장(十所場) 운영을 위한 마정(馬政)과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는데 말의 생산, 사육,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낙인의 자형과 도형 표시는 국마(國馬)와 사마(私馬)를 구별하였고 국마를 사육하는 관설(國營)목장에는 천자문의 순서인 천(天), 지(地), 현(玄), 황(黃) 등의 자형을 낙인으로 이용하였다.
- 낙인을 찍는 장소는 대부분 대퇴부다. 간혹 귀에 하는 경우가 있다. 말에는 대체로 귀를 자르는 방식으로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표를 차용하기도 한다. 새로 태어난 새끼를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일은 엉덩이에 낙인을 찍거나, 귀표를 해놓는 방법을 택했다. 낙인은 무쇠를 가지고 자기의 성이나 정해진 약자를 만든 것인데, 이것을 불에 달구어서 짐승의 네발을 묶고 넘어뜨린 다음 엉덩이를 지진다.
- 귀를 자르거나 표시하고 번호가 쓰인 나켈 귀표 하는 방법은 훨씬 그 후에 이루어진 방법으로 귀를 ‘V’자나 ‘W’자로 잘라 내었으며 보통 시월 첫 주일에 제를 지낸 다음 시행했다. 이와 같은 낙인찍는 작업은 비단 어린 새끼들만 한한 것이 아니었다. 해가 지나면

서 희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꽃물꽃쇠’뿐 아니라 상산이나 목장에 풀어놓기 위해 다 자란 소도 낙인을 찍었다.

- 이처럼 낙인은 많은 우마가 공동으로 방목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거나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에 피해 입혔을 때 우마의 마을별, 개인별 소유 관계를 확실히 밝혀주기 위해 행해진 것이다. 그래서 쇠꼬챙이 끝에 두 글자를 새긴 것과 한 글자를 새긴 것으로 나타난다. 두 글자는 마을이나 단체별로 사용하는 자형으로 리명(里名)을 새기고 있다. 한 글자를 새긴 것은 가문별, 개인별로 고유의 글자를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마을 단위의 낙인은 마을의 한자음을 그대로 쓰거나 상형화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마을마다 공동목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주변에 방목하던 우마가 월장(越牆)하여 다른 목장으로 이동해버릴 경우 이 가축 소유 관계 구별하는데 쉽기 때문이다.
- 낙인은 글자의 획이 간명하면서도 표시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므로 획이 복잡한 글자는 피하였다. 획이 많은 글자로 낙인을 했을 때 낙인찍힌 상처 부위가 더 많이 만들 어져 치유되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는 낙인은 주로 공동목장에 방목하기 전인 봄철이나 방목을 끝내고 집으로 몰고 오는 가을철에 행해졌다. 낙인찍는 장소로는 목이 좁고 바닥 면적이 넓지 않아야 하며 담장이 높게 쌓아진 곳을 택하였다.

1-3. 거세(불알·붕알까기)

- 제주도에서는 소와 돼지를 거세한다. 그러나 전체 우마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위세 넘치는 소와 교배 후 수소나 돼지에 한하고 있다. 방법은 육지와 달리하고 있다. 소는 다섯 살 무렵, 돼지는 교배 직후 이웃 사람들과 교대로 여럿의 남자가 대상 동물을 앞뜰에 끌어다가 두 장의 목판에 고환을 짜내어 작은 칼로 외피를 열어 고환을 꺼낸다. 수술 뒤에 재와 소금을 집어넣어 울타리를 높이 하여 그 안에 풀었다가 상처가 아물 때까지 놔둔다. 그러나 악전(惡田)이면 상처에 농이 생긴다고 믿는다.

1-4. 방애(放火)

- 공동목장에서 목야지 불 놓기를 ‘방애’라고 불렀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방애를 화입(火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화입이라는 용어는 한글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 생겨난 용어 즉 일본어 火入れ(ひ入れ)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공동목장이 일본 식민지 당

국의 통제로 들어가면서 전통적인 용어인 방애가 일본어인 화입으로 대체된 것이다.

- 이러한 방애는 매우 오랜 전통을 지닌 문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선인들은 오름이 많아 좋은 경작지를 구하기 어렵고 우마의 사육을 방목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화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방애가 금지되긴 했으나, 실효를 얻지 못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일인 會田重吉이 『제주도의 산업구조』에서 화입을 “당 지방의 절대적 관습”이라 하였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언급이다. 그러나 1968년 화전 정리법이 발효되면서 국지적으로 남아있던 화전(火田)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제주도에서도 화학비료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불을 놓아 밭을 일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방목을 위한 방애 만큼은 여전히 효용성이 인정되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산림녹화 정책과 초지 개량 사업으로 인하여 방애의 전통은 사라지고 말았다.
- 방애는 경작을 목적으로 불을 놓아 밭을 일구거나 방목을 목적으로 불을 놓아 초지를 개량하는 일을 말한다. 전자를 화전, 후자를 방애 혹은 ‘들불 놓기’라고 한다. 화전은 개별적이며 소규모로 불을 놓아 밭을 일군다. 들불 놓기는 공동이며 대규모로 불을 놓아 초지를 마련하다. 이 가운데 특히 들불 놓기는 제주도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문화 현상이다. 들불 놓기는 오름이나 공동목장에서 이루어졌다. 많은 오름이 민동산인 것도 이 방애의 흔적일 것이라 한다. 또 산소에 담을 두른 것도 마소의 출입을 방비하기 위한 것 만이 아니라, 들불 놓기로 인해 분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방애는 이른 봄 들판에 쌓였던 눈이 녹아 마른 풀이 드러날 때 이루어졌다. 새 풀이 돋아나면 마소를 방목해야 하기에 그 전에 들불 놓기를 해야 한다. 이때 들풀 놓기를 하면 진드기 등 각종 해충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풀이 잘 돋아난다. 오늘날처럼 농약이 있던 것도 아니고 대대적인 초지 조성작업을 벌일 형편도 못 되어, 마른 풀과 해충을 한꺼번에 없애기 위해서는 들불 놓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들불 놓기는 마소를 방목하기 전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중행사의 하나였다.
- 공동목장에 들불 놓기를 하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계획을 세웠다. 먼저 적절한 날을 고르고 필요한 인원을 동원할 계획을 짬다. 들불 놓기를 하는 날이 되면, 일기를 보아 바람의 방향과 그 변화 가능성을 잘 가늠하여 가며 불을 놓고 번짐을 방지하였다. 어떤 마을에서는 들불 놓기 할 곳의 외곽에 물도랑을 쳐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 공동목장의 방애는 진드기 등 병해충 구제와 가시덤불,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양질의 목초 생산과 방목공간의 확대가 가능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공동목

장에서 이루어진 방애 놀기 과정에 대해 전술한 명월 공동목장조합 자료를 토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진드기 구제 및 전년도 잡초(殘草) 소각을 위해 적당한 시기를 골라 화입을 하도록 정하였다. 화입을 위해 먼저 목장 내에 남아있는 자갈을 일제히 제거하여 일정한 구석에 쌓아두었다. 그리고 목장의 주위에 폭 오간(五間: $5 \times 1.8m = 9m$) 이상 풀을 베어내고, 방화선을 설치하여야 화입 출원을 할 수 있었다. 화입이 이루어질 각 부분에 관계 마을주민들을 동원, 배치하여 화입을 한 다음, 다른 쪽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경계하도록 하였다. 화입 허가원은 1월 말까지 읍면 공동목장연합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화입 시기는 지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해안지대는 2월 하순, 중간지대는 2월 초순 그리고 산간지대는 3월 중순이며, 온화한 날을 골라 실시하였다.
- 이러한 공동목장의 방애 놀기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제주시 영평동의 사례를 가지고 보면 다음과 같다. 4·3 전까지만 해도 화입 관행이 이루어져 왔다. 화입이란 음력 3월 초순경 마소 떼에 기생하는 사는 병충해(섬역 또는 부그리)를 없애고 묵은 잡초를 태워버린 후 새 풀을 돋게 하여 마소들의 먹이로 삼으려고 불을 놓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때에는 상잣 담 밑으로 5~6m 간격을 남겨 놓고 그 폭을 반 팔 간격을 유지해가면서 쟁기로 밭을 갈아나가거나 여의치 않으면 그 간격으로 불을 붙인다. 이 일을 두고 ‘불도랑 친다’라고 한다. 이는 상잣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해 두고 나서 목장 안에도 불을 붙인다. 이 일을 할 때는 모든 목장 조합원이 동원된다.
- 공동목장 지대에서 방애 놀기는 해마다 이른 봄철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가시덤불과 잡목이 제거되어 2차 초지대가 형성되었다. 즉 제주도의 2차 초지대는 매년 반복되는 방애 놀기에 의해 형성, 유지되었다.

1-5. 테우리(牧者)

- 테우리는 목축에 종사하는 목자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봉골어에서 유래한 용어라고도 한다. 이들은 전문적인 목축기술을 가지고 광활한 목장 초지대를 누비며 우마를 방목하면서 제주도의 전통적인 목축 목화를 만들어낸 주체들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바다에 해녀가 있다면 산에는 테우리가 있다. 이들 테우리들은 관리하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소 테우리, 말 테우리라고 부른다. 테우리들은 자신의 우마를 키우는 경우, 일정한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우마들을 키우는 경우, 마을 공동목장에 고용되어 우마를 키우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공동목장의 고용 테우리는 일제 강점기 마을별로 설립된 목장조합에 목감(牧監)으로 고용되어 등장한 이래 1970년대 이후 소 가격 파동이 발생하

여 공동목장의 이익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폐쇄위기에 놓이자 목축 대신에 농사일에만 매달리게 된 목장계꾼들에게 고용되면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 테우리들은 지역 차가 있으나 대체로 음력 3월 청명(清明)에 우마를 공동목장에 올린 다음 음력 9월 상강(霜降) 이후 하늬바람이 불어 공동목장에 풀이 마를 때까지 우마 관리를 담당하였다. 인근의 해안마을이나 중산간 마을에 거주하면서 공동목장으로 올라가 우마의 방목상태를 관찰하기도 하였으나 공동목장 내에 만들어진 ‘테우리 막’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기도 하였다.
- 테우리들은 우마에 먹일 적당한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하는 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지리적 환경을 세세히 인지하는 사람들이었다. 방목지 내 위치한 오름과 하천, 동산의 이름 그리고 우마의 이동로와 관련된 주요 지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또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오름의 위치, 물을 먹일 수 있는 용천수나 하천의 위치 그리고 기름진 풀이 자라고 있는 위치를 경험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테우리들이 방목지 내의 지리적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바로 방목 중 우마들의 생존과 관련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 한편 테우리들은 ‘테우리 코사’를 행하였다. 이것은 목축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목축의례로 백중날(음력 7월) 떡과 밥, 술 등 제물을 가지고 목장 내에 있는 오름(우마들의 방목상태를 관찰하는 ‘망 동산’ 또는 ‘테우리 동산’) 정상에 올라가 그들이 방목하는 지점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제사를 지냈다.

1-6. 화전민 목축문화

(1) 동·서홍동 화전민 목축

- 연자동 화전민들은 아랫마을에서 올린 소와 말을 받아 미악산 근처에서 대신 길렸다. 이렇게 품삯을 받고 길렀던 소를 ‘삯쉐’라고 했다. 위탁료는 보리쌀이나 돈으로 받아 생계 유지에 이용했다. 미악산 남사면은 미악산 북서풍을 막아주어 겨울철 따뜻한 날씨 보이는 곳이어서 방목지로 적격이었다.

○ 서홍동 강숙관씨(84세)의 목축 기억(2022.06.04.)

남의 소를 대신 맡아 길려 준 대가로 두당 보리 2~3말을 받아 생계에 활용했다. 마을에서 올린 100여 두를 대신 길렸다. 따로 테우리 고사(백중제)를 지내지 않았다. 목장 밭을 쉘 2개로 갈아 농사지었다. 서홍동 공동목장에서는 1년에 1회씩 방앗불 놓기를 했다. 캐

파장이 공동목장을 관리했으며, 4월 공동목장에 소를 올렸다. 여름철 더워지면 소들이 한라산까지 올라갔다. 부친이셨던 강원범씨도 여름철 3년 정도 캐파장을 맡았다(당시 70세). 말은 힘이 없는 가축이어서 기르지 않았다. 밭갈이할 때 소가 힘들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을 꺼렸다. 출은 놈(일손)을 빌어 장만했다. 이 밖에 화전민들은 사냥도 했고, 약초(엉겅퀴, 한라산 상부지역 하천 절벽에서 약초를 채취해 팔거나 먹었음)를 캤으며. 상산에 쇠를 올리기도 했다.

(2) 애월읍 봉성리 솔도 화전민 목축

- 솔도의 화전민 목축에 대해 『제주생활사』(2016)에 따르면, 첫째, 한림읍과 애월읍 해변 마을 사람들이 여름 농사가 끝난 후 농우(農牛)들을 솔도 마을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솔도 주민들은 빈네오름 일대에서 대체로 대서(大暑, 7월 23일)부터 추분(秋分, 9월 23일)까지 일정한 삾 받고 두 지역에서 올라온 수소 맥아 길렀다. 셋째, 농경수단이 농우에서 경운기로 교체되면서 해변 마을에서 그 이상 삾쉐 올라오지 않았다¹⁾.

○ 한림읍 귀덕3리 강시병씨(67세)의 솔도 목축 기억

부친이 솔도에 살았기 때문에 수시로 솔도를 다녔으며, 부인도 솔도 출신이어서 솔도의 내부사정을 보고 들어서 훤히 알고 있었다. 화전동은 폭낭오름(북, 646m), 빈네오름(동, 660m), 왕이메(서, 612m)가 바람을 막아주는 장소에 있었다. 마을주민들은 이들 오름에 발달한 초지를 찾아 삾쉐(수소)를 길렀다. 식수와 생활용수는 빈네오름에서 시작된 소하천이 마을과 만나는 지점에 존재하는 “펭풀물”을 이용했다. 솔도는 기후 관계로 보리농사가 되지 못해 감자(지슬) 농사만 했다. 그래서 보리쌀이 모자라 늘 걱정했다.

말~8말을 삾으로 받아 식량으로 충당했다. 애월읍 봉성리, 한립읍 귀덕1, 2리 등 거의 모든 마을에서 밭갈쉐를 솔도 주민들에게 맡겼다. 한림과 애월 사람들은 여름에 부종(농사)이 끝나면, 소를 몰아 솔도로 이동했다. 당시 솔도에서는 집마다 소를 받아 대신 길러주고 보리를 받았다. 본인 소유의 소도 길렀다. 빈네오름 일대가 방목지였으며, 겨울에는 쉐막에서 길렀다. 부친은 솔도에 살면서 쉐를 2달 정도 길러주고 받은 보리쌀로 생계를 유지했다. 해안마을에서는 보리를 재배했으나, 솔도에서는 평균기온이 낮은 등 기후가 맞지 않아 보리 재배가 불가능했다²⁾.

1) 고광민(2016), 『제주생활사』, pp. 261~265.

2) 제보자: 한림읍 귀덕3리 중산간 서로 5075, 강시병씨, 2022년 9월 21일(수).

(3) 안덕면 상천리 목축

○ 안덕면 상천리(2021:90)에 등장한 목축문화

상천리는 본래 조선 후기 국마장이었던 칠소장(七所場) 내에 거주하던 화전민들이 탄생 시킨 마을이다. 1800년대 후반 7 소장에 화전을 하기 위해 들어갔던 사람들이 정착해 상천리를 형성했다. 1860년대 화전촌으로 출발했던 상천리의 모습은 ‘소씨 영감 전설’에 등장한다. 초기 화전민들은 오리튼물, 비지나물, 거머흘, 첫망어음, 문덕궤, 큰빗데기에 분산되어 자신이 개간한 땅에 집을 짓고 거주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살았던(40여 호) 오리큰 물 동네는 4 · 3으로 폐동되었으며, 현재 옛집 터 흔적으로는 대나무 숲이 남아있다.

주민들은 밭 갈기 위해 소 길렀으나, 소 가진 집이 드물어 남의 소 빌려 밭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소를 빌려 밭을 갈면 품 삶으로 소 주인 밭에 가 김(검질)을 매주거나 밭일 무상으로 해주었다. 집마다 밭갈 쇠, 짐 싣는 쇠 등 소 한두 마리 씩 있었음. 동네 사람들은 소 관리를 위해 번(番)을 정해 돌아가면서 소를 먹였음. 이런 소를 ‘번쇠’라고 했으며, 번쇠 관리를 위해 가두리 밭(바령밭에 해당)을 만들어 밤에는 가두고, 낮에는 몰아다 먹이는 것을 반복했다.

안덕, 대정지역의 사람들이 초지가 많은 상천리 주민들에게 소 또는 말을 위탁했다. 그러면 상천리 테우리들은 마리당 수탁료를 받아 생활했다. 박영희 노인회장은 50~150마리를 관리했던 경험이 있다. 일반 주민은 소와 말들을 곳자왈, 병악 뒤편에 놓아 길렀다. 수놈 하나가 20~30마리를 거느리고 다니는 특성 있어 테우리들은 한 사람이나 둘 정도면 많은 소 관리할 수 있었다.

야우(野牛)의 경우 겨울에는 집마다 준비한 콜을 방목지로 운반해 먹였다. 소 한 마리가 6개월 정도 먹는 양은 30~40바리(1바리는 40단)였다. 콜은 음력 8월 하늬바람 불 때 베기 시작해 추석 명절에도 콜 묶으려 달렸다. 야우가 사라진 이유는 인근 마을인 동광리에 양잠단지가 생기면서부터다³⁾. 1970년대 초 우마들이 양잠단지의 봉나무 봉잎을 먹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배상문제로 야우 키우기를 포기했다⁴⁾.

3) 안덕면 동광리 양잠단지는 남제주군이 1969년에 수립한 「개척단지 조성계획」에 근거해 등장했다. 해발 400~600m 일대를 중심으로 1969년부터 형성된 이곳 개척단지는 정부가 추진한 중산간 개발정책 가운데 주로 ‘양잠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을 선택해 동광리 74번지를 중심으로 탄생했다. 1969년 15호, 1970년에 15호 총 30호가 입주했으며, 주민들은 90ha의 농경지를 활용해 축산, 양돈, 양잠, 고구마, 기타 중산간에 적합한 농작물을 재배했다 (남제주군, 1969, 「개척단지 조성계획」). 현재 양잠단지 주변에는 평화로, 원불오름, 족은 대비암, 병악, 무등이왓 이 있다. 4각형 모양으로 가로가 배치됐으며, 중심부에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광장이 조성됐다.

4) 안덕면 상천리 마을회(2021), 『안덕면 상천리』, 제일인쇄출판, p. 169.

○ 상천리 박창부씨(83세)의 목축 기억

상천리는 밭에 풀들이 잘 자라 일 년에 70회 이상은 김(검질)을 매야 밭농사를 할 수 있었다. 또는 암 쉐나 수소를 이용해 밭을 같았고, 밭 갈쉐가 없었던 ‘흘 어멍’들은 빌려 밭을 같았다. ‘제주 4·3’ 이후 세상이 무법천지로 변하면서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안덕면 12개 마을주민이 돌오름(866.4m) 일대 해발 800m 부근에서 소들을 집단으로 방목했다. 이곳에 방목했던 소들이 내려오면서 팥이 자라던 농경지에 침범해 해당 소 주인과 밭 주인의 팥 변상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했었다. 겨울 건초용 촐(띠)을 장만할 때 촐 밭 경계 돌담을 잘 쌓아야 우마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다. 공동목장을 매각한 후 대금을 큰아들에 게만 물려주어 둘째와 셋째 아들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가족 간에 분란이 생긴 사례도 있었다.

숯을 일부 굽기도 했으나, 판매 목적으로 숯을 굽는 사례는 거의 없었고, 광평리와 솔도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숯을 생산해 모슬포에 가서 판매했다. 말도 많이 키웠으나, 대설로 인해 지붕 위로 사람들이 걸어 다녔다는 1963년 12월(1963년 12월 7일, 강수량 13.6mm), 먹이를 구하지 못한 말들이 배고파서 많이 죽었다. 동백 언덕(카멜리아 힐) 밑에 하잣, 어린이 놀이터(뽀로로파크) 일대에 중잣, 병악오름 부근에 상잣이 있었다. 하잣 아래에서는 곡식을 심었고, 중잣 부근 촐를 베었으며, 상잣 이상의 초지대에서는 소를 방목했다⁵⁾.

2. 제주도 화전민의 숯 굽기

- 숯에는 흑 탄과 백탄의 두 종류가 있다. 흑 탄은 600~700°C로 정련한 뒤 숯가마 안에 2~3일간 두었다가 100°C 정도가 되었을 때 꺼낸 것을 말하며, 백탄은 800~1300°C의 높은 온도로 정련한 뒤 꺼내어 흙·재·탄불을 혼합한 소분을 덮어 빠른 속도로 불기를 꺼버린 것을 말한다. 백탄은 흑 탄보다 탄화온도가 높기에 탄소함유비율도 흑 탄의 75.2%에 비하여 83.3%로 높다. 흑 탄을 굽는 가마는 주로 흙으로 만들고 백탄을 굽는 가마는 돌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흙 가마·돌 가마라고 하는데 숯가마의 크기나 모양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가마에서 막 꺼내 활활 타고 있는 것을 숯덩이를 마사 토를 덥고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백탄이 된다.

5) 제보자: 박창부, 83세, 상천리 병악로 401, 2022.09.24.

- 우리나라로 오래전 숯을 구워왔다. 일반적인 용도인 연료용에서부터 취사 난방용, 건조, 탈취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왔다. 제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라산에서부터 해안마을까지 판매용 혹은 자급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숯이 구워졌다. 제주의 숯 생산량은 1981년까지 통계에 기록되고 있다.
- 『제주도지』에 따르면 제주의 목탄생산은 지난 1981년 32톤으로 마지막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숯, 즉 목탄 생산량 통계를 보면 1957년부터 집계됐는데 1957년 49톤에 196만 원으로 기록된 것을 시작으로 1958년 56톤, 1959년 28톤이고 이후 1963년 연간 최고기록인 800톤이 생산돼 금액 규모가 1억 9천 76만 원에 이르렀다. 이후 1977년 100톤을 기록한 이후부터 계속 감소해 연간 100톤 미만으로 떨어지다가 연탄과 석유의 보급이 보편화하면서, 목탄생산은 그 자취를 감추었다.
- 泉晴一(1966)에 의하면 한라산 숯 굽기는 겨울철 부업으로서 삼림에서 잘려 나온 활엽수를 길이 1척 정도로 잘라서 모양이 반듯하고 별로 굽지 않은 (직경 3-10cm) 것으로 조종(弔鐘) 모양의 외곽을 쌓고 (직경 1.8m, 높이 1.5m) 그 속에 되도록 규칙적으로 바르게 통나무를 쌓아 올려서 물로 반죽한 찰흙을 밑으로 발라오려 정상부에 직경 30cm 정도의 굴뚝과 하부에 60cm에 30cm 정도의 화입구를 열어 거기에 점화한다. 연기 나오는 것을 점검하여 우선 정상부의 굴뚝을 다음에는 화입구를 진흙으로 막아 하루 정도 놔두고 흙의 벽을 부순다. 그들은 고정된 숯 굽기 아궁이를 만들지 않고 수시로 이와 같은 숯 굽기 아궁이를 만든다.
- 일반적으로 보리, 조 수확 또는 출 베기가 끝나고 숯을 만든다. 숯을 만드는 일을 ‘숯을 굽는다’, 또는 ‘숯 묻는다’라고 한다. 숯 묻을 철이 되면 산에 오른다. 작은 솔이나 냄비 등 간단한 취사도구를 가지고 가서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며 산에서 노숙하는 기간은 대개 1박 2일이다.
- ‘숯 굽기’는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 낀 날이 좋다. 연기 나는 것을 숨겨 들킬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낮에는 나무를 준비해 두었다가 밤에 숯가마에 불을 지폈다. 숯을 굽는 절차는 먼저 숯 굽는데 필요한 나무를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숯의 재료는 츄낭과 밤나무, 쿤낭, 가시낭, 틀낭, 서어낭, 볼레낭, 소리낭 등이 쓰였다. 숯 굽는 나무는 목질이 질긴 것이 최상이다. 숯불 기운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숯 묻을 나무가 준비되면 본격적인 숯 굽기 작업에 들어간다. 숯은 숯가마를 이용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지만 대체로 공기가 차단된 숯가마에서 구워낸다.
- 제주도 숯 굽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시홍, 1998). 맨 먼저 가마터 고른다. 숯가마를 만들 평지를 물색하여 평평하게 터 고르는 작업을 한다. 그런 다음 땅바닥에

나뭇잎이나 자잘한 나뭇가지를 깐다. 이것은 숯 추려낼 때, 숯과 땅바닥을 구분하는 역할도 한다. 다음에 덕돌을 만든다. 숯 구울 가마터 면적을 가늠하여 그것에 맞게 네 군데에 ‘덕돌’을 만든다. 숯가마에 불을 지피는 구멍을 ‘덕돌(화덕)’ 또는 ‘숨골’이라 한다. ‘덕돌’은 숯 덕에 앞쪽처럼 양쪽에 두 개 돌을 세우는데 이를 ‘어귓돌’이라 한다. 그리고 ‘어귓돌’ 위에 가로 얹는 돌을 ‘덮돌’이라 한다. 하나의 숯가마에 보통 4개 ‘덕돌’을 만드는데, 가마가 아주 큰 경우 5~6개 ‘덕돌’을 만들기도 했다.

- 그다음에는 숯 굽기 위해 마련해 둔 나무를 ‘덕돌’을 경계로 한 가마터에 쌓는다. 나무 쌓는 형식에 따라 숯 굽는 방식을 ‘누운 숯(곰 숯)’, ‘눌 숯’, ‘선 숯’으로 구분한다. 첫째 ‘누운 숯’ 또는 ‘곰 숯’은 숯 나무를 가마터 바닥에 눕혀 뛴틀처럼 쌓아 올려 흙을 덮는 형식을 말한다. 초보자들이 사용하는 숯 굽기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숯을 많이 만들 수 없고 ‘냉발이’⁶⁾가 많이 나온다. 둘째 ‘눌 숯’은 숯 나무를 ‘눌을 눌 듯이’ 피라미드형으로 쌓아 흙을 덮는 방식이다. 숯 많이 구워낼 수 있다. 셋째 ‘선 숯’은 숯 나무를 지면에서 수직으로 곧추세워 쌓아 흙을 덮는 방식이다. 이는 가장 고급기술이며 상설 숯가마에서 만드는 숯은 모두 ‘선 숯’이다. 숯 나무를 가장 많이 쌓을 수 있고 ‘냉발이’가 가장 적어 많은 숯을 얻을 수 있다.
- 나무 쌓을 때 숯 나무를 쌓은 곁면에 나뭇잎을 덮어 흙 스밈을 방지한다. 그리고 ‘눌 숯’이나 ‘선 숯’인 경우에 숯 나무가 무너지지 않게 덩굴로 나무를 빙빙 둘러 감은 다음 흙 덮는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숯 나무를 쌓고 흙을 덮으면 돔 모양의 숯가마 완성된다.
- 그리고 나서 숯 나무 위에 흙을 덮어 숯가마가 만들어 지면 덕돌 구멍으로 불을 지핀다. 불길이 한꺼번에 골고루 돌아야 숯이 잘 된다. 불길이 숯가마에 골고루 돌았다고 판단되면 덕돌을 빼내 ‘숨골(입구)’을 흙으로 막아 공기 완전히 차단한다. 불길이 덜 돈 때 화덕 막으면 ‘냉발이’가 많이 생긴다.
- 이렇게 1박 2일 동안 산에서 노숙하며 숯 굽는 작업이 끝나면 귀가한다. 숯 구우러 다닐 때 사람 눈 피해서 한적한 길 이용한다. 2~3일 정도 지나서 숯가마를 해체하고 숯을 골라낸다. 가마를 허물어 숯 골라내는 일은 밤에 한다. ‘숯 굴(숯가마)’을 세는 단위는 ‘눌’ 혹은 ‘구뎅이(구덩이)’다. ‘숯 굴’ 한 눌에 2인 1조, 3인 1조로 숯을 굽는다. 숯 생산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멩탱이(가마니)’이다. 다른 사람과 한 조가 되어 숯을 만들었을 때 ‘멩탱이’로 나눈다. 한 눌(노적가리)에서 생산되는 숯의 양은 대중없다. 나무 쌓아 불 지피고 공기 차단하는 시간 등 기술적 요소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6) 탄화가 덜 된 숯, 숯이 되다만 숯 나무를 ‘냉발이’라 한다.

2-1. 동홍동 연자동 숯 굽기

- 연자동 화전민들은 부업으로 숯을 굽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하가를 받고 사들인 나무만을 가지고 숯을 구웠다. 연자동 주위에는 초기(버섯) 밭을 운영하는 일본사람들도 몇 있었다. 이들은 하치마키(도로)를 만들고 한라산을 둘러싸는 담을 쌓고 초기 밭을 운영하였음. 숯 굽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땅을 파서 숯 굴을 만들었다. 숯 구울 나무는 일본인에게 샀다(나무마다 도장 찍음). 숯 굽기는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숯 구웠다(보통 백탄). 땅 위에 흙 쌓고 흙 위에 담을 쌓아(숯가마) 흙 탄을 굽기도 하였다⁷⁾.

2-2. 도순동 화전민 숯 굽기

- 숯 생산은 1970년대까지 국유림 지대에서 행해졌다. 마을주민들은 숯을 국림(國林)에서 서어나무, 참나무를 이용해 구웠다. 국가 림은 공동목장 동북쪽에 있다. 숯 굽기에는 화전민과 일반 주민 100여 명도 참여했다. 공무원 제외하고 마을에서 ‘공부 안 하는 남자’들은 모두 숯을 구웠다. 숯은 판매보다는 겨울철 화로(화리) 난방용으로 이용되었다.
- 숯을 만들기 위해 서어나무 등을 일정 크기로 자른 다음, 불을 지피기 위해 구덩이를 1m 정도 깊이로 팠다. 구덩이 아래에 나무에 불 잘 붙도록 하려고 바싹 마른 가지들을 채웠다. 구덩이에 자른 나무를 세운 다음, 그 위에 흙을 덮고 동시에 연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연기 통을 만들었다. 세운 나무속으로 불을 붙이고, 나무가 불에 타면 저절로 내려앉는다. 숯불은 국림 단속원 피해 밤에 붙였으며. 숯을 완성하면 밤에 마을로 운반해 왔다. 숯을 굽다가 불꽃이 번져 산불이 나기도 했다⁸⁾.

3. 제주도 화전민의 생활과 문화

- 제주지역 화전민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도 농경에 필수적이었던 소 또는 말을 직접 또는 타인의 우마를 대신 맡아 길렸다. 겨울철에는 평과 노루 사냥하기, 숯 굽기 그리고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약초 캐기 등을 부업으로 수입 올렸다⁹⁾.

7)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2022), 『동홍동역사문화지』, pp. 489-493.

8) 제보자: 김수철, 2021.3.13. 17:30, 도순마을회관.

9) 김찬흡 편저(2014), 『제주향토문화사전』, 금성문화사, p. 1751.

3-1. 화전민 가옥문화

(1) 동홍동 연자동 화전민 가옥

- 제주도 화전민 가옥은 강원도와 달리 돌을 이용해 만든 집이었다. 서홍동 '추억의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현재 사유지로 변한 생기동 화전마을 터 근처에 화전민 가옥의 흔적과 화전민 올레를 복원해 놓았다.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돌들을 이용해 집 벽과 올레길을 만들었으며, 특히 야생 동물들(멧돼지 등)이 마을과 화전 경작지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돌담을 쌓았다.
- 연자동의 화전민 가옥은 주로 삼 칸으로 된 초가집이었다. 초가는 보통 큰방(안쪽에 고평), 마루(마루에 부섭[돌화로]), 작은방(작은방 안쪽에는 정지)으로 이루어졌다. 벽은 돌로 쌓고(한 단 쌓고 흙으로 덮고 다시 한 단 올리는 식) 부드러운 흙으로 마무리하였다. 마당은 농사 수확물을 쌓아 놓는 곳이기 때문에 200~300평 정도로 큰 편이었다¹⁰⁾.
- 작은방 옆쪽에는 '돗통'(돼지우리)이 있었다. 돋통에는 돼지 1~2마리가 사육되었고, '돗거름'이 생산됐다. 집 안쪽의 '쉐막'(외양간)은 크기가 컸다. 이 쉐막에는 본인 소유의 소와 아랫마을에서 맡아 키우던 10여 마리 소가 있었다. 쉐막 한쪽엔 방 꾸며 찾아오는 손님이나 소 돌보는 사람이 머물렀다.

(2) 능화동 화전민 가옥

- 이치카와 상기(市川三喜)가 「濟州島紀行」(1905년)에 기록한 능화동 화전 가옥에는 아궁이가 별도로 없었다. 땅바닥을 움푹 파서 2間 정도(정지+방)로 만든 '더러운' 오막살이 구조였다. 능화동은 면적이 적어 집의 규모를 크게 할 수 없어 화전 가옥은 아궁이 없는 정지(부엌)에서 감저를 구워 먹고 바로 정지와 연결된 방에서 잠을 자는 구조였다.

(3) 봉성리 솔도 화전민 가옥

- 1960년대 솔도에는 20여 가구가 있었으며 대부분 초가였다. 벽 재료는 돌이었으며, 2칸 집 또는 3칸 집이 있었다. 취사용 정지(부엌)와 취침용 방은 필수 공간이었고, 상방(마루)과 고평은 3칸 집에서 볼 수 있었다.

10)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전계서, p. 143.

3-2. 화전민의 사냥 문화

- 『제주도의 전통문화』(제주도교육청, 1996)를 보면, 화전민들은 단백질 섭취와 틸가죽을 얻기 위해 틈틈이 사냥했음을 알 수 있다. 사냥꾼을 달리 “사농바치”, “산쟁이”, “산포수”라고 불렀다. 사농바치들은 산속의 지리, 날씨 변화, 산짐승의 서식지와 속성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 화전민들은 혼자서 사냥개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총이나 올가미, 뒷, 창 등의 도구를 이용해 사냥했다. 총과 올가미(코)는 노루, 꿩을 잡을 때 이용했다. 겨울이 되면 화전민들은 꿩코나 노리코를 만들어 꿩과 노루가 잘 다니는 길목에 설치했다. 족제비는 족덕(족제비 뒷)을 이용해 잡았다. 지다리(오소리) 잡을 때는 창을 이용했다. 지다리는 주로 땅굴을 파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굴속에 있는 것을 찔러 잡을 때 창을 사용했다.
- 화전민들은 노루사냥 할 때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가죽 감티’를 머리에 썼다. 가죽 감티는 지다리 가죽(최상의 재료), 개가죽, 노루 가죽을 이용해 만들었다. 가죽 조각을 가죽으로 만든 끈이나 말총으로 만든 가죽 두루마기 입고 사냥을 하기도 했다. 가죽 재료는 개가죽, 쇠가죽, 노루 가죽, 토끼 털, 지다리 가죽이었다. 가볍고 보온성이 컸으며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개가죽을 주로 활용해 가죽 두루마기를 제작했다. 가죽 발레는 허벅 다리까지 끼게 만든 일종의 가죽 각반으로, 사냥꾼의 하의 차림으로 가죽 발레를 착용했다. 가죽 버선은 털을 제거한 소가죽, 개가죽으로 만들었다. 약도리(약돌기)는 노끈으로 만든 동고량 주머니이며, 이것은 대나무로 제작한 도시락 차롱을 말한다¹¹⁾.

11) 고광민(1996), “제5장 수렵기술”, 『제주도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pp. 320~324.

V. 활용방안 및 정책제언

1. 화전에 대한 역사적 의미 찾기

-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고 부딪치며 자신이 사는 곳에 ‘주거’의 의미를 담는다. 문화자원은 그러한 ‘주거’ 과정에서 삶의 본질을 찾는다. 이는 그 지역의 역사성을 보여주게 된다. 나아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긍지와 소속감을 심어주는 공동체적 역할을 한다. 그런 문화자원이 보존되고 가치 있는 상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주에 사는 대부분은 제주 화전과 화전민, 화전마을에 대한 아무런 역사적 지식이나 사소한 관심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소농 선생은 다음과 같이 화전, 화전민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제주인은 화전민의 후예인 셈이요, 또 화전민의 피가 우리의 핏줄 한 가닥에 흐르고 있다고 봐도 망언이 아닐 것이다. 화전이야말로 아무런 꺼릴 것도 구애받을 일도 없는 순박하고 무구한 착하디착한 자연인 그대로의 삶이었다.

무엇을 얻기를 바라서 하였다가 얻지 못하면 근심거리가 되고 얻어지지 않기를 바라다가 얻어지면 또 근심거리가 됨을 화전농에서 배울 수가 있다.”

- 이에서 보면 제주지역의 화전과 화전민은 부인할 수 없는 제주 사회와 제주도민의 역사적 DNA라고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외면하고 모르는 척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제주 근현대사를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제주 화전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그에 대한 역사적 인식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의 화전은 중산간의 국마장 지대 내 또는 국마장과 한라산 밀림지대의 경계부에 축조되었던 상잣성 이상 지역에 대한 개척사이면서 산간지대 생활사를 구명(究明)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이다. 따라서 제주 화전에 관한 체계적 연구와 조사를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한 기초단계인 제주도 화전 문화 발굴과 적용은 화전마을과 화전민의 삶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제주 화전 문화를 기초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등을 통해 제주 화전과 화전민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나아가 잃어버린 역사의 파편들을 되찾아 제대로 된 제주 근현대사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그 역사적 기억 찾기에 모두 나서야 하겠다.

2. 제주도 화전 문화콘텐츠 발굴

- 그동안 제주지역 화전과 화전마을, 화전민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아주 낮은 편이다. 이에는 구한말 몇 차례의 제주 민란과 ‘제주 4.3’ 등으로 인해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왜곡된 개인적 악몽들이 한몫하고 있다. 이와 달리 화전이 있었던 다른 지역, 특히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산간지역 시, 군 지자체에서는 화전민 생활이나 문화를 포함해 화전민의 여러 면을 다시 부각하여 화전마을로 복원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그곳에서는 화전민의 생활상과 지역 문화를 보존하는 한편 조상의 지혜와 슬기, 여유와 애환 등, 조상들이 남긴 여러 문화유산을 역사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하고 있다.
- 현재 제주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상황이지만, 화전에는 과거에 화전 밭을 경작했던 화전민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주거, 생산도구 등을 통해 화전마을 주민들이 협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모습, 화전지역에서 생긴 독특한 노동협동 체제, 제주지역 특유의 농사와 목축의 교체 생산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생활문화 등을 엿볼 수 있다(정연학, 2006).
- 나아가 화전 농업의 기술실천 과정에는 고대적인 이동 농경 중심의 자연적응과 자연이용 지식이 숙전지(熟田地) 농업기술과 다른 체계로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영농지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 사회·경제적 조건이 열악했던 농민들 사이에서 경험적으로 축적되면서 전승되어왔다. 화전 농업에는 수렵이나 채집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이행한 초기 집단적 인력노동 위주의 농업문화와 기술, 지식이 잘 남아 있다(배영동, 2013).
- 이같이 다양한 면에서 화전과 화전민을 고찰하고 이를 활용하여 화전마을을 복원한다면¹⁾ 이를 복원된 화전마을을 다양하고 효율적인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화전, 화전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할 수 있다(윤석산, 2009).

1) 이러한 작업은 메타버스, 홀로그램 같은 가상현실로도 구현 가능하다.

- 실제로 충청북도 단양군은 지난 2010년 “소백산 화전체험 테마 숲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²⁾ 옛 화전민의 삶과 애환을 체험해볼 수 있는 화전민촌을 복원했다. 현재 소백산 화전민촌 화전 민가 9동, 정감록 명당 체험 마을 15동, 소백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 휴양관 2동 15실과 숲속의 집 10동으로 모두 49개 객실의 산림휴양 시설을 운영 중이다. 소백산 화전민촌은 39~78㎡의 너와집 5동과 초가집 3동, 기와집 1동 등 모두 9동이 있으며 탈곡기와 디딜방아, 물지게 등 책에서 보던 옛 농기구가 있다. 화전민들이 살았던 옛터를 복원하고 정리해 관광객을 위한 체험 공간 및 숙소로 탈바꿈한 화전민촌은 옛 화전민의 삶을 느끼며 일반 숙소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경험 할 수 있다.
 - 아울러 경상북도 영양군에서는 영양군 입암면에 <영양 산촌 생활박물관>³⁾을 조성하여 화전, 화전 경작, 화전 역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곳에 전통생활체험관을 만들어 굽피집, 농사, 쟁기질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화전마을 복원사업은 이제 그 지역의 지역 특성을 살리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에 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화전민이 지녔던 여러 면모를 고려하여 화전민 복원에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육이 될 수 있다(단양군청, 2010).
- ① 화전민들이 행하였던 특이한 농사방법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가 지난 특성이나 면모를 설명한다.
 - ② 화전민이 살던 다양한 집, 또는 화전민이 사용하던 농기구나 생활용품을 복원하여 전시한다.
 - ③ 화전민이 행하던 민속신앙을 복원한다. 예를 들면 마을 당이나 신목 등을 복원시켜 마을 입구에 전시한다.
 - ④ 화전민들에게서 취재한 민속자료, 민요나 전설 등을 복원한다.
 - ⑤ 산속 들어와 화전민 된 자들에 대한 사상이나 가치를 부각할 수 있다.
 - ⑥ 역사적 사실로 보아 부패한 관료의 횡포나 외세 침략 등, 혼란과 전쟁으로 인하여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화전민이 되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화전, 화전민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 슬픔과 아픔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 민란과의 연관성을 고찰함으로써 화전민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근대 사회경제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s://www.danyang.go.kr>)

3) 영양 산촌 생활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yyg.go.kr/museum>)

- 한편 제주지역 화전과 화전민을 바탕으로 하는 제주 화전 문화의 발굴과 적용은 역사와 문화, 문화자원과 IT 기술,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등을 융합한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광산업은 그 중심에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 화전 문화 발굴과 활용은 크게 문화콘텐츠 발굴과 다크 투어리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문화콘텐츠란 곧 문화 원형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형성, 잠재성, 활용성 같은 가치를 찾아내어 매체와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 창조과정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지역의 역사문화로 생각할 수 있는 자원은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민의 생활을 잘 나타내거나 지역민의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어야 한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로 재탄생 시키려는 노력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보편화시킬 수 있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으로 여길 수 있는 역사, 역사적 인물, 전설이나 설화 등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특색있는 문화유산을 가치 있는 문화로 만들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곧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백은영, 2020).
- 문화자원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환경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과 맞춰 살아가는 고유한 방식이다. 즉 사람들은 환경과 만나고 부딪치며 자신이 사는 곳에 ‘거주’의 의미를 담는다. 문화자원은 그러한 ‘거주’의 과정에서 삶의 본질을 찾고 그것을 더 높은 가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지역 역사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긍지와 소속감을 심어주는 공동체적 역할도 수행한다.
- 그리고 문화자원은 그 지역에 남아있는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과 같이 본래 존재하던 역사의 흔적들과 그 흔적들을 활용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재와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문화자원이 보존되고 가치 있는 상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또 한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자원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미한 문화적 요소의 체화과정을 통해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경제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제주지역에 적용한다면 제주 화전과 화전마을을 고유한 제주의 역사자원으로 가치 매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이렇듯 제주 화전과 화전마을을 제주의 고유한 역사자원으로 삼아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전마을 복원이나 화전(농경)체험관 설치, 화전 문화 축제 등이 시급하다. 이를 통하여 화전 문화와 화전 농경을 체험할 수 있다⁴⁾. 구체적으로 보면, 화전민

들의 살던 농막 같은 주거 생활, 메밀 등 식생활, 테우리, 방애, 숯 굽기, 사농바치, 약초 캐기 같은 부업활동 등을 체험함으로써 제주 화전과 화전 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넓힐 수 있다. 이는 제주 근현대사의 어그러진 조각과 파편들을 다시 모아 새로 맞추고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같은 시도는 IT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에서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공간 구축이다. 옛 화전마을과 화전길, 숯가마, 계단식 밭 등을 드론 혹은 3D나 4D 입체 촬영하고, 거기에 이전 촬영된 시대별 항공사진을 디지털화하여 첨가하면 화전마을의 역사적 변화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화전 문화를 스토리텔링한 콘텐츠 기반 가상공간에서 화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가상공간의 체험은 오프라인 방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

2-1. 화전민 문화콘텐츠 제작

- 화전 개척 방식과 농업문화 콘텐츠 자료: A. 화전 농업의 5단계- ① 화전 장소 선정하기, ② 삼림 제거하기, ③ 화입 하기, ④ 농작물 심기, ⑤ 휴경하기, B. 화전농작물: 보리와 감자(지슬), 콩, 팥, 피 재배법
- 화전민 목축문화 콘텐츠 자료: A. 삯쉐 기르기-여름철 농경이 끝난 후 해안마을 주민들의 소와 말을 위탁관리, 우마 1두당 보리 2~3말 받아 생계유지. B. 밭갈이에 필수적인 소 기르기: 목장에 방목 또는 번쉐 이용. C. 상산 방목하기-해발 1400m 이상의 상산인 큰 두레왓, 백록담 등으로 소나 말 옮겨 방목하기
- 화전민 숯 굽기 문화콘텐츠 자료: 화전민 거주지가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여서 집난방용, 음식 조리용으로 숯 굽기가 행해졌음. 애월읍 봉성리 솔도와 안덕면 광평리 주민들은 숯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인구가 많았던 모슬포에서 판매해 수익을 올렸음. 숯을 굽는 절차, 숯 굽기 용 목재, 숯 굽는 주민과 국립공원 산림감시원 간의 갈등 존재
- 화전민 약초 문화콘텐츠 자료: 약초는 건강관리, 질병 치료제로 이용되어 화전민들은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약초를 캐어 밀렸다가 판매했다. 오름이나 한라산 정상부 그리고 하천 변에 자생하던 약초를 채취했다. 엉겅퀴, 칡뿌리, 구지뽕 나무뿌리, 오미자 등을 채취해 팔았다.

4) 제주 민예총에서는 무등이왓에서 동네 주민들로부터 '제주 4.3' 당시 집터를 빌려, 그곳에 조를 심어 키웠다. 동광마을 주민들과 함께 씨도 뿌리고 검질도 매며 조를 거뒀다. 그 수확물로 빚은 숯은 제주 4.3 평화재단에 전달해 '제주 4.3' 때 돌아가신 삼만 영혼 영신님 신전에 올렸다.

- 화전민 촌락과 가옥문화 콘텐츠 자료: 1800년대 말 『제주군읍지』 「제주지도」(1899)에 등장한 9개 화전동(제주목 4개, 대정현 3개, 정의현 2개)의 위치 특성, 능화동과 솔도의 화전민 가옥특성과 내부 공간구조, 강원도 화전민 가옥과 제주도 화전민 가옥 비교, 화전민 가옥의 벽과 지붕 재료
- 화전민 음식문화 콘텐츠 자료: 화전민들의 보리, 콩, 메밀, 감자 등을 활용한 음식 레시피 개발
- 화전민 복식문화 콘텐츠 자료: 화전민들의 일상생활과 사냥용 복장(개털로 만든 모자와 외투 등), 가죽 감티, 가죽 발래

2-2. 화전민 생활사 스토리텔링 자료개발

- 제주지역 화전민, 화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설(이야기 등)이 비교적 적으나, 일부 남아있는 전설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화전민의 생활사를 밝히는 콘텐츠로 만들 필요가 있다.

화전민(1): 화전민은 산에 가서 아무데나 임자 없는 밭인 된밭을 일구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옛날 방애오름 앞에 화전 하는 이 서방네 친척들 서너 집이 모여서 살았다. 이 사람들은 삼사 대가 되어가도 집들이 불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아니하여서 하였는데. 다시 정의고을 신효리 월라산(월라봉) 앞에도 화전민 서너 가호가 있어서 사는데. 차차 가호가 불어나니까 아랫마을로 내려와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면 이 화전민들은 사돈도 자기네끼리만 하면서 사니까 이 두 화전 동네는 모두 가지 사돈(겹사돈)들이니까 명질 때가 다가와서 추렴을 하게 되어도 이 두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같이 어울려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동네에서는 봄에 잡은 소고기나 말고기도 여름까지 두어서도 절대 썩거나 쉬지 않아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화전민에게 없는 것이라고는 소금과 무명 베인데 이러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있는 말가죽, 소가죽을 말려서 가서 바꿔다가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예법 차림이 없이 그냥 평장으로 묻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네 할아버지 묘도 잊어버리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말하기를 선묘에 소분 안 하는 불효한 놈들 보면 “화전 백성 닮은 놈”이라고 말합니다(구술자: 1960.1.20. 성산면 성산리 71세, 남 김두옥).⁵⁾

- 내용분석: ① 화전민은 산에 가서 아무 곳에나 임자 없는 밭을 일구면서 사는 사람들이

5) 진성기(2018), 『제주 토속적 옛말』(제주대학교박물관문화총서 3), 제주대학교박물관, pp. 369–371.

었음. ② 화전을 달리 ‘된밧’이라고 불렸다. ③ 방애오름(동홍동 해발 1699m, 제보자가 오름 이름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음)과 신효동 월라봉 앞에 각각 화전 하는 집이 3~4호 정도 있었다. ④ 두 화전마을 주민들은 자기네끼리 혼인 관계를 형성하여 모두 가지 사돈들이 되어 명절 때 추렴도 같이했다. ⑤ 봄에 잡은 소고기나 말고기도 여름까지 두 어서도 썩거나 쉬지 않았다는 점은 두 화전마을이 해발고도가 높은 장소에 있기에 기온이 낮아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⑥ 화전민에게는 생활에 필수적인 소금과 무명베가 없어서 말린 소가죽과 말가죽으로 바꿔다가 썼다. ⑦ 화전민들은 죽으면 예법을 차리지 않고 평장(平葬)을 한 결과 조상 묘를 잊어버려 조상에게 “불효한 놈”이라고 욕먹는 경우가 있었다.

화전민(2): 옛날 정의 직세(남원읍 하례2리 학림동) 위 선돌에 화전 하는 사람이 살았다 (선돌앞)은 '평대진전(坪垈陳田)/벵듸진밧에 해당, 오늘날은 '입석동'(立石洞). 염돈(용흥동) 위 방애오름 앞에 화전 하는 사람 살았습니다.

이 두 화전 하는 사람들끼리는 두 집 사이가 아주 멀어서 여섯 참이나 되는 먼 거리지만 어떻게나 좋은지 아주 가까운 이웃같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화전 하면서 어려운 살림에도 가끔 맛있는 음식을 하면 서로 맛보라고 가져다주었으며, 오가다 노루나 멧돼지라도 사냥하여 져서 먹게 되면 서로 나눠 먹고 다시 어떤 길 잃은 송아지나 망아지가 있으면 주워 다가 같이 나눠 기르고 하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바빠서 놀지를 못해도 그렇게 하다가도 가끔 밤이 심심하고 야심할 때 서로 놀러도 다니는데 그 두 집 거리가 멀어서 두 시간이나 걸어가고 오곤 하였습니다. 이때 두 집에서는 서로 밤길에 놀다 갈 땐 그 가는 친구 전송으로 절반 같 때까지는 데려다주곤 하면서 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사삼 사태를 당하니까 모두 이주시켜서 아랫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사태가 먼지 사람 사는 정까지도 갈라버린 것입니다(구술자: 1962.7.22. 남원면 공천도, 76세 남, 김대옥)⁶⁾

- 내용분석: ① 화전동은 직세(남원읍 하례2리 학림동) 위 선돌앞(坪垈陳田, 立石洞)과 염돈(용흥동) 위 방애오름(위치 오류, 실제는 弓山(활오름)에 해당)에 있었다. ② 두 화전 마을은 거리가 아주 멀어서 여섯 참이나 되지만 그래도 매우 가까운 이웃같이 친하게 지냈으며, 화전 하면서 어려운 살림에도 가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가져다주며 맛보게 했다. ③ 오가다 노루나 멧돼지라도 사냥하여 져서 먹게 되면 서로 나눠 먹고 다시 길 잃은 송아지나 망아지가 있으면 같이 나눠 길렀다. 화전민들 간에서는 상호 의지하고 연락 하며 지내는 등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6) 진성기(2018), 상계서, pp. 539~540.

2-3. 화전세와 민란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제작

- 19세기 후반 제주지역에도 화전이 확대되면서 정부에서는 지방관아 재정을 메우기 위해 화전세(火田稅)를 징수했다. 당시 화전민들이 중산간 목장지대에 들어가 개척한 토지는 국가 소유였지만 영구경작권을 인정받아 생활할 수 있었다. 정부의 과도한 화전세 징수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던 제주의 민란으로는 강제검의 난(1862)과 방성칠의 난(1898)이 대표적이다. 제주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었던 민란의 발생 배경과 전개과정을 영화나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 등 영상 콘텐츠로 제작할 경우 제주역사 이해에 매우 유용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 강제검(姜悌儉)의 난(1862) 콘텐츠 자료: ① 진주민란(1862) ② 등장인물-대정현 자단리 조만송(趙萬松), 장환(張煥), 덕수리 김석란, 광청리 김두일, 대정현 강제검과 제주목 봉개리 출신 김흥채, 박흥렬 등, 제주 목사 임현대(任憲大)와 정기원, 제주안핵겸찰리사 이건필 ③ 민란 처리문서(제주목안핵장계등록) ④ 발생원인-목장토를 개간한 빈곤층에게 화전세와 목장세 과다징수
- 방성칠(房星七)의 난(1898) 콘텐츠 자료: ① 발생원인-1898년 2~3월 제주 목사 이병휘(李秉輝)의 화전세, 마장세, 목장세 수탈 ② 주동자: 전남 동복 출신 방성칠, 남학당(南學黨) 간부 강벽곡, 정세마, 강제평, 김안일 등 ③ 민란기록 문헌-김윤식의 『속음청사』, 『승정원일기』 ④ 성격-새로운 조세개혁을 위한 조세저항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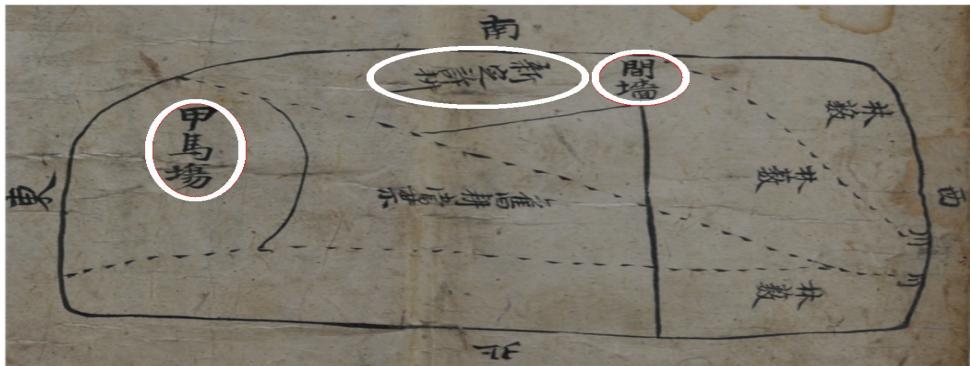
2-4. 화전민 목축문화 콘텐츠제작

- 19세기 후반 제주지역 화전민의 개척 무대는 조선 시대 국마장(國馬場)과 산마장(山馬場)이었으며, 『제주군읍지』『제주지도』(1899)에 나타난 9개 화전동은 모두 상잣성 이상 지역에 있다. 화전민들은 보리나 감자를 재배하기 위해 밭갈이가 중요했기 때문에 집마다 소 1두 이상을 길렀다. 또 해변 마을 또는 하잣성 아래 위치했던 큰 마을주민들이 위탁관리를 맡겼던 우마들을 대상으로 위탁료를 받아 생계에 이용했다. 화전민 목축문화 콘텐츠 자료에는 국마장, 산마장, 잣성, 밭갈쉐, 번쉐, 삶쉐 등이 있었다.
- 국마장과 화전 콘텐츠 자료: ① 형성원인-조선 시대 제주도 국마장은 고려말 몽골(원제국)이 설치해 100년 가까이 운영했던 탐라목장을 계승했다. 1429년 제주도 출신 고득종이 세종에게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안지대 목초 부족 문제, 명나라 제주마 진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마장 설치를 건의 ② 국마장 정비-16세기~19세기에

소빙기가 계속되면서 기온이 내려가 국마장에서 말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국마 수가 감소하는 등 국마장 운영이 사실상 방치상태에서 부임한 이형상과 송정규 목사가 국마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③ 1704년 송정규 목사는 제주도 국마장을 10개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조정해 건의하여 윤허를 받은 후 1705년부터 국마장을 10개로 통폐합하여 십소장(十所場, 10개 대규모 목장을 지칭)였다. 제주목에는 1소부터 6소까지, 대정현에는 7소와 8소, 정의현에는 9소와 10소를 배치했다. ④ 국마장 운영-제주 판관(1소~6소 감목), 대정 현감(7소, 8소 감목), 정의 현감(9소, 10소)이 감목관을 맡았으며, 감목관 밑에는 1개의 소장을 책임질 마감(1명 또는 2명)을 두었음. 1명의 마감 밑에는 군두, 군부, 목자(牧子)들이 있었다. ⑤ 공마-국마장에서 생산된 우수한 말들은 주기적으로 어승마, 정조마, 차비마, 전마 등으로 공마되었다.

- 산마장과 화전 콘텐츠 자료: ① 형성배경-산마장은 1659년(효종 10) 제주 목사 이괴가 임금의 윤허를 받아 설치한 특별목장으로, 현마 공신 김만일 후손들이 길었던 우수한 말들을 사들여 조성한 것이다. 제주 동남부 중산간 지역에 자리 잡았던 산마장은 숙종 연간에 녹산장(鹿山場), 상장(上場), 침장(針場)으로 구분되었다. ② 「산마목장신정절목」(1794)과 목장토 화전: 18세기 말에도 제주도민들은 국마장 지대에서 목장토를 개간해 경작했음이 1794년 심낙수 어사가 작성한 「산마목장신정절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각기 목장마다 허경(許耕) 구역이 있었고, 특히 녹산장을 그린 지도에는 목장토를 활용한 농경 흔적인 「구경당금(舊耕當禁)」과 「신정허경(新定許耕)」, 갑마장(甲馬場) 그리고 산마장 내 구분 돌담인 간장(間牆)이 등장한다. 구경당금 구역은 한때 경작이 이루어졌으나 경작을 금하여 목축했던 장소이며, 신정허경 구역은 새롭게 경작지로 허용된 장소를 의미한다. ③ 주민들이 산마장 내 있던 목장토를 활용해 농사짓는 것을 허용한 대신에 세금(場火稅, 牧場稅)을 징수해 목장 운영비로 쓰도록 했음. 목장토의 개척은 바로 목장 내 화전 통한 농경지화를 의미한다.
- 상잣성과 화전 콘텐츠 자료: ① 조선 시대 제주도 국영목장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현존하는 유적(물)으로 가장 대표적 잣성은 국마장 즉 십소장(十所場)의 상, 하 경계선 나타내는 목축역사유적임. 본래 ‘잣’이란 성(城)을 의미하는 주민들은 ‘잣담’이라고 불렸으며, 잣성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지형도에 등장했다. ② 잣성을 기록한 『제주계록』(1846~1884)에는 잣성을 ‘장원(牆垣)’으로 기록했다. 여기에 ‘上下牆垣’이 등장해 당시 까지 중잣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할 수 있다. 잣성은 위치에 따라 해발 150m~250m 일대 하잣성, 해발 450m~600m 일대 상잣성 해발 350m~400m 일대 중잣성으로 구분되었으며, 목마장 관리하는 해당 감목 관처에서 마을주민 동원하여 잣성을 새로 쌓거나 보수했음. 19세기 제주 화전동은 상잣 위쪽 위치한다.

〈그림 5-1〉 산장절목(1774)에 등장한 녹산장과 갑마장



- 밭갈쉐, 번쉐, 샷쉐 콘텐츠 자료: ① 화전민들도 보리와 감자 농사를 위해 밭을 갈아야 했기 때문에 ‘밭갈쉐’(耕牛)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 암소도 밭갈이에 투입했으나, 대부분 힘이 강한 수소가 자갈과 억새 뿌리가 많았던 토양환경에서 적격이었다. ② ‘번쉐’는 이웃끼리 순번을 정해 참여 농가의 소를 몰아다가 방목지에서 먹이던 소였다. ‘조불리기’가 끝나면, 소를 농사에 이용할 일이 없어지므로, 이웃끼리 ‘번쉐’를 하였다. ③ 샷쉐는 해안마을의 소들을 목축지가 있던 중산간 마을(화전마을)에 위탁 관리했던 소를 의미한다. 애월읍 봉성리 솔도 화전동과 안덕면 상천리, 서귀포시 서홍동과 동홍동 화전 마을에서도 샷쉐 목축이 행해졌다. 두당 보리 2~3말을 위탁료 받아 생계 유지했다. 특히 기후로 인해 보리 재배가 불가능했던 봉성리 화전동(솔도) 주민들은 소 위탁료 보리 쌀로 받아 식량문제 해결했다.
- 상산 방목 콘텐츠 자료: 제주지역에서는 해발 14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방목 이루 어졌으며, 이를 “상산에 올린다”라고 했다. 이것을 상산 방목이라고 했으며, 주로 여름 철 행해졌다. 상산(1400~1950m)은 해발고도가 높아 여름철 기온 낮고 바람 많아 진드기 피해가 적은 곳이다. 상산 방목은 한라산 산정부 지형과 기후 및 식생 환경을 인식 한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화전민도 자신 거주지 이상 큰 두레왓 등 상산으로 소 옮겨 방목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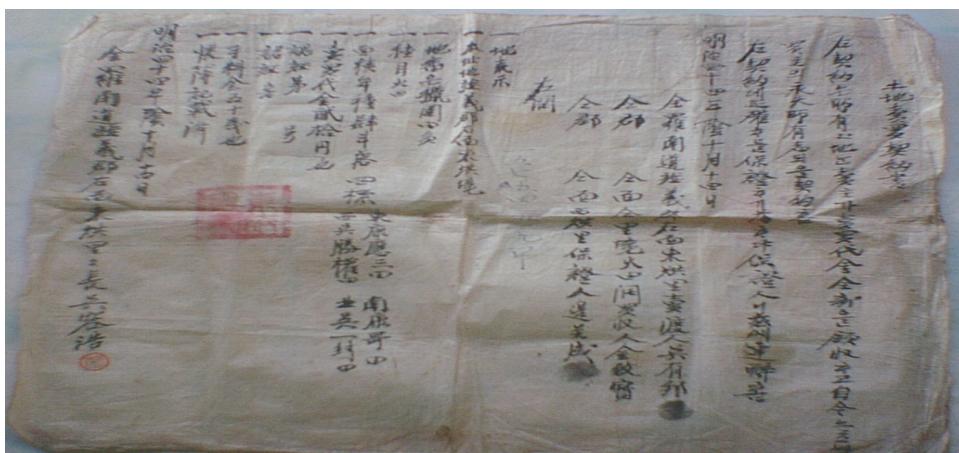
7) 강만익(2013),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 민속과 소멸”, 『탐라문화』 43호, pp. 137-195.

2-5. 화전 고문서 아카이빙 구축

(1) 화전 매매 고문서 활용

- 화전동과 화전 매매에 대한 고문서들을 수집해 디지털화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한 후 화전연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귀포시 동홍동에는 화전 토지매매문서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다. 1911년(명치 44년)에 작성된 이 문서에는 매도인, 보증인, 이장 실명이 등장하며 토지거래 내력이 구체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 가치 인정되는 고문서에 해당한다.

〈그림 5-2〉 동홍동 화전토지 매매문서(1911)



土地賣買契約書

右契約은 所有土地는 賣主가 賣買代金 全額을 領收하고 自今으로부터 買主의 永久所有者되을 契約함

右契約에 正確함을 保證하기 為하야 保證人이 茲에 捻印함

明治 四十四年 陰十月十四日

全羅南道 旌義郡 右面 東烘里 賣渡人 吳有邦(수결)

全面 全里 □火田洞 買收人 金致寶

全面 西烘里 保證人 邊義成(수결)

右間

一 地表示 : 一五七五□ 五□九平

一 本據地 : 旌義郡 右面 東烘□

一 地番은 □□田員

一 種目 : 火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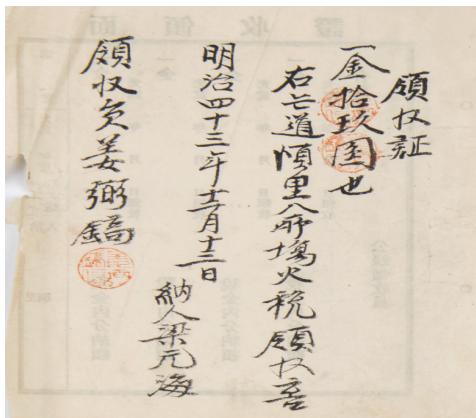
一 面積 : 牟種肆斗落 四標 東 康應三田 西 吳勝棋田 南 康哥田 北吳一封田

一 賣買代金 : 貳拾円也
 一 認證 : 第 号
 一 認證 喜
 一 手料金 : 五十錢也
 一 帳簿記載所
 明治 四十四年 陰十月十四日
 全羅南道 旌義郡 右面 東烘里 里長 吳容浩(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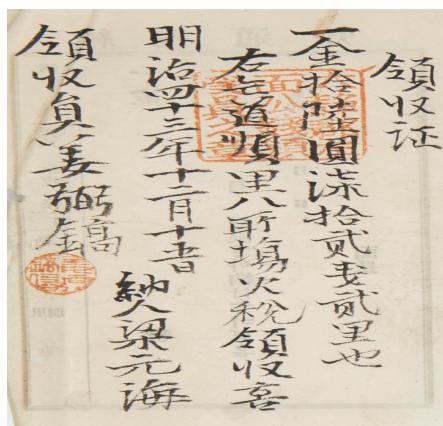
- 위 「土地賣買契約書」는 1911년(명치 44년) 음력 10월 14일에 작성된 문서로, 전라남도 정의군 우면 동홍리 매도인 오유방(吳有邦)과 동홍리 화전동 매수인 김치보(金致寶) 간의 토지매매 상황을 기록했다.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토지매매 보증인은 서홍리(西烘里) 변의성(邊義成)씨 였다. 구체적인 토지매매 대상 종목이 '火田'으로 나타나 화전도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면적은 모종(牟種: 보리씨) 4두락(斗落) 즉 4마지기로, 이것은 보리 씨앗을 파종하는 1200평(1마지기, 약 밭 300평) 정도를 의미한다. 매매가 이루어진 화전의 위치는 당시 토지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지칭하는 사표(四標)을 이용해 위치를 표현한바, 해당 밭의 동쪽에는 康應三田, 서쪽에는 吳勝構田, 남쪽에는 康哥田, 북쪽은 吳一封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대매대금은 20엔이었으며, 수료금은 50전이었다.

(2) 화전세 영수증 활용

- 서귀포시 도순마을 주민들은 조선 후기 8소장 내외에서 화전을 개척했다. 조선 말기 조정에서는 화전민들에게 국마장에서 화전 경작을 허용한 대가로 화전세를 부과했다. 도순마을에 남아있는 화세(火稅) 영수증을 보면, 양원해(梁元海)가 1910년 12월 영수원(領收員)이었던 강필호(姜弼鎬)에게 팔소장 화세로 19원 영수증과 16원 72전 2리를 납부했다. 관아에서는 팔소장 이외 지역에서 이루어진 화전에 대해서도 장화세(場火稅)를 징수했다. 「領收證納高永伯一金肆拾壹圓伍拾捌錢右道順場火稅領收喜 明治四十四年十一月二十八日 領收員 任啓興」 문서는 고영백이 장화세로 1911년 11월 징수원 임계홍에게 41원 58전을 납부했음을 보여준다.



領收證 一金 拾玖圓也 右是道順里八所場
火稅領收書 明治四十三年十二月十三日 納
人 梁元海 領收員 姜弼鎬



領收證 一金 拾陸圓 柒拾貳錢貳毫也 右
是道順里八所場火稅領收 喜 明治四十三
年十二月 十五日 納人 梁元海 領收員
姜弼鎬

〈그림 5-3〉 화세 영수증(1910.12.13.)

〈그림 5-4〉 화세 영수증(1910.12.15.)

(3) 화전에 대한 도전(賭錢) 징수 문서 활용

- 1900년 왕실의 보물·세전(世傳)·장원(莊園) 등의 재산을 관리하던 내장원(內藏院)이 제주도에 파견한 봉쇄관 강봉현이 작성한 「濟州郡各公土調查成冊」(光武四年, 1900, 규장각도서 도서번호: 2067)에는 제주군의 산장(山場) 지역에서 인근 마을주민들이 새롭게 개간한 화전을 조사해 세금(도전)을 부과했던 기록이 등장한다.

〈그림 5-5〉 「濟州郡各公土調查成冊」(1900)에 기록된 화전과 도전

寧坪火家渠四斗落賠錢四兩	龍南火家渠四斗落賠錢三兩
明德火家渠四斗落賠錢一百三兩	橋東火家渠四斗落賠錢一百三兩
橋東火家渠四斗落賠錢一百三兩	橋東火家渠四斗落賠錢一百三兩
安慶火家渠四斗落賠錢一百三兩	三爾吾等境火家渠四斗落賠錢七十兩
六府界火家渠四斗落賠錢一百三兩	六府界火家渠四斗落賠錢一百三兩
同於首境火家渠四斗落賠錢三斗	同於首境火家渠四斗落賠錢三斗
同於道境火家渠四斗落賠錢三斗	同於道境火家渠四斗落賠錢三斗
合錢一千三十五兩	合錢一千三十五兩
已上都合錢六千萬兩	已上都合錢六千萬兩
加入一千兩	鹿牛百里百稅
合錢七千九百七十四錢七分	合錢七千九百七十四錢七分

- 제주군에서 화전 개척이 이루어졌던 지역(화전민 수/도전(賭錢: 공토를 이용해 농사를 지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으로는 영평(20명/40냥), 월평(65명/130냥), 용강(20명/33냥), 명덕(명도암, 40명/131냥), 교래(50명/281냥), 교래경(100명/77냥), 안좌경(9명/11냥), 삼소장의 오등경(38명/78냥), 육소장(48명/133냥), 육소장의 어음경(8명/38냥)과 어도경(봉성리, 10명/83냥)이 있었다. 11개 장소에서 화전을 일군 408명에게 총 1,035냥을 부과해 징수했다(1냥=10전, 1전=10푼).
- 삼소와 육소는 조선 후기 제주목이 관할 했던 국마장이었다는 점에서 이 자료를 통해 화전이 국마장에서도 행해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 3 소장에서는 오등리 화전민 38명 그리고 6소장에서는 어음리 8명과 어도리 10명, 6 소장 인근 마을주민 또는 다른 지역 출신 48명 등 총 66명이 화전 했다는 점은 1900년 당시 3 소장과 6 소장은 사실상 폐장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 화전에는 대부분 조(栗)을 파종했으나, 교래리 근처 화전에는 기장(稷)을 심기도 했다. 화전 면적은 산출량 단위인 섬(石:1石=10斗)>말(斗:1斗=10升)>되(升:1升=10合)>흡(合)으로 나타냈다. 두락(斗落)은 한말(1斗)의 종자를 파종할 만한 면적으로, 달리 ‘마지기’라고 부른다(섬지기: 1석 파종면적, 되지기: 1승 파종면적).

3. 화전 문화체험과 잃어버린 화전마을 탐방 프로그램 발굴

- 제주도 화전 문화의 발굴과 활용은 크게 문화콘텐츠와 다크 투어리즘으로 나눌 수 있다.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전쟁·학살 등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봄으로써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여행’이다. 다크 투어리즘은 죽음에 관한 사색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에 대한 기억, 그에 따른 유물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을 상품화한다는 점에서 유산관광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유산관광은 그곳에서만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 수 있는 특별함이 있기에 유산의 교육적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재미와 교육적 체험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김명혜, 2020).
-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제주 4.3’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정근식 교수는 2006년 ‘4.3 진상규명 운동, 제도화의 문화 자원화’를 발표하면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다크 투어리즘이 넓은 시각에서 일종의 문화유산산업 또는 역사유산산업에 속

한다고 보았다. 그는 문화유산 산업이 기억의 보전을 근거로 형성되며 여기에는 정치적 동기 이외에 경제적 동기와 교육적 동기가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장윤식(2007)은 이재수의 난과 일본군 유적지, 4.3 유적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역사문화관광을 토대로 한국의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평화까지 모색하는 다크 투어리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발판으로 삼아 실제로 2021년 6월 신축 항쟁 120주년을 맞아 도민들을 아우르는 ‘범제주기념사업회’가 출범했다. 신축 항쟁 120주년 기념사업회는 신축 항쟁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신축 항쟁 기념 조형물과 표석 제작, 학술토론회, 장두 추모굿 등 기념행사, 교육 및 출판,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천주교와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정명 찾지 못했으나 2001년 신축 항쟁 100주년 맞아 천주교와 화해 선언 이뤄지며 신축 항쟁의 역사적 의미 새롭게 조명됐다.
- 본문에서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이루어진 ‘초토화 작전’으로 제주지역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제주 4.3’으로 인해 전부 파괴됐거나 소실된 마을공동체는 300여 자연마을, 2만여 호, 4만여 채이다. ‘잃어버린 마을’은 ‘제주 4·3’ 때 집중적인 피해 마을 가운데 일부로서, 주민들이 돌아와 마을을 이전처럼 복원하지 못해 버려지거나 단순 농경지로 바뀌면서 이 이상 마을로 형성되지 않고 사라진 경우를 말한다.
- 1954년 9월, 한라산 금속령이 해제되자 중산간 마을 사람들 상당수는 살던 곳을 찾아 돌아갔다. 그러나 마을로 돌아간 주민들이 다시 농토를 개간하고 새로 집을 복구하고 살기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제주 4·3’ 과정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아픈 흔적이 오롯이 남아있어 주민이 복귀하기를 꺼렸다. 중산간 마을에 살던 사람 중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 많았으며, 해안지대로 소개되어 각지 분산되어 정착한 주민들이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가기 어려웠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 결국 ‘제주 4·3’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난민정착 복구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원래 마을주민들이 복귀하지 않아 이제는 폐허가 되어 버린 마을들이 제주 도내 곳곳에 생겨났다. 바로 ‘잃어버린 마을’이다(제주4·3사건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1998)).
- 2021년 ‘제주 4·3 연구소’의 추가진상 조사 결과, 2019년 현재까지 제주 도내에서 총 134개 잃어버린 자연마을 확인되었다. 지역별로 제주읍이 34개로 가장 많고, 다음 애월면(29개), 조천면(15개), 남원면(12개), 안덕면(12개), 한림면(11개), 구좌면(8개), 중문면(7개) 순이다. 이밖에 대정면, 표선면 각각 2개, 성산면, 서귀면 각각 1개씩 잃어버린 자연마을이 확인됐다.

- 1899년 봉세관 강봉현이 화전세 징세 자료로 작성한 『제주삼읍공토조사성책, 州山場新起火田株』에 의하면, 영평(寧坪), 월평(越坪), 용강(龍崗), 명덕(明德, 명도암), 교래(橋來), 교래경(橋來境), 안좌(安坐境, 가시리), 오등(吾等境), 어음(於音境), 어도(於道境, 봉성리) 등 대략 10곳에서 화전세(火粟田)를 징수하였다.
- 아울러 1899년 강봉현이 공토(公土) 집세(執稅)를 위해 작성한 『대정군각공토조사성책, 大靜郡各公土調查成冊』를 보면, 상천(上川境), 광평(廣坪境), 광청(光清境), 서광청(西廣淸), 영남경(瀛南境)에서 목장세(牧場稅)를 징수했음을 알 수 있다⁸⁾.
- 이를 토대로 보면 잃어버린 134개 마을 중에서 40여 개의 중산간 마을이 화전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연마을에는 4~5곳의 소규모 화전민 거주지 있다⁹⁾. 그리고 중간지대 마을이라도 이동형 화전 농사를 지었던 마을이 다수 있다¹⁰⁾.
- 대부분의 ‘잃어버린 마을’에는 지자체와 마을에서 건립한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있다. 현재 리생이, 드르구릉, 어우눌, 죽성, 웃인다, 물터진골, 종남밭, 장기동, 다랑쉬, 다랑쉬굴, 새가름, 버너리굴, 빌레가름, 곤을동, 범미왓, 원동, 고지우영, 자리왓, 빌레못, 웃동네, 하느굴, 하동, 새나무골, 관전, 삼밭구석, 무등이왓, 오리튼물, 하논, 영남동 등의 ‘잃어버린 마을’에는 지자체와 마을에서 건립한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있다. 간혹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없는 원동이나 천서동(냇서왓) 같은 자연마을에는 자체적으로 ‘흔적비’ 같은 표석을 세워 사라져 가는 역사적 기억들을 각인시키고 있다.
- 이곳 중산간 마을 표지석과 흔적비 비문에는 과거 그곳이 화전마을이었으며 주민들이 화전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는 내용이 많다. 따라서 이 잃어버린 화전마을을 단순히 추모하고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크 투어리즘 성지로 승화시키는 노력 필요한 때이다.
- 이와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 현장을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4.3길’을 조성하여 역사현장을 찾아 교훈 삼는 도내·외 탐방객에게 ‘제주 4.3’의 역사를 알리고 있다. 현재 지금까지 조성된 ‘4.3길’은 6곳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동광마을, 의귀마을, 북촌마을, 금악마을, 가시마을, 오라 마을에 만들어졌다. 이들 마을 중 북촌마을을 뺀 나머지 동광마을, 의귀마을, 금악마을, 가시마을, 오라 마을 등은 대표적 잃어버린 화전마을이기도 하다. 2022년 제주도는 도내·외 탐방객들에게 4.3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4.3길’ 추가 개통 필요성이 제기돼 애월읍 소길리와 아라동, 2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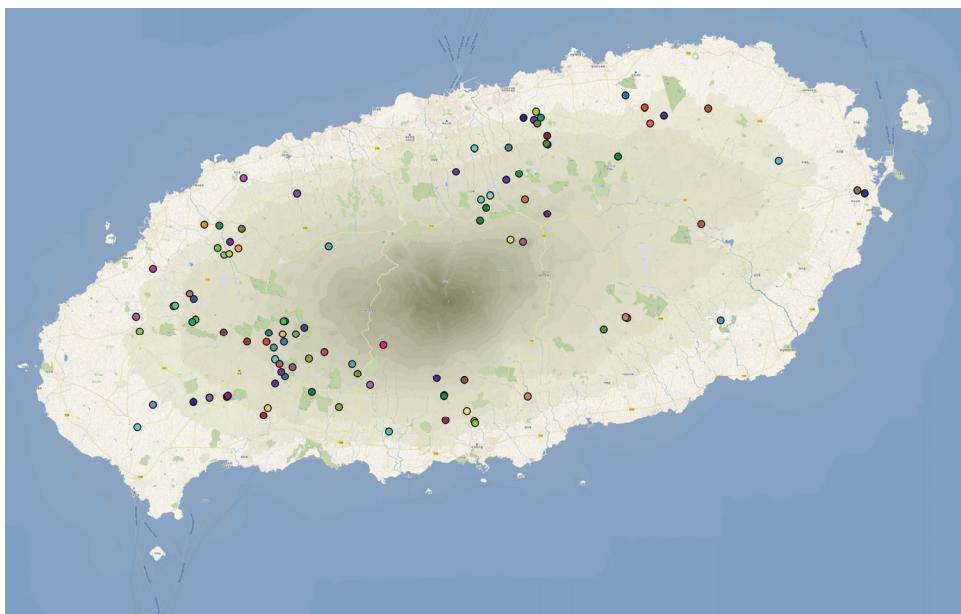
8) 그리고 안성(安城), 덕수(德修), 도순(道順), 강정(江汀)에서 사장(射場稅), 칠소폐장향교(七所廢場鄉校), 단산원향교(簞山員鄉校), 범질원향교(犯叱員鄉校)에서 지세를 징수했다.

9) 예를 들면 광평리에는 조가동, 고장친밭, 조가웨, 조개동, 속굴동산 등이 있었다.

10) 예를 들면 덕수, 도순, 덕천 등이다.

- 그리고 제주 4·3 연구소에서는 매년 ‘도민과 함께 걷는 제주 4·3 역사기행’을 마련하여 참가자와 함께 4·3사건과 관련 유적지 걸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역사 인식 바로 세우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국내에서 제주가 다크 투어리즘 성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 한편 2019년 1월 28일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산림청으로부터 제주지역 숲길센터로 지정된 한라산 둘레길¹¹⁾ 역시 하천과 목장을 끼고 있으며 제주의 문화와 제주인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 둘레길을 걷다 보면 계단식 밭, 상작성, 밭 담, 숯가마 터 등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코스마다 옛 화전마을 터가 멀지 않은 주변에 산재해 있다.
- 이를 발판으로 삼아 제주지역의 화전과 화전민, 화전마을이라는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잃어버린 화전마을’을 복원하고 ‘제주 화전길’을 조성하여 제주 화전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근현대 제주역사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때다.

〈그림 5-6〉 도내 잃어버린 화전마을 분포도



11) 한라산 둘레길은 일제 강점기 병참로(일명 : 하치마키)와 임도, 표고버섯 재배지 운송로 등을 활용하여 2010년부터 조성 시작했으며, 전체구간 80km 중 60.8km 구간 완료했다.

참고문헌

- 강만익(2013),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 민속과 소멸”, 『탐라문화』 43호, 탐라문화연구소.
- 강만익(2017), “제주의 목축문화”, 『제주학개론』,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고광민(1996), “제5장 수렵기술”, 『제주도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 고광민(2016), 『제주생활사』, 한그루.
- 고시홍(1998), “돛 굽는 이야기”, 『제주학』 창간호, 제주학연구소.
- 김명혜(2020), “거제 포로수용소의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상호(1979), “한국농경 문화의 생태학적 연구: 기저 농경문화의 고찰”, 『사회과학논문집』4, 서울대학교.
- 김석익(1918), 『탐라기년(耽羅紀年)』.
- 김양식(1989), “1901년 제주 민란의 재검토”, 『제주도 연구』 제6집, pp. 125~166.
- 김영순(2020), “일제 토지조사사업과 제주도 지세제도 변화연구”, 제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식(1887년 5월 29일~1921년 12월 31일), 『속음청사(續陰晴史)』.
- 남석진(1989), “제주도 전통사회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9호, 탐라문화연구소.
- 남인희(1985), 『제주농업의 백 년』, 태화인쇄사.
- 단양군청(2010), 『화전마을 복원 계획서』, 단양군 소백산 화전체험 테마 숲 운영·관리 조례안.
- 대정군각공토조사성책(大靜郡各公土調查成冊)(1899) 公土(官屯田, 宮房田, 牧場土)
- 문점식(2018), “올바른 세금 제도 갖춘 이상 국가 향한 ‘방성질의 난’”, 조세일보, 2018년 4월 24일 기사
- 민병근(1995), “화전민의 생업 관행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병근(1996), “화전의 역사”, 『한국 민속사 논총』, 지식산업사.
- 박정재 · 진종현(2019), “제주 중산간 지역의 과거 경관 변화와 인간 그리고 오름의 환경사적 의미”, 『대한지리 학회지』 제54권 제2호.
- 배영동(2013), “화전 농업의 기술과 전승지식의 의의”, 『비교민속학』 No. 51, 비교민속학회.
- 백은영, 2020, “제주馬 역사문화 원형과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귀포문화원(2009), 『우리 고장의 설촌 유래』.
- 서귀포문화원(2009), 『서귀포시 지명 유래』.
- 오문복(1987), “화전민들의 생활과 경작형태”, 『星主』 3호, 高氏宗門會總本部.
- 오상학(2004), “조선 시대 제주도 지도 시계열적 고찰”, 『탐라문화』 24,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옥한석(1985), “한국의 화전 농업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제10집, 국토지리학회.
- 윤석산(2009), “화전민 연구 화전마을 복원을 위한 제언”, 『한국언어문화』 No 40, 언어문화학회.
- 이혜경(1987), “1901년 제주 민란의 역사적 고찰”, 『녹우회보』 No 29, 이화여자대 사회생활과.
- 林根周(1932), “朝鮮林政より見たふ火田問題”, 『수원고등학교 창립 25주년 기념 논문집』.

정광중(1998), “제주도의 전작 농경문화”, 『제주도사연구』 Vol. 7, 제주도사연구회.

정연학(2006), “화전민의 농경문화”, 『極東先史古代の穀物』 2(小畠弘己 編), 熊本大學.

정초변효문 지음, 이병희 옮김(2018), 『농사작설: 풍토가 다르면 농법도 다르다』, 아카넷.

『濟州郡邑誌』 「제주지도」(1899).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도의 전통문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1996), 『제주의 옛 지도』.

濟州島廳(1937), 『濟州島勢要覽』.

濟州島廳(1939), 『濟州島勢要覽』.

제주 4.3 연구소(2021), 『제주 4.3 유적』.

제주 4·3사건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1998),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 4.3 추가진상 보고서』.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아카이브(<http://43archives.or.kr>) 4.3 유적지.

제주 4·3 평화재단(2020), 『제주 4.3 추가진상 보고서』.

제주삼읍공토조사성책, 州山場新起火田株(1899).

제주연구원(2017), 『제주문화원형–설화편』.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의 마을(<https://jeju.go.kr/index.htm>)

진관훈(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도서출판 각.

진관훈, 2022, 『제주의 화전 생활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 연합회.

진성기(2018), 『제주 토속적 옛말』, 제주대학교박물관.

한라일보(2007년 4월 3일~2008년 12월 30일, 총 69회), ‘오승국의 4.3 유적지를 찾아서’

〈마을지〉

구좌읍 세화리(2018), 『세화리지』.

남원읍 하례2리(1994), 『鶴林誌』.

서귀포시 도순마을회(2021), 『도순 마을지』.

안덕면 상천리 마을회(2021), 『안덕면 상천리』, 제일인쇄출판.

오등동향토지편찬위원회(2007), 『오등동 향토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2017), 『구좌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2011), 『조천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2013), 『애월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2008),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2022), 『동홍동 역사문화지』.

〈일본 자료〉

高橋昇(1997), 『朝鮮半島の農法と農民』, 未来社.

橋本傳左衛門(1928), 『火田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久間健一(1950), 『朝鮮農業經營地帶の研究』, 東京農業綜合研究所.

宮塚利雄(1980), “韓國 火田民에 관한 史的 研究”, 『學術論叢』 Vol. 4, 단국대 대학원.

善生永助(1926), 『火田の現状』.

小田内通敏(1923), 『朝鮮の火田民』.

小泉昇平(1917), “火田民生活状態調査”, 『朝鮮研究資料』.

松山利夫(1986), “濟州島의 佃作農耕文化”, 『山村の文化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朝鮮農會(1944), 『朝鮮農業發達史』.

朝鮮總督府(1926), 『火田の現状』.

朝鮮總督府(1929), 『生活状態調査 基二, 濟州島』.

朝鮮總督府(1933), 『朝鮮の聚落』.

朝鮮總督府山林局(1928), 『火田調査報告書』.

仲摩照久 編(1930), 『朝鮮地理風俗 上·下』, 神光社.

佐々木高明(1965), “燒畑農業の研究とその課題:燒畑の比較地理學への一序論”, 『人文地理』 제17권 제6호.

泉靖一(1971),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會田重吉(1926), “濟州島の産業事情”, 『朝鮮』 108, 朝鮮總督府.

樸田一二(1976), 『濟州島の地理學的研究』, 弘詢社.

〈구술조사〉

강시병(67세), 한림읍 귀덕3리 중산간 서로 5075(2022.9.21).

강숙관(84세), 서귀포시 사홍동(2022.06.04.).

박창부(83세), 상천리 병약로 401(2022.09.24.).

김수철(65세), 서귀포시 도순동(2021.3.13.).

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about culture of slash-and-burn cultivation in Jeju.

Gwan-Hun Jin, Man-ik K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over and utilize the cultural contents of slash-and-burn cultivation in Jeju. The study of modern history in the Jeju should stem from the study of slash-and-burn cultivation, and the study of slash-and-burn cultivation · farmer are key heritage that can reveal the reality of Jeju's modern history. However, research of Jeju's slash-and-burn fields and social interest are low. Few basic surveys an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how Korean slash-and-burn cultivation agriculture, which is believe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Silla Dynasty, has adapted and changed according to the natural conditions, geographical environment, and changes in agricultural technology of Jeju Island, and what its original form is now.

Therefore, we should systematically examine various slash-and-burn cultivation and farme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ased on this, we should study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process, cultivation method, and lifestyle, culture, and folklore of slash-and-burn cultivation farmer in Jeju Island.

The basic step for this, "Discovery and Utilization of Jeju-do slash-and-burn cultivation Culture," can be carried out in various forms based on the lives of slash-and-burn cultivation village and peopl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oduce cultural contents for slash-and-burn cultivation farmer using the slash-and-burn cultivation culture of Jeju Island. For example, slash-and-burn cultivation farming method, house, charcoal baking and hunting, and herbal digging can be important key words for understanding slash-and-burn cultivation culture.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Jeju

slash-and-burn cultivation and farmer through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various cultural contents based on Jeju slash-and-burn cultivation culture, and activation of dark tourism.

To this end, this paper will first examine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slash-and-burn cultivation, and then summarize the lives and culture of the slash-and-burn cultivation people in Jeju.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present specific measures for the discovery and utilization of Jeju slash-and-burn cultivation culture; cultural content production and dark tourism.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진 관 훈
공 동 연 구 강 만 일

제주학연구 78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문화 조사연구

발행인 || 김 순 자

발행일 || 2022년 12월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TEL.(064)726-5623 FAX.(064)747-6140

www.jst.re.kr

인쇄처 || 일신옵션인쇄사

ISBN : 979-11-977601-5-0 9306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